

위대한 개츠비 영어 한글 번역

1 장

I

제 1 장

“네가 누군가를 힐난(비난)하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은 말을 명심해라. 모두가 네가 가질 수 있었던 행운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위의 문장은 내가 좀 더 어리고 훨씬 더 취약했던(←남들로부터 더 비난받을 구석이 많았다는 의미임) 시기에 내 아버지께서 충고랍시고 한 말씀이었다. 물론 난 그 이후 이 말을 가슴 속에 담았고 시간이 날 때면 늘 숙고해보곤 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든 힐난(비난)하고 싶을 때면,” 아버지께서 내게 말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네가 일찍이 누리온 혜택들을 누리울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다.”라고.

그리곤 더 말씀하시진 않았다. 하지만 우린(아버지와 ‘화자’=소설 속에서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주인공. 화자는 주인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보다는 마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별남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아버님의 말씀 속에는 그가 다 표현하지 못한 그 이상의 깊은 속내가 함축되어 있다고 이해했다.

그 결과 나는 모든 일에 대해, 판단을 뒤로 미루고 숙고해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 습관은 나를 남의 일을 후비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표적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난 적지 않은(많은) 노련한 놈들의 총알 받이가 되어야 했다.

정상인에게서 4차원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면, 4차원적인 사람들은 재빨리 이를 탐지하고서 자신들의 4차원적인 면을 정상인의 4차원적인 면에 갖다 붙인다(쉽게 판단을 못하다보면 엉뚱한 소문이나 골탕 먹는다는 의미임).

이런 일은 내 대학시절 때도 찾아왔는데, 대학시절 난 정치적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비난받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엉뚱하게도 있지도 않은 이들의 슬픈 비밀들을 알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에서였다.

그들 대다수의 비밀이란 게 내가 원치도 않은 것들이었다. 그래서 자세한 속사정을 알게 될 듯한 상황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일부 명백한 징후를 감지할 때면 난 종종 조는(자는) 체 하거나 뭔가 딴 일에 열중한 척하거나, 또는 대놓고 출싹거리는 남자인양 굴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내밀스러운 비밀, 또는 적어도 그들의 말로 표현되는 용어들이라는 게 보통은 “(누가 무엇 무엇이라고) 카더라 통신”이 출처이거나 명백한 억눌림에 대한 반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판단을 미루는 것은 무한한 희망의 문제인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고상한 척 년지시 말씀하셨고 내가 앞에서 신사인 척 되풀이해 말했듯이 기본적인 예절에 대한 감각이 출생 시 고르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는다면 그건 내가 삶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약간의 걱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딴 식으로 내 아량(포용력)을 뺏낸 이후에야, 나는 그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품행(행동)이 ‘단단한 바위’나 또는 ‘젖은 늪지대’ 위에 기반을 갖출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어떤 특정한 시점(나이) 이후론 나도 그것이 어디 위에 기반을 두고 있든 상관 않게 되었다.

내가 지난 가을에 동부(미국의 동부)로 되돌아왔을 때 난 내가 그 세계(동부? 서부?)가 변치 않는 곳이길 원했고 영원히 도덕적인 친절의 종류 위에 있기를 바랐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즉 특권 계급(부자)이어서 누릴 수 있었던 짧은 경험들을 가지고서, 인간의 심성 속으로 난폭하게 탐색하는 것을 더 이상 원지 않았던 것이다.

오직 '개츠비'(주인공)만이, 이 책에 자신의 이름을 준 오직 그 남자만은 예외였다. 내 반발에 대한 예외 말이다.

개츠비만이, 내가 젠체하지 않으며 경멸하고 비웃는 모든 것을 대변하는 인물인 것이다.

만약 중단 없이 계속되는 일련의 성공적인 제스처(행위)들을 개성이라 일컫는다면, 분명 그(개츠비)의 주변에는 사람을 눈부시게 하는 무엇인가가, 즉 생(인생)을 건 약속에 다소 고조된 감성이 그의 주변에는 있었다.

마치 자신(개츠비)이 1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는 '지진'도 감지해낼 수 있는 복잡한 기계 장치들 중 하나와 실로 긴밀하게 이어져 있는 마냥.

이런 민감성(자신이 목숨을 건 약속에 대한 민감한)은 ‘창조적인 괴팍함’이란 이름으로 종종 치장되는 무기력하고 활기 없는 감수성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다.

그것은 기대(자신과의 약속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터무니없는 선물이며,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발견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로맨틱한 기만함’이었던 것이다.

아니다, 마지막에 가선 개츠비(남자주인공 이름. 소설 속에서 개츠비는 여러 가지 가명<이름>을 사용합니다)가 옳았음이 판명되었다.

인간의 ‘결실(결과) 없는 슬픔’과 ‘숨쉬기 힘든 의기양양함’에 대해 내가 일시적으로 관심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바로 그 개츠비의 마음을 잡아먹고 그의 꿈들 뒤로 떨어진(보트가 지나가면 뒤로 뭐가 뚱뚱 떠다니듯이 = ‘떨어진’) 더럽고 불결한 쓰레기들(겉으로는 번지러하면서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물들) 때문이었던 것이다.

우리 집안은 미국 중서부 도시에서 3대째(할아버지-아버지-본인) 이어져온 부유한 명문가문이다.

캐러웨이(=화자=스토리를 얘기해주는 인물) 가문은 더 큰 명문가문에서 분화되어 나왔는데, 우리 집안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실은 ‘버클루 공(귀족)’의 후손이라는 설이 이어져오고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내 가게(=가게=핏줄=혈통)의 실제 창시자는 ‘내 할아버지’의 형님이시다. 그는 영국 땅에서 1851년에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10년 후 터진 남북전쟁 때는 다른 사람을 자기 대신 군대에 보내고 철물점 사업을 도매로 융성하게 시작했던 것이다. 물론 그의 일은 지금 내 아버지께서 이어받아 하시고 계시다.

내 아버지의 사무실 벽에 걸려 있는 다소 완고해 보이는 초상화 그림으로 판별해보건대 내가 이 ‘종조부’(친할아버지의 형)를 닮지 않았나 생각된다. 뭐 그렇다고 내가 그 분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말이다.

나는 ‘예일 대학교’(예일 대학교는 ‘뉴헤이번’에 있음. 뉴헤이번은 미국의 도시이름임)를 1915년도에 졸업했다. 내 아버지가 졸업하시고 딱 25년 만에 일어났다.

졸업 후 조금 있다가 나는 ‘위대한 전쟁’(제1차 세계 대전)으로 알려진 뒤늦은 ‘게르만 민족’(독일인)의 이동에 참전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내가 그만 전쟁 중 미국의 역습을 지나치게 제대로 즐겼다는 것이고 그래서 귀국해서도 안정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계 모든 이슈의 중심지라기 보단 ‘미국 중서부’는 그냥 세상의 변두리에 가까웠다.

그래서 나는 미국동부로 건너가기로 마음먹었다. 주식시장(원문에는 ‘채권을 매매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음)을 배워볼 생각이었다.

그때쯤엔 내가 아는 모든 이(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나 같은 독신 남(남자) 하나가 상에 수저 하나 더 올린다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진 않았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이모, 백모, 숙모, 고모 그리고 삼촌들 할 것 없이 마치 예전에 중학생인 나를 위해 입시전문 초 절정(^^;; 재밌으라고 삽입~) 사립 명문 고등학교를 골라주기 위해 모였듯이 내가 동부로 가 주식시장을 배우는 문제를 검토하고 또 검토하셨는데, 결국엔 “뭐?????”에서 “네가?”를 거쳐 “응?????”으로 되더니 “그러려무나.”로 귀결이 되었더랬다. 물론 이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조언을 해주시면서 그들은 오만 때만 인상과 주저함을 얼굴에 다 드러내시었다.

아버지께서도 승낙하셨다.

“그래 재정학에 대해 1년 동안 배워 보거라.”

그 후 또 여러 날의 지체를 겪은 후 나는 미국동부로, 영원히, 물론 그때 생각으로 영원히 미국 동부로 가 살 생각으로 넘어왔더랬다. 그러니까 그것이 1922년 봄의 일이었다.

미국 동부 도시에서 숙소를 구하는 일이 당장의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때는 따뜻한 계절(봄)이었고 난 막(방금) 넓은 잔디와 조화로운 숲이 있던 시골 마을을 떠나온 터였다.

그래서 같은 사무실에 있던 젊은 남자 한 명이,

“집 한 채를 구해 사무실로 통근하며 같이 지내자.”

라고 제안을 해 왔을 때 나는 ‘오, 땡 잡았다.’라고 생각했다.

그가 집을 한 채 구했다.

햇볕에 거칠어진 명색뿐인 ‘방갈로’(동서남북으로 난간이 튀어 나와 있는 베란다가 있는 1층 목조 주택. TV에 많이 나오는 펜션 상상바람~)가 월세로 자그마치 80만원이었다(원문에는 월세 80달러라고 나오는데 1922년도 미국 돈 80달러가 지금 얼마정도 하는 지 전혀 감이 안 와서 그냥 ‘80달러’를 ‘80만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돈이 얼마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읽기 쉽게 앞으로 그냥 통쳐서 제 마음대로 계산하겠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회사가 그를 워싱턴 지부로 발령을 보냈기 때문에 나만 그 집으로 입주하게 되었다.

나에게는 개가 한 마리 있었다.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곧이 말한 이유는 내가 그 집으로 이사하고 며칠 후 그 놈이 달아났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잠자리를 정리해주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줄 핀란드(나라이름) 여성 한 명을 고용했다. 그 여성은 전기난로(난방장치) 위로 몸을 기울여 핀란드 격언을 뭐라 뭐라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뭐 어쨌든 나는 구식(중고) ‘다지’(‘다지’ = 중급 승용차 이름) 자동차 한 대도 구입했다.

어느 날 아침, 나보다 더 최근에 이곳에 정착한 것 같은 어떤 남성 한 명이 도로에서 나를 멈춰 세우고는 “보쇼, ‘웨스트 에그 빌리지’(서쪽 달걀 마을?????)로 어째 가요?”라고 오도 가도 못하는 표정으로 내게 길을 묻기 까지 나는 하루인가 이틀 인가를 무료하게 지냈었다.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나서야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래 나도 가이드(길 안내자)고, 개척자이고 정착민이다.’

우연히도 그 남성은 내게 ‘내가 이 지역 주민이라는 자유’를 부여하고 간 것이었다.

‘빠르게 재생되는 영화’ 속에서 보면 생물들이 자라는 것과 똑같이, 나무들 위로 폭발할 듯 자라고 있는 잎들과 햇살들을 맞으며, 나는 여름이 돌아옴에 따라 삶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친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우선 읽을 책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리고 새로운 활기를 주는 공기를 허파로 펌프질해댔으로써 건강도 다져야했다.

나는 ‘은행업’과 ‘채권’ 그리고 ‘투자 유가 증권’(=‘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에 관련된 12권의 책을 구입했다.

그 책들은 '화폐 주조소'(조폐국)에서 가져온 새 돈 마냥 붉은 색과 금색 빛깔을 띄며 내 선반 위에 올려졌다. 그 모습은 마치 그들 책들이 '미다스 왕'(그리스 신화. 손에 닿는 것은 모두 금으로 만드는 왕)과 '모건'(미국 금융 자본가) 그리고 '마에케나스'(고대 로마의 정치가)만이 알고 있던 눈부신 비밀들을 내게 펼쳐 보일 것을 약속이나 하는 듯 보였다.

그 외에도 나는 여타 많은 책들도 읽어재길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었다.

대학 시절에도 문학이 취미였던 대다가, "예일대 교지(예일 대학교 신문)"에 1년 동안 아주 진지하고 명료한 신문사설을 쓰기도 했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런 모든 화제(문제)들을 내 삶으로 다시 되돌릴 생각이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모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몇 안 되는, 소위 "균형 잡힌 전문가"가 될 생각이었다.

다음과 같은 말은 단지 하나의 경구(=잠언=진리를 품은 짧은 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창(창문)에서 바라다본 인생이 결국은 가장 성공적이다."

(참고 :

"1장"에서, 캐러웨이(=화자=스토리를 얘기해주는 인물)가 월세 80 달러짜리 집을 구했다고 나옵니다. "햇볕에 거칠어진 명색뿐인 '방갈로'(집 종류)"의 월세가 80달러라고 나오는데 계산해보니 2015년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만 원'정도 되네요. 월세가 140만원이면 많이 비싸군요. 참고하시길~ 이 기준으로 앞으로도 소설 속에 나오는 돈 계산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겠습니다.)

(참고 :

소설 속에 나오는 ‘이스트 에그’와 ‘웨스트 에그’ 지도를 한 번 봐 두세요. 나중에 헛갈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볼 필요 없이 ‘이스트 에그’와 ‘웨스트 에그’가 모두 서쪽에 있는 강을 향해 ‘특!’ 돌출해 있다는 것과, ‘이스트 에그’와 ‘웨스트 에그’가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서쪽으로 똑바로 가면 뉴욕 맨허튼이 나온다는 사실도 소설 이해를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우연한 일이었다. 내가 북아메리카(미국)에서도 가장 이국적인 지역 중 하나에 거처를 구했다는 사실이 말이다.

내 거처는 뉴욕에서 똑바른 ‘동쪽 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는 훑쪽하고 떠들썩한 섬(개츠비의 저택이 위치한 섬이기도 함. 신흥부자들이 사는 동네임. 하지만 섬의 건너편 지역은 기존 부자들이 사는 동네임) 위에 위치해 있었다.

그 섬(화자의 집이 있는 섬) 지역에는, 여타 진기한 자연 모습들 사이에서도, 두 가지 유별난 ‘섬의 형상(모양)’이 갖추어져 있었다.

뉴욕 시로부터 32킬로미터 떨어진 한 쌍의 어마어마한 달걀 2개 마냥, 100번 양보해서 그걸 ‘만’(바다가 육지로 휘어져 들어간 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만’(=강)에 의해 이 두 달걀 지역이 서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두 지역의 등고선(높이)이 또한 아주 비슷했다.

그리고 광대하게 펼쳐진 ‘롱아일랜드 수로’(구글 지도 참조=수로=해협을 말함)의 습한 앞마당(=물이 흐르는 강), 즉 ‘서쪽 영역’(왼쪽에 ‘뉴욕 맨허튼’이 있고 가운데에 ‘달걀을 닮은 2 지역’이 있고 오른쪽으로 ‘롱섬’이 있다는 의미임) 바닷물 중에서도 가장 개발된 수역(물의 색깔이 대서양과는 달리 남색임) 속으로 돌출해 있었다. (원문에는 ‘개발된 수역’이 아니라 ‘가축화된 구역’이라고 나와 있음. 위대한 개츠비에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음. 원래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의미로 읽혀질 수 있는 단어 또는 다른 느낌의 단어인데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뜻이 바뀌면서...-_-;; 원 소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자와 개츠비가 사는 지역이) 완전한 달걀 모양은 아니었다. 콜럼버스 이야기(미국이 인도가 아니라는 비난을 받자 계란을 책상에 탁 치고 계란을 세우고는 ‘니가 한 번 해봐라. 계란 세우는 거!’라고 말한 일화. ^o^)에 나오는 계란처럼 두 지역(롱섬 서쪽에 있으며 달걀 2를 닮은 지역)은 서로 맞붙는 부분이 부딪혀 충돌해 들어간 모양새였다.(포스팅 맨 위에 있는 구글 지도를 참조바람)

하지만 달걀을 닮은 그 두(2) 지역이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 위를 나는 갈매기들조차도, 그 두(2) 지역은 부단히 두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흉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두(2) 지역을 하늘에서 내려 볼 수 없는 인간들이 땅에 발을 디디고 봤을 때는 그 2 지역이 모양과 크기만 빼고는 모든 특성들에 있어서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자연 현상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

나는 ‘웨스트 에그’(서쪽 달걀)에 동지를 털고 있었다. 글썄, 두 달걀(‘이스트 에그’라는 동네와 ‘웨스트 에그’라는 동네) 중에서도 좀 덜 상류 사회 분위기가 나는 곳이었다.(웨스트 에그는 신흥 부자들이 살기 시작한 동네기 때문에 상류 사회 특유의 느릿함이 덜하다는 뜻임. 하지만 먹고 마시고 놀고 휘황찬란한 것은 두 동네 모두 막상막하)

방금 내가 한 말(화자가 사는 ‘웨스트 에그’가 좀 덜 상류 사회 분위기가 나는 곳이라는 말)이 이들 두 동네의 차이를 별나게 나타낸 지나치게 피상적인(표면적인) 설명이고 좀 덜 유식한 비교였다손 치더라도 말이다.

내 집은 ‘웨스트 에그’(신흥부자동네)의 끝자락에 있었다. ‘롱아일랜드 해협’(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으로부터는 딱 50미터 쯤 떨어져 있었다.

뭐 굳이 멀리 돌아갈 것도 없이, 내 집은 한(1) 시즌(3개월)에 2억 1천만 원 ‘내지는’(또는) 2억 6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야 지낼 수 있는 두(2) 거대한 저택 사이에 끼여 있었다.

내 집 오른쪽에 있는 저택은, 어느 기준으로 보나 대단한 물건(집)이었다.

한 쪽 벽면을 온통 뒤덮고 있는 가는 수염 자락 같은 야비한 담쟁이덩굴들 아래로 하늘을 향해 높이 질주해 있는 타워(탑)가 달려 있는 그 집(개츠비의 저택)은, 마치 노르망디(영국 해협을 바라보고 있

는 프랑스 땅)에 서서 영국해협을 바라보고 서 있는 호텔 같은 ‘시청’(관공서)을 그대로 본떠 만든 모조품이었다. 또한 대리석이 짝 깔린 수영장도 딸린 저택이었으며 잔디밭과 정원크기만 자그마치 162,000 제곱미터(m²)(162,000 제곱미터m² = 0.16 제곱킬로미터km² = 5만평 = 일반적으로 5만평의 면적이란 보통의 대학교 크기의 절반 크기입니다. 정원만 대학교 크기의 절반이라니 참 넓죠~)에 달하는 저택 중에서도 대저택이었다.

그 대저택이 바로 개츠비가 살고 있는 집이었다.

실수했네. 난 아직 개츠비 씨를 몰라야 하니, 그 대저택을 그냥 개츠비 씨라는 이름을 지닌 어떤 신사가 노르망디 시청과 똑같이 지은 저택이라 정정하겠다.

뭐 어쨌든, 내 집 양쪽으로 있는 집들이 대충 이 정도니, 그들이 보기에 내 집은 거슬려도 한참 거슬리는 집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집에 비해 내 집이 워낙에 작았기 때문에 그들도 너그럽게 눈감아 주는 것 같았다.

이쯤 되니 롱아일랜드 해협을 바라보는 전경도 장난이 아닌 대다가 이웃집 잔디밭까지 내 집 정원 마냥 내려다볼 수 있고 게다가 내가 백만장자(부자)의 집 가까이에 산다는 위안거리까지 얻게 되니 이 건 뭐 내 집 월세 140만원(화자의 집 월세)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다.

100번 양보해서 그걸 ‘만’(바다가 육지로 휘어져 들어간 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만(강)을 가로질러 건너 편 쪽으로 가면 해협(바다)을 따라 이스트 에그(동쪽 달걀, 기존 상류층 부자동네)의 패셔너블한 궁전들이 번들거리며(반짝반짝 빛나며) 짝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 여름의 역사(스토리)는 내가 ‘톰 뷰캐넌’ 부부와 함께 저녁식사를 가지러 거기(이스트 에그=동쪽 달걀=기존 상류층 부자동네)까지 차로 건너간 그날 저녁 날로부터 시작한다.

데이지(데이지=이름, 뷰캐넌=남편 성씨)는 ‘내 아버지 사촌’(아버지의 사촌)의 딸이었다(6촌).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톰은 대학 때부터 내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그리고 나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온 후, 시카고에서 그들 부부와 2일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다.

데이지의 남편인 톰은 운동 신경이 탁월했다. 특히 예일대(학교) 시절 그는 정말이지 전무후무한 풋볼(미식축구) ‘타이트 엔드’(수비 형 공격수들??? ^0^ 공격 시 패스도 받고 수비 시 상대방 공격수를 몸으로 충돌해 막기도 하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이었다.

21세(대학생)라는 그런 이른 나이에 이미 정점을 찍었던 여러 인물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후 그가 보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실망의 자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을 정도다.

톰의 가문은 대단히 부유한 집안이었다. 심지어 용돈으로 생활하는 대학 시절에도 씹씹이가 너무 헤퍼서 욱먹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톰은 시카고(미국 도시)를 떠나, 남을 깜짝 놀라게 하는 방식을 취하며 동부(미국 동부)로 건너왔다.

내가 굳이 남을 깜짝 놀라게 하는 방식을 그가 취하며 건너왔다고 말한 이유는, ‘레이크 포레스트’(시카고 옆에 있는 도시.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 ‘레이크 포레스트’라는 도시의 위치는 몰라도 됨)에서

이사해 올 때 그가 폴로 경기용으로 훈련시켜둔 민첩한 조랑말들을 떼거지로 끌고 같이 건너 왔기 때문이다.

내 나이 또래에 있는 남자가 그렇게나 많은 조랑말들을 기를 만큼 부자일 수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왜 ‘뷰캐넌 부부’(툼과 데이지)가 동부(미국동부)로 건너왔는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알기로 그들은 특별한 사정이 생겨 프랑스에서 1년 동안 체류했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폴로(말 타고 하는 운동경기) 경기가 펼쳐지는 곳이면 어디든 그리고 흥청망청 노는 곳이면 어디든 여기 저기 떠돌아다녔다.

이번엔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 동부로 왔다고 하는 것 같았다. 데이지(= 여주인공 이름 = 이미 결혼했음)가 (전화)수화기를 통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그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았다.

물론 내가 데이지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선견(눈)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난 툼(=데이지의 남편 =온 몸이 울퉁불퉁 근육투성이인 남자)이 영원히 한 곳에 정착할 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전성기 시

절 맛보고곤 했던 풋볼(미식축구) 경기의 드라마틱한 흥분을 동경해 그 흥분을 갈구하며 떠돌아다닐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약간 후끈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저녁, 나는 두(2) 오랜 친구들을 만나러 물론 말이 친구지 아는 거라곤 거의 없는 그 두(2) 친구들을 만나러 나는 '이스트 에그'(동쪽 달걀. 기존 상류층 부자들의 동네)로 차를 몰고 갔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집은 내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들여 지어진 집이었다.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하얀 색과 붉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대저택은 '조지'(영국 왕. 스페인하고도 전쟁하고 프랑스하고도 전쟁 했다가 국방비가 너무 많이 나 미국 차에까지 세금 물리려다가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나 미국이 독립해버린 영국 왕. 미국 독립했을 때 멘붕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왕조' 시대 때의 (미국)식 민지풍의 건축양식의 흐름이 물씬 풍겨지는 대저택이었다.

이건 뭐 잔디밭이 잔디밭이 아니라 숲 속의 빈 터라고 느껴질 정도로 넓었다. 잔디밭은 해안가에서 시작해 대저택의 현관정문까지 대충 눈으로 재보아도 400미터는 족히 이어져 '해시계'(정원 장식품)와 '벽돌 벽'(정원 내 벽돌 벽을 말함) 그리고 따 오르는 듯 한 정원을 넘어 내뻗어 있었다. 잔디밭은 그러고도 계속돼 저택의 본채(집)로까지 가 근사한 덩굴장미로 변신한 다음 지금까지 달려온 추진력으로 집 옆벽까지 사뿐히 넘겨버리려는 듯 발버둥치고 있었다.

본채(집) 정면은 프랑스제 창문들에 의해 구분되어져 있었는데 그 창문들은 더운 바람을 내뿜는
오후 아가씨에게 활짝 개방된 채 금빛을 반사하며 불타고 있었다.

바로 거기 프런트(앞) 포치(지붕이 있는 현관) 아래에 두 다리를 뚝하니 벌린 채 ‘툼 뷰캐닌’(데이
이지의 남편. 근육 남)이 서 있었다. 물론 이 더운 날 승마용 의복을 제대로 다 착용하고서 말이다.

.....

툼(데이지의 남편. 근육 남)은 예일 대학교에 다닐 때보다 확실히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 말투가 다소 고약하고 거만한 태도에 억센 ‘밀짚’(batz을 여러개 펼쳐 놓고 납작하
게 눌러 납작하게 만든 모양^0^) 머릿결을 한 30세 남성이었다.

거만한 두 눈이 반짝거리며 그의 얼굴에서 쑥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공격적으로 몸을 앞쪽
으로 쑥이고 있다는 고약한 인상을 상대방에게 주었다.

몸은 또 어찌나 근육 투성이인지, 심지어 승마용 의복의 여성적인 날렵함도 그의 육체가 지니고
있는 거대한 힘을 숨길 수 없었다.

맨 위 부츠(구두)끈이 딱 조일 때까지 당겨 신은 그의 부츠는 퐁퐁 불은 채 빛나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두 어깨가 ‘가냘픈 외투 조각’ 아래에서 움직일 때면 근육이 덩어리 채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이걸 뭐 거대한 지렛대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잔인한 근육 덩어리 그 자체였다.

크게 말할 때면 나는 그의 통명스럽고 거친(허스키한)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도 괴팍해 보이는 그에게 성까지 잘 낸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가 내뿜는 높은 목소리 안에는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조차 '세습적'(원문엔 '아○지의'라고 되어 있음) 경멸의 기미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예일 대학교 시절엔 그의 뻔뻔스러움을 싫어하는 족속(사람)들이 많았다.

“내가 니들보다 훨씬 힘세고 사내다우니까,”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이제 부터 이 주제들에 대해 내 생각이 확정적이라 생각하지 마.(까불지 마^0^)”

우린 대학시절 같은 '상급생(4학년) 클럽'에 가입돼 있었다.

우리가 일면식도 전혀 없던 동안에도, 그는 '다소 거칠고 공개적으로 탐내는 듯한 태도'로 '나를 인정'하며 '나도 그를 좋아해주었으면 하고 바란다'는 인상을 내게 주었다.

우리는 양지바른(햇빛이 비치는) 포치(지붕이 있는 현관)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괜찮은 집을 얻은 것 같아.”라며 톰(데이지의 남편. 근육 남)이 말했다. 그 짧은 시간에도 그의 두 눈은 차분히 있질 못하고 주변 여기저기를 향해 빛을 내뿜고 있었다.

한 팔로 나를 돌려세우더니, 자신의 널찍하고 평퍼짐한 손으로 ‘프런트(앞) 포치’(지붕이 있는 현관) 앞을 가리켰다. 열린 포치(현관)를 통해 낮게 깔린 이탈리아 식 정원과, 코가 매서울 정도로 짙은 향을 풍기는 장미들과,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밀려가는 물결에 철썩철썩 부딪히고 있는 사자(동물) 코 모양을 한 ‘모터보트’ 한 대가 멀리 내다보였다.(모터보트 앞부분이 하늘을 향해 쏘아 있다는 의미임)

“드메인’(사람이름. 대신 안 나오는 이름임)이란 기름장수(석유 기업가) 놈의 집이었지.”라며 톰이 나를 다시 돌려세우더니 정중하면서도 그렇지만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다.

“그만 안으로 들지.”

우린 높이가 높은 복도를 지나 ‘밝은 장미 빛깔’을 한 공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은 프랑스식 창문들에 의해 공간 양쪽 끝부분이 집과 매우 허술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건물 안까지 살짝 들어온 것 같은 선명한 빛깔의 잔디들에 기대 ‘조금 열려 있던 창문’들이 새하얗게 번쩍이고 있었다.

산들바람이 집 내부로 불어와 한쪽 끝에 있던 커튼들을 안쪽으로 훑날리더니, 힘이 빠졌는지 깃발을 살짝 건들 듯 다른 쪽에 있던 커튼들을 밖으로 날리더니, 설탕을 위에 뿌린 결혼식 케이크를 연상시

키는 천정 위를 향해 올라가더니 고통으로 몸을 한 번 비틀고 난 후에야, 바람이 바다 위에서 늘 상 그러하듯 검붉은 색깔을 한 ‘양탄자’(카펫보다 작음. 방 중앙에 둠) 위로 가 조용히 잔물결을 일으키며 사라졌다.

그 방에서 완전히 멈춰 있는 물체란 터무니없이 큰 소파 하나 뿐이었다. 거기에 두(2) 여성이 마치 달을 내린 풍선기구 위에 누워 있듯 누워 있었다.

둘 다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 드레스들은, 그 두 여인이 집 주변을 잠시 비행한 후 막 되돌아온 것 마냥 잔물결을 일으키며 흘날리고 있었다.

바람이 커튼을 채찍질하며 물어뜯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잠시 서 있었을 것이다. 그건 내가 벽에 달린 그림 한 점이 내는 투덜거림을 들으며 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소란은 ‘툼 뷰캐너’(30세. 데이지의 남편)이 방 뒷창문들을 모두 닫고 나서야 멈추었는데 갈 곳을 잃은 미풍이 그만 방바닥에 대짜로 누워 즉사해버렸기 때문이다. 곧이어 커튼과 양탄자(방 중앙에 있는 작은 카펫) 그리고 그 두 여성도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둘 중 젊은 쪽 여성은 내가 모르는 이였다. 팔걸이가 없는 긴 쿠션 의자의 끝자락까지 몸을 쭉 뻗은 채 마치 그녀 자신의 턱 위에 막 떨어지려는 물건을 올려놓고선 저울질을 하는 마냥 그녀는 턱을 살짝 든 자세로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만약 결혼질로 나를 본 그녀가, 그녀가 나를 봤다는 낚시도 내지 않았더라면, 난 정말이지 내가 먼저 그녀에게 ‘실례를 범해 휴식을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라고 나직히 말할 뻔했다.

소파 다른 쪽에 있던 여성, 그러니까 데이지(여주인공)가 일어나려고 시도했다.

그녀가 소심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앞쪽으로 약간 숙이더니 웃었다. 엉터리 같이 매우 매력적인 짧은 웃음이었다.

나도 그녀를 따라 웃은 후 방안으로 들어갔다.

“난 행복감에 마, 마비되어 있어요,” 자신이 방금 아주 재치 있는 얘기를 한 마냥, 그녀(데이지)가 다시 한 번 웃었다. 그리곤 잠깐 동안 내 손을 잡고 마치 그녀가 이토록 만나길 고대했었던 이는 이 현

실에서 이 남자 밖에 없었다는 듯이 내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건 그녀가 주로 하는 행동이었다(그녀는 원래 그랬다).

그녀가 조용하게 작은 목소리로 소삭이었다.

“그녀의 성은 베이커예요.”라고.

난 언젠가 데이지가 작게 소곤거리는 이유가 남자들로 하여금 자기 쪽으로 몸을 숙이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들곤 했었다. 하지만 당치도 않은 비난이었고 그런다고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매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좌우지간, 그녀(이름이 ‘베이커’)는 입술을 ‘샬룩거리며’(입술을 비뚤게 하며) 거의 알아차릴 세도 없이 내 쪽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인 다음 재빨리 전처럼 고개를 뒤로 젖혔는데 그 바람에 자신이 턱으로 균형을 잡고 있던 물건이 눈에 띄게 순간 뒤뚱거렸는지 그녀가 흠칫 놀라했다.

다시 한 번 내 입에서 사과의 말이 나올 뻔했다.

완전히 도도한 자부심(금지)으로 충만한 그녀의 어떤 모습이 그만 내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어 찬사의 말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사촌(=데이지) 여동생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막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여러 질문을 던지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막을 위아래로 쫓아가게 만드는 종류의 목소리였다. 마치 각각의 음색이 두 번 다신 연주되지 않을 피아노 음표의 나열들 같았다.

데이지의 얼굴은 슬퍼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화사한 무언가, 즉 빛으로 충만한 그녀의 두 눈빛과 자신을 애육에 빠지게 해달라고 반짝이는 것 같은 입술이 있어 전체적으로 사랑스럽다는 인상을 주었다.

또한 그녀의 목소리엔 그녀에게 관심을 주었던 단 한 차례라도 관심을 주었던 남성들이라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흥분이 도사리고 있었다.

귀를 울리는 총동, 속삭이는 설렘, “자 들어보세요.”, 그녀가 선사할 약속을, 좀 전까지만 해도 자극적인 즐거움들이 있었는데 이제부터 펼쳐질 다음 시간에도 즐거움의 흥취가 꺾가를 맴돌며 우릴 명량하게 해주리라는 즐거움이 그녀의 목소리엔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내가 미국동부(뉴욕 옆)로 건너오면서 어떻게 해서 시카고(미국북동부)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곳에 있던 12명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녀에게 안부를 전하게 되었었는지를 나를 그녀에게 얘기해주었다.

“그들이 나를 그리워하든가요?”라며 그녀(=데이지=여주인공)가 황홀해하며 소리쳤다.

“마을 광장엔 개미 새끼 한마디로 없더라. 자동차란 자동차엔 모두 왼쪽 뒷바퀴에 너를 그리워 한다는 의미를 담아 ‘화환’(꽃)처럼 검게 줄을 그어놓기까지 했다지 뭐냐. 게다가 너를 그리워해 우는 그들의 눈물소리들은 또 어찌나 구슬프든지 미시간 호(호수)의 남쪽 해안가(=노스 쇼어=북해안???=아래에 있는 네이버 지도 참조)를 따라 밤새도록 이어졌단다.”

(데이지의 대사→) “어머나 멋져! 우리 내일 당장 돌아가요, 톰(남편이름)!”

그러더니 “아기 봐야지.”라며 다소 엉뚱한 얘기를 그녀는 했다.

(화자의 대사→) “기꺼이.”

(데이지의 대사→) “애 자고 있어. 이제 3살인데 그동안 한 번도 못 봤지?”

(화자의 대사→) “그래 한 번도.”

(데이지의 대사→) “이번엔, 꼭 보고 가야해 알겠지. 그 애는...(남편의 눈치를 살핌).”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톰 뷰캐넌(데이지 남편의 이름)은 한 곳에 가만 머물지 못하고 방 여기저기를 맴돌고 있었다.

그러더니 멈춰 서선 내 어깨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말했다.

“너 지금 뭐해(직업이 뭐야), 닉?”(화자의 성=닉 / 화자의 이름=캐러웨이)

“증권(채권) 맨이야.”

“어딘데?”

내가 그에게 사무실 이름을 말해주었다.

“난생 처음 듣는 곳이군.”라며 그가 기뻐하는 듯 일갈해버렸다.

이것이 나를 짜증나게 했다.

(화자의 대사→) “곧 (내가 다니는 회사 이름을) 듣게 될 거야.”라며 나는 짧게 대꾸해주었다. 그리고
리곤 “네가 동부에 계속 머물 생각이면 말아야.”라고 덧붙여주었다.

(근육 맨-툼 뷰캐년의 대사→) “오, 우린 영원히 동부에 머물 작정이니 그런 걱정일랑 말게.”라며
그가 데이지를 한 번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곧 내게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의 행동에서 나는 그가
지금 딱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며 그 일을 위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근육 맨-툼 뷰캐년의 대사→) “다른 곳에 가 살 바에야(이사를 또 할 바에야) 빌어먹을 놈이 되
고 말지.”

그때 미스 베이커 양이 말했다.

“당연하지!”

너무도 갑작스런 말이었기에 난 깜짝 놀랐다.

그건 내가 그 방 안으로 들어온 후 그녀가 내뱉은 첫 번째 단어였다.

내가 놀란 만큼이나 그 말을 한 그녀 또한 놀랐음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곧 크게 하품 하는 척을 해보이며 능숙하고 빠른 몸놀림들과 함께 일어섰기 때문이다.

“(몸이) 많이 굳었네.” 그녀(베이커 양)가 툭툭거렸다(불평했다). “하긴 정말 오래전부터 소파에 누워 있기만 했으니까.”

“날 쳐다보지 마,” 데이지가 토라지며 말했다. “널 뉴욕으로 데려가려고 오후 내내 난리법석을 뜬 건 나란 말이야.”

“(데이지가 칵테일 한 잔 마시라며 권하자) 됐어,”라며 식료품저장실에서 막 꺼내 온 4잔의 프루츠칵테일(밥 먹기 전에 먹는 주스)를 바라다보며 그녀(베이커)가 말했다. “체중조절하고 있는 중이니까(트레이닝에만 전념해야해).”

연회(식사)의 주인(톰 뷰캐넌)이 의심이 간다는 듯 그녀(베이커)를 쳐다보았다.

“원!” 톰이 유리잔의 바닥에 칵테일이 단 한 방울만 남은 마냥 자기 몫을 들이키더니 말했다. “네가 해내는 거 보면 놀라워, 나보다 나아.”

도대체 그녀(베이커)가 “해낸다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 잠시 어리벙벙해 하며 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를 눈으로 감상해보았다. 철도의 객차를 똑바로 세운 것 같은 그녀는 가냘픈 몸매를 한 가
○이 작은 여성이었다. 어린 사관학교 생도 같이 두 어깨를 뒤로 세게 젖히고 있었기 때문에 앞 쪽의 윤
곽이 한 층 드러나 있었다.

창백하고 매력적이면서도 불만을 품은 얼굴에서 뿜어져 나온 세련되고 호혜적인 호기심과 함
께 나를 되돌아보는 그녀의 눈빛은 태양에 그을린 것 같은 회색 빛깔 그 자체였다.

그때 문득 내가 전에 어딘에선가 그녀를 만났다가 또는 사진으로라도 그녀의 모습을 접했던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었다.

(베이커 양이 화자인 '닉 캐러웨이'를 바라보며) “웨스트 에그(동쪽 달걀. 신흥부자들이 사는 동네. 물론 화자는 신흥부자는 아니고 그냥 부자)에 사신다죠.” 베이커 양이 내가 거기에 사는 것이 경멸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거기 사는 누군가를 아는데.”

(화자인 닉 캐러웨이의 대사→) “전 한 사람도 모르는....”

(베이커 양의 대사→) “개츠비(남주인공이름)는 아실 거죠.”

(데이지의 대사→) “개츠비?” 데이지가 다그쳤다. “어느 개츠비?”

tickered on the table in the diminished wind.

내 옆집에 사는 개츠비라고 내가 채 말도 하기 전에 아침식사가 다 준비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과도한 근육으로 팽팽해져 있는 자신(툼 뷰캐넌)의 팔을 내 팔 아래로 힘껏 끼고서, 톼 뷰캐넌(데이지의 남편. 톼=이름. 뷰캐넌=성 씨)은 마치 체스판의 말을 다른 곳으로 옮기듯 나를 이끌고 그 방을 나왔다.

호리호리하고 힘없이 자신들의 두 손을 엉덩이 깨에 가볍게 얹고서 두(2) 여성은 우리를 앞서서 장미 빛깔로 칠해져 있는 포치(지붕이 있는 현관)로 걸어갔다. 포치는 저녁놀이 진 하늘 쪽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고, 현관에 차려진 식사테이블 위로 4개의 촛불들이 힘이 반쯤 빠진 미풍에도 약하고 재빠르게 실룩(움직)거리고 있었다.

“웬 촛불이람?”라며 데이지가 언짢아하며 말하더니 손가락을 이용해 촛불들을 하나씩 눌러나가며 꺾었다.

“일 년 중 낮이 가장 긴 날(하지 6월 21일. 미국도???)까지 가려면 아직도 2주씩이나 더 남았는데 참.”

그리곤 방금 그 행동이 즐거웠는지 얼굴에 화색이 돌며 우리를 바라봤다.

“그렇지들 않아? 일 년 중 가장 낮이 긴 날만 기다리다가 정작 당일 날이 되어서 잊은 적? 난 매년 그래. 매년 하지를 기다리지만 정작 그 날이 되면 놓치지 뭐야(툼의 아내로서의 삶과 주어진 일상의 연속이 따분하다는 의미).”

“뭔가 계획이라도 세워야 하는 거 아냐.” 미스 베이커 양이 마치 지금 막 침대에 든 마냥 테이블 의자에 앉으며 그것도 하품까지 하면서 한 말이었다.

“네 말이 맞아,”라며 데이지가 말했다.

(데이지의 말→) “그래서 어떤 계획? 우리 이제 뭘 할까요?”

데이지가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눌 상대가 나쁜인 양 내게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데이지의 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계획들을 해 오빠?”

내가 미처 뭐라고 대답 하기 전에, 두려움에 짓눌린 표정으로 그녀가 두 시선을 자신의 새끼손가락에 고정시키며 말했다.

“(데이지가 화자에게 하는 말) 봐!” 그녀가 토라졌다. “(데이지가 화자에게 하는 말) 나 다쳤어.”
우리 모두의 눈동자가 옮겨졌다. 새끼손가락 관절에 검푸른 멍이 들어 있었다.

(데이지가 남편인 톰을 가리키며 하는 말) “자기가 그랬어,” 데이지가 나무라는 투로 말했다. “의도적이 아니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자기가 그런 건 그런 거야. 아, 난 왜 이런 야수 같은 이와 결혼했을까..., 보기 싫을 정도로 근육이 과한 힘돌이 같은 이와.”

“내가 그 말 싫어한다고 그랬지.” 거슬렸는지 톰이 말했다. “남편에게 그런 말 하는 거 아냐, 농담으로라도.”

“이, 힘돌이,”라며 데이지가 계속해서 우겼다.

이따금씩 데이지와 미스 베이커 양은 수다라고도 전혀 볼 수 없는 마치 자신들이 입고 있는 새 하얀 드레스와 모든 욕망의 부재를 알리는 그녀 자신들의 공허한 눈빛만큼이나 인격이 가미되지 않은 가벼운 말들을 서로에게 일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상대방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차례가 되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여기 있었지만 단지 공손한 상류사회의 호감으로 서로를 대접하고 대접받으면서 톱과 나를 덤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식사가 이내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잠시 후면 저녁놀 역시 지고 우리들의 오늘도 별생각 없이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미국 서부와 예리하게(뚜렷이) 다른 점이였다. 미국 서부에서 저녁은, 실망스런 기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나, 또는 현재에 대한 순전히 겁먹은 두려움들 속에서도 미국 서부에서의 저녁은 종말(끝)을 향해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차근차근 재촉 받으며 나아갔던 것이다.(이 소설의 결말이 상당히 극적이며 또한 비극적일 것이라는 얘기임)

“미개인이 된 기분인데, 데이지.” 코르크(포도주 병의 마개) 마개 냄새가 나는 그렇지만 다소 인상 깊은 맛을 준 ‘보르도 포도주’(보르도=프랑스 남서부 항구=포도주 생산지)를 두 잔째 마셨을 때 내가 그녀에게 고백한 말이였다. “과일 키우는 얘기라도 해보렴, 그럼 나도 네 대화에 끼 수 있지 않겠니?”

나는 이 말을 하면서 내 말에 담긴 의미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내 말은 엉뚱한 방향으로 부터 태클(방해)을 받았다.

(툼이 화자에게 하는 말→) “얘기 잘 했네. 서구문명은 지금 산산조각 나 부서질 판이니까,”라며 톼(데이지의 남편)이 난폭하게 외쳤다. “그 문제(서구문명의 몰락)에 관해서라면 난 지금 끔찍한 염세주의자(경멸을 잘 하는 사람)일세. 어때 이 책 읽어봤나, 안 읽었다면 한 번 시간을 내서라도 읽어보게. 명저거든. 『유색 왕국들의 봉기』(소설가가 지어낸 책이름임. 이런 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문에 적힌 책 제목의 의미는 ‘유색인들이 세운 아시아 왕국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서구문명에 반기를 든다는 의미임). ‘고더드’(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을 쓴 소설가 ‘피츠제럴드’가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위해 그냥 임의로 지어낸 이름임)란 작자(놈)가 쓴 책이야.”

“이런, 아니(아직 그 책을 안 읽어봤네),” 그의 목소리 톤에 다소 놀라워하며 내가 말했다.

“글세 대단한 책이라니까 그러네, 우리 모든 백인들이 한 권씩 사서 읽어봐야 할 명저고 말고.

이제부터라도 경계하지 않았다가는 유색인종들에게 완전히 복속당하고 말거라는 게 이 책의 요지지. 근거로 든 자료들이 하나 같이 과학적이야. 고증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어.”

“툼(데이지의 남편)은 점점 심오해지고 있어요,”라며 데이지(툼의 아내)가 별 생각없이 깊은 슬픔을 드러내며 말했다. “지루한 단어들만 나오는 깊이 있는 책들만 읽고 있습니다. (툼을 바라보며) 자기, 그 단어가 뭐였죠 왜 우리가 함께 읽었....”

“글쎄 이 책의 내용은 모두 과학적이라니까 그러네,”라며 톰(데이지의 남편)이 데이지를 성마르게(성급하게) 힐끗 훑어보며 주장했다. “이 친구(책의 저자)는 모든 답을 다 알아냈어. 이 책대로,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우리 지배인종에게 달려 있어. 그렇지 않았다가는 다른 인종의 지배를 받게 될 테니까.”

“억압은 우리가 해야 해요.” 작열하는(타는 듯한) 태양 쪽을 향해 표독스럽게(사납게) 눈을 깜빡이면서 데이지가 속삭인 말이었다.

“언니는 캘리포니아(미국 서쪽에 있는 주)에서 살아야하는....”라며 막 ‘미스 베이커 양’이 얘기를 꺼내려는 데, 톰(데이지의 남편)이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 방향을 힘껏 틀며 그녀의 말에 끼어들었다.

(톰이 ‘베이커’ 양에게 하는 말→) “이 책에 따르면 우린 모두 북유럽 계통의 백색 인종들이란 거야. 그건 나도, 너(베이커 양)도, 그리고 너(화자인 ‘닉 케러웨이’)도, 그리고...”

톰(데이지의 남편)은 순간 멈칫하다가 가볍게 고개를 한 번 끄덕이며 데이지도 포함시켰다.

그러자 데이지는 내가 방금 톰의 행동을 또다시 못 본 척 했다.

(톰이 베이커 양에게 하는 말→) “자, 인류가 문명화를 이룬 건 모두 우리 백인들의 노력 덕분이었어. 그래 과학 그리고 예술 그리고 기타 등등 말이지. 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알겠니?”

그가 지금 보이고 있는 정신적 집중력에는 애처로운 데가 있었다. 그건 마치 예전보다 훨씬 심각해진 그의 위안(자기만족)이 더 이상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 같았다.

그때 아주 별안간 본채(집) 안에 있던 전화기에서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집사(가사도우미)가 포치(식사테이블을 차린 현관)를 떠나 안으로 들어가자 데이지가 그 잠깐의 틈을 붙잡고 내게로 몸을 기대왔다.

(데이지가 화자인 ‘닉 캐러웨이’에게 하는 말→) “오빠, 우리 집 비밀 하나 알려줄까.” 데이지가 사뭇 진진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그건 바로 우리 집 집사의 코에 관한 비밀이야. 어때 집사의 코에 대해 들어보고 싶지 않아?”

(화자인 ‘닉’이 데이지에게 하는 말→) “아무래도 그 얘기를 들으러 오늘 내가 여길 방문한 것 같구나.”

“들어봐, 그는 원래 처음부터 집사는 아니었데. 원래는 은그릇이 200개가 넘는(수식받는 말→어떤 사람), 뉴욕에 있는 어떤 사람 밑에서 은그릇을 닦아 주는 사람이었데. 그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은을 닦고 또 닦아야 했고 그래서 결국엔 코에도 이상이 오기 시작했던 거야....”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었다 이거니?”라며 미스 베이커 양이 넌지시 말했다.

“네 말이 맞아.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었데. 결국 그(데이지 집의 집사)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말이야.”

(포도주를 마시고) 새빨강게 달아오른, 그녀의 얼굴 위로 마지막 햇빛이 가 닿았다. 아마도 그 햇빛도 애정을 표현하고 싶었을 정도로 그녀가 좋았나 보다.

그녀의 목소리에 이끌려 나는 숨죽이며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때 그녀 얼굴 위에 있던 홍조들이 하나 씩 색을 바래 미련을 남기 듯 생을 마감하고 있었다. 마치 땅거미가 깔려 더 이상 거리에서 놀지 못하게 된 어린이들이 그 자리를 떠나길 싫어하듯이.

집사(가사도우미)가 돌아와 톰(데이지의 남편. 근육 남)의 귀에 가까이 대고 뭐라고 뭐라고 중얼거렸고 그 때문에 톰이 눈살을 찌푸리며 자신의 의자를 뒤로 밀치고 일어나더니 한 마디 실례의 말도 없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마치 톰의 부재(없어짐)가 그녀(데이지) 안에 있던 무엇인가를 고무시킨 마냥, 데이지가 내게로 다시 몸을 숙여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새빨강게 달아오르다 못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데이지가 화자인 ‘닉 캐러웨이’를 바라보며 하는 대사→) “오빠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할 수 있게 돼서 넘 기뻐. 왠지 오빠를 보고 있으면 ㅈ... 장미가 생각, (갑자기 미스 베이커 양을 되돌아보며) 그렇지 애 이 오빠 새빨간 장미 한 송이 같지 않니?”

데이지가 자신의 방금 말에 확답을 해달라는 듯 미스 베이커 양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데이지가 베이커 양에게 하는 대사→) “새빨강고 순수한 장미?”

이건 사실이 아니었다. 난 장미의 ‘ㅈ’자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방금 그녀가 한 말이 즉흥적인 것이었다손 해도 그녀로부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정이 흘러나오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었다. 마치 그녀의 심장이 이 숨막힐 듯 감격적인 단어들 중 하나 속에 몰래 숨기고 있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마냥.

그때 갑자기 그녀가 자신의 냅킨(식사용 손수건)을 식탁 위에 내던지곤 “잠깐 실례하겠다.”는 말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의식적으로 미스 베이커 양과 나는 서로를 흘끗 쳐다보았다. 어색했다. 그래서 내가 막 무슨 얘기를 꺼내려는 데 그녀가 재빨리 자세를 바로 앉으며 경고성 목소리로 “쉿!”(조용히!)라며 말했다.

열띤 중얼거림 들이 방 저쪽에서부터 낮은 목소리로 들려왔다. 그러자 미스 베이커 양은 파렴치하게도 몸을 앞쪽으로 내밀며 엿들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 중얼거림 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규칙성을 가지려던 찰나 와들와들 떨리더니, 맥없이 가라앉았다가, 이내 곧 흥분하기 시작해서는 다음 순간 완전히 그쳤다.

“말씀하신 개츠비(남주인공) 씨는 제 이웃입니다만....”라고 내가 말했다.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요.”

“넛?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기라도 하는 겁니까?” 여태껏 분위기 파악도 못한 내가 순진무구하게 물었다.

“전 당신이 아는 줄 알았는데요?”라며 미스 베이커 양이 놀란 표정을 정직하게 다 드러내며 말했다.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런...” 그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툼(데이지의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네요. 뉴욕에 말이죠.”

“여자? 그에게 여자가 생겼다고요?” 전혀 뜻밖의 말에 내가 약간 멘붕이 되어서 했던 말을 또 하며 물었다.

미스 베이커 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식사 시간에 그를 전화기로 불러내다니 정말 예의범절이라곤 들은 적도 없는 여자일거예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난 여전히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몰랐고 그래서 가까스로 대화의 맥을 짚으려는데 드레스가 팔랑팔랑 흔들리며 다가오는 소리와 가죽 부츠(신발)가 저벅저벅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톼과 데이지가 식탁 뒤편에 이미 와 있었다.

“저희가 실례를 범했겠네요!”(원문엔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적혀 있음)라며 뒤가 켕긴 듯 데이지가 사뭇 쾌활한 음색으로 소리쳤다.

데이지가 자리에 앉았다. 데이지가 엄한 표정으로 미스 베이커 양을 한 번 힐끗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나도 한 번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곤 대화를 계속했다.

“잠시 정원을 내려다보았어요. 아주 로맨틱한 전경이었죠. 정원의 빈 터엔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었는데 전 그 새가 ‘커나드’(‘미국 서부’에 있는 ‘웨스트버지니아’라는 주에 있는 ‘어느 카운티’에 있는 ‘자치구 이름.’ 아래에 있는 구글 지도 참조바람)에서 온 나이팅게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화이트 스타 해운사’(영국해운회사 이름. 대서양 횡단 여객선 보유) 소속의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새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 나이팅게일이 피꼴피꼴 노래를 부르지 뭐예요....” 그녀는 자신이 노래하듯 말하고 있었다. “정말 로맨틱했지 뭐예요, 그렇죠, 자기?”

“아주 로맨틱 했네,”라며 톰이 대꾸했다. 그런 다음 그는 초라하게도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만약 저녁식사 후에도 잠깐이라도 빛이 있다면 자네에게 내 경마용 말들을 보여주고 싶네.”

(집)안에서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그러자 데이지가 단호하게 톰(데이지의 남편)을 보며 고개를 흔들어보였고 그와 함께 톰이 나를 데리고 자신의 경마용 말들을 보여준다면 얘기와 여타 다른 모든 주제들이 공중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식탁에서의 마지막 5분 동안, 파탄 난 단편들 사이에서 내가 기억하는 것이라곤 무의미하게도 촛불들에 다시 불이 붙어졌다는 것뿐이었다.

의식적으로 나는 그들 한 명 한 명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 모두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데이지(아내)와 톰(남편)이 집안에서 계속해서 올려대는 그 전화벨 소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는 추측할 수 없다. 심지어 어느 정도 짜증에 알가견이 있는 듯 보였던 미스 베이커 양조차도 다섯(5)번째로 올려대는 이 쇠소리 나는 금속성 손님(전화벨)의 집요함을 마음속에서 지울 수 있었을지 나는 의문이다.

어떤 성격의 사람에겐 이 상황이 호기심을 자아내는 경우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자신의 본능대로 하자면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경주용 말 얘기는 두 번 다시 식탁에 오르지 않았다.

땅거미가 지자 1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서재(책방)에 정말 손에 닿을 시신 한 구가 놓여 있고 자신들은 그 시신의 곁에서 불침번(밤샘)을 서기 위해 들어가는 것처럼 톰(데이지의 남편)과 미스 베이커 양은 땅거미가 지자 1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서재로 들어갔다.

반면 나는 내가 오늘의 식사를 즐겼고 흥미로워 했다고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며 또한 약간은 귀가 안 들리는 척 노력하며 데이지를 따라 남쪽 포치(현관)와 연결되어 있던 여러 개의 베란다(집의 동서남북 발코니)들을 따라 북쪽 ‘포치’(현관)로 갔다.

검은 그림자가 끼는 가운데 우린 버드나무의 작은 가지들로 만들어진 긴 안락의자(소파) 위에 나란히 앉았다.

데이지(여주인공)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마치 자기 얼굴의 사랑스러운 형태를 느껴보려는 듯 보였다. 그러더니 그녀의 두 눈이 차츰 조용하고 어두컴컴한 데를 향하는 것이 보였다.

몹시 사나운 감정들이 그녀를 사로잡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녀의 흥분을 다소 진정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녀의 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다.

(데이지가 화자인 ‘닉 캐러웨이’에게 하는 말→) “우린 서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네, 오빠.”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심지어 우리가 사촌임에도. 오빠 내 결혼식에도 안 왔었지.”

(화자인 ‘닉 캐러웨이’가 하는 말→) “전쟁(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 중이어서 올 수 없었어.”

“그건 맞아.” 그녀가 망설였다. “있지, 나 그동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어. 그래서... 난 지금 모든 것에 대해 아주 냉소적이야.”

정말 그녀는 그럴 만도 했다. 난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더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난 잠시 틈을 들인 후 우리 대화의 주제를 다소 부드러운, 데이지의 꼬마 숙녀에 관한 이야기로 이끌었다.

(화자인 '닉 캐러웨이'가 하는 말→) “태어난 지 몇 해 됐으니 지금쯤이면 말도 하고 그리고... 먹기도 하고 웬만한 건 다 할 것 같은데.”

(데이지가 하는 말→) “오, 그럼.”라며 그녀가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들어봐 오빠. 그 애가 태어났을 때 내가 그 애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었는지 말하게 해줘. 들어볼래?”

(화자인 '닉 캐러웨이'가 하는 말→) “무척.”

(데이지가 화자인 '닉 캐러웨이'에게 하는 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사에 대한 내 생각을 알 수 있을 거야. 그 애가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되었을 때였어, 글썄 난 그 애 아빠인 톰(남편)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몰랐어. 난 완전히 버림받은 기분으로 에테르(마취약)에서 깨어났어. 그리고 곧바로 간호사에게 아들인지 딸인지를 물었지. 간호사가 말하더라, 공주님이라고, 그래서 난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곤

울었지. '그래 잘됐는지도 몰라.'라면서. 내가 말했어. '하느님, 공주님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요 전 그 애가 백치(바보)로 컸으면 좋겠어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귀여운 백치야 말로 여자가 이 가혹한 현실에서 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인걸요.'

(데이지가 화자인 '닉 캐러웨이'에게 계속해서 하는 대사임→) “나 끄찍하지.”라며 확신하는 말투로 데이지가 말했다. “오빠도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든 사물을 끄찍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지. 하지만 모두들 그런 걸(그렇게 삶을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가장 진보적일 것 같은 이들도 그건 마찬가지야 오빠.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냐고?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 온 줄 알아, 그리고 무엇을(남편인 톰의 바람=이사 가는 곳마다 톰은 딴 여자들과 살림을 차렸고 그래서 데이지가 알고 다시 이사를 하고 또 그곳에서 바람이 나고 또 이사하고를 반복하다 뉴욕 옆에 있는 '웨스트 에그'<서쪽 달걀. 기존 상류층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까지 오게 됨) 보아왔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했었는지.”

그녀의 두 눈이 반항하듯 사방으로 번쩍였다. 어떤 면에서 그녀의 지금 이 모습은 톰(남편)을 많이 닮아 있었다.

곧 그녀에게서 오싹할 정도로 자신을 비웃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데이지가 자기 자신을 경멸하며 하는 말→) “세파(모질고 거센 세상살이)에 닳고 닳은 여자, 오 하느님, 제가 그런 여자가 되다니요!”

절박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순간 그치고 내 주목을 끌려는 것을 그녀가 관두었을 때, 난, 그녀가 했던 말들이 위선일 거란 느낌을 받았다. 그것이 나를 매우 불편하게 했다. 마치 오늘 저녁 식사자리 전체가 손님인 나에게서 ‘오늘 식사대접 잘 받았습니다.’라는 감사의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교하게 꾸며진 일종의 속임수였던 마냥.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이젠 정말 이 패턴을 읽고도 남았다.

이내 곧 그녀가 사랑스러운 얼굴 가득 방실거리며 나를 쳐다보는 것이다. 마치 그녀가 지금까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이 아니라 실은, 자신(아내)과 톰(남편)이 꽤 이름이 알려진 어느 비밀 사교모임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주장이라도 했었다는 마냥.

(장소이동 : 데이지와 화자는 이제 집안으로 들어옴) 집 안에서 장미가 활짝 핀 것 마냥 ‘진한 붉은 빛깔’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톰(데이지의 남편)과 미스 베이커 양은 긴 소파의 양쪽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톰을 위해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그 책은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토요일 저녁 잡지=미국의 종합잡지 =위대한 개츠비를 쓴 피츠 제럴드가 단편소설을 기고하기도 했던 잡지. 잡지 사진은 ‘샤넬맘’님의 네이버

속삭이는 듯 하고 말에 변화가 없는 영어 단어들, 마음을 달래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에 담겨 이어지고 있었다.

툼의 부츠(신발) 위에서 광채를 내고 있던 등불, 가을철 떨어진 단풍나무의 노란색 잎을 연상시키는 베이커 양의 머리카락들 위에서 반짝이고 있던 등불이, 미스 베이커 양의 두 팔에 붙어 있는 얼마 안 되는 근육이 팔랑거리며 그녀가 책장을 넘길 때면 책장을 따라 등불이 작게 반짝거리고 있었다.(뭔 소리여? -_-;; 난 정말 문장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면 당황스러움. 일단 넘기는 걸로. 패스~)

우리가 방으로 들어서자 미스 베이커 양이 한 손을 들어올리며 ‘잠시만 침묵을 지켜줘’라며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다.

“다음 호(간행물.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는 연 9회 발행되었다고 네이버 영어사전에 나오네요)에서,”라며 그녀가 테이블 위에 읽고 있던 잡지(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를 가볍게 던지면서 말했다. “계속됩니다.”

그녀의 신체가 잡지 읽느라 너무 오래 한 자리에 앉아있었다며 한 번은 일어나줄 것을 강권하는 듯했다. 그래서 그녀가 일어났다.

“10시네(밤10시).”라며 그녀가 천정에 달려 있던 시계를 통해 현재 시각을 확인하며 발언했다.

“10시면 상냥한 소녀에겐 잘 시간이지.”

“조단(조단 베이커. 이름이 ‘조단’, 성 씨가 ‘베이커’. 소설 속에서 프로 여자골퍼로 나옴)은 내일 토너먼트(경기 대회)가 있데.”라며 데이지가 부연설명을 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뉴욕 위.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 위쪽에 있는 곳이라는 데.” (이 곳에 “허드슨 힐스 골프 코스”라는 골프장이 지금도 있음)

(화자인 ‘닉 캐러웨이’가 깜짝 놀라며 하는 말→) “아차... 당신이 ‘조단 베이커’(소설 속에서 프로 여자골프로 나옴)이셨군요.”

나는 그제야 내가 왜 그녀(미스 베이커 양)의 얼굴이 낯익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 담긴 애교 있고 남을 알아보는 듯한 표정을, ‘애슈빌’(미국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도시)과 ‘핫스프링스’(미국 남부 아칸소 주에 있는 도시) 그리고 ‘팜비치’(미국남부 플로리다 주

에 있는 마이애미 위에 있는 해안도시)에서 있었던 시합 때 스포츠 모델로 찍힌 그녀의 수많은 사진들을 ‘윤전 그라비아 인쇄’(윤전=신문지 찍듯이 롤지로 막 찍는 거. 그라비아=비싼 종이에 찍는 인쇄의 종류) 물들을 통해 내가 보았었던 것이다.(해석이 또 이상하네...-_-;; 일단 패쓰~)

나는 또한 그녀에 관한 몇몇 일화(이야기)들도 들은 바가 있었다. 대개는 그녀를 흠잡는 불유쾌한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전에 들은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은(소설을 쓰는 지금이 아니라 미스 베이커 양을 만난 지금) 까먹었다.

(미스 베이커 양의 대사→) “굿나잇(잘 자).”라며 그녀(미스 베이커 양)가 상냥하게(부드럽게) 말했다. “8시에 깨우는 거 잊지 말고, 알겠지.”

(데이지의 대사→) “네가 일어난다면.”

(미스 베이커 양의 대사→) “꼭 일어나고 말테니까 걱정 마. 굿나잇(안녕히), 미스터 캐러웨이 씨. 조만간에 또 뵙겠네요.”

(데이지의 대사→) “아, 물론 넌 그를 또 보게 될 거야.” 데이지가 그녀의 말에 확답했다. “사실 어느 누군가의 혼담을 좀 성사시켜볼까 생각 중이거든. 우리 집에 자주 들러줘, 닉 오빠(닉 캐러웨이). 난 두 사람을... ㅎㅎ 함께 장롱 속에 넣어두었음 좋겠거든요. 아시겠죠, 두 사람을 침대시트를 넣어두는 장롱 속에 사고인 양 가두고 보트 한 대에 그 장롱을 담아 바다로 떠미는 그런 모든 종류의 것들을 한번 시도해볼까 생각중이야.”

(미스 베이커 양의 대사→) “잘 자.” 미스 베이커 양이 위층으로 가는 계단을 밟으며 말했다. “방금 그 얘긴 못 들은 걸로 할게.”

(베이커 양이 위층으로 올라가고 난 뒤 톰이 베이커 양을 지칭하는 하는 말→) “멋진 여자야.”라며 잠깐 뜬눈을 들인 후 톰이 말했다. “그들(베이커 양의 친척)이 그녀를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게 하지 않았음, 좋겠는데.”

(데이지의 대사→) “누가요?” 데이지가 차갑게 물었다.

(톰의 대사→) “그녀의 가족들이지.”

(데이지의 대사→) “저 애의 가족이란 단지 1천 년은 더 나이를 먹었을 법한 아주머니(고모) 한 분이 다예요. 게다가 이젠 닉(=닉 캐러웨이=데이지의 사촌오빠=이 소설의 화자=말하는 사람) 오빠도 저 애를 보러 종종 우리 집을 들를 테고요, 그렇지 오빠? 저 앤 이번 여름 주말 마다 여기서 시간을 보낼 거거든. 내 생각에 따뜻한 가정의 느낌이 저 애에게 많은 좋은 영향들을 미칠 것 같아.”

(데이지가 가정의 훈훈함이 베이커 양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을 하고 나서) 데이지(아내)와 톰(남편)은 말없이 잠깐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뉴욕 출신이야?” 보다 못해 내가 황급히 물었다.

(데이지가 화자에게 하는 말→) “고향은 루이빌(미국동부 켄터키 주에 있는 강 옆에 있는 도시)이야. 우리 순수했던 소녀시절을 루이빌에서 같이 보냈거든. 우리 그때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순수했....”

(남편인 톰이 아내인 데이지에게 하는 말→) “당신(데이지), 입으로 나오는 대로 이것 저것 다 얘기한 거 아냐?”라며 톰(데이지의 남편)이 데이지에게, 내가 데이지와 베란다(발코니)에서 나누었던 내용을 갑작스레 물어왔다.

“내가요?”라며 그녀가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톰이 화자인 ‘닉 캐러웨이’에게 하는 말→) “쓸데없는 말들이니 귀담아 들어두지 말게. 그건 그렇고 우리가 북유럽계 백인 인종에 관한 담소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그랬던 것 같군. 뭐랄까 우리 백인들 뒤로 몰래 다가온 유색 인종들은..., (대화의 주제를 급히 되돌리며) 우선 자네가 알아야 할 건, (톰이 화자를 한 번 쳐다보며)”

(톰이 화자인 ‘닉 캐러웨이’에게 ‘또 다시’ 하는 말임→) “자네가 들은 모든 것을 믿지 말라는 것이네, 닉(화자의 이름).”라며 그가 내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난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다며 가볍게 말했다.

그리고 몇 분 후 나는 집으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남편인 '툼'과 아내인 '데이지')은 사각형 포치(현관)까지 나를 바라다준 뒤 기분을 밝게 하고 싶어서인지 백색 조명 바로 아래에 나란히 섰다.

내가 내 차에 시동을 걸러하자 데이지(여주인공이름)가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는 나를 한 대 칠 듯이 다가오며 말했다.

“잠깐만 오빠!”

(데이지의 말→) “깜빡하고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오빠, 중요한 거야. 저때 약혼했었다고 하지 않았어? 서부(미국서부)에 있을 때 말이야.”

“맞아,”라며 톼도 적이나(쓸데없이) 친절하게 확인해주며 말했다. “자네가 어떤 처자와 약혼했단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말이야.”

(화자인 '닉 캐러웨이'의 말→) “그렇게 말하면 명예훼손이야. 난 약혼하기엔 너무 가난하다고.”

(데이지의 말→) “아냐 오빠, 우린 오빠가 약혼했단 소리를 분명 들었는걸.”

그 말을 하는 데이지의 얼굴에 아름다운 꽃길이가 다시 한 번 활짝 열렸다. 그래서 나는 적잖이 놀라고 있었다.

데이지가 막무가내로 주장했다.

(데이지의 말→) “내가 전해들은 사람만 해도 벌써 세(3) 사람은 넘어, 그럼 진실인 거잖아.”

물론 나는 그들(남편인 ‘툼’과 아내인 ‘데이지’. 데이지는 이 소설의 여주인공입니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난 약혼의 ‘약’자도 하지 않았다.

사실은 이랬다. 어느 신문사의 가십(잡담) 담당 기자가 당사자들도 모르는 ‘결혼 예고’를 발행한 데서부터 내 약혼 이야기는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미국서부를 떠나 미국동부로 오게 된 여러 이유들 중 하나인 것도 맞다.

소문 때문에 오랜 친구(약혼 소문이 난 여자친구)와 담을 쌓을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반대로 인륜지대사(결혼)를 소문에 등 떠밀려 할 생각도 내겐 추호도 없었던 것이다.

그들(툼과 데이지)의 관심이 나를 얼마간 감동시켰다. 그 덕분에 그들이 나와는 전혀 동떨어진 부자들처럼 느껴졌었던 방문 초기의 인상이 다소 누그러진 것도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로 돌아오는 도중에 나는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얼마간 (속이) 역겨웠다.

데이지가 지금 당장 그 집에서 할 일은 아이(딸)를 품에 안고, 짐을 싸들고서 그 집을 뛰쳐나오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을 것임도 분명해보였다.

툼(데이지의 남편)에 관해서라면, 난 정말이지 그가 뉴욕에 딴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얘기가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놀라운 소식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내겐 차라리 그가 책을 읽고서 백색 인종의 몰락에 대한 염려로 그만 풀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내겐 더 충격적이었다.

아무도 읽지 않는 김빠진 책에 담긴 케케묵은 발상(백인의 몰락)이 그의 지력(생각)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보였다.

어쩌면 그건 자신(툼)의 강인한 육신에 대한 자만심이 더 이상 그(툼)의 독단에 빠져드는 마음에 자양분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벌써 여름이었다, 깊은.

“술집(도로변에 있는 허름한 여관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술집을 말함) 지붕 위”와, 주유소에 새롭게 들어선 붉은 색 주유기들이 빛의 웅덩이 속에 빠져 있는 “길가 주차장(주유소) 앞”엔 어느새 깊은 여름이 들어서 있었다.

‘웨스트 에그’(서쪽 달걀. 신혼부자들이 사는 동네. 물론 화자는 신혼부자는 아니고 그냥 부자???)에 있는 내 집에 도착했을 때, 자동차를 차고지 안에 넣은 후 마당에 방치되어 있는 ‘잔디 롤러’(땅 고르는 기계) 위로 가 잠시 앉았다.

바람이 세계 불었던 모양이었다. 내가 자리에 가 앉으려고 하자 나무의 날개(가지)들이 서로 부딪치며 시끄럽고 밝은 밤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주변 가득한 대지의 웅웅 울부짖는 소리들이 강가 개구리들에게 변화에 대한 활기를 불어넣어준 결과 뜰(마당)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바람이’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었다.’까지 전혀 정확하지 않은 해석인 거 아시죠.^0^;; 해석의 정확성에 대해선 전혀 책임지지 않음!!! 그런 걸 저에게서 기대하면 안 됨 :) ㅎㅎㅎ 하지만 해석의 큰 줄거리는 맞습니다.)

지나가는 고양이 한 마리의 검은 실루엣이 달빛을 가로지르며 흔들렸고,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사람의 형상 하나가 내 이웃집 맨션(대저택)의 검은 차양(햇빛 가림막) 속에서 불현 듯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호주머니들 속에 두 손을 집어넣고는 밤하늘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빛 후춧가루들’을 주시하며 서 있었다.

그의 여유 있는 몸놀림과 잔디밭 위에 두 다리를 단단히 고정시킨 모습 속에는 자신이 바로 ‘개츠비 씨’임을 온 사방에 과시하고 있었다. 그건 마치 자신이 머물게 된 이 고장의 하늘들 중에서 자신에게 배당된 하늘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해보기 위해 잠시 집 밖으로 나와 본 것 같았다.

그(개츠비)를 한 번 불러보기로 결정했다. 오늘 저녁 식사자리에서 미스 베이커 양이 그에 대해 언급한 것도 있고 하니 내 소개는 그것으로 될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그를 부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에서 그가 혼자 있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불연 듯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두 팔을 킁킁한 바다를 향해 호기심 가득한 자세로 짹 펴치고 서 있었던 것이다. 그가 나와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그때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음을 맹세할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은 그를 따라 바다 쪽으로 힐끗 돌아갔고 그리고 어쩌면 ‘부두’(해안에 배 대는 곳) 끝에 정말로 있었을 지도 모를 초록색 불빛 하나가 저 멀리서 아주 잠깐(1분) 깜빡인 것을 제외하곤 나는 건너편 쪽(=이스트 에그=동쪽 달걀=기존의 상류층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그 어떤 것도 식별할 수 없었다.

내가 다시 ‘개츠비’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땐 그는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다.

그래서 시끄러운 어둠 속에 나만 다시 남게 되었다.(원문에 있는 ‘시끄러운 어둠’이란 표현을 ‘적막한 어둠’으로 바꾸어볼까 했는데 그냥 ‘시끄러운 어둠’으로 해석했습니다. 시끄러운 이유는, 바람이 세게 불었었기 때문에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쳐 소리를 내고 개구리들이 우니까 시끄러운 어둠이겠죠. 그래도 ‘적막한 어둠’으로 해석을 하든 ‘시끄러운 어둠’으로 해석을 하던 단어 하나 차이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신기~)

~

2 장

II

제 2 장

‘웨스트 에그’(=위의 구글 지도 참조)에서 뉴욕(‘웨스트 에그’의 서쪽)까지 가는 거리 중간쯤에는 ‘자동차도로’(차길)와 ‘철도 선로’(기차길)가 급하게 만나서 거의 400미터 가량을 나란히 달리는 지점이 있었다. 자동차도로와 철도 선로가 나란히 달리게 된 이유는, 섬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황량한(사람이 없고 사막 같은) 지역을 피해 길을 내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다.

이 지역을 ‘젯더미 계곡’(재=화산‘재’=폐허=주의가 온통 사막같이 연한회색)이라 불렀다.

그곳은 젯더미들이 밀가루처럼 쌓여 ‘산마루’(10미터 높이 정도의 젯더미 산)들과 언덕들 그리고 ‘기괴하고 이상한’(=사막 같은) 정원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다.(사막에 2층 또는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집이 몇 채 있고 가운데로 자동차 길이 횡하니 있고 온통 언덕뿐이고 전체적으로 사막 같은 느낌이 나면서 이 섬 같은 지역을 들어설 때 폐허가 된 4층 정도의 철근콘크리트 건물 한 쪽 벽면에 무섭게 생긴 의사가 안경을 쓴 채 마치 신처럼 자동차 운전자를 지켜보고 있는 기분 나쁜 그림이 있는 지역 상상바람)

이 지역의 재(타고 남은 연한 회색의 재)들은 가옥(집)들과 분연구(화산에서 연기를 내뿜는 구멍)들과 상승하는 연기 비슷한 것들의 모습을 취하다, 마침내는 초월적인(초자연적인) 노력을 통해 가루 투성이인 공기 속을 파헤치며 흐물흐물 움직이며 나아가는 듯하다가 이내 곧 바스러지고(부서지고) 있는 사람의 형상(모습)을 취했다.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에는 저자가 일부러 독자들이 읽어서 이해 안 되게 하려고 애매하게 쓴 곳들이 몇몇 있습니다. 2장의 처음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애매합니다.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소설의 큰 줄거리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소설의 분위기와는 매우 일치합니다. :) 황설수설~_~;; 만약 읽어서 헛갈리시면 이해안하시고 그냥 넘기셔도 나중에 소설 이해에 크게 지장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바퀴자국들을 따라 이따금씩 잿빛(원문→회색) 차들이 일렬로 기어들어와 정말이지 불쾌하기 이를 때 없는 “삐익!”하는 소리를 내며 정지하고 나면 잿빛(원문→회색) 복장을 한 사람들이 무거운 ‘가래 삽’을 들고 차에서 떼거지로 나와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먼지 구름을 일으키는데 그 먼지 구름들이 어찌나 심한지 결국에 가면 그 먼지구름이 당신의 시야와 작업인부들을 가릴 정도였다.

황폐한(쓸쓸한) 먼지들의 발작적 ‘경련들(먼지구름들)’이 잿빛(회색) 지면위로 끝없이 길게 떠다니고 나면 잠시 후 당신은 ‘티(T.) 제이(J.) 에클버그’ 의사의 두 눈을 보게 된다.

1미터 높이 가량의 홍채(눈)를 지닌 ‘티(T.) 제이(J.) 에클버그’ 의사의 두 눈은 새파랗고 거대하고 또 거대했다. 얼굴 외곽선은 없었다. 대신 채 다 그려지지 못한 코 위엔, 노란 페인트 물감으로 칠한 것 같은 거대한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그는 그 안경 너머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이 광고판에 관해서라면 의심할 여지도 없었다. 어떤 엉터리 같은 안과의사가 까분답시고 ‘퀸스 자치구’(=뉴욕 안쪽<동쪽>지역=웨스트 에그 서쪽. 아래에 있는 구글 지도 참조바람)에 있는 자신의 병원 매출을 올려보려고 그 광고를 거기에 설치했다가 어느 순간 계속되는 병원 매출 하락에 그 자신이 절

망에 빠져 영원히 눈이 안 보이게 되었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 광고판을 떼어내 가지고 가는 것을 깜빡 잊었었음이 분명했다.

다시 칠하지 않고 오래 방치된 데다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돼 이젠 색이 조금 흐릿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 눈은 우울한 ‘쓰레기 하치장’ 전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는 듯 보였다.

‘젯더미 계곡’(=쓰레치 하치장)은 폭이 좁고 더러운 ‘강’과 옆 ‘한 쪽’이 인접해 있다.

그래서 바지선(=짐 싣는 배=바닥이 평평함)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들어 올리는 다리’(도개교)를 올릴 때면 기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마냥 기다리며 30분 동안 그 재미없고 황량한 광경을 뻘뻘 쳐다보고 있어야 했다.

도개교가 올라가지 않을 때라도, 적어도 1분은 기차가 ‘젯더미 계곡’에서 한 번 멈춰야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툼 뷰캐년’(데이지의 남편. 근육 맨)의 정부(여자)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툼(=정확하게 30세=데이지의 남편. 근육 맨)에게 딴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은 그가 알려진 곳이면 어디서든지 강력히 주장되는 바였다.

툼의 지인(친구)들은 톼이 그녀를 데리고서 유명 레스토랑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게다가 정부(여자)와 왔으면서도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든 붙잡고 수다를 떨며 레스토랑 여저거기를 싸돌아다녔다는 사실에도 더 분개했다.

그녀를 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직접 만날 의향(생각)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만나게 되었다.

어느 오후에, 내가 톼과 함께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향할 때였다. 어느 때와 같이 우리가 탄 기차가 ‘젯더미’들(젯더미 계곡) 옆에 정차했을 때 그가 내게로 성큼 건너 뛰어오더니 내 팔꿈치를 확 잡아 당기고는 나를 기차간 밖으로 사실상 반강제로 끌어내렸던 것이다.

“내리게,” 그(=툼=데이지의 남편=근육 맨)가 주장했다. “내 자네에게 죽이는 여자를 보여주지.”

아무래도 이 인간이 점심 때 술이 만땅이 되도록 취한 것 같았다. “넌 오늘 내 일행”이라는 그의 결단은 거의 폭행 수준이었다.

거만한 그의 억측(예상)은 내가 일요일 오후에 마땅히 할 더 좋은 거리도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나(30세. 이름이 '닉 캐러웨이'. 이름=닉. 성=캐러웨이. 부모님이 부자)는 톰(30세. 데이지의 남편. 근육 남)을 따라 흰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던 높이가 낮은 '철도 울타리 담'을 넘었다.

1미터 가량의 새파란 홍채(눈)를 지닌 '티(T.) 제이(J.) 에클버그' 의사의 두 눈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린 그 아래로 나 있는 길을 따라 100미터(원문 91.44미터) 가량을 되돌아 걸어갔다.

이후 시야에 들어온 유일한 빌딩(3층 정도)이라곤 황무지(=버려진 땅) 가장자리(끝)에 놓여진 (수식받는 단어→'작은 건물'). 노란색 벽돌로 지어진 작은 건물(건물 하나에 상점이 3개 있는 건물) 한 채가 다였다.

그 건물이 이 황무지 속에 하나 달랑 있는 중심가를 지탱하고 있는 일종의 복합단지였던 셈이다. 그 건물을 제외하곤 인근에 어떤 건물도 보이지 않았다.

그 건물엔 3개의 상점이 들어서 있었다. 하나는 '세를 놓은 상점'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었는데 '젯더미 계곡'(쓰레기 하치장)에서 그곳까지 자동차 바퀴 때문에 생긴 새 자국들이 진하게 나 있었다.

세 번째 상점은 '차량 정비소 겸 주유소'이었는데 자동차를 팔기도 하는 곳 같았다. <자동차 수리 전문. '조지 비(B.) 윌슨'. 자동차 사고 팜.>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상점 속으로 톰을 따라 들어가 보았다.

장사는 잘 안 되는 것 같았고 내부에 가구도 거의 없었다.

눈에 보이는 유일한 자동차는 어두컴컴한 구석에 웅크린 채 먼지가 잔뜩 앉아 있는 사고 난 포드 자동차 한 대가 다였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햇빛이 닿지 않는 이 ‘차량 정비소’는 블라인드(가림 막)가 틀림없지 않을까? 2층엔 호화롭고 로맨틱한 침실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그때 정비소 주인이 못 쓰서 버려야 할 판인 녀마조각(휴지)로 손바닥을 비비며 사무실 문에 나타났다.

그는 살결이 희고 금발을 한 남성이었다. 하지만 빈혈기가 있는 지 기운이 없어 보였다. 어렵풋 하지만 잘 생긴 남자였다.

우리를 보았을 때, 그의 연한 청색 눈동자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한 가닥 희망이 샘솟는 듯했다.

“어이 이봐 월슨(차량 정비소 주인) 잘 있어나,”라며 톰(30세. 데이지의 남편)이 유쾌한 듯(즐거
운 듯) 월슨의 어깨를 사정없이 손바닥으로 “퍽!” 치면서 말했다. “어때 사업은 잘 되어가겠지?”

“드릴 말씀은 아니란 건 알지만,”라며 월슨(차량 정비소 주인)이 남자답지 못하게 설득력 없는
말투로 말했다. “언제 그 차(톰의 자동차)를 파시게 될 건지요?”

“다음 주라고 말하지 않았나. 내 놈(하인)들에게 공(노력) 좀 들이라고 말해 봤으니 걱정 말게.”

“수리 작업이 너무 더딘 건 아닙니까, 나리?”

“그럴 리가.”라며 톰이 잔인할 정도로 차갑게 말했다. “자네가 영 못 미더워한다면 내 딴 곳에도
알아볼 수도 있네.”

“제 말씀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라며 월슨이 재빨리 변명했다. “전 다만 그들의 작업이
너무 더디다고....”

월슨(차량 정비소 주인)의 말꼬리(목소리)가 서서히 사라지자, 톰(데이지의 남편. 근육 남)이 조
급하다는 듯이 건물 내부 여기저기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위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선이 굵
은 여성의 형상 하나가 사무실 문을 통해 들어오던 빛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30대 중반이었다. 약간 뚱뚱했다. 하지만 자신의 남아도는 살덩어리들로 섹시한 자세를 유지하며 서 있었는데 정말이지 특정 여성에게서나 가능한 자세였다.

물방울무늬가 달린, 짙고(검정) 파란 ‘크레이프드신’(=프랑스 비단의 일종=얇은 비단) 원피스 위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엔 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발산하고 있는 생명력의 근원을 나는 즉시 간파할 수 있었는데, 그건 마치 그녀 자신의 육신에 달린 모든 신경들을 그녀가 끊임없이 밖으로 표출하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마치 월슨(남편)이 그 자리엔 없다는 듯이 월슨을 그냥 통과하더니 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톰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녀가 침으로 자신의 두 입술을 적시더니 고개도 돌리지 않고서 자신의 남편에게 부드럽지만 목적이 뻔히 드러나는 추잡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이봐, 의자라도 가져다 드리는 게 어때, 그래야 이 분들께서도 앉을 수 있을 거 아냐.”

“아 참 그렇지,”라며 월슨(차량 정비소 주인)이 서둘러 동의했다. 그가 작은 사무실 쪽으로 갔다. 그 사무실은 시멘트(회색) 색깔을 한 벽들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대 지역에 있던 모든 것 위엔 어김없이 면사포(땃개)가 씌어져 있었듯이 월슨(차량 정비소 주인)의 작업복과 그의 창백하고 얇은 머리카락 위로 허연색(하얀색) 잿더미들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만은 예외였다. 그녀라니? 지금 톰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이 여자 말이다.

“만나고 싶소,”라며 톰(데이지의 남편)이 열렬히 말했다. “다음 편 기차를 타.”

(여자의 대답→) “알았어요.”

“역 지하 신문 판매대에서 기다릴게요.”라며 그녀가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그에게서 막 떨어지자마자 ‘조지 월슨’(=여자의 남편=차량 정비소 주인)이 자신의 사무실 문에 놓여 있던 의자 두 개를 양손에 쥐고서 나타났다.

우린(화자인 ‘닉 캐러웨이’와 ‘툼 뷰캐넌’) 길 아래로 가서 보이지 않게 서서는 그녀(툼 뷰캐넌의 정부=여자)를 기다렸다.

7월 4일(미국 독립 선언 기념일)이 되기 며칠 전이었다. 그래서인지 안색이 창백하고 야윈 이탈리아계 소년 하나가 철도 선로를 따라 일렬로 폭죽을 줄 세우고 있었다.

“끔찍한 장소지, 그렇지 않나?”라며 톰이 ‘티(T.) 제이(J.) 에클버그’ 의사(버려진 병원 벽면의
광고판)와 찡그린 얼굴 표정을 서로 교환하면서 말했다.

(화자의 대사→) “지독한 장소군.”

(톰의 대사→) “가끔씩 여기서 벗어나 주는 것도 그녀에겐 잘 된 일이야.”

(화자의 대사→) “그녀의 남편(=월슨=차량 정비소 주인)이 싫어하진 않아?”

(톰의 대사→) “월슨(그녀의 남편 이름)이? 그 자는 자기 마누라가 뉴욕에 있는 그녀의 여동생을
만나러 가는 줄로만 알고 있어. 그 놈은 자신이 살아있는 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바보란 말일세.”

~ ~ ~

그래서 ‘툼 뷰캐넌’(테이지의 남편. 근육 맨)과 그의 여자와 그리고 나는 함께 뉴욕으로 건너갔
다. 물론 완전히 함께 간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월슨 부인’(툼 뷰캐넌의 정부=여자)이 분별 있게(신중
하게) 다른 열차 칸으로 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차 칸 안에 있을 지 모를 ‘이스트 에그’(=동쪽 달걀=상류층 사회 기존 부자들의 동네) 주민들
의 정서를 따를 줄도 알았기 때문이다. 톰이 말이다.

그녀(데이지의 남편인 '툼'의 정부=여자)는 갈색의 무늬가 많이 장식되어 있고 속이 거의 다 비치는 고운 면직물로 된 드레스(옷)로 갈아입고 있었다.

툼이 뉴욕 정거장에 내리는 그녀를 도와줄 때 그 드레스가 그녀의 다소 널찍한 엉덩이 두 짝 위로 팽팽하게 늘어났더랬다.

역에 있던 신문 판매대에서 그녀는 「뉴욕의 고자질쟁이들」(작가가 지어낸 잡지이름임)이란 잡지 한 권과, 영화를 소개하는 잡지 한 권과, 그리고 역에 있던 약국(약도 팔고 화장품도 판)에서 '콜드크림'(화장품) 몇 개와, 작은 병에 담겨 있던 향수 하나를 구입했다.

지상으로 올라 온 후에도, 그녀는 엄숙하게 메아리치는 차도 속에서, 4대의 택시를 그냥 보낸 후에서야 비로소 의자 위에 젓빛(회색) 방석이 씌어져 있고 '라벤더 색'(연보라색)(라벤더 사진 링크 ► <http://me2.do/51EczUIF> , 검색일자 : 2015-6-29)을 한 신식(새로운) 택시 한 대를 골라잡아 탔다.

이 택시 안에서 우린 사람들로 미워터지는 가차 정거장을 벗어나 '작열하고 있는'(더운) 햇빛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하지만 그 즉시 그녀가 택시 창문에서 격렬히 몸을 틀어 앞 쪽으로 숙이면서 택시 앞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렸다.

“저 강아지 중 한 마리가 갖고 싶어.”라며 그녀(데이지의 남편인 ‘툼’의 그녀-_-;;)가 갑자기 매달렸다. “아파트에 한 마리 갖다 놓아도 되잖아. 가지고 싶어, 저 강아지들 중 한 마리를....”

우리(뉴욕의 택시)는, 터무니없게도 외모에서 ‘존 데이비슨 록펠러’(1839~1937,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사진 링크 ▶<http://me2.do/IG3viA46> 검색일자 2015-7-1)(이 소설은 1922년 여름이 배경입니다. 록펠러는 1922년에 83세였습니다.)을 연상시키는 백발(연한 회색) 노인이 서 있는 곳까지 택시를 후진시켰다.

그의 목에 매달려 있는 시장바구니 안에는, 품종(종류)을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이제 막 태어난 것 같은 뽀롱이 12마리가 겁을 잔뜩 먹고 웅크려 있었다.

“품종이 뭐예요?”라며 ‘윌슨 부인’(남편=윌슨)이 애가 탄 듯 물었다. 그러자 그 노인이 택시 창문 쪽으로 다가왔다.

(노인의 대사→) “모든 종류가 다 입습죠. 어떤 종류를 원하십니까, 부인?”

(여자의 대사→) “경찰견들 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부른 건데. 음, 당신은 그런 종류의 강아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군요.”

그(노인)는 못 미더운 듯 목에 달린 시장바구니 안을 살펴보더니 이내 자신의 손을 바구니 속으로 푹 집어넣고는 한 놈을 집어 들었다.

그의 손에 목덜미가 붙들린 뽀롱이 한 마리가 있는 힘껏 바둥거리고 있었다.

“경찰견이 아니잖아.”라며 톰(데이지의 남편)이 말했다.

“마 딱 잘라서 경찰견은 아니습죠.”라며 그 노인이 톰의 안사겠다는 식의 말투에 다소 실망한 듯 에둘러 말했다. “경찰견이라기 보단 ‘에어데일 테리어’(사냥용개??? 갈색의 큰 개. 사진 링크 ▶<http://me2.do/5PqQuYEJ> , 검색일자: 2015-7-1)에 더 가깝습죠.” 노인이 뽀롱이의 등에 난 갈색 얼룩을 쓸 어주며 말했다. “이 털을 보십쇼. 끝내줍쇼. 이 놈 하나만 있으면 절대 감기에 걸리시지 않을 겁니다요.”

“귀여운 것 같은데,”라며 월슨 부인이 안달이 나서 말했다. “얼마에 부를 거죠?”

“이 강아지요?”라며 노인이 자신의 손에 든 뽀롱이를 감탄스럽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다. “적어도 18만원(10달러)은 내셔압쇼.”

비바람에 견디는 털을 지닌 이 강아지를 그녀는 황홀한 듯 귀여워했다.

에어데일 테리어의 다리는 갈색인데 반해 이 강아지의 다리는 흰색인 게 놀랍기는 했지만 어쩔
든 이놈이 에어데일 테리어라고 보기에 타당한 구석이 분명 있었다.

“소년이에요 소녀예요?” 월슨 부인이 사뭇 우아한 듯 물었다.

“그 개요? 수놈입니다.”

“제기랄, 암컷이잖소,”라며 톰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돈 있소. 흰 개 한 마리에 18만원씩이
받아. 그 돈까지 받았으니 이제 10마리는 더 사겠군.”

.....

우리(택시)는 5번가(뉴욕의 변화가)까지 차(택시)로 나아갔다. 뉴욕의 햇살은 따듯했고 공기는
부드러웠다. 목축에 알맞은 날씨였다. 여름 날 일요일 오후였다. 이러니 내가, 새하얀 털을 가진 한 무리
(때)의 면양(양)들이 길모퉁이를 돌아 보였더라도 난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화자인 ‘닉 캐러웨이’가 택시 운전사에게 하는 대사→) “세워주세요,”라며 내가 말했다. “전 여기서 내려야합니다.”

“안 돼,”라며 톰이 재빨리 끼워들었다.

톰이 말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파트엘 안 들리면 ‘머들’(=여자이름=윌슨 부인의 이름)이 섭섭해 하잖아, 그럴 거지, 머들?”

“같이 가요,”라며 그녀가 재촉했다. “전화를 해서 여동생인 캐서린을 부를 테니까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애는 대단한 미인으로 통합니다.”

“글쎄, 그러곤 싶지만, 다만....”

우린(택시) 계속 나아갔다. 우린 센트럴 파크를 ‘가로질러 통과한 후’(=횡단한 후=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미상 ‘나아가고 있는 택시가 파크와 만났다가 다시 파크가 사라졌다가 다시 파크를 만났다는 얘기임’ -_- 뭔 소린지 더 헷갈리게 설명 ㅎㅎㅎ) 계속해서 ‘웨스트(서쪽) 100번대 거리’ 쪽으로 나아갔다.

158번가였다. 택시가 멈췄다. 기다란 하얀색 케이크 같은 모양을 한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길가 한 곳에 택시가 멈추었다. 158번가였다.

주변에 있던 이웃들에게, 귀환한 여왕 같은 눈빛을 내뿜으며 ‘윌슨 부인’이 자신의 개와 여타 구입품들을 주섬주섬 챙겨선 도도함을 뽐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맥키’네 부부를 오라고 해야겠는 걸,”라며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올라갈 때 그녀가 말했다. “물론 내 여동생보고도 오라고 해야지.”

아파트는 맨 꼭대기 층에 있었다. 비좁은 거실이 하나 있었고, 조그마한 식당 방 하나와, 작은 침실 하나, 그리고 욕실 하나가 딸린 아파트였다.

태피스트리(다양한 색의 실로 그림을 수놓은 것)가 덮인 가구 세트 하나가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거실을 문 앞에까지 꽉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거실을 이리 저리 옮겨 다니다 보면 베르사유(파리 근처 도시)의 정원들에서 당당하게 걷고 있는 숙녀들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는 부분에 걸려 계속해서 넘어지곤 했다.

그림도 한 점 걸려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 얼룩이 (저) 있는 바위 위에 암탉 한 마리가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다만 액자가 도가 지나치게 큰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멀리서 보고 있자니 어째 그 암탉이 서서히 ‘보닛’(턱 밑에서 끈을 매는 여성용 모자. 사진 링크 ▶ <http://me2.do/F87MGOos> , 검색일자 : 2015-7-2)으로 이해되는 것 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토실토실 살이 찐 귀부인의 얼굴이 방을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오래된(나온 지 오래된) 「뉴욕의 고자질쟁이들」(작가가 지어낸 잡지이름임) 몇 권이, 『베드로라 불리 운 시몬』(192‘1’년 당시의 베스트셀러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배경은 192‘2’년 여름입니다)(베드로와 시몬은 예수님 제자들)이라는 소설책과 함께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브로드웨이(뉴욕의 거리)의 추문(스캔)들을 다룬 조그마한 크기의 잡지들이 여럿 놓여 있었다.

월슨 부인은 지금 강아지에 신경 쓰느라 여념이 없었다.

심부름 가는 걸 내켜하지 않던 엘리베이터 보이(소년)에게 짚(=풀 조각)으로 가득 찬 ‘상자 하나’와 ‘우유’를 조금 사오라고 보냈더니만 딱딱한 강아지 사료(비스킷)로 가득 찬 깡통을 큰 걸로 하나 사왔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그 비스킷 중 하나는 무심하게도 우유 접시 속에서 오후 내내 퐁퐁 불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툼’(데이지의 남편이자 월슨 부인의 남자)은 잠금 장치가 된 서랍장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 놓았다.

내 인생에서 취한 적이 딱 두(2) 번 있었다. 그 두(2)번째가 바로 이 날 오후였다. 그래서 내 기억 속에는 이 날의 모든 것들이 흐릿함과 몽롱함으로 감싸여 있다. 비록 그 날 저녁 8시까지 아파트에 기운 찬 햇빛으로 가득했었지만 말이다.

월슨 부인은 톰의 무릎 위에 앉은 채로(-_-;;) 몇몇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라”고 하고 있었다.

담배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건물 밖으로 나가 길 모퉁이에 있던 약국에서 담배 몇 개를 사왔다.

아파트로 다시 돌아왔을 때 보니 그들(‘톰’과 ‘월슨 부인’)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난 그냥 분별 있게(신중히도) 거실에 앉아서 『베드로라 불리 운 시몬』(1921년 당시의 베스트셀러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배경은 1922년 여름입니다)(베드로와 시몬은 예수님 제자들)라는 소설책의 한 장(챕터)을 읽고 있었다.

그것이 지독한 졸작(나쁜 소설)이었거나 아님 위스키가 그것들을 온통 뒤엎겨 버렸든지 간에, 뭘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 소설이었다.

‘톰’(30세, 데이지의 남편이자 월슨 부인의 남자)과 ‘머들’(=여자이름=월슨 부인의 이름)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일단의 사람들이 아파트 현관문에 당도(도착)하기 시작했다.

머들과 난 첫 번째로 한잔 하고 난 후 서로 편하게 이름을 부르기로 했다.

■ 위대한 개츠비 2장의 배경 : 뉴욕 서쪽 158번가는 어디? (구글 지도)

구글 지도로 “뉴욕 서쪽 158번가는 어디?”인지 찾아보았습니다.

‘뉴욕 서쪽 158번가’(=‘톰’과 ‘월슨 부인’의 아파트)는 2장의 주된 무대입니다.

‘톰’과 ‘월슨 부인’의 아파트(탄살림) 주소예요.

참고하세요~

머들(=여자이름=툼의 여자)의 여동생인 ‘캐서린’은 훌쩍하고 약은(=세속적인) 여자였다. 대략 30 중반이었다. 붉은 색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머리카락들의 색이 유달리 짙고 머리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새하얀 화장을 얼굴에 온통 하고서 나타났다.

눈썹을 잡아 뽑은 다음 좀 더 경쾌한 각도로 다시 그렸지만, 기존 배열을 회복하려는 경향이 자연의 진리인지라, 그녀도 눈썹이 다시 났고 그래서 좀 더○운 인상을 주었다.

그녀(=캐서린=툼의 여자인 ‘머들’의 여동생)가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면 그녀의 두 팔 위에서 도기(도자기)로 만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팔찌들이 위 아래로 “찌르릉찌르릉!!!”거리며 끊임없이 움직여댔다.

너무도 집주인처럼 그녀가 황급히 들어와 자신의 소유물인 양 가구들을 이리저리 살폈기 때문에, 난 그녀도 여기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정중히 그 얘기를 꺼냈을 땐 그녀는 엄청 웃어댔고 사람들에게 내 질문을 큰 소리로 말하고 또 말했다. 그러더니 자신은 어느 호텔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맥키(남자이름) 씨는 창백하고 여성스럽게 생긴 남자였다.

그는 바로 아래층(한 층 아래)에서 살았다.

막 면도를 하고 나왔기 때문인지, 그의 광대뼈 위에는 새하얀 반점 같이 생긴 비누거품 자국이 묻어있었다.

방에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인사 하는 것을 보니 그는 대단히 예의바른 사람 같았다.

그는 내게 자신이 “예술적인 일”에 종사한다고 알려주었는데 내가 이후 대화를 통해 추론해보건대 그는 사진작가였다.

내가 앞서 묘사했었던, ‘월슨 부인’의 친정어머니의 사진을 찍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사진을 확대한 장본인이었다. 그 사진은 지금 벽 위에서 ‘심령체’(죽은 사람의 넋이 일정한 모양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물체) 마냥 벽에 아주 찰싹 달라붙어 있다.

맥키의 아내는 푸념을 자주 늘어놓고 기력이 없어 보였다. 외모는 단정했지만..., 한 마디로 꿈쩍한 여자였다.

그녀(맥키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사진작가이며 그녀 자신을 127번이나,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결혼한 이후로 127 차례나 더 찍어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윌슨 부인(툼의 그녀)은 그 사이에 의상을 바꿔 입은 상태였다. 그녀는 이제 크림 빛깔(흰색)의 시폰(실크로 만든 속이 비치는 얇은 옷)으로 지어진 정교한 ‘애프터눈 드레스’(오후용 드레스)를 착용하고서 “와삭와삭” 거리는 소리를 끊임없이 발생시키고 있었는데 드레스가 계속해서 바닥을 쓸고 다녔기 때문이었다.

‘애프터눈 드레스’(오후용 드레스)의 영향을 받아 그녀의 성격에도 또한 변화를 맞은 것 같았다. 자동차 수리소에서 그렇게도 눈에 띄었던 그녀의 강렬한 생명력은 이제 오만방자함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웃음소리들, 그녀의 몸짓들, 그리고 그녀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시시각각(점점) 광포해져(심해져) 갔으며,

끝내 자욱한 연기 속에서 원을 그리며 떠들썩하고 빼격거리며 회전한다는 인상을 내가 받을 때까지 그녀는 점점 커져 갔으며 반대로 이 룸(방)은 그녀에 비해 점점 더 협소해져만 갔다.

“애,” 월슨 부인이 섬세한 척 고상을 크게 떨면서 자신의 여동생을 큰 소리로 불렀다. “누구든 가능하기만 하면 언제든 널 등쳐먹으려 들게야. 그것들이 생각해 내는 거란 게 죄다 돈과 관련된 것뿐일 테니까 말이야. 발을 진찰해 볼 겸 지난주에 여기로 어떤 여자를 한 명 불렀지 뭐니. 그런데 글썽 그 여자가 건넌 청구서(돈)를 보고 난 그만 그녀가 내 맹장이라도 떼어준 줄 알았지 뭐니.”

“그 여자의 이름이 뭐였죠?”라며 맥키 부인이 물었다.

(월슨 부인의 대사→) “에버하트 부인이라더군. 사람들의 집을 돌며 발을 진찰해주는 여자래.”

(부연설명 = 에버하트 부인 = 월슨 부인의 아파트로 와서 월슨 부인의 발을 진찰하고 맹장 수술비와 같은 진료비를 청구한 여자. 소설 속 엑스트라. 다시 안 나옴)

“전 당신의 그 드레스가 마음에 들어요.”라며 맥키 부인이 의견을 피력했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러자 월슨 부인은 그 칭찬이 경멸스럽다는 듯이 눈썹까지 들어 올리며 그 말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말했다.

“미친 옷이지. 낡았고.” 월슨 부인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는 자리에 나갈 때나 슬쩍 몸에 걸치는 옷인걸요.”

“하지만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당신이 안다면,” 맥키 부인이 설득조로 말했다. “체스트(=맥키부인의 남편=여성스러운 얼굴을 한 사진사)가 지금 당신의 이 포즈(자세)를 잡아낼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그림이 될 것 같거든요.”

(사진을 찍어보라는 말을 맥키 ‘부인’이 하고 나서→) 우린 모두 침묵한 가운데 월슨 부인을 바라다보았다.

그러자 그녀가 눈 밑까지 내려와 있던 머리카락 한 올을 쓸어 올리며 찬란하게 빛나는 미소와 함께 우리들을 뒤돌아다보았다.

어느새 맥키 ‘씨’(사진사)는 고개를 한 쪽으로 기울인 채 월슨 부인을 진지하게 주목하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손을 얼굴 앞으로 가져가더니 그 손을 천천히 앞으로 뒤로 움직였다.

(사진사인 맥키 ‘씨’의 대사→) “조명을 바꿔 봐야겠어,” 잠시 후 맥키 ‘씨’가 말했다. “얼굴의 입체감을 좀 더 살려낼 필요가 있겠거든. 그럼 다음 그녀의 귀밑머리에 살짝 키포인트를 주는 거지.”

“조명을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라며 맥키 ‘부인’이 말했다. “제 생각엔 좀 더....”

맥키 씨(여성스럽게 생긴 사진사)가 “쉬!”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린 모두 그가 골똥하고 있는 피사체(=사진 찍히는 대상=월슨 부인)로 눈을 돌렸고, 상황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자 ‘툼 부캐년’(데지이의 남편이자 월슨 부인의 남자)이 모두들 들으라는 식으로 하품을 크게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맥키 씨 부부가 마실 게 좀 있지 않아.”라며 톰이 말했다. “머들(=월슨 부인의 이름), 얼음과 미네랄워터(샘에서 나는 물)를 좀 더 가져다 드리지, 모두들 잠들러 가시기 전에 말이지.”

(월슨 부인의 대사→) “내 이럴 줄 알았지, 얼음이라면 분명 승강기 소년에게 일러두었는데,”

그러면서 머들(=월슨 부인의 이름)은 심부름꾼들이 자신의 일처럼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경멸스럽다는 듯 두 눈썹을 치켜들었다. “저급한 종자들이란! 뭘 하나를 제대로 시키지를 못한다니까, 내가 늘 뒤에서 붙어 다닐 수도 없고.”

그러더니 그녀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의미 없는 웃음을 지어보였다.

그런 다음 그녀는 여봐란 듯이 자신의 강아지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 강아지에게 키스를 열렬히 해대었다. 그러곤 자신의 주문을 기다리는 12명의 유명한 요리사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도 하는 마냥 그녀는 부엌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롱 아일랜드(=뉴욕 ‘옆에+옆에’ 있는 섬=위의 구글 지도 참조)에서 꽤 괜찮은 작품 몇 개를 건진 적도 있는걸요,”라며 맥키 씨(여성스럽게 생긴 사진사)가 주장하고 나섰다.

툼은 사진엔 관심도 없다는 표정이었다.

맥키 씨가 계속 말했다.

“두 작품 모두 아래층(맨 꼭대기 층=윌슨 부인의 아파트. 바로 아래층이 맥키 부부의 집)에 액자로 제작되어 걸려 있지요.”

“뭐가 두 개라는 겁니까?”라며 툼이 뉘 소린지를 물었다.

“실험적 작품 두 개 말입니다. 둘 중엔 제가 <몬타우크 포인트의 갈매기들이여>(=지명임=위치는 아래 구글 지도를 참조 바람. 몬타우크 포인트는 ‘롱 아일랜드 맨 오른쪽 끝’임)라고 이름붙인 작품도 있고, <몬타우크 포인트의 바다여>라고 이름붙인 작품도 있습죠.”

내가 앉아 있는 소파엔 윌슨 부인의 여동생인 캐서린도 같이 앉아 있었다.

“당신도 롱 아일랜드에 사시나요?”라며 그녀가 물어왔다.

(화자의 대답→) “전 웨스트 에그(서쪽 달걀. 신흥부자들이 사는 동네. 물론 화자는 신흥부자는 아니고 그냥 부자???)에 삽니다.”

“정말요? 저도 한 달 전쯤엔가 파티 참석차 그곳에 갔었는데. 뭐라죠, 개츠비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어요. 그를 아시나요?”

(화자의 대답→) “제 옆집에 사는 걸요.”

(월슨 부인의 여동생인 캐서린의 대사→) “어머나, 사람들은 그(개츠비)가 ‘카이저 빌헬름 2세’(이 소설이 출간되기 4년 전에 82세의 나이로 죽은 독일황제. ‘카이저 빌헬름 2세 황제’는 독일을 처음으로 통일한 카이저 ‘빌헬름 1세 황제의 손자’임) 황제의 사촌이라던데. 글썄 그가 지금 쌓아놓고 있는 돈도 모두 거기(독일)에서 가져왔대나 봐요.”

(화자인 ‘닉 캐러웨이’의 대사→) “정말요?”

그녀가 자신의 말에 목숨이라도 걸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떡였다.

(월슨 부인의 여동생인 캐서린의 대사→) “전 그가 너무 두려워요. 어떤 식으로든 그와 얽일까 봐 무섭거든요.”

내 이웃(개츠비)에 대해 귀를 쫓긋 세우게 만드는 이러한 정보는, 맥키 부인이 갑자기 캐서린을 꼭 지목하며 들이대는 바람에 중단되고 말았다.

“체스트(=맥키부인의 남편=여성스러운 얼굴을 한 사진사), 애를 모델로 해도 하나 건질 것 같지 않아요,”라며 맥키 부인이 갑자기 말을 꺼냈던 때문이다.

그러나 맥키 씨(사진사)는 남편이 사업협상을 벌이는데 쓰잘머리(=쓸모)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듯 고개도 끄떡이지 않고서는 톰에게 다시 주의를 집중시켰다.

“들어가 볼 수 있는 자유만 된다면, 전 롱 아일랜드 섬에서 보다 많은 작품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로지 ‘스타트 신호(추천장)’ 한 장이면 됩니다.”

“머들(월슨부인의 이름)에게 부탁해보쇼,” 월슨 부인이 쟁반을 들고 나타나는 것을 보고 톰(데이지의 남편)이 한 바탕 웃어재끼더니 말했다. “그녀라면 당신에게 소개장 한 장 정도는 써줄 거요. 그럴 거지 자기?”

“뭐를요?”라며 그녀가 깜짝 놀라 물었다.

(톰이 월슨 부인에게 하는 대사→) “당신이 맥키 씨를 위해 당신 남편 앞으로 소개장 한 장 써봐. 그래야 이분께서도 당신 남편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해보실 거 아닌가.”

잠시 그(톰)의 입술이 조용히 떨리는 듯싶었다. 제목을 생각해보고 있었다.

“〈가솔린펌프(주유기) 앞에 게시는 ‘조지 비(B.) 월슨’〉(인물묘사는 2장 #6을 참조바람. 자동차 수리공. 월슨 부인의 남편) 어때, 제목 그럴 듯 해보이지 않아?”

캐서린(월슨 부인의 여동생)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왔다.

그녀가 내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저들 두 사람 모두 결혼 상대방을 못 견뎌 해요.”

“저들이요?”

“견딜 수 없을 거라니까요.” 캐서린이 머들(캐서린의 누나)을 한 번 쳐다보곤 그 다음으로 톰을 한 번 더 쳐다보더니 말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도대체 자신들이 견뎌 낼 수도 없는 상대방이란 계속 결혼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가예요. 만약 저들이 결혼상대방들과 깨끗이 갈라설 수 있다면 그럼 저들만 따로 살림을 차려 결혼해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누나 분이 월슨을 싫어한다고요?”

나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뜻밖의 방향으로부터 들려왔다.

그녀가 우리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곤 대답했던 것이다. 그건 화가 치밀면서도 추잡스럽다는 내 용이었다.

“저(거)보라니까요.”라며 캐서린(월슨 부인의 여동생)이 승리에 도취돼 소리쳤다.

캐서린이 다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런데 그(톰)의 아내가 갈라서는 것을 반대하나 봐요. 그녀(데이지)는 가톨릭 신자인데 아시죠, 그들은 이혼을 용납하지 않잖아요?”

데이지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다. 이 정교한 거짓말에 난 가벼운 충격을 받고 말았다.

“결혼만 하면,”라며 캐서린(월슨 부인의 여동생)이 계속해서 말했다. “저들(‘월슨 부인’과 ‘톰 부 캐넌’)은 서부(=미국서부=톰의 고향)로 건너가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힐 때까지 한 동안 머무를 거거든요.”

(화자인 ‘닉 캐러웨이’의 대사→) “그럴 거면 유럽으로 가는 게 더 분별 있지 않나요.”

“카악, 유럽을 사랑하세요?” 그녀(=캐서린=월슨 부인의 여동생)가 별안간 외쳤다. “몬테카를로(=모나코 공국의 도시=프랑스 남쪽과 이탈리아 동쪽 사이에 있음=관광지=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에서 막 돌아왔었거든요.”

(화자인 ‘닉 캐러웨이’의 대사→) “정말요?”

(월슨 부인의 여동생인 ‘캐서린’의 대사→) “네, 작년에 막 돌아왔어요. 다른 여자 친구(호텔에서 같이 사는 여자 친구 말고 또 ‘다른 여자 친구’라는 의미)랑 거기로 건너갔었거든요.”

(화자인 ‘닉 캐러웨이’의 대사→) “오래 머물렀었나요?”

(월슨 부인의 여동생인 ‘캐서린’의 대사→) “아뇨, 우린 그냥 “몬테카를로(=모나코 공국의 도시=프랑스 남쪽과 이탈리아 동쪽 사이에 있음=관광지=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에 갔다가 돌아온 것뿐이에요. 올 땐 마르세유(프랑스 남부 항구도시. 구글 지도 참조)를 경유하는데, 세상에나 출발할 때만 해도 주머니에 2천만 원이 담겨 있었는데 웬걸요 그곳 도박장 꾀들에게 걸려 이틀(2) 만에 죄다 빼앗겨 버린 걸요. 정말이지 돌아오는 과정은 꿈직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 제가 하느님께 ‘죄다 말아먹을 도시!’라고 고백해드린 것도 빈 말은 아니었던 거죠.”

마치 지중해 연안의 하늘빛 꿀(바다)마냥 잠시 이곳 창가에도 오후의 하늘이 하늘빛 꽃을 피우는 바람에 난 지중해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때 맥키 부인(사진사의 아내)의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들려와 나를 다시 방 안으로 돌려놓았다.

“나도 한 번은 거의 자빠질 뻔했었지.”라며 맥키 부인(늘 힘이 없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갑자기 열을 내며 말했다.

(▼ 맥키 부인의 대사 시작)

“나도 한 번은 시시해빠진 ‘카이크’(당시 미국인들이 유대인 이민자들을 경멸적으로 부른 용어)놈이랑 거의 결혼 직전까지 갔었거든.

그가 나를 수년 동안 쫓아다니지 뭐야 그래서 ‘혹’ 한 거지.

나도 알아 그가 내 아래란 걸.

모두들 내게 그렇게 말했으니까.

‘루실(맥키 부인의 이름), 저 남자는 너보다 한 참 아래야!’라고.

그래도 내가 만약 그때 체스터(맥키 씨)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 놈이 나를 채갔을 거야. 어휴.”

(▲ 맥키 부인의 대사 끝)

“맞아, 하지만 들어봐,”라며 머들 윌슨(머들=이름. 윌슨=남편의 성 씨)이 목직한 그녀의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여 보이면서 말을 시작했다. “적어도 당신은 그 자와 결혼은 하지 않았잖아.”

(맥키 부인의 대사→) “그래요, 전 결혼하지 않았어요.”

“에구, 난 그 놈이랑 결혼을 했지.”라며 머들(윌슨 부인의 이름)이 알쏭달쏭한 말을 했다. “그래 그게 바로 당신의 경우와 내 경우의 차이야.”

“왜 머들이랑 결혼한 거니?” 캐서린(윌슨 부인의 여동생)이 확답을 요구했다. “아무도 네게 강요하지 않았잖아.”

머들이 생각에 잠겼다.

“난 그가 명예와 예의를 존중할 줄 아는 남자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거야,” 마침내 머들이 입을 열었다. “적어도 그가 나 하나쯤은 먹여 살릴 수 있을 줄 알았지, 하지만 웬걸 알고 보니 그 자식은 내 구두를 닳기에도 적합지 않은 놈인걸.”

“하지만 언닌(언니는) 잠시 형부에게 미쳤었잖아,”라며 캐서린이 말했다.

“그 자에게 미쳤었다고!” 머들이 회의적인 말투로 외쳤다. “누가 그러대 내가 그딴 자식에게 미쳤었다고? (손가락으로 ‘닉’을 가리키며) 내가 지금 저 남자에게 느끼는 호감 이상으로 네 형부에게서 그런 걸 느낀 적은 결코 없었다.”

그녀가 갑자기 나를 지목하며 한 말이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나를 탓하듯 쳐다보았다.

난, 그녀의 지난 과거와 내가 전혀 상관이 없음을 난처한 표정으로 나타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월슨 부인이 남편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면 아파트 거실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 “내가 유일하게 미쳤을 때가 그 자와 결혼할 때야. 왜냐고? 내가 즉시 알았으니까. ‘아, 이 자와의 결혼이 실수였구나.’라고. 그 자식이 어땠는지 알아, 결혼식 날 어떤 놈의 말끔한 정장을 빌려 입고 나왔더라고, 그런데 세상에 그 사실을 내겐 알리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자(남편)가 외출한 어느 날 그 남자가 자기 옷을 찾으러 들렀지 뭐야. 그래서 내가 그 남자에게 뭐라고 그런 줄이나 알겠느냐고? 난 이렇게 말했어. ‘아 그러세요.’ 알겠니? ‘아 그러세요?’ 이게 다였지 아니, 난 그러고도 그 남자에게 ‘남편에게서 처음 듣는 얘기가 서요.’라는 말까지 해야 했어. 그 남자가 돌아가고 나서 난 침대로 가 그날 오후 내내 울며불며 생난리를 피워야 했고. 그날 오후 내내 말이야.”

“정말이지 그녀(캐서린의 누나)를 그(캐서린의 형부)에게서 떼어놓아야 해요.”라며 캐서린이 내게 얘기를 계속했다. “그들은(월슨 부인과 남편)은 차고지(주유소)에서 12년 동안을 살았었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생애 첫 번째 연인은 톰(=데이지의 남편=근육 남=‘닉’의 대학동기)인 거예요.”

지금 방문객들은 위스키를 부단히도 찾아대고 있었다.

하지만 캐서린만은 예외였다.

(캐서린의 말→) “전혀 마시지 않고서도 분위기는 잘 타는 편이에요.”

톰(=데이지의 남편=월슨 부인의 연인)이 벨(종)로 아파트 관리인을 부르더니 좀 유명한 샌드위치를 사오라고 보냈다. 그거면 이들을 위한 저녁 식사로 충분하리라는 거였다.

난 밖으로 나가 은은한 빛깔의 저물녘을 맞으며 공원(센트럴 파크. 아래의 구글 지도참조)까지 남쪽으로 걸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나가려고 할 때마다 다소 야단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논쟁에 휘말리는 바람에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야 했다. 마치 내가 밧줄 여러 가닥으로 의자에 묶여 있는 마냥.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센트럴 파크’(=뉴욕=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지고 있는 거리의 행인들이 도시 높이 솟아 있는 우리 아파트 창문의 노랑 라인들을 바라다보았을 때에는 우리의 노랑 조명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비밀들을 나누어주고 있었던 줄도 모르겠다.

지금의 내가 딱 그런 상황이었다. 이들을 쳐다보고 있었으면서도 대화에 끼지 못하고 멍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삶의 무궁무진한 다양성에 매혹당하기도 하고 동시에 반발하기도 하면서 아파트 안에 있었고 그리고 거리에서 이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머들(=월슨 부인의 이름=툼의 여자)이 자신의 의자를 내 쪽으로 바짝 당겨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후끈한 입김을 풍기며 자신이 어떻게 해서 톼(머들의 남자)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 ‘머들=월슨 부인’의 대화 시작)

(갑자기 낭만적이 되어 높임말을 사용하며→) (큰 따옴표 시작→) “기차간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좌석이 두 개 있었지요. 서로 마주보며 앉게 되어 있는 작은 좌석이에요. 난 뉴욕으로 내 여동생(캐서린)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고 뉴욕에서 그 날 밤을 보내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툼)는 그때 남성용 ‘야회복’(밤 모임에 입는 옷)과 에나멜(=물체에 바르면 표면에 윤이 남) 가죽으로 된 구두를 신고 있었지요. 글썄 난 그 이에게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고요? 그가 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난 그 이가 날 보고 있을 때마다 그 이의 고개 너머로 있는 광고판을 보는 척을 해야 했답니다.

기차가 뉴욕 역으로 들어섰을 땐 이미 그가 제 옆자리로 넘어와 있었어요. 그이의 흰색 와이셔츠 앞부분이 제 팔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난 그 이에게 말했어요, 경찰을 부르겠노라고, 하지만 그 이는 알았던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이와 함께 뉴욕의 택시를 잡아탔을 때에도 난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내가 지하철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지요. 그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아니 내가 대내이고 또 대내인 것은, ‘그래 인생을 영원히 살 순 없는 거야. 그래 인생을 영원히 살 순 없는 거야.’였지요.” (←큰 따옴표 끝)

(▲ ‘머들=윌슨 부인’의 대화 끝)

그런 다음 ‘머들’(=윌슨 부인의 이름=툼의 여자)은 ‘맥키 부인’(사진사의 아내)에게로 고개를 “획” 돌리더니 룬이 떠나갈 정도로 찌렁찌렁 웃어대기 시작했다. 가식적인 웃음이었다.

“자기(=맥키 부인),” 머들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옷과 ‘바이~ 바이~’ 하는 순간 이건 자기 꺼야. 난 내일이면 또 다른 옷을 사러 갈 거니까. 쇼핑할 목록을 적어놔야겠는 걸. 안마도 받아야 되고 파마도 해야 해 그리고 강아지 목에 달 목걸이도 하나 사야 되고, 손에 닿는 곳에 돌 작고 귀여운 재떨이들이며, 내 친정어머니 무덤에 올(이번) 여름 내내 달아 놓을 검은 색 비단 ‘리본’(=나비 리본)도 사야 돼. 그래 잊지 않고 모두 사두려면 목록 표에 적어놓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어.”

저녁 9시였다. 그 뒤 곧바로 시계를 보곤 이제 10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 손을 자신의 무릎 속에 꼭 끼운(넣은) 상태로 ‘맥키’(여성스럽게 생긴 사진사) 씨가 마치 탐험가를 찍은 사진처럼 의자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손수건을 꺼냈다. 그걸로 오후 내내 나를 성가시게 했던 마른 비누 거품 얼룩 흔적을 그의 뺨 위에서 닦아냈다.

식탁 테이블 위에 앉아 있던 작은 강아지는 자욱한 담배연기들 속에서 눈이 먼 양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가끔씩 힘이 없는지 끄끙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어딘가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 어디론가 가자고 계획들을 세우다가도 이내 서로가 서로를 잃고는 “방금까지 여기 있던 사람 어디 갔냐?”며 헤매고 있었다.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서 말이다.

자정(밤 12시)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다. ‘톰 뷰캐넌’(데이지의 남편)과 ‘윌슨 부인’(톰 뷰캐넌의 여자)이 서로 마주보고 서서 격한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감정이 다분히 담긴 목소리들이었다. 그들의 논쟁 주제는 과연 ‘윌슨 부인’(톰 뷰캐넌의 여자)이 ‘데이지’(톰 뷰캐넌의 법적 아내)의 이름을 입에 올릴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 하는 문제였다.

(‘데이지’는 ‘톰 뷰캐넌’의 아내 이름입니다.)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 윌슨 부인이 악에 받힌 듯 고함지르고 있었다.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그 년의 이름을 부를 거야! 그 년! 데이지! 데이....”

순간, 능란한 동작과 함께 톰 뷰캐넌이 손바닥으로 그녀의 코를 휘갈겼다.

곧 욕실 바닥 위에 피가 묻은 수건들이 보였고, 여성들의 앙알거리는(원망하는) 목소리들이 들리는 가운데, 이 모든 혼란의 소리 보다 한층 더 크게 아파서 울부짖는 윌슨 부인의 울음소리들이 오래도록 째질 듯 들려왔다.

결국 이 소동은 의자에서 걸잠이 들어 있던 ‘맥키 씨’(여성스럽게 생긴 사진사)를 깨우게 했고 그는 다소 어리둥절한 상태로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던 것이다.

의자에서 현관문까지 반 정도 갔을 때 맥키 씨(사진사)가 뒤돌아보더니 눈앞의 전경(모습)들을 뻥히 쳐다보았다.

출혈이 멈추는데 도움이 될 물품들을 손에 들고서 가구로 비좁은 거실 여기저기를 비틀거리며 오고가며 윌슨 부인을 위로하고 톰에 대해서는 앙알거리고(원망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와 ‘캐서린’의 모습들이며,

계속해서 자신의 코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피가 베르사유(파리근처 도시)의 전경(베르사유를 거닐고 있는 숙녀 분들이 새겨진 전경)들이 새겨진 태피스트리(수를 놓은 실내장식용 비단) 위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망으로 파탄 난 가운데 소파에 몸을 눕히고 있는 와중에도 바닥 위에 「뉴욕의 고자질쟁이들」(작가가 지어낸 잡지이름임) 한 권을 넓게 펼쳐놓으려고 애 쓰고 있는 윌슨 부인의 모습을 맥키 씨는 뻥히 쳐다보고 있었다.

이 모든 전경(모습)들을 인식한 다음에야 맥키 씨(여성스럽게 생긴 사진사)는 방향을 틀어 도로
현관 문 바깥으로 걸어 나갔다.

“언제 시간 되시면 점심이라도 같이 하시지요,” 킁킁 신음소리를 내며 내려가고 있는 엘리베이
터 안에서 ‘맥키 씨’(여성스러운 얼굴의 사진사)가 내게 제안해왔다.

(화자인 ‘닉 케러웨이’의 대사→) “언제요?”

(여성스러운 얼굴을 가진 사진사인 맥키 씨의 대사→) “언제든지 말입니다.”

“레버 스위치(사각형 스위치) 만지시면 안돼요.” 엘리베이터 보이(소년)가 귀찮게끔 잔소리를
했다.

“미안하게 됐다,”라며 품위 있는 말투로 맥키 씨가 사과를 했다.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지를 몰
랐단다.”

(‘맥키’ 씨를 보며 ‘닉 캐러웨이’가 하는 말→) “좋습니다.”라며 내가 순순히 수긍하며 말했다. (‘맥키’ 씨를 보며 ‘닉 캐러웨이’가 하는 말→) “기꺼이 그러지요.”

(아래의 ‘..., ..., ...’는 원문에 있는 ‘...’를 해석한 것임. ‘ ’라는 작은따옴표가 제가 붙인 것... 만 원문에 적혀 있음. 나쁘진 않네요. :) ㅎㅎㅎ)

..., ..., ..., 어느새 나는 그의 침대 곁에 서 있었다. 그는 속옷만 입은 채 두 손에 커다란 ‘포트폴리오’(자신의 사진실력을 고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년도 별 중요한 작품만 추려서 만든 사진집과 간단한 텍스트들) 한 권을 손에 쥐고서 침대시트(담요)들 사이로 자세를 바로 해서 앉으려 하고 있었다.

“이 사진의 제목은 <미녀와 야수>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은 고독을 주제로 해 촬영한 사진이고... (다른 사진을 보이며) 이건 예전 여기에 있던 식료품 가게의 ‘말’(달리는 말)입니다.... (다른 사진을 보이며) 이건 <브루크린 브리지>(뉴욕에 있는 다리 이름)이고 이건..., 그리고 이건..., 이 건..., 그리고 이 건...,” (브루크린 브리지 사진들 링크 - 네이버블로그 ▶ <http://me2.do/FcHUasBW> , 검색일자 : 2015-7-10)(브루크린 브리지 지도는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

그런 다음 나는 ‘펜실베이니아 역’(=뉴욕임.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의 차가운 지하층 대합실(대기실)에서 아침에 갓 나온 <시카고 트리뷴>(=미국신문)을 뚫어지게 바라본 채로 슬슬 잠이 들려하면서 새벽 4시 기차가 역으로 들어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 구글 지도 참조 1

검색어 ‘브루크린 브리지’(=뉴욕의 다리=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3 장

III

제 3 장

내 이웃집(개츠비의 대저택)에서는 연일 그러니까 여름 밤 내내 연주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의 파랑색 정원들에서는 와삭와삭하는 소리들과 샴페인들과 별들에 둘러싸인 가운데 남녀들이 마치 나방 마냥 오고 가고 있었다.

‘롱아일랜드 해협’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른 오후쯤이면 그의 보트 꼭대기에서 다이빙을 하는 손님들을 종종 볼 수 있었고 후끈 달아오른 해변의 모래 위에선 햇볕을 쬐는 손님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럴 때면 어김없이 폭포 같은 ‘거품’ 위에 여러 대의 수상 스키들을 이끌며 수면 위의 물을 찢어 재끼며 나아가고 있는 두 대의 모터보트들이 보였다.

주말 마다, 그의 롤스로이스 차량(영국의 고급 승용차)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를 한 참 넘긴 시각까지, 한 무리의 사람들을 태우고서 도시까지 오고 가며 나르는 버스가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의 스테이션 왜건(=자동차 겸 화물차. 사진 링크 ▶ <http://me2.do/5YuPw8dW> , 검색일자 : 2015-7-10)이 모든 열차들에서 내리는 손님들을 마중하기 위해 팔팔한 노란 색 딱정벌레 마냥 날쌔게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월요일이면 임시로 고용된 한 명의 특별 정원사를 포함해 8명의 하인들이 대걸레들과 수세미들과 망치들과 잔디 깎는 가위들을 가지고서 전날 밤의 파괴를 복구하기 위해 종일토록 생고생 아닌 생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다.

(아래는 참고사항 :)

매주 금요일마다 뉴욕의 과일 상으로부터 다섯 상자분의 오렌지가 레몬들이 도착했으며, 월요일이면 동일한 개수의 오렌지와 레몬들이 과육만 썩 빠진 채 2등분이 되어 마치 피라미드처럼 쌓여서는 뒷문을 통해 그의 집을 떠났다.

그의 부엌에는 30분 안에 200개의 오렌지로부터 주스를 한꺼번에 추출해낼 수 있는 기계가 장착되어 있었으며 조작도 간단해 집사는 단지 자신의 장갑 낀 엄지손가락으로 쏘그마한 단추를 200번만 누르면 되었던 것이다.

적어도 2주일 마다 한 번씩은, ‘연회 주선 담당자’들로 구성된 한(1) 단체에서 100미터 가량이 나 되는 덮개며 갖양각색의 조명들을 가지고 내려와서는 ‘개츠비’(이 소설의 남자주인공 이름)의 거대한 정원을 마치 크리스마스 나무 같이 꾸몄다.

뷔페 테이블 위에는, 때깔이 반짝거리는 오르되브르(=전채='가볍게 식욕을 돋우기 위해 먹는 간단한 요리')와 양념을 먹인 후 바삭 구운 '햄'들이, 다채로운 빛깔을 내게 만들어진 샐러드들과 밀가루에 기름을 넣고 우유와 물로 반죽해 만든 돼지고기가 들어간 케이크들이며 어찌나 맛있게 구웠는지 짙은 금과 색깔이 도는 칠면조 요리들과 서로 몸을 밀치며 자기 영역 자랑을 해대고 있었다. (부연설명. A : 오르되브르와 햄이 수북이 쌓여 있다. B : 샐러드와 케이크와 칠면조 요리도 또한 그 옆에 수북이 쌓여 있다. 뷔페 테이블 위에 A와 B가 서로 몸을 밀치며 수북이 쌓여 있다.)

메인 홀에는 진짜 황동(놋쇠) 난간이 있는 카운터(술집)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너무도 오랫동안 시중에서 사라졌던 술이라 대다수의 여성 손님들은 너무 어려 이것과 저것을 구분할 수도 없는 '리큐어'(=알코올+과즙+설탕+꿀+약초)들과 진(다른 술에 타서 먹는 증류주)과 주류(술)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위대한 개츠비의 시대적 배경인 1922년 여름의 미국에서는 금주령이 실행되고 있어서 술 판매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이 술을 마시는 것은 되지만 술 판매는 못함. 당연히 금주령이 제대로 지켜졌을 리가 없었겠죠. 세상이치 다 그런 것. 하지만 금주령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겐 대단히 자부심을 주는 법이었겠죠. 사회를 위해 좋은 법을 만들었다는 뭐 그런 자긍심~ :(ㅎㅎㅎ 세상에 반하는 법은 애초 지켜질 수가 없는 법)

저녁 7시 까지 오케스트라가 도착했는데, 이들은 다섯(5) 악기들로 구성된 변변치 않은 물건이 아니라, 오보에(피리)들과 트롬본(악기)들과 색소폰(악기)들과 바이올린들 그리고 코넷(트럼펫)들과 피콜로(피리)들과 높고 낮은 음의 드럼(북)들로 구성된 완전체의 오케스트라 그 자체였다.

마지막까지 수영을 하던 무리들이 해변에서 저택으로 들어와 지금 위층에서 의복을 챙겨 입고 있었으며, 뉴욕에서 온 갖가지 종류의 차들이 저택 진입로까지 5열로 주차되어 있었다.

홀(복도)들과 객실들과 베란다(발코니)들엔 이미, 원초적인 색상의 파티 의상들과, 낯설고 새로운 방식으로 다듬어진 각양각색의 머리모양들과, 카스티야(스페인 중부)에서 수입한 멋진 술들보다도 더 뛰어난 ‘어깨 걸치개’(술)들로 대 만찬을 이루고 있었다.

바(술집)의 분위기는 한창 무르익고 있었는데, 빙빙 돌면서 회전하던 칵테일(액체)들이 정원 바 끝까지 나가떨어지자 분위기는 잡담과 웃음꽃들로 만개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심코 한 빈정거림과 자기 소개는 사람들의 입을 떠나는 순간 잊혔으며, 결코 상대방의 이름을 모를 것 같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열광적인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웃음꽃은 방울방울 더 쉽게 뽕뽕 터져 나와 곳곳에 흘러넘치고 있었고 상쾌한 단어들에 의해 양념이 가해지고 있었다.

그룹(사람)의 형태는 점점 더 빠르게 변해, 새로운 참석자들에 의해 부풀러지다가도 숨도 쉬지 않고 바로 해체되곤 했다. 이리저리 배회하는 사람들도 벌써 많이 생겼고, 실속 있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헤집듯 나아가는 자신감 넘치는 처녀들도 많았다. 그들(배회하는 사람들과 처녀들)은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모임의 중심이 되었고 그런 다음이면 승리감에 도취되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조명 아래에서' 각양각색의 얼굴들과 목소리들 사이로 미끄러지듯 슬라이딩을 해대곤 했다.

나는 믿는다. 내가 캐츠비의 집으로 찾아간 그 첫 번째 밤에, 내가 이 파티에 실제로 초대를 받고 온 극소수의 손님들 중 한 명일 거라는 것을 말이다.

사람들은 초대도 받지 않고서 이곳에 그냥 들른 것이었다. 그들은 롱 아일랜드(개츠비가 살고 있는 섬)로 자신들을 데려다주는 자동차에 몸을 실었고 어찌어찌해서 내려 보니 개츠비 씨의 저택 정문이었었던 것이다.

일단 거기서(정문에서) 누군가가 “어? 개츠비 씨 댁이네!”라고 언급하면 이후부터는 이 놀이공원과 관련된 행동 규칙에 따라 자신들의 행동을 맞추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츠비가 누구인지를 몰랐으며 오라는 말도 없는데 왔고 가라는 말도 없는데 갔던 것이다. 어째보면 그렇게 별 부담이 없이도 이 파티에 올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아마도 입장권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니깐 난 정말 초대받고 여기 온 것이었다.

‘초록빛이 도는 청색’(청록색) 제복(유니폼)을 걸친(착용한) 운전자 한 명이 자신의 고용주(개츠비)로부터 부탁받은 놀라자빠질 정도로 격식을 차린 초대장 한 장을 들고서 토요일 아침 일찍 내 잔디밭을 가로 질러 왔던 것이다.

초대장의 내용 또한 어찌나 황송한지 몸돌 바를 모를 정도였다. 초대장엔 이렇게 적어 있었다.

〈‘약소한 모임’이 되겠지만 오늘 밤 저의 집을 찾아 주신다면 제겐 더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초대장에 따르면 그(개츠비)는 나를 전에도 여러 번 보았으며 마음 같아선 벌써 초대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매번 다른 일이 생겨 실천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편지 말미에는 ‘제이 개츠비’라는 서명도 함께 적혀 있었는데, 장엄하면서도 위엄이 느껴지는 당당한 필체였다.

하얀(흰색) ‘플란넬 정장’(촉감이 부드러운 신사복)을 차려 입고서 나는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그의 잔디밭으로 건너갔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소용돌이와 회오리들 사이에서 나는 다소 불안해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 헤맸다. 비록 여기저기에 내가 통근 열차에서 보았던 얼굴들이 몇몇 눈에 띄었지만 말이다.

나는 즉시 젊은 영국인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 것이 대단히 마음에 들었다. 그들 영국인들은 잘 빼입고 약간 뭔가를 갈망하는 듯 보였지만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멋있고 부유해 보이는 미국인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아마도 그 영국인들은 무엇인가를 팔려고 하는 모양이었다. 채권이 될 수도 있겠고 보험이라든가 자동차가 그들의 판매물품일 수도 있었다. 자신들이 몇 마디 말로 제대로 구슬리기만 하면 덩굴째 굴러들어올 것으로 확신되는 눈 먼 돈들이 이곳엔 널리고 널려 있다는 것을 그 영국인들은 육감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괴로울 정도로 말이다.

파티 장(개츠비 씨의 저택의 정원)에 도착하자마자 난 제일 먼저 주인(개츠비) 장을 찾으려는 시도부터 했었다.

하지만 웬걸 “어디쯤에 그가 있는가?”를 마주치는 두세 사람정도에게 물었을 때 도리어 그들이 적잖이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자신들은 그(개츠비)의 동선(이동경로)에 대해서는 전혀+결단코 모른다고 부정하는 바람에 난 슬그머니 칵테일이 쌓여 있던 테이블 쪽으로 도망쳐야 했다.(와~ ‘콩’글리쉬 대폭발~_~ 이러다 블로그 구독자들 다 도망가는 건 아닌지 심이 걱정이네 -_-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국어 실력이 문제임... 음... 노답)

사실 그곳이(칵테일들이 쌓여 있는 테이블) 이 정원(파티 장)에서 독신남이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서도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하도 쑥스러워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술이나 잔뜩 퍼마시고 난동이나 한 번 부러볼까 하는 나쁜 심보를 막 먹으려는 찰나에, 조단 베이커(조단 베이커. 이름이 '조단', 성 씨가 '베이커'. 소설 속에서 '여자 프로 골퍼'로 나옴)가 저택 안에서 나와 대리석 계단의 맨 윗부분에 서서 약간 몸을 뒤로 해 경멸스럽다는 듯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원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반갑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땐 이미 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교적인 인사를 건네려면 적어도 내 옆에 누구 한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깨달은 상태였다.

(큰소리로) “저기요!” 그녀(조단 베이커) 쪽으로 나아가며 내가 소리 질렀다.

내 목소리는 이상스럽게도 정원을 가로질러 전해질 만큼 엄청 컸다.

“당신이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라며 내가 계단 위로 올라서자 그녀가 무심한 듯 말했다. “당신이 이 옆집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0^ 좋아한다는 뜻이죠)”

‘당장 돌봐줄게요’ 라고 약속하듯 그녀가 감정을 담지 않은 채 내 손을 잡고는, 노란색 쌍둥이 드레스를 입고서 계단 맨 아래 부분에 서 있던 두(2) 여성에게로 귀를 쫓긋 세웠다.

(쌍둥이 자매가 '조단 베이커' 양에게 하는 말→) “안녕!” 그녀들이 함께 소리쳤다. “당신이 우승하지 못한 건 아쉬워요.”

그 소리는 저번에 있었던 골프 '토너먼트'(시합)를 지칭하는 소리였다.

그녀(조단 베이커)가 지난주에 있었던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했었던 것이다.

“저희가 누군지 모르시겠죠,”라며 노란 색 드레스를 입고 있던 두 여성 중 한 명이 말했다. “하지만 저희 한 달 전에도 당신을 여기서 만난 걸요.”

(프로 여자 골프 선수인 '조단 베이커'가 쌍둥이처럼 똑같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에게 하는 말→) “어머나 검색해서 못 알아봤어요,”

그들이 검색한 것을 조단(조단 베이커)이 알아차리는 것을 보고 난 흠칫했다(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 쌍둥이 여인들이 별 생각 없이 자리를 떴기 때문에 조단(여자이름)의 소견(말)은 너무 일찍 뜬 달에게로 향한 사랑 고백이 되고 말았다. 의심할 필요도 없이 '음식을 마련하는 사람'의 바구니에서 막 꺼내어진 스프 같이 떠오른 달 말이다.

조단의 가냘픈 금빛 팔이 내 팔 안에 휴식을 취하는 동안, 우린 함께 계단을 내려가 정원 여기저기를 산책했다.

황혼이 물드는 가운데 칵테일 잔들이 담긴 쟁반이 우리 위에 뜨자 우린,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두 여인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제각기 자신의 이름을 ‘미스터 멤블’(영어 단어 ‘멤블’은 ‘우물우물 말한다’는 뜻임)라고 소개한 세 명의 남성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다.

“두 분은 이러한 파티들에 자주 오세요?”라며 조단(여자이름)이 옆 자리에 있던 여인에게 물었다.

“지난번이 마지막이었는데, 당신을 본 것도 그때였어요,”라며 그 여인이 경계심을 보이면서도 지난번이 정말 마지막이었다는 듯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그렇지, 루실(여자이름. 몰라도 됨)?”

루실(이름 몰라도 됨)도 또한 그렇다고 대답했다.

“여길 오길 좋아하냐고요? 물론 좋아하죠,” 루실(여자이름, 이 이름 몰라도 됨)이 말했다. “꺼릴 것도 없잖아요, 꽤 괜찮은 남자들도 있고 즐길 거리도 많고 시간 때우기엔 ‘딱!’이죠. 글썄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땐 말이에요, 제 ‘가운’(야회용 드레스)이 의자에 걸려 찢어졌지 뭐예요, 그러자 그(아직 이름 언급 안 되었음. 개츠비를 말함) 사람이 글썄 제 이름과 주소를 남겨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채 1주일도 안 되서 ‘크아클리에’ 점(가게)로부터 제 앞으로 새 야회용 드레스가 배

달되어 왔지 뭐예요.” (‘크아클리에’는 당시 뉴욕에 있던 ‘까르띠에’라는 ‘프랑스 보석 상점’의 이름을 저자가 바꾸어서 붙인 가상의 가게 이름임. 우리말로 바꾸어 놓고 보니 두 단어가 전혀 안 닮았지만 영어철자나 프랑스어 철자로는 서로 비슷함 :) ㅎㅎㅎ 피츠제럴드가 이 보석가게에서 꼭 사고 싶은 보석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유튜브 - [까르띠에 광고 링크 ▶ https://youtu.be/90AX4pRM9rk](https://youtu.be/90AX4pRM9rk) ←재밌음^0^ㅎ
ㅎㅎ, 까르띠에 한국 홈페이지 링크 ▶ <http://www.cartier.co.kr/> ←그다지 볼 건 없음:(, 검색일자 :
2015-7-13)

“그래서 그 옷을 받았나요?” 조단(여자이름)이 말했다.

“물론이죠. 오늘 밤에 그걸 입어볼 생각인 걸요, 하지만 가슴 부분이 너무 커서 좀 줄여야 될 것 같긴 해요. 라벤더(자주색 꽃. 사진 링크 ▶ <http://me2.do/xomt3c2p> , 검색일자 : 2015-7-13) 모양의 단추들이 하늘하늘 달려 있는 하늘 빛 가운인데, 아마 5백만 원(265달러)은 족히 될 것 같지 뭐예요.”

“보통 일처리를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에게겐 대개 수상쩍은 뭔가가 있기 마련이에요.”라며 다른 쪽 여성이 사뭇 진지해져서는 말했다. “다들 들어보셨죠? 그(아직 이름이 언급되지 않음. 개츠비를 말함)는 어느 누구와도 트러블(문제)이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어요.”

“누가요?(누가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질문을 던졌다.

“누구긴요, 개츠비죠.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그러자 그 두 여성과 조단(여자이름)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려는 듯 함께 몸을 숙였다.

“글쎄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그가 예전에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멈블(=‘우물우물 말한다.’라는 뜻임) 씨 3명도 몸을 숙이며 그녀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고 있었을 정도였다.

“그 정도(살인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던데,”라며 루실(여자이름, 몰라도 되는 이름임)이 미심쩍다는 듯 대꾸했다. “그보단 그가 전쟁 기간 동안 실제 독일 스파이였다는 소리가 있어요.”

세 명의 멈블(=‘우물우물 말한다.’라는 뜻임) 씨 중 한 명도 그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실은 나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소.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자였소. 아마 그와 독일에 서 함께 자랐다고 그런 것 같소.”

그(멈블 씨)가 지장이라도 찍겠다는 마냥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자 첫 번째로 말했던 여성(‘개츠비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한 여성)이 “아뇨, 아니라니까 그러시네.”라며 말했다. 그녀가 계속 말했다. “그건 있을 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전쟁기간(제1차 세계 대전) 동안 미국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우직함(남의 말을 잘 믿음)이 스위치를 그녀에게로 다시 “확!” 되돌려놓았기 때문에 그녀는 더욱 열이 나서 몸을 숙이며 말했다.

“아무도 그를 보고 있지 않다고 그가 생각할 때를 노려 그를 한 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건 정말이지 살인을 한 자의 얼굴이에요.”

.....

그녀(개츠비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여성)는 눈을 가늘게 떠드니 (공포로) 와들와들 떨었다.

루실(사람을 죽이게 아니라 독일 스파이다라고 말한 여성)도 (공포로) 와들와들 떨었다.

우리 모두는 고개를 돌려 주변에 개츠비가 혹시라도 와 있는지를 살폈다.

이것은, 심지어 이 세상에선 뒷담화를 깔 필요까지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간파한 자들조차도, 그(개츠비)가 고무시켜 그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뒷담화 깔 만한 게 더 남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밤 12시 이후에 만찬(식사)이 한 번 더 있을 예정인데, 일단 첫 번째 만찬이 서비스 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조단(여자이름)이 자기 일행들과 합류해 먹자며 나를 그곳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정원 반대 쪽 편에 있는 테이블 하나에 둥글게 퍼져 앉아 있었다.

거기엔 결혼한 커플 세(3) 팀과, 조단(여자이름)의 파트너(사교 모임에 에스코트하는 남자)가 자리해 있었는데, 특히 조단의 파트너(에스코트 남자)는 폭력적으로 빈정거리며 얼마 안가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조단이 자신보다 더 높게 되든 또는 자신보다 더 낮게 되든) 조단(여자이름)이 자신에게 굴복하게 될 거라는 인상을 남들 눈에 떨 정도로 내비치고 있던 거머리(끈질긴) 같은 대학생이었다.

사방(파티 장)으로 뻗어 나가는 대신, 이 모임은 ‘관록 있는’(오래 경험해서 위엄이 쌓인) 동질성을 유지한 채, 시골(롱 아일랜드 섬) 특유의 차분함을 대표하는 기능을 도맡고 있었다.

‘이스트 에그 사람들’(동쪽 달걀. 기존의 부자들)은 ‘웨스트 에그 사람들’(서쪽 달걀. 신흥 부자들)에게 거들먹거리면서 ‘웨스트 에그 사람들’의 야단 법석 명랑한 분위기를 주의 깊게 경계하고 있었다. (‘닉 캐러웨이’가 조단의 소개로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 테이블 사람들이 서로 거들먹거리며 즐기질 않더라는 얘기임. 쉽게 어울릴 수 없는 무척 딱딱한 분위기였다는 얘기)

(조단이 ‘닉 캐러웨이’에게 속삭이는 말→) “가요,(여기서 나가요)” 장장 30분을 그렇게 시간 낭비한 후 조단(여자이름)이 내게 속삭였다. “(속삭이며) 이 테이블은 제가 있기엔 너무 예의 발라요.”

우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집주인을 좀 뵙고 싶다며 그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녀의 말 인즉슨 내가 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말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그 대학생(조단을 에스코트하던 대학생)이 얼마간 냉소적이고 낙심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우리가 첫 번째로 둘러 본 곳은 바(술집)였다. 그곳엔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그곳에 개츠비는 없었다.

조단(여자 프로 골퍼)은 계단 꼭대기에서도 그(개츠비)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또한 베란다에도 없었다.

그래도 그를 만날 가망성이 전혀 없진 않았기 때문에, 우린 어리어리해 보이는 문을 열어보았다. 그 문은 높이가 높은 고딕 양식을 한 개인서고(도서관)로 연결되어 있었다. (고딕양식=영화 보면 나오는 교회 내부 100% 고딕양식. 사진링크 ▶ <http://me2.do/FqM9sP48> , 검색일자 : 2015-7-13)

개인서고는, 조각이 된 영국산 ‘오크 나무’(오크=떡갈나무) 판으로 내부가 덮여 있었다. 아마도 해외의 몇몇 유적들에서 공수해온 것 같았다.

얼굴크기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올빼미 안경을 한 뚱뚱한 중년의 남성이 커다란 테이블의 모서리에 술이 잔뜩 취해서는 앉아 있었다. 그는 맛이 간 눈빛으로 책이 잔뜩 꽂혀 있는 선반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서자 그는 들떠서(흥분해서) 고개를 횡(크게) 돌리더니 조단(여자이름)을 머리끝에서부터 발까지 쪽 훑어보았다.

(올빼미 안경을 한 중년남성의 말→) “보쇼, 우에들(=어떻게) 생각 하요?” 그(올빼미 안경을 한 뚱뚱한 중년남성)가 다짜고짜 물었다.

(‘닉 캐러웨이’의 말→) “뭐를요?”

그(올빼미 안경을 한 중년남성)가 엄청난 양의 책들이 꽂혀 있는 선반들 쪽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였다.

(올빼미 안경을 한 중년남성의 말→) “이보쇼. 확인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소. 내가 다 확인들 해 봤으니까. 이것들은 모두 진품들이요.”

(‘닉 캐러웨이’의 말→) “책들이요?”

내가 그 정답을 맞혔다는 듯 그가 고개를 끄떡였다.

(올빼미 안경을 한 중년남성의 말→) “전부다 진품들이요. 페이지 한 장 한 장 할 것 없이 죄다 진품이요. 처음엔 나도 이것들이 겉만 번지러한 마분지일 거라 생각했소. 하지만 웬걸, 죄다 진짜지 뭐요. 페이지들이 모두 있는 진짜였소. (선반에서 책을 한 권 꺼내 펼쳐 보이며) 여기 이걸 한 번 보시오! 내 한 번 보여주리다.”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뭘 시답지 않은 소리가 하는, 표정을 짓자 그(커다란 올빼미 안경을 한 뚱뚱한 중년남성)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책 선반들 쪽으로 돌진하더니 『스토다드 강연집』(‘스토다드’라는 사람이 쓴 지적인 기행문입니다. 아래 부연설명 참조) 시리즈들 중에 한 권을 꺼내들며 환희에 차서 말했다.

[부연설명입니다. ◆ 존 로슨 ‘스토다드’ : 1922년 당시 72세, 미국 여행 작가][◆ 스토다드 강연집 : 저자가 세계 곳곳의 도시들을 가보고 찍은 사진들과 지적인 담론 집들을 총 11권의 책으로 만든 시리즈. 시리즈 중 10번째 권이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 올라와 있음 링크 ▶ <http://me2.do/FoC9Vy15>
(검색일자 : 2015-7-13)]

“한번 보소!” 그가 계속 말했다. “이건 진짜로 인쇄된 인쇄물 중 하나란 말이요. 나도 속았지 뭐요. 하지만 이 친구(개츠비)는 진짜 ‘벨라스코’요.(1922년 당시 68세의 미국 연출가 겸 배우. ‘벨라스코’

의 사진 링크 ▶ <http://me2.do/FA7jbSWj> , 검색일자 : 2015-7-13) 한 편의 업적이라니깐 그러네. 아, 이 철두철미함! 아, 이 리얼리즘(사실주의 문예)! 끊어야 할 때를 안다니깐. 그렇다고 페이지를 자르지도 않았지 않소.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선) 어, 그런데 왜들 온 거요? 뭘 찾고 있었던 거요?”

그(올빼미 안경을 쓴 중년의 뚱뚱한 남성)가 내게서 책을 확 잡아채더니, 한 권이라도 제거했다간 개인서고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투덜대면서 그 책을 서둘러 선반에 도로 갖다놓았다.

“누가 안내해 주더이까?” 그가 물었다. “아님 당신들이 제 발로 찾아온 거요? 난 안내 받고 왔수다. 하긴 대다수 사람들이 안내받고 오긴 하더이만.”

조단은 아무런 답변 없이 이 술 취한 양반을 기분 좋게 하지만 경계하듯 쳐다보았다.

(커다란 올빼미 안경을 낀 뚱뚱한 중년 남성의 말→) “나는 ‘루스벨트’라는 여성이 안내해줘서 왔수다.”(루스벨트 : 당시 38세의 미국 여성 저술가 이름을 빌려 온 것. 루스벨트 대통령의 아내)

그(커다란 올빼미 안경을 낀 뚱뚱한 중년 남성)가 계속 말했다.

“클로드 루스벨트란 여성이었지 아마. 그래 그녀를 보셨수? 난 지난밤 어딘가에서 그녀를 만난 것 같거든. 그리고 보니 내가 거의 일주일 동안 취해 있었군. 그래, 개인서고에 와 있으면 술이 좀 꺾까 하고 온 거였는데.”

“그래서 좀 깨셨어요?”

“조금, 내 생각엔. 아직은 모르겠거든. 여기 한 시간 동안 있었는데도. 가만 있자 내가 이 책들에 대해 얘기를 했던가? (방금 했던 말을 또 하며) 이것들은 죄다 진품들이오. 이것들은 죄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와 정중하게 악수를 나눈 후 야외로 다시 나왔다.

정원(개초비 저택의 정원)에 설치된 무대 위에서는 막(지금) 춤추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색골인 남성들은 염치없고 젠장 맞게도 무대 안에서 젊은 처녀들을 뒤로 밀쳐대며 춤을 취재끼고 있었고(영화에서 보면 추는 춤 상상바람), 보다 상급인 커플들은 다소 진정된 자세로 유행에 따라 서로를 부여잡고서 구석에서 조용히 춤을 추고 있었다.

싱글인 대다수의 여성들은 개인적으로 춤을 추거나, 또는 잠깐 동안이지만 밴조(=탬버린+기타)(밴조 사진 ▶ <http://me2.do/xludSpjr>) 연주자나 심벌즈나 드럼 혹은 마라카스(=악기=딸랑이)([마라카스 사진 ▶ http://me2.do/FNviZhFI](http://me2.do/FNviZhFI)) 연주를 거들며 지루함을 달래고 있었다. (앞서의 사진 링크 두 개 모두 검색일자는 2015-7-14임)

밤 12시가 될 때까지 떠들썩함은 커져만 갔다.

저명한 테너 가수(남자) 한 명이 이탈리아식으로 노래했고, 이어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콘트라토 가수(여자) 한 사람이 재즈 풍으로 노래했다.

노래 중간 중간엔 정원 곳곳에서 묘기(서커스)가 이루어졌으며, 행복하면서도, 약간은 공허한 폭소(웃음) 소리들이 여름 하늘 쪽을 향해 피어올랐다.

노란 드레스를 입고 있던 두 여성(조단을 보고 인사했던 두 여인)은 한 쌍의 무대 배우로 밝혀졌고 의상을 입은 채 아기 흥내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샴페인은 ‘핑거볼’(음식 먹은 후 손 씻는 작은 그릇)보다 훨씬 큰 유리잔들에 담겨 서비스 되고 있었다.

어느새 ‘달’은 더 높이 떠올라 있었고(←‘달’이 주어임), (‘은색의 비늘’이 주어임→) 은색의 삼각형 비늘(물고기 비늘)들이 사운드 속에서 둥실둥실 떠다니며 밴조(=탬버린+기타) 연주자들이 잔디밭 위에서 뽀뽀한 줄과 양철 부딪치는 소리를 낼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음표가 정원 곳곳에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악기 소리에 맞추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의미임)

(참고 : 밴조='탬버린+기타'. 밴조 사진 ► <http://me2.do/xludSpjr> , 검색일자 : 2015-7-14)

나는 아직 ‘조단 베이커’(여자이름. 여자 프로 골퍼)와 같이 있었다.

우린 내 나이또래(30세)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 한 명과, 키가 작고 시끄러운 여성 한 명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킁킁거리며 이상한 여성이었다.

어쨌든 난 지금 이 분위기가 좋았다.

게다가 핑거볼(손 씻는 작은 그릇) 그릇에 담긴 샴페인을 두 잔 들이키고 났더니 세상이 다 달라 보였기 때문이다. 내 눈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 세상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심오함을 본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파티의 유흥이 다소 잠잠해질 때쯤에 그 남성(30세)이 나를 보며 말했다. 물론 그는 느끼한 미소도 한 방 내 쪽으로 날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얼굴이 낫이 익습니다.”라며 그가 정중히 말했다. “혹시 전쟁(제1차 세계 대전) 중에 3사단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소설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의 말→) “어, 맞는데요. 전 3사단 예하(아래) 제9 기관총 대대에 있었습니다.”(5천 명 정도의 사단 아래에 보병연대가 3개 있고 보병 외의 연대가 몇 개 포함되어 있음. 보병연대는 각각 보병대대가 3개 씩 포함되어있고 지원부대가 몇 개 있음. 전쟁 중 이 두 남성이 같은 사단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얘기임)

“전 1918년 6월 무렵까지 제7 보병 연대에 있었죠. 어쨌든 전에 당신을 어디서 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잠시 비(내리는 비)에 젖어 쓸쓸함을 어느 정도 품고 있었던 프랑스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들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확실히 그(30세)는 이 근처에 사는 듯 했다. 왜냐하면 그가 내게 자신이 막(지금) 수상 비행기(영화 보면 바다 위에 떠 있는 흰색 비행기)를 한 대 샀으며 그걸 내일 아침에 한 번 시운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괜찮으시다면 저랑 같이 가시죠, 어떻습니까 형씨? (두 남성 있는 장소는 롱 아일랜드 해협이 있는 곳임) 해협을 끼고 잠시 해안가를 둘러볼 생각이거든요.”

“언제쯤?”

“뭐 시간이야 형씨가 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그의 이름을 물으려고 혀끝을 입천장에 대는 순간, 조단(여자이름, 여자 프로 골퍼)이 고개를 돌려 돌아보더니 미소지으며 말했다.

“너무 남자들끼리 기분 내는 거 아녜요?” 그녀가 물었다.

(조단에게 하는 말→) “좀 괜찮아진 것뿐이야.” 나는 약간의 면식(얼굴만 앓)만 있는 이 새로운 친구에게로 고개를 다시 돌렸다. (남성에게 하는 말→) “제겐 여기가 좀 색다른 파티인걸요. 아직 집 주인 얼굴도 보지 못할 걸요. 전 저기 저 너머에 살고 있습니....” 나는 내 손을 거리상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율타리 너머로 흔들며 보이며 말했다. “글쎄 개츠비라는 그 사람이 자신의 운전사를 보내 저를 초대했지 뭐니까.”

잠시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이 자식이 뭐 소리여!’하는 눈빛이었다.

“제가 개츠비입니다.” 그가 불시에 말했다.

“뭐라고요!” 내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이런, 제가 실례를 범했군요.”

“난 당신이 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씨. 제가 좀 더 친절을 베풀지 못한 건 유감입니다.”

개츠비가 양해를 구한다는 듯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 미소는 뭐랄까 양해 이상의 훨씬 더 함축적인 의미가 담긴 미소였다.

당신이 평생토록 네다섯(4~5) 번밖에는 마주칠 수 없을 그 미소는, 상대방에게 영원한 안심을 주는 보기 드문 미소들 중 하나였다.

잠깐 동안 온 세상에 맞서 아니 맞선 듯이 대항한 다음,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도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의 호의만을 바랄 거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미소였다.

그 미소는, 당신이 이해받길 원하는 만큼 당신을 이해했으며, 당신이 당신 자신을 믿고 싶은 방식대로 당신을 믿어줄 것이며, 당신이 최선을 다해 전했으면 하는 그 기분을 정확히 전해 받았노라고 당신에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미소였다.

그 순간 그의 미소가 싹 사라졌다.

그러자 내 눈앞에는 서른 한 두 살은 넘었을 것 같은 세련되고 젊은 하지만 어딘가 ‘석유를 채굴하는 인부’ 같이 생긴 한 남성이 서 있었다.

그가 공들여 내뱉고 있는 형식적인 말투는 우스꽝스러움에서 딱 한 발만 빗겨났을 뿐이었다.

그가 자기 스스로를 소개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가 단어들을 고를 때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어떤 강한 인상을 받아오고 있던 차였다.

개츠비 씨가 막 자신의 신원을 밝혔을 거의 그 순간에, 집사(집 관리자)가 서둘러 그에게로 오더니 시카고(미국 시카고)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를 전했다.

개츠비가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차례대로 실례해야겠노라면서 몸을 가볍게 숙여보였다.

(개츠비가 ‘닉 캐러웨이’에게 하는 말→) “만약 부탁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시오, 형씨,” 그가 내게 제안했다. (개츠비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하는 말→) “실례지만, 나중에 다시 합류하지요.”

그(개츠비. 31세)가 가자마자 난 황급히 조단(여자이름, 프로 여자골퍼)에게로 고개를 돌려 내가 놀라고 있는 게 맞는지를 물었고, 난 개츠비 씨가 적어도 혈색이 불그레하게 좋고 비만 똥땡이의 노신사(원문에는 40세 정도라고 나와 있음. 바꾸어서 해석했음)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누구긴 누구야, 그를 보고 하는 소리지?”라며 내가 말했다.

(조단이 하는 말→) “그럼 그것도 모르고서 지금까지 대화를 나눈 거예요?”

(‘닉 캐러웨이’가 하는 말→) “당신도 들었잖아. 그가 막 자기 이름이 개츠비라고 말하는 것을.”

(‘닉 캐러웨이’가 조단에게 하는 말→) “그래 그(개츠비)가 어디 출신이래? 진심으로 묻는 거야.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지?”

(조단이 하는 말→) “오호 이제 당신도 그 주제를 파고들기 시작했군요.” 그녀가 씩씩하다는 듯 웃어 보이며 대답했다. “글쎄, 일전에 그가 자신이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해요.”

흐릿하기만 하던 그의 배경이 막 형태를 갖추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그 다음 말에 그 형태도 지워지고 말았다.

(조단이 하는 말→) “하지만, 난 안 믿어요.”

(‘닉 캐러웨이’가 하는 말→) “왜 왜 안 믿는다는 거지?”

(조단이 하는 말→) “몰라요.” 그녀가 고집을 피웠다. “그냥 그가 그곳을 다녔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뿐이에요.”

조단(여자이름)의 말투에 담긴 무엇인가가 나를 자극해 좀 전에 다른 여성이 말했던 “개츠비가 사람을 죽었을 거라 그러시네.”라는 말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니 내가 그의 정체에 대해 호기심이 생긴 것도 당연했던 것이다.

만일 그녀의 입에서 개츠비가 실은 루이지애나(미국남부의 주)의 늪에서 솟아났다든가 또는 ‘로어 이스트 사이드’(=저지대+동쪽+지역. 실제 뉴욕 맨해튼의 남동쪽을 말함) 어딘가에서 불쑥 솟아난 놈이라고 해도 난 믿었을 것이고 응당 그게 더 이해가 빠르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내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어디에서인지도 모르게 나타나 롱 아일랜드 해협에 있는 이런 궁전 같은 집을 젊은이가 구입하는 경우란 없다.

“어쨌든, 그가 큰 파티를 열잖아요, 그럼 된 거죠~” 조단(여자이름)이 실재하는 얘거나 하자는 듯 세련되게 주제를 바꾸면서 말했다. “난 큰 파티들이 좋더라. 사생활이 보장되거든. 소규모 파티들에선 사생활이란 없으니까.”

베이스 드럼(큰 북) 한(1) 대가 “우루루 팡팡”하며 소리를 냈다. 그리고 정원(파티 장)에서 큰 반향(메아리)이 있었고 곧이어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신사 숙녀 여러분,”라며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외쳤다. “개츠비 씨의 요청에 따라 이제부터 저희들이 ‘블라디미르 토스토프’(피츠제럴드<저자>가 꾸며낸 이름임) 씨의 최신작을 연주해드릴 겁니다. 이 작품은 지난 5월에 ‘카네기 홀’(뉴욕에 있는 연주회장)에서 공연되어 열화와 같은 칭찬을 받은 작품이 올시다. 신문을 보셨다면 다 아실 겁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휘자는 쾌활해진 듯 겸손하게 웃어 보이더니 덧붙였다.

“그건 한 마디로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그 소리에 우린 모두 한바탕 웃었다.

“익히 다들 아실 수도 있을 그 작품의 제목은,” 끝으로 지휘자가 힘차게 소리쳤다. “‘블라디미르 토스토프’(피츠제럴드가 꾸며낸 이름임)의 <세계의 재즈역사>입니다.”

이후 들려온 ‘블라디미르 토스토프 씨’(저자인 피츠제럴드가 꾸며낸 작곡가 이름임)의 작품이 내면적으로 어떠했는지는 나는 모른다.

왜냐하면 곡이 시작되자마자 개츠비가 대리석 계단 위에 홀로 서서 흡족한 눈빛으로 이 그룹(모인 사람들)과 저 그룹(모인 사람들임)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우연히 낸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햇볕에 그을린 그의 피부는 얼굴 위에서 바짝 잡아 끌어당겨져 그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있었고, 그의 짧은 머리카락은 그 자신의 머리카락들이 매일 손질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그는 자신이 나쁜 사람일 거란 인상을 주변에 전혀 풍기지 않았다.

만약 그가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만 제외한다면 나는 그와 그 곳에 모여 있던 손님들을 구분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었다. 왜냐하면 술꾼들의 우애로운 떠들썩함이 커져갈수록 그는 오히려 더욱더 바른 자세를 유지해갔기 때문이었다.

〈세계의 재즈 역사〉(피츠제럴드가 꾸며낸 곡이름임)라는 곡이 끝을 맺자, 음악이 너무 좋았다는 듯, 상대방 남성의 어깨 위로 귀엽고 명랑하게 자신의 고개를 올려놓는 여인들도 있었고, 누군가가 쓰러지려는 자신을 붙잡아줄 것임을 알고서는 상대방 남성들의 품이나 모인 사람들 속으로 ‘뒤로 졸도하는’ 장난기가 발동한 여인들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개츠비 쪽으로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프랑스식 쇼트 헤어(단발머리)를 한 어떤 여인도 개츠비의 어깨에 기대진 않았으며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어떤 4중주단들도 개츠비를 중심으로 해서 노래를 부르진 않았다.

(집사의 말→)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개츠비의 집사였다. 그가 불쑥 우리 옆에 와 있었던 것이다.

“베이커 양이시죠?”(조단=여자이름. 베이커=성 씨)라며 집사가 물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개츠비 씨께서 베이커 양과 따로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하다는 말을 전해 달립니다.”

“저하고요?” 조단 베이커(여자이름. 여자 프로골퍼)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집사의 말→) “예, 부인.”(아가씨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부인이라고 함 :) ㅎㅎㅎ)

조단(여자이름. 여자 프로 골퍼선수)은 너무 놀라 나를 쳐다보며 자신의 두 눈썹을 치켜들며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사를 따라 저택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제야 그녀가 ‘이브닝 드레스’(야회복)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물론 그녀가 무엇을 입었던 스포츠 의류처럼 보였겠지만.

구름 한 점 없는 상쾌한 아침에 골프 코스(골프장)를 처음 돌아보는 선수마냥 그녀의 움직임 주변에는 명랑함이 묻어 있었다.

이젠 혼자였고 시간도 거의 새벽 2시였다.

머지않아 넓은 베란다(발코니)를 앞에 주렁주렁 매달고 있던 창문이 많고 기다랗게 생긴 방 하나(1)에서 당황스러우면서도 호기심을 자아내는 소리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래서 합창단 아가씨 두 명과 애 낳는 얘기 하느라 정신 못하고 있던 조단의 에스코트 대학생(오늘 파티에 조단과 같이 온 대학생)을 재주껏 피해, 물론 녀석은 나를 자기들의 대화에 끼우지 못해 안달이 난 상태였지만, 어쨌든 녀석을 교묘히 피해 나는 안쪽으로 들어가 보았다.

커다란 방엔 사람들로 가득했다. 노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던 여인들 중 한 명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그녀 곁에 서서, 유명 합창단에서 온 키 크고 붉은 머릿결을 한 아가씨 한 명이 가곡을 열심히 뽑아대고 있었다.

노래를 부르던 그 여성은 이미 샴페인을 잔뜩 마신 것 같았는데 노래 부르던 도중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세상만사가 아주, 그래 아주 아주 슬프다는 서투른 결론을 내려버린 듯 보였다. 왜냐하면 그녀가 노래를 부르다 못해 빗방울 떨어지듯 눈물을 흘려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사에 쉬는 부분이 나올 때면 어김없이 그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훌쩍훌쩍 흐느껴 울었고 그런 다음 떠는 목소리로 노래를 다시 시작했다.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들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일직선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잉크로 칠을 해 놓은 것 같은, 그녀의 속눈썹에 거품이 끼 있었는데 눈물들이 이 구슬 모양의 거품들과 만나면서 꼬여 나머지 부분들을 느끼고 검은 개울물처럼 흘러내렸기 때문이다.

그때 “얼굴 위에 있는 음표(검은 눈물)들 대로 노래하는구먼.”이라는 익살맞은 발언이 나왔고 그 바람에 그녀는 발끈해선 노래 부르다 말고 두 손을 확 집어 던지는 시늉을 하더니 자기 의자로 가 폴썩 주저 않아 포도주에 취해 바로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그녀가 글썩 ‘내가 그녀의 남편이다’라고 주장하던 남성과 대판(크게) 싸웠는지 뭐예요.”라며 내 팔꿈치에 서 있던 어떤 여성이 설명해주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움직이진 않고 눈으로만 방을 둘러본 것임). 방에 남아 있던 여인들 대다수는 누가 봐도 그녀들의 남편일 것 같은 남성들과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심지어 조단(여자이름. 프로 여자골퍼)과 함께 온 일행들, 그러니까 이스트 에그(동쪽 달걀. 기 존 부자들의 동네)에서 온 일행 4명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두 부부도 의견 차이가 생겨 따로 따로 앉아 있는 상태였다.

대략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다. 남자들 중 한 사람이 젊은 여배우에게 농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의 아내 되는 여성이 처음에는 그 상황을 귀부인 같이 위엄 있고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웃어넘기려고 시

도하다가, 이놈의 남편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그 여배우를 추근거리면 끝내 폭발해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공격하는 방법을 취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사이에도, 아내 되는 여성은 ‘다이아몬드 방울뱀’(1미터~2미터 길이의 미국 뱀. 등에 다이아몬드 무늬가 반복적으로 있음. 사진은 징그러우므로 생략 ‘:(’)처럼 그의 측면에 붙연 듯 나타나 그의 귀에다 대고 “싹! 싹!”하는 뱀 소리를 내며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이러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집으로 돌아가길 꺼려하고 있는 이들은 제멋대로인 남편들뿐만이 아니었다. 기분이 들뜬 아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내가 복도에 들어선 그때 술이 심하게 취한 남편 2명이 화가 단단히 나 있는 아내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아내들이 목소리를 살짝 높여 서로 상대방(아내)을 동정하며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정말 남자들이란 왜들 저를 까요. 아내들이 기분을 좀 내볼까 하면 집에 가자고 보채질 않나.”

“전 글썄 남편이란 단어 보다 더 이기적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니깐요.”

“말 마세요. 저희 파티장에서 항상 제일 일찍 자리를 뜨는 부부였어요.”

“저희 부부도요.”

(술 취한 남편이 끼어들며 하는 말→) “글쎄 알았다니까, 그러니 오늘 밤은 그만 돌아가자 여보. 우리가 마지막 남은 손님이야.” 남편들 중 한 사람이 주뻗주뻗(겁먹은 듯이)거리며 말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30분 전에 떠났단 말이야.”

남편의 그런 소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악의적이라며 아내들이 공감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여자들의 짧은 바둥거림으로 끝이 났고, 그래서 집에 안 가겠다고 복도에 버티고 있던 두 여성들은 어둠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쫓기듯 자리를 뜨게 되었다.

복도에 서서 내 모자(머리에 쓰는 모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개인서재의 문이 열리면서 ‘조단 베이커’(여자이름. 조단=이름. 베이커=성씨. 프로 여자 골퍼선수)와 ‘개츠비’(남자주인공의 성씨)가 함께 나왔다.

개츠비가 그녀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작별인사를 나누러 개츠비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의 태도에 담겨 있던 열의가 돌연 형식에 구애된 딱딱함으로 변해버렸다.

참을성 없게도 ‘조단’(여자이름. 여자 프로골퍼)의 일행들이 조단보고 빨리 오라며 현관에서 불러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악수를 하느라 잠시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막 가장 놀라운 얘기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라며 그녀가 내게 속삭였다. “가만 우리(조단과 개츠비)가 저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던 거죠?”

“글쎄, 대략 ‘한 시간 정도’ 머물렀던 거 같은데.”

“정말 놀라운 얘기였어,”라며 그녀(조단 베이커)가 생각에 잠겨 했던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하기로 (개츠비 씨와) 약속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오빠를 애태우는 선에서 그칠 거야.”

그녀가 우아하게도(-_-) 내(=닉 캐러웨이=남자) 얼굴에다가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나를 만나러) 한 번 들려 줘.... 전화번호부 책에..., ‘시고니 하워드’ 부인(조단 베이커의 고모 이름) 이라고 적힌 번호가 우리 집이야..., 내 고모야...,”

그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서둘러 자리를 떠났는데..., 포치(현관)에 서 있던 자신의 일행 속으로 녹아들어가면서 자신의 얇은 갈색 손을 흔들며 ‘멋 부러진’(명량한) 키스를 한 방 내게 날렸다.

첫 방문인데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아닌가 싶어 좀 쑥스러웠지만, 개츠비 주위에 무리를 지어 있던 손님들 틈으로 가서 합류했다.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한 것은, 그에게 사과도 하고 설명도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초저녁 부터 내가 그를 찾아다녔다고 설명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정원(파티 장)에서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다.

“별 말씀어요.” 개츠비가 내게 단단히 일렀다(요구했다). “자꾸 생각할 필요 없어요, 형씨. 그럼 내가 더 미안해지지 않습니까.”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내 어깨를 터는(먼지를 터는) “그의 손이”, 그가 애써 친밀한 척 내뱉은 “형 씨”라는 말보다 훨씬 더 스스럼없이 들렸다.

“우리가 내일 아침 수상 비행기 타러 가기로 한 거나 잊지 마소, 시간은 9시 정도로 합시다, 형 씨.”

그때 집사(개츠비 저택의 집사)가 그(개츠비)의 어깨 뒤로 다가와 말했다.

“필라델피아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있습니다.”(필라델피아=뉴욕의 남서쪽에 있는 도시. 아래에
첨부한 네이버지도 대략적 위치 참조바람)

“알았어, 금방 가지. 그들에겐 금방 갈 테니 끊지 말라고 전하게. (잠시 딴 생각을 한 다음) 잘 가
시오, 형씨.”

“굿 나이트.”(안녕히 계십시오)

“굿 나이트.”(안녕히 가시오) 개츠비가 미소를 지어보였다. 내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 자신
과 작별인사를 나누는 것을, 그가 줄곧 바라왔었다는 듯이 그의 미소 속에는 유쾌한 의미심장함 하나가
담겨 있는 듯 보였다.

개츠비가 말했다.

“굿 나이트(잘 가시오), 형씨. (다시 미소를 지어보인 후) 굿 나이트요(잘 가오).”

계단을 밟고 내려가는 동안 나는 그 날 저녁(파티)이 아직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12개의 헤드라이트(자동차)들이 정문 앞 15미터 지점을 비추며 기상천외하고 떠들썩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츠비 씨 저택 대문을 떠난 지 2분도 안 되었을 법한 신형 ‘쿠페형 자동차’(=쿠페=앞에 2인 좌석+뒤에 접었다 펴다 할 수 있는 작은 여유 공간<멍멍이용>) 한 대가 골 때리게도 도로 옆 도랑(개울) 속에 바퀴 하나가 빠져 자동차 오른쪽이 위로 오게 박혀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꺾이는 담(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피하려다 바퀴가 자동차 본체에서 분리된 모양이었다.

남의 일을 호비기 좋아하는 운전자 6명이 주의를 기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구경꾼 운전자들 6명의 자동차가 도로를 막는 꼴이 연출되어, 앞 쪽 상황을 모르는 뒤쪽 자동차들이 아까부터 거칠고 난폭한 경적 소리들을 막 울러대는 바람에 사고 현장은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뒤바뀌었다.

기다란 ‘더스터 코트’(여자 옷. 비옷처럼 생긴 가죽 외투. 더스트=먼지. ‘더스터 코트’ 사진링크

▶ <http://me2.do/5jqWVdJG> , 검색일자 : 2015-7-20)을 입은 한(1) 남성이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에서 내려 도로 한 복판에 서서 자동차를 한 번 보고 타이어를 한 번 보더니 다시 타이어를 한 번 보고 구경꾼들(구경꾼 운전자 6명)을 보았다. 그의 얼굴엔 술에 취해 기분 좋은 것과 지금 이 상황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한 어리둥절함이 공존해 있었다.

“보시게들!(봐봐!)” 그(자동차가 도랑에 빠진 운전자)가 설명했다. (마치 자신의 자동차가 아닌 듯 말하면서)“저게(자동차) 도랑에 빠져 있구먼.”

도랑에 자동차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무한히 경이로움을 주는 모양이었다.

나도 처음에는 그가 별스럽게 경이로워 하는 것만 보다가 이내 그 사람이 개츠비의 개인서고에 있던 술꾼(올빼미 안경을 한 중년 남성)임을 알아보았다.

(구경꾼 운전자들 6명이 하는 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올빼미 안경을 한 중년 남성)가 두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올빼미 안경을 한 중년 남성의 말→) “난 기계에 대해서라면 아무 것도 몰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구경꾼 운전자들 6명이 하는 말→) “하지만 뭘 일이 발생했으니까 저렇게 된 것 아닙니까? 벽으로 돌진하신 겁니까?”

“내게 묻지 말래도 그러네,”라며 그가 자신의 올빼미 안경을 벗어 손으로 먼지를 닦아내며 말했다. “난 ‘운전’의 ‘운’자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운전이라곤 눈으로 본 게 다야. 뭔가 일이 벌어졌다는 것, 내가 아는 건 그것뿐이네.”

(구경꾼 운전자 6명이 하는 말→) “이거 원, 운전이 서투시면 야간 운전은 삼가셨어야죠.”

“아 글썄 내가 운전 안했대도 그러네,” 그(올빼미 안경을 한 중년 남성)가 비분강개(화를 내며) 하며 해명했다. “난 운전대를 잡은 적도 없어.”

그의 어처구니없는 해명에 그만 구경꾼들 모두 “아!”하는 탄식을 내뿜었다.

(구경꾼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 “그럼 목숨을 끊으려고 운전대를 잡으셨단 말씀이십니까?”

(또 다른 구경꾼이 하는 말→) “아저씨 정말 그만 하길 다행입니다. 타이어 하나만 빠져서 살았지 큰 일 날 뻔 하셨어요. 운전도 못하시면서 왜 오밤중(밤12시 넘은 캄캄한 밤)에 운전을 하신 겁니까!”

(버럭 화를 내며→)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뭐로 들었나,” 그 자○미수자(올빼미 안경을 한 중년 남성)가 버럭버럭 설명했다. “난 운전을 하지 않았대도 그러네. 저 차 안에 또 한 사람이 더 있단 말일세.”

그의 발언이 가져다 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신형 ‘쿠페형 자동차’(=쿠페=앞에 2인 좌석+뒤에 접었다 펴다 할 수 있는 작은 여유 공간<멍멍이용>)의 문이 서서히 활짝 열려지면서 차 안에서 “(신음소리) 아아~아~아!”하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제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은 몇 사람이 아니라 군중(많은 사람들)으로 늘어나 있었고, 쿠페 자동차의 문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에 모두 얼음이 되어 한 걸음씩 뒷걸음을 쳤는데, 쿠페 자동차의 문이 덜컥 하고 다 열리자 유령이 그들을 덮친 마냥 주의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런 다음, 아주 점진적이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얼굴이 핏색(창백하고 흰색인) 어떤 개인이 온 몸을 후들거리며 사고가 난 자동차 안에서 나와, 분명 자신의 발 크기보다 훨씬 큰 무용화(무용할 때 신는 신발)의 앞부분으로 도랑(개울) 바닥을 할퀴었던 것이었다. 그것도 술이 취해 주저주저하면서 말이다.

눈이 확 돌아갈 것 같은 헤드라이트(자동차) 불빛들과 미칠 듯이 “뽕뽕!”대고 있는 경적소리들에 어안이 빙빙해진 그 유령(사고 난 자동차에서 방금 나온 사람)은 ‘더스터 코트’(여자 옷. 비옷처럼 생긴 가죽 외투. 더스트=먼지. ‘더스터 코트’ 사진링크 ▶ <http://me2.do/5jqWVdJG> , 검색일자 : 2015-7-20)를 입은 그 남성(올빼미 안경을 한 중년남성)을 인지할 때까지 잠시 몸을 후들거리며 서 있었다.

“무슨 일이야?” 그(유령 같은 몰골을 한 진짜 운전자)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휘발유(가솔린)가 또 떨어진 거야?”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도랑에 빠져 있는 자동차를 손으로 가리키며 하는 말→) “저거 좀 보세요!”

주변에 있던 6명의 손가락들이 일제히 탈골된 자동차 타이어를 지목하자, 그는 잠시 멍해져서 타이어를 뺀히 쳐다보다가 이내 그 타이어가 마치 하늘나라 위에서 떨어진 것으로 심히 의심이 간다는 듯이 고개를 치켜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타이어는) 자동차에서 빠진 거예요.” 보다 못한 누군가가 설명해주었다.

그(창백한 안색을 한 진짜 운전자)가 알아들었다는 마냥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처음엔 우리가 멈춘 걸 몰랐지.”

잠깐 뚝을 들이더니. 그런 다음. 그가 길게 한 번 숨을 내쉬며 어깨를 “딱!” 펴고는 결의에 찬 말투로 이렇게 발언했다.

(큰 목소리로) “이 근처에 주유소가 어느 쪽에 있소?”

적어도 12명의 남성들이, 물론 그들 중 일부는 그(사고 난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한 사람)보다 더 잘 알 리도 없었지만, 그에게 여차저차하고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물리적인 접촉 없이는 ‘아저씨 자동차’와 ‘바퀴’는 더 이상 하나로 될 수 없어요.”라고 누누이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었건만,

그(사고 난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한 사람)는 잠시 후 넋지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시동이 끄진 것 같은데, 기어를 후진으로 놓고 다시 한 번 밟아봐야겠는걸.”

(주변에 있는 12명의 남성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그게 아니라 바퀴가 빠졌다니까 그러시네!”

그(사고 난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한 사람)가 망설였다.

“뭐 시도해본다고 손해 볼 건 없으니까.”라며 그(사고 난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한 사람)가 말했다.

최고조로 치달으며 고양이 소리 같은 새된 소음을 울려대고 있는 경적 소리들을 뒤로하고서 나는 내 집 쪽으로 향하는 잔디밭으로 들어섰다.

잔디밭을 지나다 뒤를 한 번 돌아보았다.

달 모양을 한 ‘웨이퍼’(=바삭바삭하고 두께가 매우 얇은 과자=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과 같이 먹으면 굵~!)가 개츠비의 집을 환하게 비추며, 어느 때와 같이 밤을 아름답게 만들며, 여전히 조명을 밝

히고 있던 정원이 내는 웃음과 소리들을 곳곳이 견디고 있었다. (웨이퍼 과자 사진 링크 ▶ <http://me2.do/xh7s63ls> , 검색일자 : 2015-7-21)

곧이어 허무함이 갑작스레 저택의 창문들과 큰 문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 같더니, 작별인사를 하려고 의례적으로 손을 들고 서 있던 주인(‘집 주인’ 또는 ‘허무함의 주인’)을 집어 삼키고 완벽한 고독감만 남긴 채 사라졌다. (←이건 의역. 심하게 의역한 것이고 -_- . 다음의 문장이 원문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 됩니다. 직역 → <격식을 차린 작별인사를 하려고 손을 들고 포치(현관)에 서 있는 주인(개츠비)의 그림자에 완전한 고립감을 부여하려고, 느닷없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그의 저택의 큰 문들과 창문들을 통해 지금 흐물흐물 기어 나오고 있는 듯 보였다.>ㅎㅎㅎ^^)

지금까지 써온(적어온) 내용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나는, 내가 몇 주의 시간 간격을 두고서 있었던 3일 밤 동안의 사건들에 내가 완전히 빠져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와는 반대로 그건 단지 사람들로 붐비는 어느 여름날에 우연히 찾아온 경우들이었고, 그리고, 훨씬 나중에게까지도, 나는 내 자신의 개인적인 사무들(주식시장 공부)을 처리하는 데 훨씬 더 열중해 있었다.

사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데 보내고 있었다.

아침 일찍 태양이 그림자를 서부로 내던질 때면 난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로우어 만’(뉴욕 남쪽의 ‘만=바다’.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의 흰 ‘툼’(협곡이나 골짜기 같은 게 1922년 뉴욕에 남아있었을 것 같지 않은데-_-;;)들을 지나 <고객성실 신탁회사>(신탁회사=돈을 대신 맡아 놓고 그 돈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로 향했다.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로우어만’(=뉴욕 남쪽의 만=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위로, 가장 가까운 영어 문단의 중간쯤부터 해석 계속한 것이 아래 한글 문단임)

그곳에서 나는 여타(다른) 사무원들과 그라고 젊은 채권 세일즈맨들과 이름을 알고 지냈다. 그리고 점심이 되면 그들과 함께 어둡고 사람들로 붐비는 레스토랑에서 작은 돼지고기소시지들과 ‘매시트 포테이토’(=“삶은 감자+우유+버터”를 으갠 것. 사진링크▶<http://me2.do/5Oe56eE9> , 검색일자 : 2015-7-21)를 커피와 함께 먹었다.

심지어 나는 이 당시 ‘저지시티’(말뜻 “저지=젓소. 시티=도시.” 뉴욕 왼쪽에 있는 도시.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에 사는 어떤 아가씨와 잠시 관계를 가지기도 했었다. 그녀는 회사 경리부에서 일하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친오빠가 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뭐 어쨌든 그녀가 7월 휴가를 떠나던 날 자연스럽게 우리 관계도 그 길로 정리가 되었다.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저지시티'(=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저녁은 주로 '예일 클럽'에서 먹었다.(화자인 '닉 캐러웨이'는 예일 대학교 출신임)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가 졸업을 하고 나서도 '예일 클럽'에서 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하루 중 가장 침통한 이벤트가 되곤 했다.

식사를 마친 다음이면 위층으로 올라가 도서관에 들러 양심껏(양심적인 시간동안) '투자'와 '증권'에 관해 공부해보곤 했다.

세상사 늘 그렇듯 내 주변에도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몇 있었지만 그들이 도서관엘 올 리는 없었기 때문에 뭐 이랬든 저랬든 도서관은 저녁을 먹은 내가 머물며 하루를 정리하기에 깔끔한 장소였다.

그런 다음, 밤이 달콤한 멜론 향기를 풍길 때면, 나는 '메디슨 거리'(뉴욕 시의 광고업 중심가)를 거닐며, 역사가 긴 '머레이 힐' 호텔(말뜻. 머레이=남자이름. 힐=언덕)을 지나, 33번가 너머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역'(뉴욕의 역)으로 향했다.

나(30세)는 뉴욕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밤이면 대담해지는 이 고장 특유의 분위기며, 끈임 없이 나폴대는(깜빡거리는) 남녀와 자동차들이 잠 못 드는 눈동자들에 전해주는 보상이 나는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걸어서 '5번 가(거리)'로 올라가면서도 나는 붐비는 사람들을 세심히 살펴본 후 유달리 로맨틱 할 것 같은 여인네들을 찾아내 단 몇 분 만에 내가 그녀들의 삶의 일부로 적극 개입되어보는 상상을 그리는 것을 즐겼다. 결코 그녀들이 눈치 채거나 나를 비난할 리 없는 그런 영큼한 상상 말이다.

이따금씩은 마음속으로, 비밀의 거리 저 편에 있는 그녀들의 아파트에까지 따라갔다가, 그녀들이 문을 통해 화끈한 열기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녀들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보고 미소 짓는 생각을 해보곤 했다.

이따금씩은, 사람을 매혹시키는 뉴욕 대도시의 저물녘(해가 지는 저녁)에도 밀려드는 외로움을 나는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여타 다른 이(사람)들에게서도 느끼던 감정이었다.

혼자서 들른 레스토랑에서 식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레스토랑 창가 앞에서 어정거리던 야윈 물골을 한 회사원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가장 즐겨야 할 인생의 시기를 놓쳐버린 채 어두컴컴한 직장에서 머물러 있는 회사원들을 보면서도, 나는 이따금씩 밀려드는 외로움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다.

또 다시 8시(저녁8시)가 되고, 40번 가(도로)의 어두운 차선들 위로 극장 행(극장 가로 하는 택시) 택시들이 고동치며 5열 썩 모일 때면, 나는 마음이 철렁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택시 안에서 함께 기대고 있던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별 시답지도 않은 농담에 자지러지듯 웃어대기도 했다. 담뱃불이 없었다면 분명치 않았을 70가지의 동작들이 택시 밖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나 역시도 유쾌함 쪽(집???)으로 서둘러 나아가며, 그들의 은밀한 흥분을 공유하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빌어주었으니까.

잠시 동안 나는 ‘조단 베이커’(여자이름. ‘프로’ 여자 골퍼? 여자 ‘프로’ 골퍼???)를 잊고 있었다. 그러다 한여름 썬 가서야 나는 그녀를 다시 발견했다.

우선은 나도 우쭐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녀와 어울려 다니는 것이 말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쨌건 골퍼 챔피언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모든 이들이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러다 연애와 관련된 일이 생겼던 것이다.

사실 나는 사랑이라고 느낀 적은 없었다. 단지 진기한 호기심의 일종이었다.

그녀가 세상에 내밀고 있는 지루해하고 거만해하는 얼굴에는 무엇인가가 숨어 있었다.

허세(=과장해서 꾸밈)는 대개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기 마련이다. 심지어 그것이 본 모습을 갖추기 전에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나는 그것(조단 베이커의 허세)이 무엇인지를 그녀에게서 발견했다.

우리가 함께 '워릭'(보스턴 밑에 있는 도시. 아래 구글 지도 참조)에서 있었던 '하우스 파티'(시골 저택에서 주인이 손님들을 초대해 며칠씩 파티를 여는 것)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었다. 그녀는 뚜껑을 열어둔 채 렌터카(빌린 자동차)를 빗속에 세워두었는데 나중에 그것에 대해 렌터카 직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워릭'(=보스턴 밑에 있는 도시=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그러자 갑자기 ‘데이지’(이 소설의 여자주인공 이름) 집에서 있었던 저녁식사 자리에서도 좀체 생각나지 않던 그녀에 관한 또 다른 일화 하나가 생각났다.

그녀가 첫 번째로 출전한 골프 선수권 대회였을 것이다. 신문 하단에 한 줄로 그녀가 언급이 되었다. 그녀가 준결승 경기 도중 나쁜 위치에 떨어진 골프공을 옮겼다는 의혹이 있음을 암시하는 기사였다. 곧 그 의혹은 추문(스캔들)으로까지 발전할 뻔했다. 그러다 사라지고 말았다.

캐디(=도우미)가 자신의 발언을 반복했기 때문이었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목격자도 자신이 아마 잘못 보았을 지도 모름을 인정하고 나섰던 것이다.

하지만 그 추문이 사라진 뒤에도 그 사건과 그녀의 이름이 내 마음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조단 베이커(여자이름. 프로 여자 골퍼)는, 본능적으로 영리하고 통찰력이 있는 남성들을 피했다. 그건 그녀가 규율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에서 더 안전함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녀는 구제할 수 없을 만큼 부정직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 만약 내키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지면, 내 생각에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을 향해 냉소적이고 거만한 웃음을 지어보이면서도 자신의 견실하고 쾌활한 육체의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속임수들과도 거래해온 것 같았다.

물론 나는 그것(조단의 정직하지 못함)을 크게 개의치 않았다.

여성에게 있어서 정직하지 못함이란 크게 나무랄 수만은 없는 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쑥불쑥 여자들의 그런 면들에 유감스러울 때가 있었지만 또 그때마다 잊곤 했다.

동일한 ‘하우스 파티’(시골 저택에서 주인이 손님들을 초대해 며칠씩 파티를 여는 것)에서였을 것이다. 우리가(화자인 ‘닉’과 여자 골퍼 선수인 ‘조단’) 자동차 운전에 관한 호기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을 때가 말이다.

시작은 이랬다. 그녀가 몇몇 노동자들에게로 너무 접근해서 차를 통과시키는 바람에 우리 자동차의 ‘바퀴 덮개’가 노동자 한 사람의 외투 위에 달린 단추 하나를 “탁!”하고 때리고 지나갔던 것이었다.

(화자인 ‘닉 캐러웨이’의 대사→) “사고 날 뻔 했잖아,” 내가 까칠하게 말했다. “좀 더 주의해서 운전 하든지 아님 다신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겠어.”

(골퍼 선수인 ‘조단 베이커’의 대사→) “주의해서 운전하고 있어.”

(화자인 ‘닉 캐러웨이’의 대사→) “그렇게 안 보이잖아.”

(골퍼 선수인 ‘조단 베이커’의 대사→) “그럼, 다른 사람들이 조심해서 피해가겠지.”라며 그녀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화자인 '닉 캐러웨이'의 대사→) “그게 지금 내가 한 말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골퍼 선수인 '조단 베이커'의 대사→) “보행자가 비끼면 된다는 소리였어,” 그녀가 주장했다. “자동차 사고의 대부분은 쌍방과실이란 말이야.”

(화자인 '닉 캐러웨이'의 대사→) “그러다 너 만큼 부주의한 보행자를 만나면 어찌려고 그래.”

(골퍼 선수인 '조단 베이커'의 대사→)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라며 그녀가 대답했다. “난 부주의한 사람들은 정말 싫어하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오빠를 좋아하는 이유야.”

햇볕에 긴장된, 그녀(조단 베이커)의 회색 '눈'이 정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우리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바꾸어놓은 뒤였다. 잠시 나는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편이었는데다가 욕망(성적인 욕망)에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하는 내면적인 규율들로 당시 내 자신을 꽉 채우고 있던 터였다. 그리고 우선은 새로운 연애보다, 시골집에서부터 얽힌 구설수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느꼈다.

나는 “사랑하는 닉으로부터,”(닉=이름)라고 쓴 편지를 1주일 마다 한 차례씩 어떤 여성에게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녀에 대해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녀가 테니스를 칠 때 그녀의 입술 윗부분에 희미한 땀방울들이 어떻게 맺히는 가 정도였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로운 연애(조단 베이커)를 시작하기 전에 그녀(예전에 결혼할 거라는 소문이 났었던 여성)와의 관계를 요령껏 끊어야 된다는 것 정도는 나도 어렵잖게나마 인지하고 있는 바였다.

누구든 털어서 먼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 자신이 지닌 미덕(착함)에 관해서라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극히 소수의 정직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4 장

IV

제 4 장

(4장의 이 앞 부분은 ‘닉 캐러웨이’의 상상임. ‘닉 캐러웨이’=화자=소설 속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사람)

일요일 아침, 교회의 종소리들이 해안가 마을들에까지 울리는 동안, 사교계 인사들은 자신들의 연인들을 데리고 개츠비의 저택으로 와 개츠비의 잔디밭 위에서 들떠서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는 밀주(=술) 제조자가 틀림없대요.” 개츠비의 칵테일(술)들과 꽃들 사이를 어딘가를 거닐면서 젊은 여성들이 수군거렸다.

“왕년엔 글썸 그(개츠비)가 사람을 죽었다더군요. 그(개츠비)가 ‘폰 힌덴부르크(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장군들 한 명. 사진링크<보는 사람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폰 힌덴부르크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부하. 둘 다 매우 유명함>▶ <http://me2.do/FanVbvsJ> , 검색일자:2015-7-24)의 조카라는 사실을 밝혀낸 한 남성을 칼로 찔러 죽였다지 뭐예요. 게다가 그 남성(죽은 남성)은 그(개츠비)가 그 악마(누구???)와 육촌(=사촌의 아들 딸 끼리의 관계)이라는 것까지 막 밝혀내기 일보 직전이였대요. 자기(=부르는 소리), 장미 한 송이 부탁해, 그리고 저기 ‘크리스털 유리’(납으로 만든 고급 유리. 사진링크 ▶ <http://me2.do/54ct998X> , 검색일자 : 2015-7-24) 잔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담아서 가져오는 것도 잊지 말고.”

나는 예전에 한 번 열차 시간표의 빈 여백에다가 그 해 여름에 개츠비의 저택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 한 적이 있었다.

지금은 접힌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간 낡은 시간표지만, 시간표 윗부분에는 아직도 여전히 “1922년(소설의 시간적 배경) 7월 5일까지만 사용가능.”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시간표였다.

하지만 그 명단들은 색만 회색으로 바랬을 뿐 여전히 읽을 수 있는데, 그 이름들을 여기서 언급해보는 것은 당신에게 큰 감명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개츠비에게서 후한 대접을 받고서도 개츠비가 누구냐고 대문은 열빠진 족속들을 더 다루는 것보단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트 에그’(동쪽 달걀. 기존 부자들의 동네)에서는 ‘체스터 베키’ 부부(남편과 아내)와 ‘리치’ 부부가 왔으며 그리고 내가 예일 대학교 재학 때부터 알던 ‘분젠’이란 이름의 남성이 왔더랬다.

또한 지난 여름에 ‘메인’(미국 북동부의 주 이름) 주에서 물에 빠져 죽은 ‘웹스터 시벗’ 박사도 왔었다.

그리고 ‘호른빈’ 부부와 ‘윌리 볼테르’ 부부도 왔었고, 그리고 모퉁이에 모여들 있다가 누가 자신들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면 염소 떼처럼 자신들의 코 구멍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던 ‘블랙 벅’(=인도에 사는 영양의 이름이 ‘블랙 벅’임. 사진링크 ▶ <http://me2.do/xYIQ3Par> , 검색일자 : 2015-7-24) ‘일가문’(같은 성씨를 가진 전체 대가족 모두를 말함)이 모두 왔었다.

그리고 ‘이즈메이’ 부부도 왔었고 ‘크리스티’ 부부도 왔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후베르트 아우어 바흐’ 씨와 ‘크리스티’ 씨의 아내가 온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대도 어느 겨울 오후에 자신의 머리카락 색들이 몽땅 목화처럼 새하얗게 변해버린 ‘애드가 비버’ 씨도 왔었다.

내 기억으로는, ‘클라렌스 엔다이브’(사람이름)라는 사람도 ‘이스트 에그’(동쪽 달걀. 기존 부자 동네) 쪽에서 왔었다. 물론 그는 딱 한 차례만 왔는데, 왜냐하면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니커 바지). 사진 링크 ▶ <http://me2.do/xCu6Ls5t>, 검색일자: 2015-7-24)를 입고 온 날 정원(=개츠비의 정원=파티장)에서 ‘에티’(남자이름)라는 술꾼과 대판 싸움이 벌어져 이 후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롱 아일랜드 섬 지역 중에서 좀 더 멀리에서는, ‘치들’ 부부와 ‘O. R. P. 슈뢰더’ 부부, 그리고 조지아(미국 남부의 주) 주에서 온 ‘스톤윌 잭슨 아브람’ 부부와, ‘피시가드’ 부부와 ‘리플리 스넬’ 부부가 왔었다.

특히 스넬(남자이름)은 감방(교도소)에 들어가기 3일 전에 그곳에 들렀는데 그만 너무 술을 퍼마신 결과 자갈로 된 도로 위에 뺨었고 그러다 ‘율리시스 스웨트’ 부인이 모는 자동차에 자신의 오른손이 밟히는 사고를 당하고 만다.

또한, ‘댄시’ 부부도 왔었다. 그리고 나이가 60세는 훨씬 더 먹었을 ‘S. B. 와잇베이트’도 왔었다. 그리고 ‘모리스 A. 플링크’도 왔었고, ‘해멀헤더’ 부부도 왔었다. 그리고 담배 수입업자인 ‘벨루가’ 씨도 왔었는데 그는 올 때 여러 명의 애인들을 대동하고 왔었다.

‘웨스트 에그’(서쪽 달걀. 신혼 부자들의 동네. ‘닉 캐러웨이’와 ‘개츠비’의 저택이 있는 동네임)에서는 ‘폴’(← ‘폴란드 사람’이라는 뜻임) 부부와 ‘멀레디’ 부부 그리고 ‘세실 로벅’ 씨와 ‘세실 쉐’ 양, 그리고 뉴욕 주 상원의원인 ‘굴릭’ 씨와, <필름스 파 엑셀런스>(← ‘빠어난 영화들’이란 뜻임)를 좌지우지하던 ‘뉴턴 오키드’ 씨와, ‘에크하우스트’(남자이름임) 씨와 ‘클라이드 코헨’ 씨와 ‘돈 S. 슈바르츠’(‘슈바르츠=

흑인'이란 뜻임) 씨의 아들과, 그리고 '아서 맥카티'(남자이름) 씨가 왔었다. 이들 모두는 한 가지 방식으로든 또는 다른 방식으로든 영화계와 연관이 있던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캣잇' 부부도 왔으며, '뱀버그' 부부도 왔으며, 그 후에 자신의 아내를 목 졸○ ○인 바로 그 '멀둔'의 남동생인 'G. 얼 멀둔'도 왔다.(얼=남자이름임)

프로모터(공연이나 스포츠 행사의 기획자)인 '다 폰태노'도 개츠비의 저택에 왔었다. 그리고 '에드 레그로스' 씨도 왔었고 '제임스 B.' 씨도 왔었다.

“저질 술”만큼이나 뒤끝 장렬이었던 '페렛' 씨와 '데 종' 부부 그리고 '어니스트 릴리' 양도 왔었는데 이들은 모두 도박을 하러 개츠비의 정원(파티장이자 도박장)에 들른 경우들이었다.

특히 '페렛' 씨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개츠비의 정원을 어슬렁거린다는 의미는 그가 전날 밤의 노름에 돈을 몽땅 잃었다는 의미였으며 그 의미는 곧 <전차 조합>의 주가가 전날 보다 훨씬 더 올라야 함을 의미했다.

‘클립스프링어’(바위타기영양이란 뜻임. 사진링크 ▶ <http://me2.do/FD4QZBlg> , 검색일자 : 2015-7-25)라는 청년도 개츠비의 저택에 종종 그러니까 너무 자주 들렀었는데 한 번 왔다하면 죽치고 눌러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개츠비 저택의 하숙생으로 받아들여지곤 했다. 솔직히 ‘클립스프링어’에게 다른 집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지만.

개츠비의 저택을 종종 방문했던 연극배우들로는 ‘구스 웨이즈’ 씨와 ‘호러스 오도나반’ 씨와 ‘레스터 마이어’ 씨 그리고 ‘조지 두크워드’와 ‘프랜시스 불’이 있다.

또한 뉴욕에서 ‘크롬’ 부부와 ‘백히손’ 부부와 ‘덴니커’ 부부와 ‘루셀 베티’ 양과 ‘코리건’ 부부와 ‘캘러허’ 부부와 ‘듀어’ 부부와 ‘스컬리’ 부부와 ‘S. W. 벨처’(‘벨처=목도리’란 뜻임) 부부와 ‘스머크’(‘스머크=히죽히죽 웃는다’라는 뜻임) 부부와, 결혼한 지 며칠 안 된 ‘퀸’ 부부가 왔었다. ‘퀸’ 부부는 개츠비 저택에 왔다가 둘 다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나는 바람에 지금은 갈라진 상태다.

타임스스퀘어(뉴욕 중심부. 사진링크 ▶ <http://me2.do/5ilzg947> , 검색일자 : 2015-7-25)로 들어서는 지하철 정면으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을 끊은 ‘헨리 L. 팔메토’(‘팔메토=야자나무’라는 뜻임) 씨도 개츠비 저택을 방문했었다.

‘베니 맥클레나한’ 씨는 파티가 열릴 때면 늘쌍 양 팔에 4명의 애인을 끼고서 등장했었는데, 그녀들은 육체적으로 분명 동일한 여성들이 한 명도 끼어 있지 않았지만 ‘베니 맥클레나한’ 씨가 워낙에 비슷비슷한 여성들만 데려오는 통에 손님들 사이에서는 그녀들이 전에 왔던 여성이 아닌지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모두 다른 여성들이었다.

‘베니 맥클레나한’ 씨가 데리고 왔던 여성들의 이름들로는 ‘자클린’ 양, ‘콘수엘라’ 양, 그리고 ‘주디’양과 ‘준’양이 있었다.

만약 성씨도 모두 알려달라고 강요받았더라면 그녀들은 자신들의 성씨가 ‘발음하기 귀여운 꽃 이름이나 월(=달)의 이름’ 또는 ‘악명 높은 미국 거대 자본가들의 성씨들 중 하나’를 제시했을 것이다. 실은 그들의 사촌이라고 우기면서 말이다.

앞서 언급한 이들에 덧붙여서, ‘파우스티나 오브라이언’(오브라이언=아일랜드 성씨임) 양도 개츠비의 저택에 한 차례 정도 방문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리고 ‘베데커’ 가문의 처자들과,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총탄에 맞아 자신의 코가 달아나버린 ‘브루어’라는 청년도 왔었다.

‘알브룩스버거’ 씨도 자신의 피양새(약혼녀)인 미스 ‘허그’(네덜란드 이름임) 양과 함께 왔었다.

‘아르비다 피츠 피터스’(스페인 이름) 부부도 왔었고, 한때 미국 재향 군인회의 수장이었던 ‘P. 주이트’ 씨도 왔었다.

그리고 사실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자신의 운전기사로 알려져 있던 한 남성과 함께 미스 ‘클로디아 히프’(히프=엉덩이) 양도 왔었다.

그리고 우리가 두크(=공작)라고 불렀던 왕자 비슷한 녀석도 한 명 왔었는데, 어째 녀석의 이름은 그땐 알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잊어버렸다.

이들 모든 인사들이 그 해 여름에 개츠비의 저택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었다.

7월말 어느 아침 9시 정도의 시각이었다.

개츠비의 호화로운 자동차 한대가 돌투성이 도로를 비틀거리며 올라오더니 내 집 문 앞에 주차해서는 아름다운 3단 뿔피리 멜로디 소리를 냈다.

그건 그(개츠비)가 내 집을 방문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비록 내가 그의 파티에 2번 정도 갔었고 그의 수상비행기도 탔었고 그의 여러 차례 거듭된 초대에 응해 그의 집 앞 해변으로 자주 갔었지만 말이다.

(31세 개츠비의 대사→) “좋은 아침이오, 형씨. 오늘 저와 점심이나 같이 하십시오. 이 차로 함께 갈까 합니다.”

개츠비는 자기 자동차의 후받기 위에 올라서서 희한하게 건들 건들거리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내 생각에, 그런 동작은 어린 시절 ‘들어 올리는 일’이나 ‘똑바로 오래 앉아 있기’를 해 본 적이 없거나 혹은 우리들이 가끔씩 하는 스트레스성 게임들에 너무 많이 노출된 결과 붙은 습관인 것 같았다.

자신이 차분한 척 보이게끔 하려고 그가 격식을 차려 동작들을 하는 내내 이 습관(건들거림)은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었다.

한 마다로 개츠비는 한시도 차분히 있질 못했다.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의 발은 무언가를 똑똑 두드리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멀쩡히 가만있는 자신의 주먹을 폼다가 접었다가를 상대방 눈에 떨 정도로 반복하고 있었다.

개츠비(31세)가 자신이 가지고 온 차가 백이 가지 않느냐는 듯이 쳐다보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

“차가 꽤 괜찮지 않습니까, 형씨?” 그가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듯 흠받기에서 내려 차의 전체 모습을 내게 보여주며 말했다. “일전에 한 번이라도 이런 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다. 나도 이런 차를 본 적이 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실은 자신의 생에서 한 번 짚은 봤을 차이다.

기름진 크림(흰 색)색깔에, 니켈(금속)로 화사하게 도금이 된 차, 극악무도할 정도로 길쭉한 본체(자동차) 여기저기에 ‘모자 보관용 모자 상자들’과 ‘음식 보관용 상자들’과 ‘각종 공구 상자들’이 달려 부어오른 차, 그리고 햇빛을 12번은 반사시킬 것 같은 ‘바람막이 유리’들이 겹겹이 갖추어진 차.

일종의 ‘초록색 가죽 온실’ 같은 수많은 유리 막들의 그늘에 몸을 기대고서, 우리(화자인 ‘닉 캐러웨이’와 남자주인공인 ‘개츠비’)는 시내(뉴욕)로 향했다.

나(30세. 이름이 ‘닉 캐러웨이’)는 지난 달(6월)에도 이미 그와 6번 정도 대화를 나누었었지만 슬프게도 그가 대화 꺼리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막연히 그(=개츠비=31세)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거라 여겼던 내 첫 인상은 점점 시들어져갔고, 이젠 그냥 그가 내 옆집에서 정성껏 도로가 식당을 꾸리고 있는 돈이 남아도는 부자 정도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던 찰나에 당황스럽게도 이렇게 합승이라니.

그는 격식 있는 말을 하려 했지만 그게 영 세련되지가 못했는데, 어쨌든 그가 그런 말투를 버리기 시작하면서 캐러멜(먹는 캐러멜. 짙은 갈색) 색깔을 한 자신의 정장 무릎 위를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웨스트 에그’(서쪽달걀. 신흥부자들의 동네. ‘개츠비’와 ‘닉 캐러웨이’의 집이 있는 곳이 웨스트 에그임) 근처 촌락(마을)에 당도하기 전이었다.

(개츠비가 자신의 양복 무릎 위를 찰싹 때리면서 하는 말임→) “보시오, 형씨.” 그가 갑작스레 침묵을 깨며 말했다. “날 어떻게 생각하시오, 초면도 아닌데 뭐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오?”

난 기선을 살짝 제압당했다. 그래서 일단은 잘못 들은 척 회피하는 대답을 하기 시작했다.

“좋소다, 내 자신에 대해 당신에게 좀 설명해 주리다.” 그가 내 말을 끊으며 말했다. “여기저기서 주어들은 얘기들로 당신이 날 잘못 판단하지 않길 바라서 하는 말들이니 오해는 마쇼.”

파티가 열릴 때마다 손님들 사이에서 그(31세. 개츠비)를 두고 뒷말들이 많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는 듯 싶었다.

(오른손을 들어 보이며) “맹세하건대 진실만을 말하리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천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듯이 그가 오른 손을 쳐들었다. “난 (미국) 중서부 지방에 살고 계시던 어느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모두들 돌아가셨지요. 자라긴 미국에서 자랐지만 대학은 옥스퍼드 대학교 (영국)에서 다녔습니다. 그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었거든요. 거기서 몇 년을 교육 받는 전통 말입니다.”

그(31세, 개츠비)가 ‘눈을 모로 뜨고’(결눈질로) 나를 쳐다보았을 때, 난 왜 ‘조단 베이커’(여자 이름. 여자 프로골퍼선수)가 그(개츠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옥스퍼드 대학교(영국)에서 다녔다”라는 표현을 너무 서두르면서 표현했던 것이다, 그것도 한번에 끝맺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침을 한 번 꿀꺽 삼키고서 마치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녔다”라는 말이 목에 걸린 마냥 마치 그 문장 때문에 전에도 심하게 괴롭힘을 받아본 마냥.

그가 기껏 진실을 말하겠다고 해놓고서 내뱉은 첫 마디가 이 정도의 신뢰 밖에 못 줄 정도였다 보니, 나머지 말은 들어보나 마나였다.

갑자기 날 납치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였다.

“(미국) 중서부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라며 내(30세. 이름이 ‘닉 캐러웨이’)가 불쑥 물었다.

“샌프란시스코(미국서부.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입니다.”

“그렇군요.”

“가족들은 모두 죽었고 저만 남아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죠.”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샌프란시스코’(=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그(31세. 개츠비)의 목소리에 장엄함이 묻어 있었다. 지구상에서 가족 모두가 갑작스레 사라진 것에 대한 아픈 추억이 아직도 그의 머릿속에 붙어 따라다닌다는 마냥.

잠시 나는 '지금 이 자식이 나를 놀리려고 이러는가?' 싶었다. 하지만 그를 힐끗 한 번 쳐다보았을 때 나는 그에게 그럴 의도가 전혀 없음을 눈치 채게 되었다.

“그 후 파리나, 베니스나, 로마와 같은 유럽의 모든 수도(서울)들을 떠돌며 인도의 젊은 왕자처럼 살았죠. 보석 박힌 장신구들을 수집하거나 뭐 대개의 경우는 루비(보석. 사진링크 ▶ <http://me2.do/FyYe5r8o> , 검색일자:2015-7-27)들을 수집하는 거였지만, 큰 사냥감을 추적하기도 하고, 유화(그림 그리기)에도 좀 빠져보기도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죠. 오래전 제게 벌어졌던 슬픔(가족들의 죽음을 의미함)을 잊기 위해 노력하면서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나(30세. 이름이 '닉 캐러웨이')는 가까스로 참아야 했다.

그(31세. 개츠비)가 사용한 문구(말)들이 속살이 다 드러나 보일 정도로 너무도 낯아서 내 머릿속에선 기껏, 터번(인도모자)을 쓴 캐릭터(사람)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톱밥을 흘리면서 '파리 서쪽 끝에

있는 블로뉴 숲'(사진링크-"partell"님의 네이버블로그 ▶ <http://me2.do/GM7RyNr7> , 검색일자:2015-7-27)에서 미친 호랑이 한 마리를 추적하고 있는 이미지밖엔 떠오르지 않고 있었다.

(아래의 글 전체는 개츠비가 자신이 살아온 삶이라며 '닉 캐러웨이'에게 소개하는 대사입니다. 읽기 쉽게 단락을 여러 번 나누었지만 모두 개츠비 1명의 대사입니다.)

(개츠비의 자기소개 "시작")

“그러다 전쟁(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된 거죠. 나름 꽤 괜찮은 휴식기간이었습니다. 죽으려고 별 짓을 다했으니까요. 하지만 마법에 걸린 삶이라 쉽게 죽진 않더군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저는) 중위(육군 계급)로 임명되었었죠.

제가 제 휘하 2개 '기관총 파견대'들을 이끌고 너무 전방으로 가서 '파견대 사이에'(원문에는 '양쪽 다에'라고 나와 있음) 5백 미터 정도의 간격이 생겼고 그래서 후방에 있던 제7 보병 연대 병력이 전진을 못하게 된 게 '아르곤 숲'에서였습니다. (참고 : 아르곤 숲=프랑스 동북부. 2차례의 세계 대전 모두에서 격전지였음)

우리 파견대들은 그곳에서 꼬박 이틀 밤낮을 머물렀는데, 16대의 ‘루이스식 경기관총’(영국에서 만든 기관총. 사진링크 ▶<http://me2.do/x6OPzATj> , 검색일자:2015-7-27)으로 무장한 총 130명 규모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7 보병 연대 병력이 마침내 당도했을 때 수북이 쌓인 시체더미들 사이로 독일군 사단 깃발들을 3개나 발견했습니다.(사단 1개의 병력은 5천명 내지는 1만 명 규모임. 그러니까 개츠비 말로는 130명이 3만 명을 이겼다는 뺨임 :) ㅎㅎㅎ)

나는 곧 그 전공으로 소령으로 진급하게 되었고 모든 연합국 정부들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훈장을 준 연합국 정부에는 ‘몬테네그로’(이탈리아 오른쪽 바다 건너에 있는 국가. 아래의 네이버 지도참조)도 있었습니다. 아드리아 해(이탈리아의 오른쪽 바다)에 있는 저 자그마한 국가 말입니다!”

(←큰 따옴표 끝)

▼ 네이버 지도 참조

검색어 ‘몬테네그로’(=이탈리아 오른쪽 국가=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작은 ‘몬테네그로’(이탈리아 오른쪽 바다 건너에 있는 국가. 아래의 네이버지도참조)!

개츠비(31세)는 몬테네그로라는 단어에 키포인트를 주면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그가 보인 미소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는데, 예를 들면, 자신이 몬테네그로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몬테네그로라는 나라의 복잡한 역사와 그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몬테네그로인들의 용감한 투쟁의식에 깊이 공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런 몬테네그로인들이 따뜻한 마음씨를 하나씩 모아 훈장을 자신에게 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얹히고설킨 유럽의 정치 지형 상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미소였다.

나를 차에 태운 그의 의도를 의심하던 나는 이제 그에게서 강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건 마치 12권의 여성잡지들을 덤뽕뽕 훑어보고 냅을 때의 심정과 같았다.

개츠비(31세. 이 소설의 남자주인공)가 자신의 호주머니꺼로 손을 가져가더니 리본 하나가 느슨하게 달려 있는 금속 메달 하나를 꺼내 내 손바닥 안에 쥐어 주었다.

“몬테네그로(이탈리아 오른쪽 바다 건너에 있는 국가)에서 받았던 메달입니다.”

참으로 놀라 자빠지게도 그 훈장은 진짜였다. 적어도 진짜처럼 보였다.

“(이탈리아어로 쓰여 있음→) 진품인증,”라고 시작되는 그 문양은 원둘레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어로 쓰여 있음→) 몬테네그로의 니콜라스 국왕.”

“뒤집어 보시지요.”

“(영어로 적혀 있음→) 제이(이름) 개츠비(성 씨) 소령(육군계급)에게 수여함,”(소설 속에서 개츠비는 여러 가지 가짜 이름을 사용합니다. 개츠비의 가짜 이름들 중 하나가 ‘제이’입니다) 내(30세)가 읽어내려 갔다. “전투에서 비범한 용맹을 보여준 것에 대하여.”

(개츠비가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서 또 다른 메달을 꺼내 보여주며) “여기 제가 늘 휴대하고 다니는 또 다른 메달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옥스퍼드 대학교 재학 시절의 기념품이죠. 이건 ‘트리니티 쿼드’(옥스퍼드 대학‘교’ 내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의 사각형 안뜰을 말함. 옥스퍼드 대학교는 40개의 대학으로 구성)에서 찍었던 사진이죠. 제 왼쪽 편에 서 있는 녀석이 지금은 ‘도커스터’(소설가인 피츠제럴드가 임의로 지어낸 지명임. 영국 남부에 있는 ‘도‘체’스터’라는 지명에서 ‘체’를 ‘커’로 바꾸어 쓴 것임)의 백작 노릇을 하고 있죠.”

상의(단체복)를 통일해서 입은 6명의 젊은이들이, 아치(=둥근) 길 아래에서 어정거리고 있었고 뒤로는 다수의 첩탐들이 보이는 그런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서의 개츠비는, 약간, 아니 지금보다 훨씬 많이 젊어보였다. 사진 속 그의 손에는 크리켓(영국식 야구경기의 방망이. 사진링크 ▶ <http://me2.do/Gg6eybhZ> , 검색일자:2015-7-28)이 쥐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개츠비가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럽에서 인도의 왕자처럼 생활했다고 한 말) 모두 진짜였다.

내 눈 앞에는 이제, 대운하(인공으로 강을 만든 것) 위에 세워진 그의 궁궐에서 이글거리듯 무늬를 뿜내고 있는 호랑이들의 가족들이 보이는 듯 싶었고, 내 눈 앞에는, 노여움으로 얼굴을 심하게 붉힌 그(개츠비)가 루비(자주색 보석. 사진링크 ▶<http://me2.do/FyYe5r8o> , 검색일자:2015-7-27)들이 가득한 자주 빛 께짱(보석상자)을 열고서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을 으르고 달래는 광경이 보이는 듯 싶었다.

“전 오늘 당신에게 큰 부탁 하나를 드릴 생각입니다.”라며 그(31세, 개츠비)가 자신의 기념품들을 흡족한 듯 호주머니 속으로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다. “그래서 당신이 저에 대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입니다. 절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으로 여기시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아시듯이, 전 낯선 이들 속에 있는 저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제게 일어났었던 슬픔을 잊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죠. 그리고 이러저리 떠돌다 여기(미국의 ‘롱 아일랜드 섬’에 있는 ‘웨스트 에그’라는 지역)로 흘러들어온 것도 사실이니 까요.”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오늘 오후에 마저 듣게 되실 겁니다.”

“점심때요?”(개츠비와 화자인 ‘닉 캐러웨이’는 지금 점심을 같이 하러 뉴욕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음)

“아뇨, 오늘 오후에 말입니다. 당신과 ‘미스 베이커 양’(여자 프로 골퍼 선수인 ‘조단 베이커’를
말함)이 차를 한 잔 마실 거란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요.”

“그럼 당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여자가 미스 베이커 양이란 말인가요?”

“아뇨, 아닙니다 형씨. 사람 말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뜻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말은,
미스 베이커 양이 이 문제에 관해 당신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것에 친절하게도 승낙해주더라는 뜻이었습
니다.”

‘이 문제라니?’ 난 지금 개츠비가 말하는 ‘이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짐작가지 않
고 있었다. 흥미가 가더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뭔지 말하면 될 것을 질질 끄는 것이 알밋다고나 할까.

게다가 난 ‘조단’(조단 베이커. 여자 프로 골퍼 선수)에게 ‘제이 개츠비’(이름이 ‘제이’. 성이 ‘개
츠비’)에 관해 의논해볼 목적으로 차를 같이 마시자고 했던 게 아니다.

어감이 주는 뉘앙스며 주제가 주는 부담감이며 그냥 한 마디로 난센스였다. 내가 왜 그녀와 개
츠비 씨의 일로 의논을 해야 한단 말인가.

잠시 난 공공이가 많은 이 인간의 개인사에 너무 많이 발을 디딘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개츠비(31세. 이 소설의 남자주인공)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뉴욕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의 건물거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우린 ‘루즈벨트 무역항’(←이 소설의 저자인 피츠제럴드가 지어낸 이름임)을 지나갔다. 항만엔 붉은 색 벨트(끈)로 묶인 원양(바다) 항해용 선박들이 언뜻 보였다.

그런 다음 음산해보이지만 사람들이 영 없지만은 않은, 빛깔이 바랜 1900년대 풍 분위기가 나는 술집들이 길게 자리 잡은 빈민가 앞 자갈 도로를 속도를 내 통과했다.

그러자 ‘젯더미 계곡’(쓰레기 하치장)이 우리 양쪽 옆으로 입을 짝 벌렸다. 그곳을 지나치는 동안, 나는 ‘윌슨 부인’이 생명력을 헐떡거리며 주유소(차량 정비소 겸 주유소를 말함) 펌프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언뜻 보았다.

자동차의 바퀴 덮개들을 양(2) 날개처럼 펼치고서 우리(남자주인공인 ‘개츠비’와 화자인 ‘닉 캐러웨이’)는 ‘롱 아일랜드 시티’(뉴욕 안에 있는 시티이름.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 거의 절반을 산산조각 내며 내달렸다(과속했다).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롱 아일랜드 시티’(=뉴욕 안에 있는 시티이름=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우리가 고가도로의 기둥을 끼고 회전하려했을 때 귀에 익숙한 오토바이의 “부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려와 옆을 보니 오토바이를 탄 멋진 경찰관 한 명이 우리와 나란히 달리며 우릴 뒤쫓고 있었다. 그 경찰관은 무척 당황한 것 같았다.

“좋소다(세우겠소), 형씨.”라며 개츠비가 그 경찰관을 부르며 말했다.

우린 천천히 자동차의 속도를 줄였다.

그런 다음 개츠비는 자신의 지갑에서 흰색 카드 한 장을 꺼내 그 경찰관의 눈앞에 흔들어보였다.

“알았습니다.”라며 그 경찰관이 자신의 헬멧을 “통통~!!!” 두드리며 말했다. “다음번에는 바로 알아 모시겠습니다, 개츠비 씨. 실례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이 떠난 후)

“뭘 보여준 겁니까?” 내가 반문했다. “옥스퍼드 대학교 재학시절 찍었던 그 사진을 그에게 보여준 겁니까?”

“웬걸요 형씨. 일전에 전(저는) 뉴욕 경찰국장에게 약간의 호의를 베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마무리 된 뒤부터 그가 매년 이렇게 크리스마스카드를 한 장씩 보내주더군요.”

거대한 다리 너머로는, ‘철제 빔’(=철제 대들보=거더)들을 통과한(꺾뚫은) 햇빛들이 지나가는 자동차 지붕 위에 끊임없이 빛의 깜빡임 들을 만들고 있었고, 강(이름이 ‘이스트 강’) 건너편에서는 냄새 나지 않는 돈으로 건설되었기를 바라마지 않는 도시(뉴욕)가 하얀 각설탕 더미들 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퀸즈버러 교(뉴욕의 다리이름. 사진링크 ▶<http://me2.do/xYIQsgj5> , 검색일자:2015-7-29)에서 바라다 본 뉴욕은 매번 처음 보는 뉴욕이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신비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거친 첫 번째 약속 같은 도시였다.

▼ 네이버 지도 참조

검색어 ‘퀸즈버러 교’(=뉴욕의 다리이름=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꽃이 수북이 쌓인 장례식 차량 한 대가 우리 곁을 지나갔다. 곧이어 창문에 블라인드(가림 막)를 친 마차 2대도 지나갔고, 죽은 이의 친구들이 탄 것 같은 좀 더 밝은 느낌이 나는 마차 2대도 지나갔다. 죽은 이의 친구들은 비통한 눈빛과 유럽 남동부지방의 특색인 짧은 윗입술을 하고서 마차 안에서 우리를 내다보았다. 칙칙한 휴일 날 나는 그들이 개츠비의 화려한 자동차를 보게 된 게 기뻐다.

우리가 ‘루스벨트 섬’(뉴욕의 섬. 아래의 네이버지도 참조)을 가로지르는 동안 ‘리무진’(대형 자동차) 한 대가 우리를 지나쳐갔는데, 백인 운전수가 모는 자동차였다. 리무진 안에는 최신 유행하는 옷들을 입은 흑인들 3명이 앉아 있었는데, 멋쟁이 흑인 남성 2명과 아가씨 1명이었다. 웃기게도 그들이 우리 자동차를 향해 라이벌 의식을 느낀 듯 계란 노른자위 같은 자신들의 눈알들을 굴리며 지나쳐갔을 땐 난 정말이지 꺄꺄 소리 내 웃고 말았다.

▼ 네이버 지도 참조

검색어 ‘루스벨트 섬’(=뉴욕의 섬=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이제 이 다리(=퀸즈버러 교 = 뉴욕의 다리이름. 사진링크 ▶<http://me2.do/xYlQsgj5> , 검색 일자:2015-7-29)도 해치웠으니까(건넌으니까)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어.”라며 나는 생각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심지어 개츠비를 한 명 더 만나게 되더라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시끄러운 한낮이었다.

내(30세)가 개츠비(31세)와 점심을 함께 하기 위해 들린 곳은, 선풍기가 잘 갖추어진 ‘42번가’의 어느 ‘지하 레스토랑’이었다.

밝은 지상에 있다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어서 눈을 깜박거리 적응한 뒤에야, 나는 대기실에서 다른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개츠비)를 알아볼 수 있었다.

(‘개츠비’가 이 소설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에게 하는 말→) “캐러웨이 씨, 이쪽은 제 친구인 울프샤임 씨입니다.” (울프샤임=독일식 이름임)

키가 자그마하고 납작코를 한 유대인 남성이 큰 머리를 들더니, 콧구멍 양쪽 끝에 코털이 무성하게 난 얼굴로 나를 반기었다.

거의 어둠과 다름없던 그의 얼굴에서 작은 두 눈을 발견해낸 건 그가 고개를 들고도 잠시 뒤의 일이었다.

(악수는 닉 캐러웨이와 나누면서 대화는 개츠비와 계속하며 하는 말입니다. → “(말줄임표)...
어쩐지 어디서 본 것 같더라니,”라며 울프샤임 씨(독일식 이름)가 열심히 나와 악수를 나누면서 말했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꽤 괜찮게 해낸 것 같지 않나?”
“뭐가요?” 내(이 소설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 30세)가 공손히 물었다.

그(울프샤임)는 분명 내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수를 하고 나서도 그의
표정 풍부한 납작코가 개츠비를 시야에서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울프샤임이 개츠비에게 하는 말임→) “카츠페프(사람이름. 저자가 지어낸 이름임)에게 그 돈을
건네면서 내 뭐라고 한 줄 아나. ‘좋아, 카츠페프, 저 자식이 입을 다물 때까지 땡전 한 닢(1원)도 지불해
주지마.’라고 했지. 그러자 그 자식이 즉시 입을 다물지 뭐야.”

개츠비가 우리 둘(이 소설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와 ‘유대인’)의 팔짱을 각자 끼더니 레스토랑
안으로 이끌고 나아갔다. 그래서 막 시작하려던 새 문장을 꿀꺽 삼켜야했던 울프샤임 씨는 몽유병 환자와
같은 방심 상태로 빠져들었다.

“하이볼(=위스키+소다수+얼음)로 하실 거죠?”라며 웨이터 주임이 말했다.

“여기도 근사한 레스토랑이군.” 울프샤임 씨(유대인)가 레스토랑 천정에 붙어있던 장로교회 풍의 요정(육감적인 몸매의 여자들 그림이 아닐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림 같은 것 상상바람)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말했다. “하지만 난 이 건너편에 있는 레스토랑이 더 좋던 걸!”

“예, ‘하이볼’로 주소.” 개츠비는 웨이터 주임의 말에 승낙의 말을 하고 난 다음 울프샤임 씨에게 “거긴 너무 덩장아요.”라고 말했다.

“덥고 자그마한 곳이지, 맞아.”라며 울프샤임 씨가 말했다. “하지만 그 덕에 추억거리들도 많았지.”

(‘닉 캐러웨이’가 ‘울프샤임 씨’에게 묻는 질문→) “어디 있는 레스토랑인데요?”라며 내가 물었다.

(‘개츠비’가 ‘울프샤임 씨’ 대신 ‘닉 캐러웨이’에게 대답해줌→) “예전 ‘메트로폴’ 호텔이 있던 곳이지요.” (‘메트로폴’는 대도시란 뜻임)

(유대인인 울프샤임 씨의 대사 시작→) “죽거나 떠나간 녀석들의 얼굴로,” 울프샤임 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다. “가득한 곳이지, 예전 그 ‘메트로폴’ 호텔 말이야. 이젠 돌아오지 않는 친구도 생각나는군. ‘로지 로젠탈’(사람이름. 다시 안 나오는 이름임. 독자가 알 필요 없음.)이 거기서 총에 맞아 죽은 그 날 밤의 일은 내가 살아있는 한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야.

(읽기 쉽게 단락을 임의로 나눔)

이 정도 크기의 테이블이었겠군, 총 6명에서 온 저녁 내내 술로 떡을 치고 있었지. 그 중에 ‘로지’(로지 로젠탈)도 있었고 말이야. 그렇게 꼴딱 새벽을 새나 했더니만 웬걸 아침이 거의 다 되었을 때쯤 이상한 차림새를 한 웨이터 녀석이 실실 웃으면서 ‘로지’(로지 로젠탈)에게로 다가오지 않겠어?

(읽기 쉽게 단락을 임의로 나눔)

그러더니 밖에서 누가 좀 찾더라는 말을 전해달란 부탁을 받았더군. ‘좋아,’라며 ‘로지’(로지 로젠탈)가 나가겠다고 말하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어, 그래서 난 그런 ‘로지’(로지 로젠탈)를 도로 의자에 앉히곤 이렇게 말했지.” (←유대인인 울프샤임 씨의 대사 끝)

(유대인인 ‘울프샤임’ 씨가 과거를 회상하며 ‘개츠비’와 ‘닉 캐러웨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임→)

(큰 따옴표 시작→)“(작은따옴표 시작. 회상하는 부분임→)‘너를 만나고 싶다면 그 새끼들보고 직접 여기까지 들어오라고 그래, 넌 나가선 안 돼, 로지(사람이름), 맹세코, 이 방에서 나가지 마.’(←작은따옴표 끝)

그러니까 그때가 새벽 4시 정도였을 거야 아마, 블라인드(햇빛 가림 막)들을 올렸다면 새벽빛이 확연히 보였을 시간이었으니까.”(←큰 따옴표 끝)

“그래서 그(로지 로젠탈)가 나갔나요?” 내가 그의 본심을 알아채지 못하고서 물었다.

“물론 나갔지.” 지금도 당시 상황이 자신을 화나게 한다는 듯 울프샤임 씨의 납작코가 새빨강게 빛을 발하며 말했다. “방을 나가다 말고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다네. ‘웨이터 녀석에게 내 커피 치우지 말라고 그래 내 곧 돌아올 테니까!’라더군. 그리고 녀석이 보도(도로)로 나서자마자 그 자식들은 그 배불뚝이 녀석의 배에다 3방을 갈기곤 차를 몰고 달아나버렸지.”

“제 기억이 맞는다면 아마도 그들 중 네 사람은 전기 처형되었었죠.”라며 내가 기억을 되새기며 말했다.

“다섯이었네, 베키(사람이름)란 새끼도 현장에 있었으니까.” 대화가 이쯤 무르익자 그가 흥미가 당겼다는 듯 코털이 가득한 콧구멍을 내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그래 사업 연줄이 닿는 사람을 찾고 있다면서.”

사람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서 느닷없이 사업 연줄 얘기를 꺼내는 그에게 내게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개츠비가 나대신 나서 상황을 정리해주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개츠비가 황급히 소리쳤다. “우리 쪽 사람이 아니에요.”

“아냐?” 울프샤임 씨는 다소 실망한 듯 보였다.

“그 얘기라면 언젠가 따로 말씀드리겠노라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이 쪽(닉 캐러웨이)은 그냥 친 구입니다.”

“아 내 자네에게 용서를 구함세.”라며 울프샤임 씨가 말했다.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 얘기할 뻔 했군.”

.....

즙(물)이 많고 잘게 썬 고기 요리가 나오자, 좀 전에 나눈 감수성 가득한 ‘메트로폴’ 호텔 이야기는 잊고서, 울프샤임 씨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음식을 입으로 집어넣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눈을 두리번거리며 레스토랑 룸 곳곳을 아주 천천히 주시하고 있었고 몸을 돌려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을 세밀히 살펴본 다음에야 시선을 거두었다.

말이 조심하는 것이지, 아마도 나만 그 자리에 없었어도, 그는 우리가 앉아 있던 레스토랑 테이블을 걷어내 아래에 감춰진 것이 뭐 없는지 살펴보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형씨.”라며 개츠비기 내 쪽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오늘 아침 차안에서 제가 당신을 좀 귀찮게 한 건 아닌지 염려되네요. 그런 건 아니었겠죠?”

또 다시 그의 미소가 날아왔다. 하지만 난 이번엔 그 미소를 받아주지 않고 말했다.

“전 미스터리(수수께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도대체 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솔직히 제게 다 털어놓지 않으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굳이 미스 베이커 양을 통해 제게 전하시려는 건지도 전 모르겠고요.”

“오,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형씨.” 그가 나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미스 베이커 양은 뛰어난 운동선수인 걸 당신도 아시잖습니까, 그런 그녀가 사리에 어긋나는 일을 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형씨.”

갑자기 그(개츠비)가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았다. 그가 펄쩍 일어나더니 허겁지겁 룸(방)를 떠났다.

그래서 레스토랑 식탁 테이블에는 나와 울프샤임 씨만 남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전화를 걸어줘야 할 때가 있어서 간 거요.” 개츠비가 황급히 자리를 뜨는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울프샤임 씨가 내게 설명해주었다. “착한 녀석(개츠비)이지 않소? 얼굴도 꽤 잘생긴 편이고 ‘영락없는’(완벽한) 신사의 풍채를 하고 있는 녀석이지.”

“네.”

“녀석은 옥스퍼드(‘옥스퍼드 대학교’를 잘못 발음한 것) 출신이요.”

“넛?”

“영국에 있는 사립대학 있지 않소. 옥스퍼드 대학을 아시오?”(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이라고 잘못 발음하고 있음.)

“네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든 내놓으라하는 최고의 대학들 중 하나지.”

“개츠비를 알고 지낸지가 꽤 되셨나 봐요?” 내가 그에게 물었다.

“수년(=몇 년),” 흡족한 듯 울프샤임 씨가 대답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마자 기쁘게도 녀석과 얼굴을 트게 되었지. 녀석과 딱 한 시간 대화해보고 난 간파했네. 녀석이 예절을 잘 배우며 자란 젊은이란 것을 말이야. 왜 있잖아, 처음 보자마자 이 자식을 데리고 당장 집으로 데려가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녀석 말이야. 녀석이 딱 그랬지.” 울프샤임 씨가 말을 끊었다. “아, 이 ‘소맷부리(손목부분) 단추’들을 보고 있었구먼.”

그때 난 그의 ‘소맷부리(손목부분) 단추’들을 보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보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상아(코끼리 엄니)조각들로 만들어진 ‘소맷부리(손목부분) 단추’들이었다.

“사람의 어금니들로 만든 가장 좋은 표본들이오,” 그(=울프샤임 씨=유대인)가 알려주었다.

“거참!” 나는 그 단추들을 세밀히 살펴보았다. “어금니로 단추를 만들 생각을 다 하다니 흥미롭 습니다.”

(개츠비가 다가오는 것이 보이자)

“오케이.” 그가 양복상의 속으로 소매를 접어 넣으며 말했다. “정말로, 개츠비는 여자들에게 아주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젊은이요. 그는 절대 친구의 마누라를 넘볼 녀석이 아닙니다.”

(개츠비가 테이블로 돌아옴)

본능적으로 신뢰한다는 당사자(31세. 개츠비)가 테이블로 돌아와 앉자, 울프샤임 씨는 자기 몫의 커피를 황급히 마시더니 벌떡 일어났다.

“점심 잘 먹었네,” 울프샤임 씨가 말했다. “그럼 이제 ‘노땅’(늙은이의 속된 표현)은 눈치껏 젊은 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겠지.”

“더 계세요, 마이어,” 누가 봐도 더 계시기를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듯이 지나가는 말로 개츠비가 말했다.

일종의 식후 기도인양 그가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자네들(남자주인공인 ‘개츠비’와, 이 소설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은 너무 예의발라, 하지만 난 다른 세대(나이 많은 세대)에 속해 있는 걸.”라며 울프샤임 씨가 사뭇 진지하게 말했다. “자네들은 여기 더 머물면서 스포츠나 젊은 여자들 얘기나 아니면... (손사래를 치면서) 뭐 어쨌든 자네들이 알아서들 얘기 나누게.” 그가 뭘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자신의 손사래로 그 빈 단어를 대신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50(50살)이네. 난 주제넘게 젊은 사람들의 일에 나서고 싶지 않다네.”

그(울프샤임)가 악수를 나누고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마술 같은 납작코가 비통한 듯 떨리고 있었다.

순간 내가 무슨 무례한 짓이라도 해서 그를 화나게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걱정 마세요. 그는 이따금씩 굉장히 예민해진답니다.” 개츠비가 설명해주었다. “우연히 오늘이 그 날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는 뉴욕에서도 알아주는 괴짜거든요.... 지금은 브로드웨이(30여개의 극장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죠.”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브로드웨이’(=뉴욕 극장가=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닉 캐러웨이의 대사→) “그(=울프샤임 씨=유대인)는 뭐하는 사람이죠, 혹시, 배우?”

(개츠비의 대사→) “웬걸요.”

(닉 캐러웨이의 대사→) “그럼 치과의사입니까?”

(개츠비의 대사→) “마이어 울프샤임이요?(마이어=이름. 울프샤임=독일식 성씨) 전혀요, 그는 도박하는 사람(도박꾼)입니다.”

순간 개츠비가 말하기를 주저하더니 처분하게 덧붙였다.

(개츠비의 대사→) “1919년에 월드 시리즈(미국야구경기)에서 있었던 승부조작 사건을 막후에서 조종한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1919년에 미국에서 ‘블랙삭스 스캔들’이 있었음. 즉 당연히 이기리라고 생각되던 선수들이 돈을 받고 상대방에게 졌다는 내용임. 해당 스캔들을 잘 정리한 우리나라 사이트 링크 ▶ <http://me2.do/F2GFqiHR> , 위키백과(사진) ▶ <http://me2.do/5wKhDrGO> , 검색일자:2015-8-2)(참고 ‘블랙삭스 스캔들’에 대해 알아두면 나름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링크 건 주소 꼭 클릭해서 읽어보세요~ 참고로 위키백과 링크주소를 클릭하면 사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닉 캐러웨이의 대사→) “넛? 월드 시리즈(미국야구경기)에서 뭘 조작해요?” 내가 다시 물었다.

그의 말(월드시리즈 승부조작)을 듣고 난 어리둥절했다. 물론 나도 월드 시리즈에서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때까지 알고 있기로, 그 일은 단지 우연히 그리고 일부 피할 수 없었던 사슬(사건)들의 결과로 벌어진 일로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야구에 대한 5천만 명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한 개인이 마치 은행금고를 폭약으로 날려버릴 일념하나로 살아가는 강도마냥 장난질을 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잠시 후 내가 물었다.

“기회를 잘 엿본 거지요.”

“교도소에는 왜 가 있지 않은 겁니까?”

“그들은 그를 교도소에 넣을 수 없어요, 형씨. (손가락으로 머리를 두드리며) 그는 스마트한 사람인걸요.”

나는 이번 점심의 계산은 내가 내겠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웨이터가 거스름돈을 돌려주러 왔을 때 보니, 붐비는 레스토랑 룸 안을 가로질러 저 쪽에 ‘툼 뷰캐넌’(툼 뷰캐넌은 여주인공인 데이지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톰 뷰캐넌은 ‘월슨 부인’의 남자이기도 합니다. 법적인 아내가 있는데 바람피우는 중임-_-)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툼 뷰캐넌은 누구? → 톰 뷰캐넌은 여주인공인 데이지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톰 뷰캐넌은 ‘월슨 부인’의 남자이기도 합니다. 법적인 아내가 있는데 바람피우는 중임-_- . 또한 톰 뷰캐넌은 이 소설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와는 예일 대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톰 뷰캐넌과 ‘닉 캐러웨이’의 나이는 정확히 30세입니다.)

“잠깐 저 좀 따라 와 주시겠습니까?”라며 내(이름이 ‘닉 캐러웨이’)가 말했다. “당신(개츠비)께 소개해주었으면 하는 친구 녀석(톰 뷰캐넌)을 발견했거든요.”

우리를 발견한 톰 뷰캐넌도 자리에서 냉큼 일어나더니 우리가 있는 방향으로 여섯 걸음 정도 성큼성큼 다가왔다.

“뭐 어째 지낸 건가 응?” 톰 뷰캐넌(이름=톰. 성 씨=뷰캐넌)이 내심 반가운 듯 말했다. “데이지(톰의 아내)는 지금 그날 이후로 자네로부터 연락이 없다며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 있단 말이야.”

“그 전에, (톰 뷰캐넌에게 개츠비를 소개하며) 이 분은 개츠비 씨야, (개츠비에게 톰 뷰캐넌을 소개하며) 그리고 여긴 뷰캐넌 씨입니다.”

그들(톰 뷰캐넌과 개츠비)이 짧게 악수를 나눌 때 개츠비의 얼굴엔 뭔가 당혹스러우면서도 긴장된 그러니까 평소와는 다른 얼굴빛이 나타났다.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톰이 재차 내게 물었다. “도대체 점심으로 무엇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멀리까지 떨어진 레스토랑에 온 거지?”

“난 개츠비 씨랑 할 얘기가 있어 점심을 함께 한 거야.”

내가 그 말을 하며 개츠비에게로 고개를 돌렸을 때 아뿔싸 그(개츠비)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아래부분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1917년의 어느 10월....

그러니까 ‘프라자 호텔’(뉴욕의 호텔. 아래의 네이버지도참조)에 있는 ‘다윈’(찾집이 있는 매점 겸 공원)에서, 등받이가 높고 수직이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조단 베이커’(조단=이름. 베이커=성 씨. 프로 여자골퍼선수)로부터 그 날 오후에 들은 이야기이다.

▼ 네이버 지도 참조

검색어 ‘프라자 호텔’(=뉴욕의 호텔=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이후 내용은 조단 베이커가 과거를 회상하며 이 소설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난(=여자=이름이 ‘조단 베이커’) 한 발자국은 보도(포장된 인도) 위를 또 한 발자국은 잔디밭 위를 밟으며 이곳저곳을 뛰어가고 있었어.

물론 신발 밑바닥에 박힌 영국산(영국제품인) 고무창(신발 밑바닥)이 부드러운 잔디 밭 표면에 자국을 내며 파고드는 느낌이 너무 좋아 신발로 잔디밭을 밟는 것이 더 행복했어.

나는 또한 바람에 살짝 나부끼는 체크무늬(=바둑판모양무늬. 당시 독일의 국기를 연상시키는 체크무늬) 치마도 하나 입고 있었는데, 내 치마가 나부낄 때면, 각각의 집들 앞에 뽀뽀하게 내걸려 있던 빨강색, 흰색, 청색 국기들이 “쫓-쫓-쫓-쫓! 요즘 젊은 것들이란!”라며 못마땅해 했지. (제1차 세계 대전 중인데 적국인 독일의 국기를 연상시키는 체크무늬를 입은 것에 대해 거리의 집들 앞에 내걸려 있던 미국국기들이 한탕을 하는 듯 바람이 불더라는 얘기임)

(4장 시간적 배경 : 1917년의 어느 10월....)

국기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당연 ‘데이지 페이’(데이지=이름. 페이=성씨) 네 집 앞에 속해 있었어.

당시 데이지는 18살, 나보다 딱 두 살 위였지.

데이지는 루이빌(미국 동부 켄터키주의 도시이름.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에 있던 모든 아가씨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었어.

하얀색 드레스가 잘 어울렸던 그녀는 흰색 로드스터(지붕이 없고 좌석이 2개인 자동차. 로드스터 사진 ▶<http://me2.do/5xoKKRFu> , 검색일자:2015-8-3)를 가지고 있었어.

나머진 알겠지, 그녀의 집에선 그녀를 찾는 전화가 온 종일 울려댔고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원문에는 ‘캠프 테일러’라고 나와 있음)에서 걸려온 그 전화기들을 통해 들뜬(성적으로 들뜬) 젊은 장교들이 그녀의 하룻밤을 독차지할 특전을 요구해대고 있었지.

“페이 씨, 딱 한 시간만이라도 저 좀 만나주세요!”라며.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루이빌'(=미국동부의 도시=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4장의 장소 : 루이빌(=미국 중동부 켄터키주의 도시이름))

어느 날 아침 내(당시 16세. 이름이 조단 베이커)가 그녀 집 맞은편에 간 날이었는데 글썽 그녀의 하얀색 로드스터(지붕이 없고 좌석이 2개인 자동차. 로드스터 사진 ▶<http://me2.do/5xoKKRFu> , 검색일자:2015-8-3)가 인도 바로 옆에 세워져 있지 않겠어.

데이지는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어떤 육군 중위와 함께 로드스터에 앉아 있었어.

그 두 사람이 너무 서로에게들 열중해 있는 바람에 내가 그들 곁으로 2미터까지 접근할 동안에도 그녀는 나를 못 보고 있었어.

“안녕, 조단(조단 베이커의 이름).”라며 그녀가 너무 뜻밖이라는 듯 외치지 뭐야. “가까이로 와 줄래.”

퀸카인 그녀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에 난 정말 우쭐해졌어. 나보다 나이 많은 모든 언니들 중에서 그녀는 내가 가장 숭배한 언니였으니까.

데이지(18세. 여자이름)가 말했어. “붕대 감으러(만들러) 적십자사에 가는 길이니? 그럼 오늘 난 못 갈 것 같다고 좀 그들에게 전해줄래?”

데이지(18세. 여자이름)가 그 말을 하는 동안, 그 젊은 장교는 데이지만을 바라보고 있었어. 왜 있잖아, 모든 어린 여성들이 이따금씩 동경해마지 않는 그런 아늑한 시선으로 말이야. 그때의 상황이 내 (16세. 이름이 ‘조단 베이커’)겐 너무 로맨틱했기 때문에 이후로도 난 그 때 사건을 생생히 떠올려보곤 했어.

그 젊은 장교의 이름은 ‘제이 개츠비’였어.(제이=이름. 개츠비=성 씨. 개츠비의 이름이 실제로 뭔지에 관해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전혀 엉뚱한 이름들이 개츠비의 이름이라고 등장할 때마다 그냥 넘기시면 됨.)

(개츠비의 이름에 관한 부연설명 : 소설 속에서 개츠비는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가짜 이름을 자기 이름인 양 말해줍니다.

개츠비의 실제 이름이 뭔지 즉 이 소설가가 처음에 생각한 진짜 개츠비의 이름이 뭔지와 개츠비 개인의 이력에 대해 소설 속에서는 모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개츠비의 이름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개츠비를 쓸 당시 피츠제럴드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재능은 있는데_- 너무 글쓰기 재능이 놀랍다 보니 노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래서 작가가 『위대한 개츠비』(1925년 작)를 쓸 당시 나이를 계산해보니 어...29세네.-_ㅏ
나이 많네...

개똥지식의 한계-_-;;

어이구 일단 패쓰~

여하튼 피츠제럴드는 소설 속에서 모호한 그러니까 완결되지 않은 느낌을 풍기는 부분을 이 소설 속에 많이 넣었습니다.

당연히 책이 출간되고 나서도 작가는 계속해서 심표를 넣었다가 뺐다가를 반복하는 등등...

즉 지금은 어느 분이 진짜 피츠제럴드의 최종본인지 아무도 모름.

피츠제럴드가 너무 수정을 많이 해서임 -_-;; 이번 장은 작가 나이 계산 잘못하고 나서부터는 말이 서지 않네요... 일단 패쓰~)

그리고 나는 4년이 넘도록 그(개츠비)를 보지 못했어. 심지어 롱 아일랜드에서 그(개츠비)를 다시 만났을 때조차도 난 그와 그가 동일인물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는걸. ← 개츠비의 이름에 관한 부연 설명 끝)

그러니까 그게 1917년이었어.

그 다음해(1918년)에는 내(17세. 이름이 '조단 베이커')게도 몇몇 멧쟁이들이 생겼고 나도 이제 골퍼시합들에 출전하게 되면서 데이지(19세. 이 소설의 여주인공)를 전처럼 자주는 보지 못하게 됐거든.

데이지는 살짝 노땅(나이 많은 축. 여기서 20대 중반을 말함:) ㅎㅎ)들과 잘 어울렸는데... 하긴 뭐 그땐 그녀가 누구든 다 잘 어울렸을 때니까.

그런데 못된 루머들이 그녀 주변에 맴돌기 시작한 거야.

글쎄 어느 겨울 야밤에 그녀가 짐을 몽땅 싸들고서 나가려는 것을 그녀의 엄마가 발견했다는 거야. 그녀는 해외로 파견을 가려는 어떤 병사(군인)를 마중해주기 위해 뉴욕으로 가려던 거였데.

그래서 그녀의 엄마는 너무 놀라 그녀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도록 꽁꽁 막았고 그 일 때문에 데이지는 단단히 화가 나서 자신의 가족들과 몇 주일 동안이나 단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다는 거지.

하지만 어쨌든 데이지도 그 후론 약간 철이 들었는지 더 이상 군인들을 가지고 놀지 않았어, 대신 절대 군대에 징집될 수 없는 평발(발바닥이 평평해 오래 못 걸음)이거나 근시(시력이 나쁨)인 마을 젊은이들과만 어울려 다녔지.

다음 해 가을이 될 즈음, 데이지도 다시 명량해졌어, 변함없이 명량했지.

제1차 세계 대전 정전(1918년 11월 11일 독일 항복) 후에 데이지는 사교계에 데뷔했걸랑.

그리고 아마 내 짐작엔 데이지가 이듬해(1919년) 2월에 ‘뉴올리언스’(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도시이름)에서 온 어떤 남성과 약혼을 한 번 했었던 것 같아.

그러더니 웬걸 6월이 되니 시카고에서 건너 온 ‘톰 뷰캐넌’(당시 27세)과 결혼하지 뭐야.

그들의 결혼식은 정말이지 루이빌(=데이지의 집=미국 중동부 켄터키주의 도시이름)에선 본 적이 없는 화려하고 요란한 결혼식이었어.

신랑 측에선 민영 철도 차량 4칸에 100명의 하객들을 데리고 건너왔고, ‘뮐바흐 호텔’(뮐바흐 독일어. 뮐바흐는 ‘물방아를 돌리게 하는 개울’이란 뜻임. 네이버사전 참조했음)의 모든 층을 다 임대했지.

놀랐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냐 신랑은 결혼식 하루 전날 신부 측에 70억 원은 족히 나갈 ‘진주 한 줄로 된 목걸이’를 결혼예물로 전달했지 뭐야.

난(18세. 이름이 ‘조단 베이커’) 그때 신부 들러리였는데, 결혼피로연이 열리기 30분 전에 그녀(20세. 이름이 ‘데이지’. 『위대한 개츠비』의 여주인공)의 방에 들어갔다가 글썩 꽃무늬 드레스를 입은 채 6월의 밤만큼이나 사랑스럽도록...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신 상태로 자기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걸 발견했지 뭐야.

그녀는 한 쪽 손에 ‘소테른’(프랑스 산 백포도주. 생산지의 지명이 상품명과 같은 ‘소테른’임) 포도주 병을 쥐고 있었고 다른 쪽 손엔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어.

“나를 축하해줘,”라며 데이지(20세. 신부)가 투덜거렸어. “술이라곤 살아생전 한 입도 대본 적이 없는 내게, 아, 어찌 이리 달콤한 걸까.”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데이지?”

난(18세. 이름이 ‘조단 베이커’. 신부들러리) 경악했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그전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술이 떡이 된 신부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는 거야.

“얘, 여기.”라며 데이지가 침대 위에 놓아둔 휴지통 안을 손으로 더듬더니 전날 신랑에게서 예물로 받은 70억 짜리 ‘진주 한 줄로 된 목걸이’를 꺼내 보이지 뭐야.

“이걸 아래층으로 가지고 가서 원 소유자가 누구든 돌려줘 버려. 그런 다음 데이지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다고, 반드시 ‘데이지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해주고 와.”

데이지(20세, 신부)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 그녀는 울고 울고 또 울었어.

난(18세 = 조단 베이커 = 신부들러리) 밖으로 뛰쳐나가 즉시 데이지 엄마가 부리던 가사도우미를 찾았고, 우리 둘(‘조단 베이커’와 ‘가사도우미’)은 즉각 신부 방을 잠근 뒤 그녀를 차가운 물을 받은 욕조(물통)에 담겼어.

그래도 데이지는 쥐고 있던 그 편지를 놓으려고 하지 않더라.

데이지는 그 편지도 욕조로 가지고 가더니 주먹으로 압착시키고 또 압착시키곤 결국 물에 젖은 공으로 만들더라, 그리곤 그것이 눈송이들처럼 다시 물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야 내(18세, 조단 베이커)가 그것을 건져 욕실 비누 ‘그릇’에 놓아두는(버리는) 것을 허락해주었어.

데이지(20세, 신부)도 더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

우린(18세의 '조단 베이커'와 '가사도우미') 데이지에게 '방○ 암모니아○'(신경 흥분시켜 수면 억제 및 피로감을 경○시키는 의약품)들을 주었고(흡입하게 했다는 의미임) 얼음을 그녀의 이마에 올려두고 그녀를 가까스로 설득해 옷을 다시 입게 했지.

30분 후 우리 셋이 방문을 나섰을 땐 진주 목걸이는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고 사건도 그것으로 종결이었어.

다음날 5시에 그녀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톰 뷰캐넌'(27세)이란 남성과 결혼해 3개월 일정으로 남태평양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어.

나(18세 = 조단 베이커 = 여자이름)는 그들 부부(톰 뷰캐넌과 데이지)를 '산타 바바라'(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도시이름.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에서 다시 봤어.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산타 바바라'(=캘리포니아 주의 도시이름=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내 생각에 자기 남편에게 그토록 빠져 있는 여자를 난 일찍이 데이지 외에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툼이 잠시라도 방을 나가 있으려고 하면 데이지는 좀 체 안정되지 못하고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이렇게 말했지. “그이가 어디에 간 걸까?” 그리곤 툼이 다시 방문에 나타날 때까지 정신이 완전히 딴 데 팔려 버리는 거야.

데이지(신부)는 한 시간 간격으로 툼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리고서 모래 위에 앉아 있곤 했는데, 그럴 때면 자신의 손가락으로 툼의 눈 윗부분을 간지럼 타 주거나 아니면 강도를 썰 수도 없는 환희의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거야.

함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감동 그 자체였어. 아마 오빠(이 소설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도 직접 보았다면 숨죽인 채 그들의 모습에 매료되어갔을 거야.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8월이었을 거야. 내가 그들 부부를 떠나고 1주일 후에, 툼(남편)이 ‘벤투라 프리웨이’(도로이름. 참고로 벤투라는 캘리포니아의 주도이름임.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에서 4륜(바퀴4개) 마차를 추돌했는데(들이받았는데) 그 사고로 툼이 탄 자동차의 앞바퀴 하나가 떨어져나갔을 정도야.

그런데 문제는, 사고 당시 툼이 옆 좌석에 여자를 태우고 있었다는 것이 신문지문들에 실리면서 부터야. 왜냐하면 그 여자의 팔이 사고로 부러졌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든 거지. 여기저기에서 그녀를 알아보는 기사가 실리고 결국 그녀는 산타 바바라 호텔에서 근무하는 객실 담당 메이드(도우미)들 중에 한 명이란 것이 드러났지.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벤투라 프리웨이’(=캘리포니아 주의 도로이름=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다음해(1920년) 4월에 데이지(21세. 이 소설의 여자주인공)는 귀여운 딸아이를 낳았어, 그런 다음 그들 부부(21세의 데이지와 28세의 톰 뷰캐넌)는 프랑스로 가 1년 정도 살았지.

나는 그들 부부를 어느 봄엔가 ‘칸’(프랑스 남부 해안가 휴양지. 아래 구글 지도 참조)에서 한 번 보았고, 그 뒤 ‘도빌’(프랑스 북부 해안가 휴양지)에서도 한 번 보았어.

▼ 구글 지도 참조 1

검색어 ‘칸’(=프랑스 남부 휴양지=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 구글 지도 참조 2

검색어 ‘도빌’(=프랑스 북부 휴양지=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그런 다음 그들도 지쳤는지 ‘시카고’(미국 중동부 도시)로 돌아와 정착하더라.

▼ 구글 지도 참조 3

검색어 ‘시카고’(=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데이지가 시카고에서 아주 날렸다(인기가 있었다)는 건 자기(이 소설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도 알지. 말이 좋아 인기고 사실은 행실이 좋지 않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녔지. 데이지를 따르던 사람들은 대개 젊거나 부자이거나 아주 날라리거나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지만은 더할 나위 없는 칭찬을 들었는데 그건 아마도 그녀가 술을 일절(하나도) 입에 대지 않았기 때문 일거야.

오빠도 알잖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 틈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이득인지를.

일단 술꾼들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오빠 말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오빠 자신의 실수를 무마할 수도 있잖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술 마시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젯밤에 오빠가 술자리에서 무슨 실수를 했으며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기억이나 해내겠어.

아마 데이지도 절대 딴 남자와 정을 통하는 일 같은 건 생각지도 않았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에 어떤 변화들은 있어왔어.

(4장 윗 부분까지 내용은, 19'22'년 여름에 조단 베이커<여자>가 과거를 회상하며 이 소설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남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내용부터의 시간적 배경 : 다시 원래 시간으로 되돌아와 19'22'년임)

(아래 내용의 장소 : 다시 원래 장소로 되돌아와 뉴욕에 있는 '프라자 호텔' 안에 있는 다윈<=찾 집 겸 공원> 안임)

그런데, 약 6주 전쯤에, 데이지(여주인공이름)가 개츠비(남주인공이름)란 이름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들었던 거야.

내(조단 베이커)가 오빠에게 기억하느냐고, '웨스트 에그'(서쪽 달걀. 신흥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개츠비라는 사람이 사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던 거 기억나?

글쎄 그 날 밤에 오빠가 돌아가고 나서 데이지가 내 방에 들어와 나를 깨우지 뭐야.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

“어떤 개츠비를 말하는 거였니?”

그래서 난 반은 자면서 반은 놀라면서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그녀에게 설명해주었지.

그러자 데이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로 그 사람이 자신이 한때 알고 지내던 그 남자가 분명해 보인다고 말하지 뭐야.

나는 데이지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제야 데이지의 하얀색 자동차에 타고 있었던 그때 그 장교(육군 중위)가 개츠비였음을 연결시킬 수 있었던 거야.

(데이지가 처녀 시절 타고 다녔던 자동차는 ‘로드스터’입니다. 로드스터는 지붕이 없고 좌석이 2개인 자동차입니다. 로드스터 사진 ►<http://me2.do/5xoKKRFu> , 검색일자:2015-8-3)

조단 베이커(여자이름. 21세)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끝마쳤을 때에는, 우리(21세의 조단 베이커와) 30세의 닉 캐러웨이)가 ‘프라자 호텔’(뉴욕의 호텔.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을 나와 30분 동안 ‘빅 토리아’(=바퀴 4개 달린 2인승 마차)를 타고서 ‘센트럴 파크’(뉴욕의 공원. 프라자 호텔 바로 위에 있음.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를 이리저리 누비고 있을 때였다.

▼ 구글 지도 참조 1

검색어 ‘프라자 호텔’(=뉴욕의 호텔=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 구글 지도 참조 2

검색어 ‘센트럴 파크’(=뉴욕의 공원=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서쪽 50번 대 거리들’(웨스트 50번부터 59번 거리까지) 위로는 영화배우들이 사는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었는데, 이제 태양도 그 고층 아파트들 뒤로 몸을 숨긴지 오래였다.

그리고 공원의 잔디밭 위로는, 귀뚜라미들이 모여들 듯, 소녀들의 밝은 목소리들이 여름의 열기로 뜨거워진 땅거미를 뚫고 피어오르고 있었다.

(공원에 모여 있던 소녀들이 부르는 노래 시작→) <내가 아라비아의 족장이니.

당신의 사랑도 내거야.

당신이 잠이 든 한밤중이면,

난 당신의 텐트(침대)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가리.....>(←노래 끝)

(닉 캐러웨이의 대사→) “이상한 우연이군.”라며 내가 말했다.

(조단 베이커의 대사→) “하지만 당사자에겐 전혀 우연이 아닌걸.”

(닉 캐러웨이의 대사→) “왜 아니라는 거지?”

(조단 베이커의 대사→) “개츠비가 왜 데이지의 집이 ‘만’(=맨하셋 만. 만=바다가 육지로 휘어져 들어간 곳. 아래의 네이버지도참조)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이는 집을 샀겠어.”

▼ 네이버 지도 참조

검색어 ‘맨하셋 만’(=바다임=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그렇다면 개츠비가 지난 6월 달에 밤하늘을 향해 두 팔을 펼쳐 보였던 건 단순히 별들을 품으려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무의미해 보였던 그의 행동들이 일순간 정리가 되면서 그의 존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내게 전해지고 있었다.

“그(개츠비)는 알고 싶어 해,”라며 조단(21세, 여자이름)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오빠(데이지의 6촌 오빠임. ‘닉 아버지’의 사촌의 딸이 데이지임)가 데이지(23세. 여주인공)를 집으로 초대할 날 자신이 오빠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오빠가 허락해줄 런지를.”

검손의 형태를 취한 이 부탁(데이지와 자신을 동시에 집으로 초대 부탁. 단 우연을 가장해)에 난 충격을 받고 말했다.

개츠비(31세)는 5년 동안을 기다려 데이지의 집이 마주 보이는 대저택을 샀고 그리고 나서도 이때까지 오만 때만(어중이떠중이) 나방(벌레)들에게 자신의 별빛을 나누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단지 어느 오후에 낯선 이웃집 남자(닉 캐러웨이)의 정원에 잠시 들르기 위해서였다.

“나도 좀 알아야겠는데. 그런 가벼운 부탁이라면 직접 해도 되잖아?”(직역→그런 가벼운 부탁 하나를 하려고 그와 데이지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내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어?)

“그(개츠비)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기다려왔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런 부탁이 오빠(데이지의 6촌 오빠. ‘닉 캐러웨이의 아버지’의 사촌의 딸이 데이지임)에게 무례한 행동이 아닐지 염려하고 있고. 오빠도 알잖아, 보통 그런 사람들은 철저한 자기 정당화의 지지자란 걸.”

무엇인가가 나를 근심 들게 했다.

“그럼 왜 그(개츠비)가 당신에게 데이지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거지?”

“오빠 왜 이렇게 꼭 막혀 있어. 그(개츠비)가 정말 데이지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자신의 집이란 말이야.” 조단 베이커가 설명을 했다. “오빠 집이 바로 그의 옆집이잖아.”

“헛!”

(아래의 대사는 21세의 조단 베이커가 닉 캐러웨이에게 상황을 설명해주는 대사입니다.)

(조단 베이커의 대사 시작)

“그(=개츠비=31세 남)도 자신의 저택에서 파티를 열면 언젠가는 그녀가 참석하리라 기대 했었 나봐.”라며 조단(=21세=여자이름=여자프로골퍼선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웬걸. 그녀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다 결국 그가 먼저 나서서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데이지(=23세 여)라는 여성에 대해 아는지 무의식적으로 묻는 듯 묻기 시작했고 그러다 그가 찾아낸 첫 번째 지인이 ‘나’(=21세 =조단 베이커)였던 거야. 그 날 댄스파티 기억나지. 왜 오빠와 있는데 그가 사람을 보내 나를 잠깐 보자고 했었잖아. 오빠 그가 지금 이 일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왔다는 걸 이해해야해. 물론 나도 그에게 데이지와 뉴욕에서 1대 1로 점심 식사 자리를 주선해주겠다고 제안했지. 그런데 웬걸 그(개츠비)가 엄청난 화를 내려는 거 같지 뭐야.”

“(개츠비가 한 말을 조단 베이커가 옮긴 것임) (작은따옴표 시작) ‘전(저는) 이 일에 예의의 ’ 예‘자도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라며 그(개츠비)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작은따옴표 시작) ‘전(저는) 그녀를 제 이웃집에서 건전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개츠비가 한 말을 조단 베이커가 옮긴 것 끝)

(조단 베키커의 대사 계속→) “그래서 그(개츠비)에게 말해주었지. 오빠(닉 캐러웨이)가 톰(데이지의 바람기 많은 남편)과 절친 이라고. 그랬더니 웬걸 그가 모두 접으려고 하지 뭐야. 물론 그(개츠비)가 톰(남편)에 대해 아주 많은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냐. 비록 그(개츠비)가 시카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신문들 중에 혹시라도 데이지의 이름이 들어있을까 싶어 눈치코치 신문들을 수년 동안 읽어왔다손 치더라도 말 이야.”

(조단 베이커의 대사 끝)

날은 이미 저물어 있었다. 우리(‘빅토리아’라는 이름의 2인승 마차를 타고 있음)가 작은 육교 아래로 들어갔을 때 나는 팔로 조단(21세. 여자이름)의 금빛 어깨를 감싸 안아 그녀를 내게로 좀 더 당기며 오늘 나와 저녁(저녁식사)을 같이 먹자고 말했다.

돌연 나는 지금 데이지나 개츠비를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난 다만 세상을 불신으로 대하면서도 내가 그려놓은 원형의 팔 안에서 명량하게 등을 기대이고 있는 이 미끈한 몸매의 소유자 하지만 세상을 보는 시야는 지극히 좁은 이 여인에게 전념하고 있었다.

노래 가사 하나가 내 귀가를 때리기 시작했다. 사람을 의기양양하게 만드는 흥분의 일종이었다.

“이 세상에는 오로지 ‘쫓기는 자’와 ‘쫓는 자’ 그리고 ‘분주히 움직이는 자’와 ‘피곤해 지쳐버린 자’만 있다네.”

“그리고 데이지(23세, 여주인공)의 삶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라며 조단(21세, 프로여자골퍼선수)이 내게 속삭이듯 말했다.

“데이지가 개츠비를 만나고 싶어 할까?”

“데이지 언니가 이것에 대해 알 필요는 없어. 그녀가 아는 걸 개츠비도 원하지 않으니까. 오빠 그냥 데이지 언니에게 차(먹는 차)나 한 잔 같이 마시자고 초대만 하면 돼.”

우리(닉과 조단은 ‘빅토리아’라는 이름의 2인승 마차를 타고 있음)가 검은 나무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울타리 하나를 마저 통과해 ‘웨스트(서쪽) 59번가’(공원 남쪽에 있는 거리임.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 1)로 다시 나올 때쯤엔 어느 샌가 공원 안쪽으로 은은하면서도 으스스한(열은) 빛의 다발들(달빛)이 내리비추고 있었다. (공원이란 함은 센트럴 파크를 말함. 뉴욕의 공원이름임.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 2)

▼ 구글 지도 참조 1

검색어 ‘웨스트(서쪽) 59번가’(=공원 남쪽에 있는 거리임=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 ..

▼ 구글 지도 참조 2

검색어 '센트럴 파크'(=뉴욕의 공원=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나는 개츠비(31세, 남주인공)와 톰 뷰캐넌(30세. 바람기 많은 남편)과는 달랐다. 내겐 어두운 '처마 돌림띠'(사진링크 ▶ <http://me2.do/GpX0XN43> ←지붕 맨 위에 푹 튀어나온 부분, 검색일자:2015-8-10)를 따라 떠나려가는, 그리고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간판들을 따라 떠나려가는 그런 육체에서 분리된 얼굴을 한 여인은 없었기 때문이다.(←보통 이 이미지를 형상화해 위대한 개츠비의 책 표지로 잘 사용합니다.)

그러니 나는 더욱 더 내 옆에 앉아 있던 이 여자에게 끌렸고 내 두 팔을 지그시 압박하고 있는 그녀를 내 쪽으로 끌어당겼던 것이다.

그러자 그녀(21세, 조단 베이커)의 창백한 입술이 나를 경멸하듯 비웃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더욱 더 내 가까이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이번엔 내 입술 쪽이었다.(뽀뽀했다는 얘기죠 :) ㅎㅎㅎ)

5 장

V

제 5 장

내가 다시 ‘웨스트 에그’(서쪽 달걀. 닉과 개츠비의 집이 있는 곳임.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로 돌아온 것은 그날 밤이었다.

그런데 귀가하다 보니 내 집이 화염에 휩싸여 붕괴하고 있는 중인 아닌지 잠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새벽 2시에, 그것도 ‘반도’(=‘3면이 바다인 육지’=‘웨스트 에그’)의 한쪽 모퉁이 전체가 빛의 화염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찌나 빛이 작렬하고 있든지, 관목(관목사진링크 ▶ <http://me2.do/GRbfvuCA> , 검색일자:2015-8-11. 사람 키보다 작고, 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없으며, 가지가 엄청 많은 나무들. 무궁화나 진

달래 상상바람) 위에까지 비춰진 불빛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광경을 연출해내고 있었고, 길가 옆 전선들 위에도 가늘고 길게 늘어진 반짝거림 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길모퉁이를 하나 돌고 나서야 나는 그제야 그 장본인이 개츠비의 대저택임을 알 수 있었다. 저택의 시계탑 꼭대기에서부터 저택의 지하 포도주 저장실에까지 불이 밝혀져 있었던 것이다.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웨스트 에그'(=서쪽 달걀=신흥부자들의 동네=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우선 난(나는) 개츠비의 집에서 또 다른 파티가 열리나보다고 생각했다.

술래1명이 숨은 사람들을 찾는 놀이를 한다거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술래 1명을 찾는 놀이를 벌이다 파티장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은 나머지 그의 대저택이 온전히 게임장이 되었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지만 웬걸 그렇게 생각하기엔 상황이 쥐죽은 듯 조용했다.

들리는 거라곤 나뭇가지들을 때리는 바람 소리 뿐이었다. 그 바람은 또한 전선(전봇대)들도 때리고 있었는데 그 바람에 각종 조명들이 꺼졌다가 켜졌다 가를 반복해 마치 집이 어둠을 향해 하트를 마구 쏘아대고 있는 형상(모양)이었다.

나를 태우고 왔던 택시가 부르릉 소리를 내며 돌아가자 개츠비가 자신의 잔디밭을 가로질러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집이 마치 ‘국제 박람회’(대전 엑스포나 여수 엑스포 상상바람)장 같아 보입니다.”라며 내(30세)가 말했다.

“어 그래요?” 개츠비가 멍하니 자신의 집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몇몇 룸(방)들을 좀 들여다 보고 있던 중이었걸랑요. (대화의 방향을 돌리며) 어째 ‘코니 아일랜드’(뉴욕의 놀이공원이자 해변. 사진이 있는 ‘소피’님의 블로그링크 ▶ <http://me2.do/5rHTTZG> , 검색일자:2015-8-11)로 드라이브나 안 가보시랍니까, 형씨. 제 차로 말입니다.”

“그럼 너무 늦지 않나요.”

“(또 대화의 주제를 바꾸며) 그럼, 저희 집 풀장(수영장)에 들어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번 여름 들어선 한 번도 이용해보지 못했거든요.”

“아, 제 말은, 좀 늦은 시간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 시간이지 않을까 한 겁니다.”

“(무척 실망하며) 알겠습니다.”

그(개츠비)가 안달이 나는지 나를 바라보며 내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오늘 미스 베이커 양과 대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내가 말했다. “내일 바로 데이지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집에서 차나 한 잔 같이 하자고 건너오라고 전할까 하는데요.”

“오, 좋고말고요.”라며 그가 무심한 듯 말했다. “다만 당신을 번거롭게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요.”

“넷? 그럼 원하시는 날짜가 따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원하는 날짜라고요?”라며 그가 화들짝 놀라 바로 내 말을 정정하며 말했다. “(여전히 마음 속 생각을 표현 못하며) 전 다만 당신을 좀 번거롭게 하고 싶진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잔디밭을 보며) 보시 다시피.”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모레(내일의 다음날)가 어떨겠습니까?”

그러더니 마지못해 속마음을 다 말했다.

“잔디(개츠비 집의 잔디가 아니라 닉 캐러웨이 집의 잔디밭에 있는 잔디)를 좀 ‘손 불’(깎을) 생 각이었거든요.”

우리 둘(개츠비와 닉) 다 잔디밭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엔 정말이지 누더기(쓰레기) 같은 내 잔디밭과, 넓게 트여 있고 더 푸르게 잘 관리되고 있는 그의 잔디밭이 뚜렷한 경계선을 긋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그가 걱정한 것이 내 잔디밭은 아닌지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다.

“사소한 게 하나 더 있긴 합니다만,” 그가 여전히 내 잔디밭 때문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을 머뭇거리하면서 자신 없게 말했다.

“그럼 며칠 더 연기할까요?”라며 내가 물었다.

“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요....” 그가 쉽게 내뱉지 못하고 자꾸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닉의 눈치를 살피며) 음, 내 생각이오만... (닉의 눈치를 또 살피며) 음, 저 좀 보시오, 형씨, 형씨 돈을 잘 벌지 못하시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다지 뭐 별로요.”

소득이 신통치 않다는 내 대답이 그를 좀 더 안심시켜 대화를 좀 더 진행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준 모양이었다.

그가 말했다.

“그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아시다시피, 제가 부업으로(=‘불법적으로’라는 뜻임)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일종의 사이드라인(=미식축구용어=좌우측 한계선=여기선 ‘부업’이란 뜻임. 라인이란 코○인을 말함)입니다, 제 말뜻 아시겠지요. 그래서 말인데, 형씨가 정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한다면 내 생각엔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를 또 바꾸며) 그래 주식시장에서 ‘채권을 매매하는 일들’을 하신다고요, 그렇게들은 것 같은데요, 형씨?”

“아직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에 당신도 좀 구미가 당길 겁니다. 이 일이 많은 시간을 빼앗진 않을 겁니다. 당신은 그냥 가만 계시다가 ‘상당한 양의 돈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찾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물론 그 과정에서 다소 기밀(비밀)을 요하는 일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나는 그때까지 넋 놓고 말을 하고 있다가 그가 그 말을 한 이후에야 내가 지금 내 인생 최악의 위기 국면(상황) 아래에 놓여있음을 감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이 내가 그를 도와준 것(데이지를 집으로 초대)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라는 게 너무도 뻔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리에서 그의 제안을 예의상으로라도 자를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일들로도 워낙 정신이 없어서...,”라며 내가 말했다. “말씀은 고맙지만 아무래도 추가적인 일은 더 벌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 올프샤임(유대인 도박꾼)과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그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개츠비는 아무래도 오늘 우리 셋이 같이 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올프샤임이 내게 “커넥션(연결)” 운운 한 것에 내가 마음 걸려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해주었다.

개츠비가 또 내 대답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 이번엔 좀 더 오래였다. 그는 분명 내가 먼저 말을 꺼내겠지 하고 확신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내 관심은 이미 딴 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개츠비도 이날은 그냥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저녁이 나를 약간 멍하면서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개츠비와 헤어져 내 집 현문 문으로 걸어가면서도 내가 깊은 잠 속으로 걸어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밤사이에 개츠비가 ‘코니 아일랜드’(뉴욕의 놀이공원이자 해변. 사진이 있는 ‘소피’님의 블로그 링크 ▶ <http://me2.do/5rHTTZG> , 검색일자:2015-8-11)를 다녀왔는지 아니면 안 갔는지 나는 모른다. 또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개츠비가 자기 집의 조명들을 화려하게 밝혀둔 채 룸(방)들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는지 나는 모른다.(잠깐 앞뒤 설명 :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자신의 집을 보여줄 것이 들떠 방들을 둘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사무실 전화로 데이지에게 전화를 걸어 차 한 잔 마시러 건너오라며 그녀를 내 집으로 초대했다. (닉의 아버지의 사촌의 딸이 데이지임. 닉과 데이지는 6촌 사이임)

“툼(데이지의 남편)은 절대 데리고 오지 마.”라며 난 그녀에게 당부했다.

“뭐라고?”

“툼(데이지의 남편) 데리고 오지 말라고!”

“툼이 누군데?” 그녀가 순진무구하게 웃었다.

데이지(23세. 여주인공이름)가 방문하기로 한 그 날은 비가 퍼붓고 있었다.

오전 11시 경에 비옷을 입은 남성 한 명이 ‘잔디 깎는 기계’를 질질 끌고 건너와 내 집 현관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개츠비 씨가 보내서 왔습니다. 잠시 잔디를 다듬었으면 합니다.”라며 말해주었다.

그제야 난(나는) 내 ‘핀란드 출신 가사도우미’에게 누굴 집으로 좀 초대했으니 잠시 들려달라고 말해두는 것을 잊었음을 기억해냈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난 자동차를 몰고 ‘웨스트 에그’(서쪽 달걀. 신흥부자들이 사는 동네) 근처 마을로 가, 물에 잠긴 벽돌 표면에 ‘백화’(갈색 벽돌 위에 흰 색 물감이 눈물 흘리는 것 같은 것들) 현상까지 꺼 있는 좁은 길들 사이에서 내 가사도우미를 찾았지만 실패하고, 대신 손님들을 접대할 컵 몇 개와 레몬 몇 개 그리고 꽃들 몇 송이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꽃들은 살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오후 2시가 되자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화분(꽃)들과 함께 온실 하나가 통째로 개츠비의 저택에서부터 배달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시 1시간이 더 지나자(오후 3시) 무척 초조한 듯 현관문을 벌컥 열렸는데, 하얀(흰색) ‘플란넬 정장’(촉감이 부드러운 신사복)과, 은색 와이셔츠, 그리고 금색 넥타이를 맨 개츠비가 급히 안으로 들어왔다.

개츠비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간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흔적(다크서클)이 그의 두 눈 밑에 짙게 깔려 있었다.

“모두 잘 돼가죠?”라며 그(31세, 개츠비)가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아, 잔디는 깔끔하게 잘 다듬어진 것 같은데요. 그 말씀 하신 거죠?”

“원 잔디요?” 그가 멍하니 바라보며 물었다. “오, 뜰에 있는 그 잔디요.”라며 그가 창문을 통해 잔디밭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으로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그는 지금 데이지와와의 만남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다.

“네 (잔디가) 아주 좋아 보이네요.”라며 개츠비가 알 듯 말듯 말했다. “신문들 중 하나에 비가 오 후 4시 정도에 그친 다더군요. 신문이 아니라 정기 간행물에 실린 날씨 정보였던가 뭐 그랬습니다. 그럼 채비는 다 된 거죠, 차 마실 준비요...?”

나는 그를 데리고 ‘식료품 저장실’(부엌 옆)로 갔다.

개츠비는 거기에 핀란드 출신의 가사도우미(어? 앞에서 해석을 잘못 했네요. 닉이 가사도우미를 찾아 시장에서 장을 같이 본 후 집으로 돌아왔군요. 소리~)가 왜 있느냐는 듯 나를 살짝 나무라듯 바라보기도 했지만 뭐 어쨌든 우리 셋은 다함께 ‘델리카트슨’(간단한 조리 식품을 파는 판매점) 가게에서 사온 레몬 케이크 12조각을 철저히 검사하고 또 검사했다.

“이 정도면 됐겠죠?”라며 내가 물었다.

“물론이죠, 물론이고말고요! 꽤 맛있어 보입니다!” 그가 잠깐 땀을 흘리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형씨.”

오후 3시 30분 정도가 되자 비가 차차 누그러들어 축축하고 ‘얽은 안개’(박무)로 변했다. 그 얽은 안개들을 헤집고서 때때로 굽지 않은 빗방울들이 마치 이슬처럼 둥둥 떠 다녔다.

개츠비는 정신이 완전히 딴 데 팔려 있었다. 그는 건성으로 『클레이 경제학』(클레이=사람이름)을 훑어보기도 하고 부엌 바닥을 짹짹 끌어대는 핀란드 출신 가사도우미의 발자국 소리에 움찔 움찔 놀라기도 하고, 가끔 마치 안에서만 모를 뿐 집 밖에서는 경천동지할 일련의 사건들이 발발하고 있다는 듯 눈물(빗방울)을 글썽거리고 있는 창문들 쪽을 향해 유심히 바라보기도 하면서 있었다.

마침내 개츠비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게 통보했다. 그건 전혀 확신이 없는 사람의 말투였다.

(개츠비의 대사→)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아니 왜요?”

“차 마시러 아무도 오지 않을 겁니다, 너무 늦잖아요!” 마치 어딘가 다른 곳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마냥 그가 자신의 시계를 쳐다보았다. “하루 종일 기다릴 순 없어요.”

“철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고작 4시하고도 2분밖에 더 지나지 않았어요.” (테이지가 오기로 한 시간은 오후 4시임)(원문에는 “고작 2분만 더 있으면 4시에요”이라고 나와 있는데 “4시 2분”이 더 멋져 보여서 수정했음 :) 전혀 근거 없는 해석 ㅎㅎㅎ)

개츠비가 다시 자리로 가 앉았다. 불쌍했다. 마치 내가 그의 어깨를 강제로 밀어젖혀 앉게 만든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집 좁은 길로 자동차 한 대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개츠비와 난 누구랄 것도 없이 먼저 벌떡 일어났다.

더구나 나 같은 경우엔 개츠비가 워낙에 초조해하는 바람에 제발 그 소리가 데이지이기를 바라며 뜰(마당)로 나가 보았다.

벌거벗은 상태로 물방울을 똑똑 떨어뜨리고 있는 라일락 나무들 아래로, 큼지막한 오픈카(지붕이 없는 차) 한 대가 우리 집 앞 진입로를 올라오고 있었다.

세(=3)군데가 각이 진, 옅은 자줏빛(=라벤다의 색깔) 모자 아래로, 얼굴 한쪽 부분을 앞으로 내민 그녀가 황홀한 미소를 발산하며 나를 보고 있었다.

“내 가장 다정다감한 이여, 이 집이 정말 오빠가 사는 집인 거야? 와~”

정말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을 돋우는 뭔가가 있었다. 이렇게 비가 온 날엔 그 자체가 더욱더 레모네이드(레몬 즙에 물과 설탕을 탄 탄산음료. 원문에는 강장제라고 되어 있음)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어찌나 듣기에 상쾌했던지 어떤 다른 소리들이 들어오기 전에 난 우선 내 귀만으로라도 그녀의 사랑스런 목소리의 파장을 쫓아 위 아래로 움직여야했다.(해석 정말 노답-_-;; 바닥이 다 들어나는 실력임 -_-;; 일단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패쓰~)

촉촉이 젖은 한 줄기 머릿결이 마치 소량(작은 양)의 파란색 그림물감인 마냥 그녀의 뺨에 가로질러 있었다. 그리고 내가 오픈카에서 내리는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손을 받아주었을 때에도 뺨실뺨실 웃고 있는 빗방울들에 그녀의 손은 이미 적셔진 상태였다.

“오빠, 나를 사랑하는 거야?” 데이지가 내 귓가에 대고 낮게 말했다. 장난기가 다분했다. “아님 왜 나만 혼자 오라고 했어?”

“그건 ‘랙텐트 성’의 비밀이야.(말해줄 수 없다는 뜻. 잠깐앞뒤설명 : 『랙텐트 성』은 ‘마리아 에지워스’라는 영국 여성 작가가 1800년에 쓴 단편소설 이름임. 소설은 4대에 걸친 상속인들과 그들의 집사에 관한 이야기임. 영어단어 ‘랙텐트’는 ‘터무니없이 높은 소작료’라는 뜻. 저자인 ‘마리아 에지워스’ 사진 링크 ▶ <http://me2.do/5VnTFKG5> , 검색일자:2015-8-13) 그보단 데리고 온 운전수 아저씨에게 먼 데로 가서 대략 한 시간 정도 후에 오시라고나 그래.”

“한 시간 있다 와요, 퍼디(사람이름. 이후 다시 안 나오는 이름임. 이름 기억할 필요 없음. ‘퍼디’라는 단어는 ‘정말로’라는 영어단어와 비슷하게 생겼음).”

데이지는 그렇게 말한 다음 1급 비밀을 알려준다는 식으로, “그의 이름은 퍼디야.”라고 내게 말해주었다.

“(실없는 소리임. 의미 없음→) 그럼 가솔린이 그의 코에 영향을 미친 거겠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녀가 해맑게 말했다. “왜?”(데이지는 예전에 ‘닉 캐러웨이’에게 자기 집 집사의 코가 큰 이유를 접시를 너무 많이 닦아서라고 말한 적이 있음)

우리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나를 어마어마하게 멘붕에 빠뜨린 것은 그러니까 내 말은 거실이 텅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어, 우스운 일이네,”라며 내가 탄식 하며 말했다.

“뭐가 우습다는 건데?”

앞문에서 가볍지만 엄숙한 노크 소리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데이지가 고개를 그 쪽으로 돌렸다.

나는 나가서 문을 열었고, 그곳엔 개츠비가 얼굴이 ‘사색이’(죽을 맛이) 되어 두 손을 자신의 양복상의 호주머니 속에 깊숙이 파묻고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듯 비참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면서 물웅덩이 안에 서 있었다.

내가 문을 열어주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양복상의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은 채 내 옆을 성큼성큼 지나 복도 안으로 들어가더니 마치 서커스에서 줄을 타는 곡예사가 급히 방향 전환을 하듯이 갑자기 확 방향을 꺾으며 거실 안쪽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조금도 웃기지가 않은 게, 제3자인 나조차도 내 심장이 내는 고동소리를 이 세상이 내는 소리의 전부인 양 크게 들으며 거세지고 있던 비를 피해 문을 끌어당겼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30초 동안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30초가 지나자 일종의 감동으로 목이 메는 듯 한 속삭거림과 웃음소리 중 일부가 거실에서부터 들려왔다.

이어 100% 인공적인 데이지의 멘트가 이어졌다.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미쳐 진심을 담지 못한 말투로) 다시 만나서 정말 떨릴 정도로 기뻐.”

또 다시 침묵이 흘렀다. 무시무시한 침묵이었다. 복도에 있던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었다. 그래서 나는 방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개츠비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아직도 두 손을 양복상의 호주머니에서 빼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100% 편안하다는 듯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이 지루하기까지 하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하는 척 했지만 굉장히 긴장한 듯 ‘벽난로의 윗면에 설치한 장식용 선반’에 등을 기대 거의 몸을 눕다시피 하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너무 뒤로 빼고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약이 다 떨어진 벽시계 표면’에 그의 머리가 얹혀 있다시피 했다.

이런 자세를 한 채 개츠비는, 이 상황에 겁먹었지만 분명 우아함을 잃지 않고서 딱딱한 의자 모서리에 앉아 있는 데이지를, 흥분해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눈빛으로 빤히 쳐다보며 데이지를 무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우리는 예전에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개츠비가 소근 거렸다.

그의 두 눈이 잠시 나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 그의 두 입술(위아래 입술)은 소리 내 웃으려다 실패한 흔적이 역력하며 약간 벌려 있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이 순간 그의 고개가 지속적으로 내리 누르던 시계가 하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확 기울어졌다.

그래서 그가 급히 몸을 틀어 시계를 붙잡아야 했는데 그는 사시나무 떨 듯이 손가락들을 떨고 있었다.

그도 자신의 손가락을 보았는지 시계를 도로 제 자리에 걸어두고는 자리에 도로 앉았다.

그래도 여전히 딱딱한 자세를 취했는데, 그의 팔꿈치는 소파의 팔위에 어색하게 걸쳐 있었고 바로 그 팔의 손으로 자신의 턱을 괴고 있었다.

“시계 건은 유감입니다.(벽시계를 머리로 건드려 떨어뜨릴 뻔한 것)”라며 개츠비(31세)가 말했다.

이젠 내(정확하게 30세) 자신의 얼굴에 강한 열대 화상을 입은 느낌이 들었다.

내 머리 속에서 수천수만 가지의 평범한 대답들 중에서 단 한 마디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래된 시계인 걸요 뭘.”라며 나는 마치 그들을 바보로 알고 있다는 듯이 대답했다.

내 생각에, 우리 셋 모두는 잠깐 동안, 그 벽시계가 거실 바닥에 뒹굴어져 말 그대로 박살이 나고 말았다고 믿는 눈치들이었다.

“우린 수년 동안 만나질 못했어.”라며 데이지(23세)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개츠비의 대사→) “이번 11월이면 5년째야.”

개츠비가 늘 계산해왔기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튀어나온 그 “5년”이라는 대답이 적어도 우리 모두를 몇 분 전으로 되돌려놓았고 그래서 우리 또 그렇게 어색하게 몇 분을 흘러 보내야했다.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기 때문에 내 댄에는 굴리고 굴려, “그럼 두 사람이 저를 도와 부엌에서 차를 다리는 것을 도와주시겠습니까?”라며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는 데 아뿔싸 저 사악한 가사도우미(핀란드 출신)가 그새를 참지 못하고 차를 쟁반에 담아 가져왔다.

찾잔들과 케이크들을 건네고 건네받으면서 ‘정형화되고(정해져있고)’ 눈에 보이는 예절들이 갖추어졌다.

개츠비만은 얼굴에 어둠을 잔뜩 끼얹고서, 데이지와 내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여전히 긴장이 풀지 못한 채 한 번은 데이지를 수줍게 쳐다보았다가 또 한 번은 나를 소심하게 쳐다보았다가 하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지금 이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행한 눈빛 그 자체였다.

하지만, 다른 것의 일부가 아닌 평온(침묵)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가능한 첫 번째 기회가 생겼을 때, “그럼 전 잠깐 실례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던진 후 발걸음을 떼려했다.

“어디 가시게요?” 내가 그렇게 나오자 개츠비가 즉각 깜짝 놀라서 말했다.

“곧 돌아올게요.”

“가시기 전에 당신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부엌까지 씩씩거리며 따라 나왔다.

그가 부엌문을 닫은 후 속삭였다.

“오오, 이런!”

그의 모습은 어떤 면에선 비참함 그 자체였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완벽한 실수예요.”라며 그가 고개를 양 옆으로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했다. “실수라고요, 실수 말입니다.”

“당혹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그게 다예요.” 다행히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일 수 있었다. “당혹스럽기는 데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요?” 수상쩍다는 듯이 그가 말했다.

“당신만큼이나 많아요.”

“제발 좀 살살 좀 말하세요(너무 크게 말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구시는 겁니까.” 내가 ‘조바심이 나서’(성급하게) 말했다. “지금 이 행동은 또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녀는 지금 거실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가 제발이지 살살 좀 말하라는 듯 자신의 손을 들어 내 입을 막으려다 말고 방금 내가 한 말에 평생 잊지 못할 자책의 표정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더니 다른 방(거실)으로 되돌아갔다.

30분 전에 신경질적으로 집을 배회했을 딱 개츠비처럼 나는 뒷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갔다.

무리 지어 있는 나뭇잎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던 나무쪽으로 달려갔다. 거대한 검은 흑이 튀어나와 있는 나무였다.

그런 다음에도 한 차례 비가 더 퍼부었다.

그동안 한 번도 손질 되지 않던 내 잔디밭은 개츠비가 보낸 정원사에 의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비 때문에 그만 썬 수도 없이 많은 물웅덩이와 ‘소택지’(연못이 있는 습한 땅)들이 아주 작게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모두 진흙투성이였다.

나무 아래서 비를 피하고 있자니 자연스레 개츠비의 거대한 저택 쪽으로 눈이 갔다. 그래서 한 동안 우두커니 서서 그의 집만 바라보았다. 30분 동안 그러고 있던 것 같은데, 교회 첨탑을 뚫어지게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칸트(1724-1804년, 독일철학자)의 일화가 생각났다.

개츠비의 대저택은, 유명 맥주 회사 사장이 약 10년 전 썸에 주택 건설이 대유행일 때 일찍이 지은 집이었다.

그와 관련된 일화도 하나 내려오고 있는데, 그 맥주 회사 사장은 자신의 집이 유독 독보이게 하려고, 자기 집에 이웃한 집들 주인이 모두 자신의 집 지붕을 초가지붕으로 바꾼다면 “내가 대신 내 줄게. 니들 5년 치 세금!”이라고 우겼다고 한다.

어쨌든 지금 상황 봐선 당시 그의 이웃들은 이 지역 전체를 자신의 패밀리로 만들겠다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맥주 회사도 쇠퇴한 것 같다. 그의 장례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자녀들이 저택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가끔 사상적으로 중세 유럽의 농노(영주의 지배를 받던 농민 계층)가 되고 싶어 환장한 미국인들조차도, 막상 현실에서 소작인(농민) 신분으로 강등당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심보를 부릴 때가 있다. 맥주 회사 사장 이야기도 그렇지 않나 싶다.

대략 30분쯤이 지나자, 태양이 다시 방실하고 얼굴을 내비쳤다.

식료품 상인이 탄 트럭이 개츠비 집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먹을 저녁용 식자재들을 싣고 개츠비 저택 앞 도로 모퉁이를 돌고 있었다.

가사도우미(여자) 한 명이 개츠비 저택 2층 창문들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2층 창가 하나하나씩에 잠깐잠깐 보였다. 건물 중앙 가장 큰 창을 다 열고는 몸을 밖으로 숙이고는 명상에 잠긴 얼굴로 정원 안쪽에 침을 벌고 사라졌다.

별꼴이다 싶다가도, 이내 돌아가 봐야 할 시간인가 하고 느꼈다.

계속되는 빗줄기는, 그들(=식료품상인+개츠비 집의 종사자들+가사도우미)의 중얼거림처럼, 감정의 소나기와 함께 어떤 때는 살짝 거세어졌다가도 또 어떤 때는 빗줄기가 살짝 가라앉았다.

빗줄기가 그치고 주변이 새로 또 조용해졌을 때는 그의 저택에서 들려오는 중얼거림 들도 조용히 가라앉았다.

부엌에서 스토브(난로)를 밀어 쓰러뜨리지만 앉았을 뿐이지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들을 만들어 낸 후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들(31세의 개츠비와 23세의 데이지)이 내가 만들어낸 소리들 중 하나라도 들을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그들은 소파 양 쪽 끝에 앉아, 누군가 막 질문을 던졌고 누군가 막 대답을 하려는 것 같이 그렇지 않으면 그 질문과 대답들이 공기 중에 떠 있는 마냥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황함의 모든 흔적들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였다.

데이지의 얼굴은 눈물로 칠해져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녀가 급히 일어서더니 거울 앞으로가 자신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츠비에게서는 그야말로 보는 이를 어리둥절케 하는 변화가 하나 있었었다.

말 그대로 그가 빛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얼굴이 붉어져 있었다는 말임).

환희(아주 기쁨)에 대한 한 마디 말이나 동작 없이도, 그의 내부로부터 새로운 ‘행복’(원문에는 ‘웰빙’이라고 적혀 있음)이 발산해 나와 이 작은 거실을 꽉 채웠던 것이다.

“어, 안녕하십니까, 형씨.” 마치 수년 동안 나를 일절 만난 적이 없는 마냥 개츠비(31세)가 말했다.

나는 잠시 그와 악수라도 나눠야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이 소설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의 대사→) “비가 그쳤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에 관해 얘기하는 지를 이해했을 때, 그리고 방 안에 스며든 햇살들을 통해 반짝거리는 방울들을 접했을 때, 그가 마치 ‘기상 캐스트’(일기 예보관)처럼 그리고 마치 다시 부활한 태양을 찬양하는 지지자처럼 데이지에게 그 소식을 되풀이해 말했다.

(개츠비의 대사→) “어떻게 생각해? 비가 그쳤대.”

(데이지의 대사→) “기뻐요, 제이(개츠비의 이름).”(소설 속에서 개츠비는 여러 이름을 사용합니다. ‘제이’는 그 여러 이름들 중 하나입니다. 이름이 다른 건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름을 여러 개 쓴다는 것만 잊지 않고 있음 됨)

충분히 마음 아프고 충분히 슬프도록 아름다운 목소리로 데이지는 자신의 비할 바 없는 이 예상 밖 기쁨을 말했다.

“전(저는) 당신(이름이 ‘닉 캐러웨이’. 이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과 데이지(23세, 여주인공)가 제 집을 들러 주셨으면 합니다.” 개츠비(31세, 이 소설의 남주인공)가 말했다. “두 분께 집 이곳저곳을 구경시켜드리고 싶거든요.”

(닉 캐러웨이의 대사→) “정말 저도 초대하시는 겁니까?”

“당근이지요(물론이지요), 형씨.”

얼굴을 씻기 위해 데이지가 2층으로 올라갔다. 아뵐싸, 욕실 세수수건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깜빡했다.

그녀가 준비하는 동안 개츠비(31세)와 난(30세) 잔디밭 위에서 기다렸다.

“저희(제) 집(개츠비의 집) 꽤 괜찮지 않습니까?”라며 개츠비가 물었다. “집 앞에 죄다 별(햇별)이 드는 게 보이시죠.”

나는 훌륭하고 근사한 저택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해주었다.

“암 그럼요.”

개츠비가 눈으로 거듭 자신의 집을 살폈피었다. 아치(반원) 모양의 문들이며 사각형 모양의 탑(시계탑)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신의 눈으로 찬찬히 살피고 또 살폈다.

그가 말했다.

“저 집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데 딱 3년이 걸렸습죠.” (시간 설명 : 개츠비와 데이지는 5년 만에 처음 만난 것임. 개츠비는 자신의 저택을 사는 데 3년이 걸림)

“전(저는) 당신이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건 줄 알았는데요.”

“아 그랬었죠, 형씨.”라며 개츠비가 막힘없이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난리 통에... 제1차 세계 대전의 난리 통에 상속 받은 재산 대부분을 잃고 말았죠.”

가만 듣고 있자니 과연 그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있는지 이해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곧바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고 묻자 그가 정색을 하면서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닙니다.”라며 생뚱맞은 대답을 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야, 그는 그제야 자신이 부적절한 대답을 막 했음을 인지했더랬다(정중하게 대답을 다시 한 번 더 했다는 의미임).

(앞뒤 설명 : 『위대한 개츠비』는 1925년에 쓰인 소설입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922년 여름입니다. 세계대공황은 이 소설이 나오고 4년 후인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이어집니다.)

“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돈을 모아왔었죠.” 개츠비가 자신의 말(“네가 상관할 바 아냐”)을 바로잡으며 말했다. “‘약국 업계’(원문대로 해석하면 ‘마○ 사업’)입니다. 물론 멀쩡한 소설에서 남주인공이 그럴 리가 없죠. 아마도 미국에서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있었던 금주법<술 못 팔게 한 법> 때문에 약국에서 뭔가 범죄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나 봅니다.)에도 좀 있었고 석유 업계에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둘 다 손을 떼 상태입니다.”

개츠비가 나를 좀 더 주목해서 보더니 그 얘기를 또 꺼냈다.

“어떻게 제가 며칠 전 밤에 제안 드렸던 그 ‘건’(지정된 장소에 가서 금액이 큰 돈을 받아 오는 것)에 대해서 좀 진척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채 대답을 하기도 전에, 데이지(여주인공)가 집 밖으로 나왔다. 그녀가 입고 있던 드레스 위에 달린 ‘브라스 버튼’(=교복 단추=놋쇠 단추)들 두(2)줄이 햇살 속에서 번득 빛났다(순간 잠깐 빛났다는 의미임).

“혹시 저 엄청 큰 저 곳이야?”라며 데이지가 손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개츠비의 대사→) “마음에 들어?”

(데이지의 대사→) “응 사랑스러워, 하지만 어떻게 저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지 모르겠어.”

(개츠비의 대사→) “항상 재미있는 사람들로 붐비게 밤낮으로 관리되고 있어. 흥미로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나, 유명인사들 말이야.”

해변을 따라 걷는 길은 지름길이었다. 이 길 대신 우리(개츠비, 닉 개러웨이, 데이지)는 도로를 내려가 훌륭한 뒷문을 통해 개츠비의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데이지는 몹시 마음이 들떠 중얼거리며 하늘을 배경으로 중세 봉건 시대 실루엣(=그림자=윤곽)을 보여주고 있는 이쪽저쪽 경관을 칭찬했다.

그녀는 정원에 대한 칭찬도 빼놓지 않았는데, 재기 넘치는 꽃향기를 내는 ‘노랑수선화’(사진링크▶<http://me2.do/xy8uYR08>)들과, 시시한 냄새를 내지만 불만한 ‘산사나무’(사진링크▶<http://me2.do/xgcGlf6M>)와 ‘서양 자두꽃들’(사진링크▶<http://me2.do/59cerHIS>), 그리고 가냘픈 황금빛 향기를 풍기는 ‘삼색제비꽃들’(사진링크▶<http://me2.do/5KT8XR2U>)로 가득한 정원이었다.(사진 4개 모두 검색일자 : 2015-8-16)

저택 앞쪽에 있는 대리석 계단에 도착할 때까지 문을 드나드는 광채 나는 제복(가사도우미의 옷)의 나부낌도 그리고 사람이 내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새들만이 나무들에 남아 지저귀고 있었다.

그리고 저택 안에서, 우리(개츠비, 닉 캐러웨이, 데이지)가 ‘마리 앙투아네트’(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왕비) 왕비가 살던 당시 풍으로 복원된 ‘음악실들과 응접실들’ 속을 걸어서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우리 외에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이들 장소들을 모두 지나가는 동안 숨도 쉬지 말고 침묵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저 소파나 테이블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개츠비가 “머튼 칼리지 도서관”(영국의 고풍스런 도서관. 사진링크▶ <http://me2.do/xeDUdByw>), 검색일자:2015-8-16.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학술 도서관. 머튼 칼리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속해 있음)을 연상시키는 서재의 문을 닫았을 때, 급기야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맹세했다.(개츠비는 자신이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이라고 닉 캐러웨이에게 말한 적이 있음)

‘그래 그때 그 올빼미 안경을 쓰고 있었던 중년 남성이 우릴 비웃는 웃음을 터뜨린 걸 내가 막 들었다니까.’라고. (닉 캐러웨이가 처음 개츠비 저택에 초대받아 서재에 들어왔다가 서재 책 선반에 쌓인

진짜 책들을 보고 냅을 놓고 있는 올빼미 안경을 한 중년 남성을 만난 적이 있음. 다만 그 올빼미 안경을 한 중년 남성이 1주일 내내 개츠비 저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라 대화를 제대로 못 나눔)

우리(개츠비, 닉 캐러웨이, 데이지)는 2층으로 올라가, 장밋빛(장미색깔) 실크(비단)와 옅은 자줏빛 실크로 ‘싸여 있고’(공간이 감싸여 있고) 싱싱한 꽃들로 싱싱함을 더하고 있는 어느 특정 시대 과거 양식을 본 뜬 침실들을 지나, 옷 방들과 포켓볼 당구장들을 지나, 바닥으로 움푹 내려앉은 온천장이 있는 욕실들을 지나쳐 갔다.

그러다 잠옷만 걸친 헝클어진 옷차림새를 한 한(1) 청년이 팔짝팔짝 제자리에서 뛰며 바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어느 방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청년은 ‘하숙생’(비꼬는 의미임) ‘클립스프링어’(바위타기영양이란 뜻임. 사진링크 ▶ <http://me2.do/FD4QZBlg> , 검색일자 : 2015-7-25, 4장 #6 본문 발췌 ▶ “그는 개츠비의 저택에 종종 그러니까 너무 자주 들렀었는데 한 번 왔다하면 죽치고 놀러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개츠비 저택의 하숙생으로 받아들여지곤 했다. 솔직히 ‘클립스프링어’에게 다른 집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지만.”)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 클립스프링어가 해변 근처를 굽주린 듯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최종적으로 우린 개츠비 자신의 ‘방’(대저택 내부에서, 공간 구획의 의미로써의 ‘방’)에 닿을 내릴 수 있었다(도착했다).

침실 하나와 욕실 하나, 그리고 ‘아담 형제’(영국 건축가 형제. 고대 로마 풍과 근세 프랑스 풍이 같이 있음. 사례 : “흙 하우스의 프론트 드로잉 룸” 사진링크▶ <http://me2.do/xQloMZFg> , 검색일자:2015-8-16)의 작품으로 보이는 서재 하나가 하나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 방이었다.

우리 셋은 그 방에 앉아 개츠비가 벽에 박혀 있던 찬장에서 끄집어내 온 약간의 ‘샤르트뢰즈’(=브랜디+약초. 최고급 술. 유리잔에 든 ‘샤르트뢰즈’ 사진링크1 ▶<http://me2.do/x5jWfmwB> , ‘술병’ 사진링크2 ▶ <http://me2.do/GrlM2g5L> , 검색일자:2015-8-16)를 한 잔씩 쪽 들이켰다.

개츠비(31세, 남자주인공)는 단 한 차례도 데이지(23세, 여자주인공)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내(30세, 닉 캐러웨이=데이지의 6촌 오빠) 생각에 그는 지금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사랑스러운 그녀의 두 눈동자들이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재평가해보고 있는 듯 보였다.

또한, 이따금씩, 개츠비는 멍한 눈빛으로 자신이 소유한 물품들을 두리번거렸는데, 계속해서 자신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그녀가 실제 존재하는 이상 다른 재산들은 더 이상 진짜가 아니라는 식이었다.

그러다 한번은 한 줄로 이어진 계단 아래로 거의 고부라져 쓰러질 뻔했다.

개츠비의 침실이 그 중엔 가장 간소한(간단한) 공간이었다. 물론 색이 좀 ‘무딘(흐린)’ 순금 화장 도구 세트와 같이 놓여 있던 ‘화장대’(위는 선반 아래는 서랍장)를 제외하면 말이다.

데이지가 기뻐하며 솔(헤어브러시)을 들어 자신의 머릿결을 매만졌다.

개츠비는 데이지의 그런 모습을 보더니 의자에 앉아 눈까지 가리며 웃어대기 시작했다.

“정말 최고로 귀엽지 않습니까, 형씨.”라며 개츠비가 명량하게 말했다. (웃으면서 하는 말→) “저는 아무리 해도... 저런 동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츠비는 분명 두(2)가지 흥분상태를 모두 통과하고 이제 세 번째 긴장상태로 들어서고 있었다.

‘거북함’(1번째 흥분 상태)과 ‘터무니없는 환희’(2번째 흥분 상태)의 흥분상태를 지나, 그는 이제 데이지가 와있다는 사실에 ‘깊이 경탄’(3번째 흥분 상태)하며 자신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가 아주 오랫동안 몰두해왔었던 꿈이었다. 그는 그 꿈이 결국에 가서는 실현되리라 여기며 이를 악물고, 다시 말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긴장을 하면서 기다려왔었던 것이다.

이제, 그 반작용으로, 개츠비는 ‘태엽’(감아 놓으면 시계가 움직임)을 너무 감은 시계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정신 줄을 놓고 있었다).

곧 정신 줄을 차린 개츠비가 우리에게 “보라!”며 전매특허를 받은 캐비닛(벽장) 두 개를 열어보
였다.

그 캐비닛(벽장) 안에는 엄청난 수의 양복들과 가운(잠옷 위에 입는 옷)들과 넥타이들과 그리고
그의 와이셔츠들이, 벽돌이 12개 포개어져 있는 마냥, 높다랗게 쌓아올려져 있었다.

“제게 옷을 사서 보내는 사람을 따로 한 명 영국에 두고 있습니다. 그가 봄과 가을로 해서, 계절
이 시작할 즈음에 다양한 신상품들을 보내줍니다.”

개츠비가 한 묶음의 와이셔츠들을 벽장 속에서 끄집어내더니 우리 앞에 한 장 한 장(와이셔츠
하나하나) 던지기 시작했다.

두께가 얇고 속이 비치는 리넨(손수건용)으로 된 와이셔츠들과, 두꺼운 실크(비단)으로 된 와이
셔츠들, 그리고 질이 좋은 무명(옷)으로 된 와이셔츠들이 펄럭거리며 떨어지면서 테이블 위에 다채로운
색깔로 어지럽게 쌓여갔다.

우리는 감탄했고 그럼 그는 더 많은 옷들을 벽장 속에서 끄집어내 우리 앞에 던졌고 살짝만 쌓
여 있던 옷더미들이 이내 높다랗게 더 높이 쌓여갔다.

줄무늬들이 있는 와이셔츠들과, 소용돌이무늬가 있는 와이셔츠들, 그리고 ‘분홍색이 도는 주황
색’과 ‘밝은 황록색’과 ‘자주색’과 ‘얇은 오렌지색’의 격자무늬가 새겨진 와이셔츠들과 함께 남색(남색 색
깔) ‘모노그램’(=문양=상표. 명품 가방에 찍힌 모노그램처럼 개츠비의 이름 첫 글자를 가지고 문양을 만
들었는데 그 문양들이 옷이 테이블 위에 수북이 쌓이면서 쌓여갔다는 얘기임)들이 수북이 쌓여갔다.

그때 갑자기, 괴로운 소리를 내면서 데이지가 그 와이셔츠들에 얼굴을 떨구고는 폭풍우가 올 듯 소리 내 울기 시작했다.

“너무도 아름다운 셔츠들이야.” 데이지가 흐느껴 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껍게 쌓인 옷더미들 속에 파묻혔다(잘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들을 전에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날 슬프게 해.”

집 안을 둘러본 후, 우린(개츠비. 닉 캐러웨이. 데이지) 구내(=뜰=마당)와 수영장을 둘러볼 계획이었다. 그리고 수상 비행기(물 위에 뜨는 비행기)와 한 여름 꽃들도 보아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밖에서부터 개츠비 침실 창문으로 비가 날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린 창가에 한 줄로 서서 물결치는 해수면을 바라다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만약 안개만 끼지 않았더라도 ‘만’(=바다. ‘맨하셋 만’을 말함. 만=바다가 육지로 쏙 파고 들어온 것) 건너편에 있는 당신(데이지) 집을 볼 수 있었을 거야.”라며 개츠비가 말했다. “부두(배를 대는 곳) 끝에서 초록색 조명이 밤새 불을 밝히고 있는 집이지.”

데이지가 갑자기 자신의 팔로 개츠비의 팔을 팔짱 껴다. 하지만 개츠비는 자신이 방금 한 말(“바다 건너 당신 집 초록색 조명이 보일 시간이다.”)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어’(빠져 있어) 그녀가 팔짱 낀 사실을 모르는 듯 했다.

아마도 그 초록색 조명이 가졌던 어마어마한 중대성이 방금 영원히 붕괴된 사태가 그에게 막 일어난 듯 보였다.

자신과 데이지를 육체적으로 떼어놓고 있던 그 광대한 거리와 비교해보았을 때, 그 초록색 조명은 자신보다 그녀에게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 보였을 것이고 초록색 조명이 마음만 먹으면 특하고 그녀에게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듯 보였을 것이다. 마치 눈으로만 봤을 때 달 옆에 있는 별이 너무도 달에 가까이 있는 듯 느껴지듯이.

지금 그녀가 자신에게로 건너온 이상 그 초록색 조명은 그냥 부두 위 조명 하나일 뿐이었다.

그를 마법에 걸리게 했던 대상(사랑)들 중 하나가 줄어든 것이다.

나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반쯤은 어둠에 가려 막연하게만 보이던 대상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개츠비 책상 위쪽에 있는 벽 위에 커다란 사진 하나가 내 눈길을 끌었는데, 노인 한 사람이 뱃놀이(요트 놀이) 의상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분이 누구시죠?”

“그요? ‘댄 코디’입니다, 형씨.”

댄 코디라? 어렵풋하지만 어째 귀에 익은 이름이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죠. 한때 제 가장 친한 동반자(파트너)였습니다. 물론 여러 해 전 일이지 만요.”

그 책장 위에는 개츠비가 뱃놀이(요트 의상) 의상을 입고 있는 작은 사진도 하나 놓여 있었다.

개츠비가 반항적으로 고개를 뒤로 돌리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의 질로 판단해보건대 아마도 18세 정도 무렵에 찍은 사진 같았다.

“카약, 넘 예뻐,”라며 데이지가 소리쳤다. “‘풍파두르’(남자 올백 머리. 사진링크 ▶ <http://me2.do/xjrLL3Ma> , 검색일자:2015-8-19)잖아! 언제 한 거야 풍파두르를 했었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그리고 요트도(그리고 요트 얘기도 없었고).”

(대화를 급히 돌리며하는 대사→) “여길 볼래,”라며 개츠비가 급히 말했다. “신문이나 잡지들에 서 오려낸 기사들이야. 모든 너에 관한 기사들이야.”

개츠비와 데이지가 나란히 서서 그 사진첩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나에게도 좀 그 ‘루비’(=보석=개츠비가 모아놓은 데이지 관련 기사와 사진들을 말함)들을 보여 달라고 말하려던 찰나에 전화벨이 울렸다.

개츠비가 수화기를 집어 들었다.

“나요... 음, 글썄 지금은 좀 통화가 어렵겠는데... (저쪽에서 계속 말을 하자) 지금은 통화가 좀 어렵겠다고요, 형씨... 작은 마을이라고 내가 말했잖소... 그럼 그(사람)보고 (전화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 뭔지 부터 좀 알아보라고 하셔야 할 것 아니요... 아니 글썄, 디트로이트(큰 도시. 미국 미시건주의 자동차 공업도시) 같이 큰 도시를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하는 자를 어디에 써먹겠다는 거요....”

개츠비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얼른 이리 좀 와 봐!” 데이지가 창가에서 소리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쪽 하늘 부근엔 먹구름이 걷혀 있었는데, 거품 같은 구름들이 해수면 위로 ‘분홍색과 황금색’ 놀을 만들고 있었다.

“어머나 저것 좀 봐,” 그런 다음 잠시 뒤 데이지가 속삭였다. “저 분홍빛 구름들 중 하나만 떼어다가 당신을 담은 후 도로 하늘로 밀어 넣고 싶어.”

상황이 그쯤 되었으므로 나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려 했지만 그들(개츠비와 데이지)이 극구 사양했다. 아마도 내 존재가 둘을 보다 오붓하게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우리가 해봐야 할 게 생각났습니다.”라며 개츠비가 말했다. “‘클립스프링어’(하숙생 이름. 바위타기영양이란 뜻임. 사진링크 ▶ <http://me2.do/FD4QZBlg> , 검색일자 : 2015-7-25, 4장 #6 본문 발췌 ▶ “그는 개츠비의 저택에 종종 그러니까 너무 자주 들렀었는데 한 번 왔다하면 죽치고 놀러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개츠비 저택의 하숙생으로 받아들여지곤 했다. 솔직히 ‘클립스프링어’에게 다른 집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지만.”)에게 피아노를 연주해보라고 시킬 거거든요.”

개츠비(31세. 남주인공)는 방을 나가더니 “(큰소리로) 유잉!”(암양이란 뜻임. ‘클립스프링어’이라는 이름이 바위타기영양이란 뜻이므로 기분이 좋아진 개츠비가 ‘클립스프링어’를 코믹하게 부른 것임. 사진링크 ▶ <http://me2.do/FD4QZBlg> , 검색일자 : 2015-7-25, 4장 #6 본문 발췌 ▶ “그는 개츠비의 저택에 종종 그러니까 너무 자주 들렀었는데 한 번 왔다하면 죽치고 놀러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개츠비 저택의 하숙생으로 받아들여지곤 했다. 솔직히 ‘클립스프링어’에게 다른 집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지만.”)이라며 소리쳐 불렀고, 몇 분 후 뜻밖의 상황에 당황스러워서인지 몹시 지쳐 보이는 젊은이 한 명을 대동하고서 개츠비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조개껍데기로 만든 안경테를 두른 그 젊은이는 머리숱(머리카락의 개수)이 얼마 안 되는 금발이었다.

지금 그 젊은이는 ‘스포츠 셔츠’(운동선수의 옷 상의. 스포츠 웨어 사진링크 ▶ <http://me2.do/5RktqQpx> , 검색일자:2015-8-20)를 뭐 그리 나쁘지 않게 입고 있었는데, 목에 단추를 안 잠근 것만 빼면 크게 나쁘지 않은 옷차림이었다. 그리고 바닥이 고무로 된 운동화와 색이 흐리고 험령한 ‘바지’(원문엔 ‘오리바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아님??? 비슷한 사진 링크 ▶ <http://me2.do/FQZIW5IN> 아닌가 ㅎㅎㅎ, 검색일자:2015-8-20)를 입고 있었다.

“운동하시는 데 방해가 된 건 아닌가요?”라며 데이지(23세, 여주인공)가 정중하게 물었다.

“자고 있었던 걸요,” 당황해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클리프링어’(하숙생이름. 바위타기영양이란 뜻임. 사진링크 ▶ <http://me2.do/FD4QZBlg> , 검색일자 : 2015-7-25, 4장 #6 본문 발췌 ▶ “그는 개츠비의 저택에 종종 그러니까 너무 자주 들렀었는데 한 번 왔다하면 죽치고 눌러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개츠비 저택의 하숙생으로 받아들여지곤 했다. 솔직히 ‘클리프링어’에게 다른 집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지만.”)이 훌쩍거리듯 말했다. “제 말인즉슨, 제가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르는 소리에 깬데 글썄...”

“클리프링어(하숙생이름)이 피아노를 연주해 준다는군요.” 클리프링어가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자 말을 자르며 개츠비가 말했다. “그럴 거지, 유잉,(암양이란 뜻임. ‘클리프링어’이라는 이름이 바위타기영양이란 뜻이므로 기분이 좋아진 개츠비가 ‘클리프링어’를 코믹하게 부른 것임), 응 형씨?”

“잘 못 치는데요. 전 전혀... 피아노를 칠 줄을 몰라요. 너무 오랫동안 연습을 하지 않아 지금은....”

“자 그럼 우리 모두 아래층(1층)으로 내려가 볼까요.”라며 개츠비가 제지하며 말했다.

모두 1층으로 내려온 후 개츠비가 스위치를 “탁!” 올리자 회색(흐린) 창문들이 일제히 사라지고 집 전체에 조명이 “확!”하고 켜졌다(빛났다).

‘마리 앙투아네트’(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왕비) 왕비가 살던 당시 품으로 복원된 ‘음악실’에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피아노 옆에 램프가 홀로 서 있었다.

개츠비가 그 램프의 불을 켜다.

개츠비가 성냥에 불을 붙였는데 매우 가늘게 떨렸다.

개츠비는 그 불로 데이지의 담○에 불을 붙여준 후 소파 위에 앉은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그들이 앉은 소파는 피아노가 있는 음악실에서도 저 멀찍이 떨어진 곳이었다. 거기엔 홀(현관)에서 뛰어난 불빛이 바닥에 어렴풋한 빛을 잠깐 잠깐씩만 내보일 뿐 조명이라곤 전혀 없는 곳이었다.

‘클립스프링어’(하숙생이름. 바위타기영양이란 뜻임. 사진링크 ▶ [http://me2.do/](http://me2.do/FD4QZBIg)

[FD4QZBIg](http://me2.do/FD4QZBIg) , 검색일자 : 2015-7-25, 4장 #6 본문 발췌 ▶ “그는 개츠비의 저택에 종종 그러니까 너무 자주 들렀었는데 한 번 왔다하면 죽치고 눌러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개츠비 저택의 하숙생으로 받아들여지곤 했다. 솔직히 ‘클립스프링어’에게 다른 집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지만.”)가 <사랑의 보금자리>(1920

년에 나온 미국노래임. 유튜브에서 듣기 ▶ <https://youtu.be/kgm6xrdLigg> , 검색일자:2015-8-20)를 연주했다.

그러다 그는 곧 데이지와 개츠비가 앉아 있는 소파 쪽으로 고개를 돌려 어두워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자신을 바라다보고 있을 개츠비를 비참한 얼굴로 찾기 시작했다.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들으셨죠, 제가 피아노 연습을 안 하지가 너무 오래 돼서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 연주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피아노 연습을 안 한지가 너무....”

“형씨, 말 좀 그만하고,”라며 개츠비가 호통 쳤다. “뵈아(=연주=플레이)!”

<클립스프링어가 노래하는 부분임↓>

“아침으로,

저녁으로,

뭐냐 재미난 것도 없고...(뭔 소리여-_-;; 노래 아닌가? 원문에 왜 한 줄씩 적혀 있지...)”

밖에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그리고 해변 가를 따라 어렴풋이 천둥소리도 들리는 듯 했다.

‘웨스트 에그’(서쪽 달걀. 개츠비의 집. 이 글 맨 아래쪽에 있는 밑에서 위로 두 번째 네이버지도 참조바람)에 있는 모든 조명들에는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뉴욕에서 온, 사람을 나르던 전동차들도 빗줄기를 피해 기지 본부로 뛰어들고 있었다. (왼쪽에 뉴욕이 있고 오른쪽에 웨스트 에그가 있음)

이건 인간에게 흔히 있는 심오한 변화의 시간이었으며, 흥분이 자극적으로 발산되고 있을 무렵이었다.

〈하숙생 ‘클립스프링어’가 노래하는 부분임〉

(대괄호 시작→)“한 가지가 확실하면 다른 건 더 몰라지네 (←마침표 원래 없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가 아니라, 아기들을 얻지. (←마침표 있음)

그 사이,

툼툼이들...(아기들을 얻지)”(←대괄호 끝) (괄호 ‘()’는 이해하기 쉽게 임의로 첨가한 부분임)

[참고 :

클립스프링어가 부른 노래 듣기. 제목은 〈사랑의 보금자리〉(1920년에 나온 미국노래임. 유튜브에서 듣기 ► <https://youtu.be/kgm6xrdLiqg> , 검색일자:2015-8-20)]

내(이름이 '닉 캐러웨이'. 30세)가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그들이 있는 쪽으로 건너갔을 때에 나는 보았다. 개츠비(31세, 남주인공)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다시 나타나 있음을. 마치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재 행복(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무언가 희미한 의구심이 솟아났던 것만 같았다.

그래 거의 5년 만의 재회였으니까!(개츠비와 데이지는 5년 만에 처음 다시 만난 것임)

'그날 오후'(처음 재회한 날) 데이지가 개츠비의 환상(꿈)들에 미치지 못한 순간들도 없진 않았을 것이다. 그건 데이지가 주체인 실수 때문이 아니라 개츠비가 지금까지 품어온 거대한 환상이 가진 생명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한 마디로 개츠비의 환상이 도가 지나쳐 데이지를 뛰어넘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버렸던 것이다.

창조적인 열정(사랑의 애태움)을 가지고서 개츠비는 자기 자신을 그 환상 속으로 밀어 넣어왔었고, 항상 그 환상에 또 다른 환상을 덧붙여 왔었으며, 그 환상을 '몰고 가는'(가축을 '몰고 가는' 할 때의 '몰고 가는') 길에 떠다니고 있던 근사한 깃털을 죄다 주어다가 그 환상을 장식해왔었던 것이다.

아무리 많은 불꽃들과 아무리 많은 새로움 들도, 한 남자가 자신의 유령 같은 심장 속에 쌓아 온 그 '환상'(개츠비의 일방적인 사랑)에는 맞설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개츠비를 너무 빨리 바라다봤기 때문인지 개츠비도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었던 변화를 눈치 채고는 태도를 추스르는 것 같았다.

그런 다음 개츠비가 데이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러자 데이지가 개츠비의 귀에다 대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소근 거렸다. 이것이 개츠비의 얼굴에 감동의 쓰나미를 몰고 온 것 같았다.

내 생각에, 사람을 떨리게 만드는 뜨거운 열기로 그녀의 목소리가 그를 대부분 휘어감은 것이 분명해보였다.

왜냐하면 그녀의 목소리는 초월할 수 없는 불멸의 노래 그 자체이기 때문이었다.

개츠비와 데이지는 내가 그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다만 데이지만은 나를 힐끗 쳐다보고는 손을 내밀어 주었지만, 개츠비는 나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내가 그들 쪽으로 다시 한 번 고개를 돌렸을 때에는 그들도 그제야 다시 생기발랄해져서 멀리서지만 내 쪽을 향해 돌아보아주었다.

그럼 다음 그들이 있는 방 문을 완전히 나선 나는, 비가 주섬주섬 내리고 있는 대리석 계단들을 밟고 내려가는 것으로, 그들(개츠비와 데이지)을 거기에(개츠비의 저택) 함께 남겨둔 채 떠났다.

(여기까지가 『위대한 개츠비』 라는 소설의 5장 끝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6장에서 계속됩니다.)

(6장부터는 좀 슬퍼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가면 많이 슬픕니다. 기분 좋게 슬픈 게 아니라 기분 안 좋게 슬픈 게 흠이죠. 그냥 소설 속 일방적인 사랑 이야기들이 늘 그렇듯 위대한 개츠비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많이 읽어주세요. :) ㅎㅎㅎ 문법에 틀린 해석이 많지만 어쨌든 전체 줄거리는 비슷하니까 “쌤쌤!”~_^)

6 장

VI

제 6 장

이맘때쯤 한(1명) 야심만만한 젊은 ‘보도 전문 기자’가 뉴욕(서쪽)에서 ‘웨스트 에그’(서쪽 달걀. 뉴욕의 동쪽에 있음. 개츠비 집이 있는 동네)에 있는 개츠비 저택 대문까지 찾아온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기자는 다짜고짜 개츠비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뭘 말하라는 것이오?” 기부는 상했겠지만 개츠비 댄에는 최대한 예의바르게 질문했다.

“왜 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발표할 만한 성명서 같은 거요.”

묻는 기자도 헛갈리고 답하는 개츠비도 혼란스런 5분이 지난 후, 기자가 왜 찾아왔는지가 드러났는데, 그 기자 말로는 굳이 밝힐 의사는 없지만 그리고 충분히 기사거리로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밀수 조직과 관련하여 자기 사무실(신문사) 주변에서 개츠비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자는 그날이 근무일이 아닌데도 진취적인 기자정신을 발휘하여 “장본인의 몰골을 직접 보러 왕림”하시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 되는 대로 던진 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 전문 기자의 촉(本能)은 나름 옳은 데가 있었다.

왜냐하면 개츠비의 파티에 초대되어 후한 환대를 받고 그 덕에 개츠비의 과거에 대한 권위자가 된 수백 명의 손님들에 의해 퍼져 나간 이 악명(사람을 죽였다거나 독일 황제의 사촌조카라 돈이 많다는 소문 등등)이 이번 여름 내내 최고조에 달해 거의 기사로 나오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이어지는 지하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하더라와 같은 그런 동시대 “카더라 통신”들이 개츠비와 연결되어졌고, 그리고 개츠비가 사실은 자신의 저택에서 전혀 생활하지 않으며 저택처럼 만든 선박(배) 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비밀리에 ‘롱 아일랜드 해협’(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을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하더라와 같은 그런 끈질긴 “카더라 통신”도 있었다.

▼ 구글 지도 참조 1

검색어 ‘롱 아일랜드 해협’(=바다임=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다만 어째서 이런 “카더라 통신”들이 ‘노스다코타’(미국 북부. 캐나다 바로 밑.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 주의 ‘제임스 개츠’(개‘츠’비의 이름. 소설 속에서 개츠비는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합니다. 개츠비란 이름 외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게 소설 이해에 더 도움이 됨)를 만족시키는 원인이었는지는, 나로선 정말이지 말하기가 쉽지 않다.

▼ 구글 지도 참조 2

검색어 ‘노스다코타 주’(=미국 북부=캐나다 아래=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참고 : 개츠비는 소설 속에서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합니다. 성씨와 이름도 여럿 사용합니다. 원래 이름=제임스 개츠. 바뀐 이름=제이 개‘츠’비. 나중에 제이 개츠비란 이름으로 데이지도 사귀입니다. ‘개츠비’라는 이름 하나만 기억하면 됨. 이름이 여러 개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님)

‘제임스 개츠’(개츠비의 여러 이름들 중 하나. 제임스=이름. 개츠=성씨), 이것이 그의 진짜, 아니 적어도 법적인 이름이었다.

개츠비는 자신의 이름을 17세 때 바꾸었는데, 그건 자신의 경력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댄 코디’(개츠비의 보스. 댄=이름. 코디=성씨)가 탄 요트가 ‘슈피리어 호수’(미국에서 오대호 5개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호수.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에서 가장 방심할 수 없는 곳 바로 위에 닳을 내리고 있는 것을 ‘제임스 개츠’(개츠비의 진짜이름)가 보았을 때였다.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슈피리어 호수’(=미국 오(5)대호=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그날 오후 제임스 개츠(개츠비)는 다 찢어진 초록색 운동 셔츠와 배의 뒤틀림으로 만든 바지를 입고서 호숫가를 따라 빈들빈들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급히 노로 젓는 배를 한 대 빌려 ‘투올로미 호’(=배=댄 코디의 요트 이름)까지 노를 저어가 “30분 내에 강풍이 불어 이 요트가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라고 ‘댄 코디’(개츠비의 보스)에게 알려준

사람은 이미 ‘제이 개츠비’였다. (원래 이름=제임스 개츠. 바뀐 이름=제이 개츠비. 나중에 제이 개츠비란 이름으로 데이지도 사릅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그는 오랫동안 그 이름(제이 개츠비)을 사용할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개츠비의 부모님들은 인생에서 꿈도 야망도 없는 불운한 농업 종사자들이었다.

하지만 개츠비의 상상력은 절대 자신의 부모님들을 부모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

참말로(진실로), ‘롱 아일랜드’의 ‘웨스트 에그’에 있는 ‘제이 개츠비’(개츠비가 지어낸 이름)라는 인물의 이름은 그 자신에 대한 정신적 사랑의 작용에서부터 유래한 것이었다.

개츠비는 ‘신(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만약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언가를 의미한다면, 그건 개츠비가 정말이지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았더라’(킹제임스 성경 누가복음 2장 49. 킹제임스는 성경의 종류들 중 하나. ‘다국어성경’(무료홈페이지)에서 해당 부분 검색결과 ▶ <http://me2.do/xWciS4Zr>, 검색일자:2015-8-23)는 것이다. 광대하고 비천하며 저속한 아름다움(농업)에 대한 종사 말이다.

그래서 개츠비는 17세 소년이 고안해낼 만한 직한 일종의 ‘제이 개츠비’라는 인물을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후 이 처음 생각을 ‘최후까지’(이 소설이 비극적일 것임을 암시하는 단어죠 ^0^;;) 충실히 지켰던 것이다.

그때는 ‘1년에 걸친 시간동안’(개츠비가 댄 코디를 만나기까지), 개츠비가 ‘슈피리어 호수’(미국에서 오대호 5개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호수.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의 남쪽 호숫가를 따라 대합조개(맛이 좋음)를 캐기도 하거나 연어를 낚기도 하거나 식사와 잠자리를 때울 수 있는 여타 다른 온갖 일들을 해내면서 억지로 살아가고 있을 때였다.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슈피리어 호수’(=미국 오(5)대호=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호숫가의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날씨들 속에서 1/2는 지독히 열심히 움직이고 1/2는 게으름뱅이처럼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츠비의 살갓은 벌레 그을린 얇은 갈색으로 ‘담금질 되었다’(단단해졌다).

개츠비(18세)는 일찌감치 여자를 알았다. 하지만 여자들이 그를 망쳐놓은 이후로는 그녀들을 경멸하게 되었다. 자신(여자)들의 결점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이유로 개츠비는 젊은 여성들을 싫어했고, 개츠비 자신이 자신에 대한 도취를 너무도 강력히 당연시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나머지 나이 대의 여성들이 매우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개츠비는 다른 나이대의 여성들도 매우 경멸했다.

하지만 개츠비의 심장에서는 항상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밤에 자르고 누울 때면 가장 이상하고도 야릇한 자만심이 그에게서 떠나가질 않았다.

시계가 세면대 위에서 “똑딱똑딱”거리는 동안, 그리고 개츠비가 바닥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옷들이 달빛에 점점 젖어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입에 올리기에도 황당한 엄청난 수의 이상야릇한 생각들이 저절로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즐음이 생생한 몇몇 장면들 위로 알아차리지 못할 포옹과 함께 스르륵 밀려와 개츠비를 잠재울 때까지, 매일 밤 개츠비는 자신의 환상에다가 형태를 덧붙이고 있었다.

잠시 동안 이러한 몽상들은 개츠비의 공상(상상력)이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배출구를 제공해주었다.

그건 현실이 비실제적 성격을 지닐 수 있다는 만족할 만한 힌트였기 때문이며, 바윗덩어리 같은 이 세상이 실은 요정의 날개 짓 위에 단단히 세워져 있다는 하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보다 몇 달 전에’(개츠비가 댄 코디가 탄 요트를 발견하기 몇 달 전에) 장래의 성공에 대한 본능이 개츠비를 ‘남부 미네소타’ 주(개츠비의 고향인 ‘노스다코타’ 주 바로 오른쪽에 있는 주.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에 있는 ‘세인트 올라프 대학’(미국사립대학)이라는 루터 교회의 작은 대학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참고 : 루터는 종교개혁을 촉발한 사람. 1517년 독일)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미네소타 주’(=미국 북부=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개츠비는 그 대학에서 2주가량을 머물렀다. 하지만 개츠비 자신의 운명이 날갯짓하는 소리에 대해 대학 측이 지독히도 무관심한 것에 대해 경악한 나머지 그리고 대학 측이 대학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지독히 무관심한 것에 대해 실망한 나머지 그리고 개츠비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시작했었던 수위(문지기) 일에도 질색을 하게 되었을 때, 개츠비는 ‘슈피리어 호수’(미국에서 오대호 5개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호수.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로 등 떠밀리다시피 하며 되돌아왔던 것이다.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슈피리어 호수’(=미국 오(5)대호=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그리고 개츠비가 여전히 뭔가 할 일을 찾아다니고 있던 바로 그 날 그는 ‘댄 코디’(개츠비의 보스)가 소유한 요트가 너무 얇은 호숫가에 닿을 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당시 ‘댄 코디’(개츠비의 보스. 댄=이름. 코디=성씨)는 50세였다. 댄 코디는 네바다 주(미국 서쪽)의 은광(광산)들과 ‘유콘 강’(알래스카에 있는 강 이름)의 은광들 그리고 1875년 이래 촉발되었던 모든 광산업 돌풍의 성과 그 자체였다.

▼ 구글 지도 참조 1

검색어 ‘네바다 주’(=미국 서쪽=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 구글 지도 참조 2

검색어 ‘유콘 강’(=알래스카에 있는 강 이름=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특히나 몬태나(미국 북부) 주에 있던 구리를 취급하게 되면서 댄 코디는 말 그대로 몇 번이고 백만장자가 되고 또 되었는데 그게 그만 그를 신체적으로 힘들게 해 결국 그는 흔들리기 쉽고 설득당하기 쉽고 겁먹기 쉬운 지적 무능 자가 되어갔는데, 이 사실을 어렵פות이 알아챈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댄 코디에게서 한 재산 차지하기 위해 달라붙었던 것이다.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몬태나'(=미국 북부=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이 와중에 신문사 여기자였던 '엘라(이름) 케이(성씨)'란 여성이 댄 코디의 심약함을 가지고 장난을 쳐 자신이 '맹트농 후작부인'(초상화 ▶ <http://me2.do/5ptEgt7v> , 검색일자:2015-8-24. 정식 왕비가 죽은 후 루이 14세와 비공식적으로 결혼한 여인. 원래는 루이 14세의 서자(아들)들의 가정교사. 자세한 것은 위키백과 참조바람 링크 ▶ <http://me2.do/GzH1WfTL> ← 짧은 글이니 꼭 읽어두어야 소설 이해가 쉽습니다.)인 양 행동하며 댄 코디를 요트에 태워서 바다(←바다라는 단어를 시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음)로 보내버린 결과 파생된 이후의 부차적인 결과(돈)들에 대해서는 1902년에 나온 신문이나 잡지들에 잘 소개되어 있다. 물론 대개가 과장되게 소개되어 있지만 말이다.

댄 코디는 그렇게 해서 장장 5년 동안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쾌적한 호수가 기슭을 따라 유람하다가 '리틀 걸스(여자애들) 포인트'(=슈퍼리어 호수=갭=지점=땅이 호수 쪽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

는 부분.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에 ‘제임스 개츠’(개츠비가 이름을 바꾸기 전의 이름)의 운명을 쥔 사나
이로 불쑥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리틀 걸스 포인트’(=슈피리어 호수=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노(배를 젓는 노)들 위에 아무렇게나 걸터앉아, 난간까지 있는 요트의 갑판을 쳐다보고 있는 젊
은 제임스 개츠(‘제이 개츠비’를 말함)의 눈에는, ‘댄 코디’(개츠비의 보스)가 탄 요트가 이 세상에 있는 모
든 아름다움과 매력을 대변하고도 남았다.

내가 짐작하건대 그때 제임스 개츠는 댄 코디에게 미소를 날려 보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쯤
이면 이미 제임스 개츠도 자신이 미소를 지어보일 때 상대방이 그에게 급 호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
었을 때였기 때문이다.

어쨌건 댄 코디는 제임스 개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댄 코디
의 질문 중 하나는 제이 개츠비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츠비에게서 끄집어냈다.

댄 코디는 몇 마디 주고받자마자 이 청년의 머리가 대단히 영리하고 터무니없을 정도로 큰 야망
을 가진 녀석이라는 것을 눈치 챘을 것이다.

그 후 수일이 지나지 않아 ‘댄 코디’(개츠비의 보스)는 제이 개츠비를 요트에 태우고 ‘덜루스’(미국 미네소타 주 동쪽의 호숫가. 즉 슈피리어 호수의 서쪽임. 기존 위치에서 요트가 북서쪽으로 이동한 것임. 덜루스의 위치는 아래의 네이버지도 참조)로 가 ‘청색 제복’(미국 경찰들이 입는 제복 상상바람) 한 (1) 벌과 새하얀 ‘오리 바지’(색이 흐리고 헐렁한 바지. 비슷한 사진링크 ▶ <http://me2.do/FQZIW5IN>) 6벌과 ‘요트 모자’(=요팅 캡. 사진링크 ▶ <http://me2.do/56LaakUf>) 하나를 사 준다. (두 링크의 검색 일자는 2015-8-27임)

그리고 ‘투올로미 호’(=호=배=댄 코디가 탄 요트 이름)가 ‘서인도 제도’(쿠바 근처)와 ‘바버리 해안’(이집트를 제외한 북아프리카 해안가를 말함. 아래의 네이버지도 참조)을 향해 출발했을 때 개츠비도 역시 함께 요트에 타고 갔다.

개츠비는 사적이고 애매한 지위에 고용되었다. 개츠비가 댄 코디와 함께 한 동안, 개츠비는 차례차례 집사가 되기도 하고, 요트의 항해사가 되기도 하고, 선장이 되기도 하고, 비서가 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댄 코디의 교도관 역할까지 맡기도 했다.

굳이 교도관 역할까지 맡았던 이유는, 댄 코디가 곧 자신이 술만 마셨다하면 떡이 되어선 씹스름이가 굉장히 헤퍼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개츠비에게 자신의 감시자 역할을 맡겨 안심을 받으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5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그 동안 그들이 탄 선박은 북 아메리카 대륙을 3바퀴 돌았다.

만약 그들이 보스턴에 머물던 어느 날 밤, ‘엘라(이름) 케이(성씨)’(댄 코디의 여자. 댄 코디를 피어 요트에 태워 세계 일주를 보낸 장본인이자 재산을 몽땅 빼앗아버린 여자)가 선박에 올랐고 그로부터 딱 1주일 만에 댄 코디가 비명횡사(허망하게 죽는 일) 하지만 았았더라도 그들의 여행은 언제까지고 이어졌을 것이다.

나는 개츠비의 침실에 걸려있던 ‘댄 코디’(개츠비의 보스)의 초상화를 떠올렸다. 누가 보더라도 악당의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실없어 보이는 데도 있는 혈색이 아주 붉은 노인이었다.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의 한(1) 단계(19세기 서부 개척기) 동안에,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지 외곽에 있던 사○가(성을 사고파는 곳)와 술집에서 범람하던 사납고 잔혹한 범죄들을 미국 동부 해안가(뉴욕)로 복원시켜놓았던 방탕아(술과 노름 성에 빠져 정신 못 차리고 사는 남자)적 기질이 있는 개척자가 그였다.

술만 마시면 코가 삐뚤어지는 댄 코디 덕분에 개츠비는 술을 아주 조금만 마시게 되었다.

이따금씩 파티장의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면 술이 취한 여성들은 개츠비의 머리카락들을 샴페인에 젖서 비벼대곤 했는데 이런 일들을 몇 차례 겪다보니 개츠비는 점점 술에 손도 대지 않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유산으로 개츠비가 댄 코디(개츠비의 보스)로부터 물려받기로 되어 있던 돈은 4억 4천만 원(원문→2만 5천 달러)이었다.

하지만 개츠비는 그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법적인 장치들 모두가 개츠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를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4억 4천만 원과 함께 그리고 댄 코디가 소유하고 있던 수백억 원(원문→수백만 달러)의 재산들은 고스란히 ‘엘라(이름) 케이(성씨)’(댄 코디의 여자. 댄 코디를 꺾어 요트에 태워 세계 일주를 보낸 장본인이자 재산을 몽땅 빼앗아버린 여자)에게로 넘어갔다.

그 과정에서 개츠비에게 남은 거라곤 댄 코디로부터 받았던 독보적이고 시기적절했던 교육뿐이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야 비로소 제이(이름) 개츠비(성씨)는 실직한 알맹이가 가득 찬 한 남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두를 개츠비는 후에 내게 얘기해주었다.

개츠비의 경력에 대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각종 험난한 루머들을 불식시킬 생각으로 나는 그간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에 밝힌 것이다.

더욱이 그는 이 이야기들을, 내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믿어도 되는지 아니면 전부 다 믿지 말아야 되는지 혼란에 빠져 있던 순간에, 그는 이 이야기들을 내게 해주었다.

그래서 이야기(이 소설)가 잠깐 끊긴 이때를 이용해서, 다시 말해 개츠비(이 소설)가 숨을 고르고 있는 지금 이때를 이용해서, 개츠비에 대한 일련의 오해를 말끔히 씻어 보내려고 난 이 이야기를 꺼냈다.

..

마찬가지로 나는 개츠비의 애정전선에서도 잠시 발을 떼고 있었다.

그 이후 나는 몇 주 동안 개츠비를 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전화기를 통해 대화를 나누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난(30세, 닉 캐러웨이) 대부분의 시간을 ‘웨스트 에그’(서쪽 달걀. 개츠비와 닉 캐러웨이의 집이 있는 신흥 부자동네)가 아니라 뉴욕에서 ‘조단(이름) 베이커(성씨)’(21세, 프로 여자골퍼선수)와 함께 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그녀의 많이 노쇠한 고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개츠비의 저택을 어느 날 일요일 오후에 방문하게 되었다.

내가 개츠비의 저택에 도착한 시각으로부터, 누군가가 ‘툼(이름) 뷰캐넌(성씨)’(30세, 닉 캐러웨이의 예일 대 동기이자, 데이지의 나쁜 남편)을 술 한 잔을 위해 개츠비의 저택으로 데리고 온 시각이 그러니까 채 2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난 깜짝 놀랐다, 당연히.

그리고 확실히 놀라운 것은 전엔 한 번도 ‘이런 적’(데이지의 남편이 개츠비의 존재를 눈치채고 개츠비의 집에 방문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들(톰 뷰캐넌과 함께 온 손님들)은 승마용 말을 타고 온 일행이었다.

톰(=톰 뷰캐넌=데이지의 나쁜 남편)과, 슬론(못마땅하다는 뜻)이라는 어떤 남성과, 갈색 승마복을 입은 어떤 귀여운 여인이 그들이었다. 특히 갈색 승마복을 입은 그녀는 예전에도 개츠비의 저택을 들른 적이 있었다.

“만나 뵈서 기쁩니다, 여러분.”라며 개츠비가 포치(기둥과 지붕만 있고 사방이 땡 뚫린 현관)에 서서 말했다. “온 김에 잠시나마 들려주신다면 더 기쁠 것입니다.”

개츠비는 마치 그들(톰 뷰캐넌과 함께 온 일행)이 신경이라도 쓰는 냥 말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로 앉으시죠. 담배로 드릴까요, 아님 시가(담뱃잎을 말아서 만든 담배)를 하나 드릴까요.”

개츠비가 벨(종)들을 울리면서 수선을 떨어댔다.

“여러분들이 마실 음료수를 금방 내다 드리겠소.”

아마도 톰(데이지의 남편)이 거기에 와 있다는 사실이 개츠비에게 깊숙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았다.

그래서 어렵פות하게나마 그들이 방문한 이유가 마실 것 때문이라 여겼는지 톰의 일행에게 뭐든 내어놓지 않으면 개츠비는 불편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슬론 씨’는 아무 것도 원하지 않았다.

(개츠비의 대사→) “레모네이드(=레몬주스+설탕+물) 한 잔 드릴까요?”

(슬론 씨의 대사→) “아니, 됐습니다.”

(개츠비의 대사→) “그럼 샴페인이라도, 조금?”

(슬론 씨의 대사→) “아뇨 고맙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개츠비의 대사→) “유감이군요.... 그래 승마를 잘 타시나 보군요?”

(슬론 씨의 대사→) “이 근처엔 썩 괜찮은 길들이 많아서요.”

(개츠비의 대사→) “자동차들이 많을 텐데....”

(슬론 씨의 대사→) “좀 되더군요.”

이쯤에서 억누를 수 없는 충동에 휩쓸렸는지 개츠비(31세, 남자주인공)가 톰(30세, 데이지의 남편)에게로 몸을 돌렸다. 톰이 개츠비를 생판 처음 보는 마냥 아는 체를 안 하며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츠비의 대사→) “우린 초면이 아니죠, 뷰캐넌 씨.”(톰=이름. 뷰캐넌=성씨)

“오, 그렇소.”라며 톰이 무뚝뚝하면서도 예의바르게 하지만 누가 봐도 전의 만남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다. “만났었죠. 아주 잘 기억합니다.”

(개츠비의 대사→) “대략 2주 전쯤이었죠.”

“맞소. 당신은 그때도 여기 있는 닉(30세, 닉 캐러웨이. 데이지의 6촌 오빠이자 톰의 예일대 동기이자 개츠비의 손님) 옆에 서 계셨지.”

“난 당신의 아내를 잘 알고 있소.” 거의 한 대 칠 기세로 개츠비가 얘기 했다.

“그랬소?”

톰이 내게로 고개를 돌렸다.

“닉(이름), 너 여기 근처에 산다고 하지 않았어?”

“바로 옆집이야.”

“뭐 옆집이라고?”(앞뒤 설명 : 톰은 바람을 피웁니다. 톰 본인만 제외하고 소설 속 모든 인물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데이지는 톰의 아내입니다. 개츠비는 데이지가 결혼하기 전 한 때 사귀었던 연인이었습니다. 개츠비의 부탁을 받은 닉이 하루는 데이지를 집으로 초대하는데 톰은 데리고 오리 말라고 말합니다. 톰은 데이지가 닉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데이지와 닉은 사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톰은 닉의 집 바로 옆에 개츠비의 저택이 있는지를 몰랐다가 이번에 닉이 “바로 옆집에 살아.”라고 말하는 바람에 알게 되고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톰도, 데이지가 개츠비라는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을 들은 상태입니다. :) 너무 쉬운 줄거리를 아주 어렵게 설명하는 나!!!)

슬론(못마땅하다는 뜻임) 씨는 대화에 끼지 않으려는 듯 자신의 의자에 등을 거만하게 기대 채 앉아 있었고 같이 온 여인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녀가 ‘하이볼’(=위스키+소다수+얼음) 두(2) 잔을 마시고 긴장이 확 풀릴 때까지 말이다.

“개츠비 씨, 다음 파티 때 저희들도 와도 되요, 그렇게 할게요.” 그녀가 제안했다. “어때요?”

(개츠비의 대사→) “그야 당근, 여러분들을 손님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기쁠 것입니다.”

(개츠비가 못마땅한 슬론 씨의 대사→) “그럼 실례하겠소,”라며 음료수를 잘 마셨다는 아무런 말도 없이 ‘슬론’(못마땅하다는 뜻임) 씨가 말했다. “자... 돌아가 봐야 할 시간인 거 같은데.”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라며 개츠비(31세)가 그들(툼과 일행)에게 간청했다.

왜냐하면 이제야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된 개츠비가 툼을 찬찬히(차분하게) 좀 더 보길 원했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라도... 저녁 식사라도 들고 가지지요? 다른 사람들이 뉴욕에서 방문을 했더라도 이 렇게는 아연질색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저희 저녁식사 자리에 같이 가실래요.”라며 그 여성(하이볼 두 잔 먹고 긴장이 확 풀려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는 여성)이 의욕적으로 말했다. “두 분(‘개츠비’와 ‘닉 캐러웨이’) 다테요.”

두 분이란 나(30세, 닉 캐러웨이)를 포함시킨 것이다.

슬론(못마땅하다는 뜻임) 씨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여자에게 하는 말) 서둘러,”라며 슬론 씨가 말했다.

하지만 여자는 막무가내였다.

“(여자가 슬론 씨에게 하는 말) 전 진심이라고요.” 그녀가 막 우겼다. “당신(개츠비)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자리(공간)가 많거든요.” (←여자가 긴장이 풀려서 막 하는 말임. 진심이 아님.)

개츠비는 어쩔 건지 나를 쳐다보았다.

개츠비는 이들을 따라 저녁 식사 자리에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개츠비는 지금 슬론(못 마땅하다는 뜻임) 씨가 우리를 데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 가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눈치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전 못 갈 것 같은데요, 유감입니다.”라고 어물쩍 대답했다.

상황 파악 못하고 여자가 또, “그럼, 당신(개츠비)만이라도 가요 네?”라고 개츠비를 지목해서 말했다.

슬론(못 마땅하다는 뜻임) 씨가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로 다가가더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뭐라고 중얼거렸다.

“왜요, 지금 출발하면 늦지 않을 거잖아요.”라며 그녀가 큰 소리로 주장했다.

“난 승마용 말을 안 가지고 있는데,”라며 개츠비가 말했다. “군(군대)에 있을 때는 종종 말을 타곤 했었는데, 여기선 아직 말을 사지 못했습니다. 전 차로 당신들을 따라 가겠습니다. 그럼 얼른 준비하고 나오지요. 잠시 실례~.”

개츠비가 준비하러 안으로 들어간 사이, 우리 나머지 일행은 포치(기둥과 지붕만 있는 개방된 현관)로 걸어 나갔다.

포치(현관) 한 쪽 편에서 슬론 씨(개츠비를 죽어도 저녁 식사 자리에 안 데려가려는 남자)와 그 숙녀 분(개츠비를 꼭 데려가려는 여자)은 열띤 대화를 시작했다.

“제기랄, 저 자(개츠비)가 지금 진짜 가려는 거야?”라며 톰(데이지의 나쁜 남편)이 말했다. “그녀가 정말로 데려가려는 게 아님을 그는 몰라?”

“숙녀 분께서 먼저 그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한 경우잖아.”

“꽤 큰 ‘디너파티’(=저녁만찬. 개인의 집에서 모여 만찬을 하는 사교 모임)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지 정말로 같이 가자는 뜻은 아니었잖아. 그는 아마 거기에 오는 사람 단 한 명도 모를걸.” 톰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아니 도대체 데이지(톰의 아내이자 개츠비의 연인-_- 말이 이상 ㅎㅎㅎ)는 어디서 저딴 놈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야. 신께 맹세코, 관념(생각)에 관한 난 고리타분하다고(오래됐다고). 그런데 요즘 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게 여편네가 하도 싸돌아다녀서 남편 볼 틈도 없어. 여편네가 아주 온갖 종류의 미친 물고기들을 만나고 돌아다닌다니까.”

열띤 대화를 나누던 슬론(못마땅하다는 뜻임. 개츠비를 저녁 식사 자리에 데리고 가기 싫어함) 씨와 그 숙녀 분(개츠비를 데려 가자는 여자)이 갑자기 계단 아래로 내려가더니 각자의 말에 올라탔다.

“젠장맞을, 가세.”라며 슬론 씨가 톰(데이지의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이미 너무 늦었어. 벌써 출발하고도 남을 시간이지 않는가.” 그런 다음 슬론 씨는 내게도 “그(개츠비)에겐 기다리다 못해 출발했다고만 전해 주실 거죠?”라며 말했다.

톰(데이지의 남편)과 나(이름이 ‘닉 캐러웨이’. 톰의 대학 동기이자 데이지와 6촌 친척 사이)는 서로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머지와는 서로 그냥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에서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저택 앞 도로를 후다닥 내려가더니, 손에 모자와 가벼운 오버코트(외투)를 쥐고서 개츠비가 막 현관문에 나타나자마자, 무성이 피어 있던 8월의 이파리들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누가 보더라도 톰(30세. 데이지의 남편)은 데이지가 혼자서 나돌아 다니는 것이 불안했음에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 주 토요일 저녁에 그가 직접 데이지를 데리고 개츠비의 파티 장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마도 톰의 등장이 그 날 저녁 파티 분위기에 무언가 억압적인 느낌을 준 것이 분명했다. 그해 여름에 개츠비의 저택에서 있었던 어떤 다른 파티들보다도 그 날 저녁의 파티가 유독 내 뇌리에서 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늘 상 오던 손님들 그대로였다. 적어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부자들)이었다. 손님들에게 제공된 샴페인의 심오함도 그대로였고, 다양한 옷을 입은 다양한 목소리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던 흥분과 동요들도 늘 상 있어왔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어딘가 다른 파티였다. 나는 파티장의 분위기에서 어떤 불쾌함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거기(=파티 장=개초비 저택의 정원)에 속해 있지 않았던 어떤 거슬림이 파티 장 분위기 속에 가득했던 것이다.

아니면 내가 그저 그 사이에 '웨스트 에그'(서쪽 달걀. 개초비가 사는 신흥부자들 동네)에 익숙해져서, 그것 자체로 완전한 하나의 세계인양, 그 자체의 표준과 그 자체의 유명 인사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계인양, 웨스트 에그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그러한 것들(표준과 유명 인사들)이 있다는 인식 자체도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 지금 나는 그 세계(공허해진 웨스트 에그)를 데이지(23세. 여주인공)의 눈을 통해 한 번 더 쳐다보고 있었다.

자신의 적응 능력을 통해 확장시켜 왔었던 것들을 전혀 새로운 시각을 통해 바라본다는 것은 반드시 슬퍼지기 마련이다.

툼과 데이지는 밤과 낮의 경계쯤에 개츠비의 파티 장에 도착했다.

그래서 우리가 ‘불꽃을 튀기며’(생기 넘치게) 놀고 있는 수백 명의 손님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데이지는 감정에 북받쳐 연신 목소리를 살랑거리며 칭찬하고 있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에 너무도 흥분돼.” 그녀가 속삭였다.

“닉 오빠(6촌 오빠임. 6촌=아버지의 사촌의 딸), 오늘 저녁 나랑 키스하고 싶음 언제든지 말만 해 그럼 바로 키스 해줄 테니까. 격식은 차릴 필요 없어 그냥 내 이름만 불러. 싫어? 그럼 이 녹색 카드를 줄 테니까 키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면....”

“고개를 돌려 보시겠습니까.”라며 개츠비가 제안했다.

“지금 둘러보고 있어요. 거짓말 같은 이 광경을요....”

“소문으로만 들어온 유명인들의 얼굴들을 직접 보게 될 텐 데도요....”

툼(데이지의 나쁜 남편)이 거들먹거리는 시선(눈)을 하고서 파티장에 모인 손님들 속을 여기저기 돌아보았다.

“우리 부부는 많이 나돌아 다니는 편이 아니요.” 툼이 말했다. “그러니까 내 말인즉슨,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게요.”

“그래도 저 여인은 아실 테죠.” 개츠비가, ‘새하얀 서양자두나무’(사진링크 ▶ <http://me2.do/xHqDIYov>, 검색일자:2015-8-30) 아래에서 아리답게 앉아 있는 한 여성을 지목했다. 눈부신 외모에 거의 인간의 형상을 한 한 떨기 난초와 같은 여인이었다.

툼(30세, 남편)과 데이지(23세, 아내)가 그녀를 뵈히 쳐다보았다. 지금까지는 유령처럼 보이던 영화계 유명 인사를 알아본 데서 오는 특별히 비현실적인 흥분과 함께 툼과 데이지는 그녀를 뵈히 쳐다보았다.

(여배우를 쳐다보며 데이지가 하는 말→) “사랑스러워~.”라며 데이지가 말했다.

(개츠비의 대사→) “지금 그녀 쪽으로 몸을 숙이고 있는 저 남성이 바로 그녀의 감독입니다.”

개츠비(31세, 데이지의 연인)는 한껏 격식을 차리면서 툼(30세, 남편)과 데이지(23세, 아내)를 이 ‘무리’(그룹)에서 저 ‘무리’(그룹)로 막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이쪽은 ‘뷰캐넌 부인’(데이지)이십니다. (잠시 뚝을 들인 후) 그리고 이 분이 ‘뷰캐넌 씨’(툼)입니다. (또 잠시 뚝을 들임)” 순간 잠깐 뚝을 들인 개츠비가 이렇게 덧붙였다. “(웃으며) 폴로 선수시지요.” (툼 뷰캐넌은 근육질의 남성입니다. 툼도 개츠비만큼 워낙에 부자라 집에서 키우는 승마용 말들이 많습니다. 폴로는 툼이 즐겨하는 게임입니다. ‘폴로’는 말을 탄 4명이 팀을 이루어 긴 나무 막대기로 나무 공을 쳐서 상대방 골에 넣는 게임입니다.)

“(화들짝 놀라며) 아뇨 아닙니다. 아니에요.” 툼이 재빨리 자신이 폴로 선수가 아니라고 말했다.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더 개츠비를 즐겁게 만든 것 같았다. 왜냐하면 저녁 파티 내내 사람들 사이에서 툼은 “폴로 선수”로 통했기 때문이었다.

“이토록 많은 유명인들을 만나 본 적은 없었어요!”라며 데이지가 탄성을 질렀다. “저 쪽에 있는 저 남자가 특히 더 맘에 들어... 이름이 뭐였더라...? 저기 저 도덕적으로 엄격해 보이는 사람 말이야.”

“작은 회사의 프로듀서(제작자)로 일하고 있는 남성이라더군요.”라며 개츠비가 그의 신원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래요, 난 어쨌든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이거야 원 폴로 선수만 아니라도 좀 살겠는데.” 톰도 유명 인사들을 본 게 즐거운지 말했다. “세상에 잊혀진 상태로... 여기서 그냥 저 유명한 사람들이나 쳐다보며 지내고 싶군.”

데이지와 개츠비는 춤을 추었다.

개츠비가 어찌나 우아하고 조심스럽게 ‘폭스 트롯’(블루스 같은 사교춤. 이 소설이 출간된 ‘1920년대의 폭스 트롯 영상’ 꼭 보세요~!!! 1분 21초 영상 ▶ <https://youtu.be/tyOWM6S1ITA> , 검색일자:2015-8-30)를 추는 지난 하마터면 까무러칠 뻔했다.

게다가 난 이전의 파티에서 개츠비가 춤을 추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다음 개츠비와 데이지는 내 집(개츠비의 저택의 바로 옆 집) 방향 쪽으로 느릿느릿 걸으며 30분가량 산책을 하더니 어느 계단 위에 다소곳이 앉았다. 물론 그들이 그러는 동안 나는 데이지의 특별 요청에 따라 정원(파티 장) 쪽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남아 있었다.

(데이지가 6촌 오빠인 ‘닉 캐러웨이’에게 정원 쪽에서 망을 보게 하며 한 말→) “혹시라도 불이 나거나 홍수가 덮칠 수도 있잖아, 응 오빠,” 데이지가 내게 망을 보게 하면서 든 이유들이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신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지도 모르는 거잖아, 응 오빠.”

톰(30세. 근육질. 데이지의 남편)이 세상에서 잊혀져 있다 다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다 같이 둘러앉아야했기 때문이다.

“난 저쪽에 있는 몇몇 친구들과 먹어도 괜찮겠지?” 톰이 말했다. “아 글썄 한 친구가 꽤 ‘재밌는 소리’(=개츠비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대한 소문=파티장에서 손님들이 늘 뒷 얘기하던 것)를 늘어놓기 시작하질 뭐야.”

“응 그렇게 해.”라며 데이지가 온화하게(기분 좋게) 말했다. “만약 받아 적고 싶은 거라도 생기 걸랑 여기 이(데이지의) 작은 금색(황금색) 연필을 사용해, 자.”

(어느 정도 자리가 정리된 후)

데이지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내게 좀 전 그 여자 배우가 “그렇게까지 예뻐던 건 아냐 나름 평범했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난(30세. 데이지의 6촌 오빠) 데이지(23세. 톰의 아내)가 개츠비(31세. 데이지의 연인)와 단 둘이 보낸 그 30분 동안을 제외하고 오늘 파티에서 전혀 즐겁지 않다는 것을 눈치 챘다.

우리 테이블은 유달리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테이블이었다.

내가 그만 실수로 정확히 2주일 전에 함께 식사를 했던 그때 그 사람들이랑 또 다시 앓는 바람에 일어난 사태였다.

어쨌든 전에는 그렇게도 즐겁던 그들의 이야기들(술 마시고 황설수설)이 지금은 나를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있었다.

물론 개츠비는 긴이 기다리는 전화가 있어 자리를 뜬 상태였다.

“그래 몸 상태는 어때, 미스 베데커 양?” (‘베데커’는 여행 안내서를 만드는 독일회사 이름임)
젊은 여성 한 명이 이 질문을 받고 바로 앉으며 눈을 동그랗게 뜨기 전까지 연신 내 어깨에 기대
보려고 애는 쓰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다.

어쨌든 질문을 받은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다.

(건강이 안 좋은 여자가 큰 소리로, 혀 꼬인 소리로) “뭐라고?”

내일 지역 골퍼 클럽에서 골퍼나 한 판 치자고 데이지를 조르고 있던 덩치는 좀 되는데 몸은 엄청
둔해 보이는 ‘다른 여성 한 명’이 미스 베데커 양(‘베데커’는 여행 안내서를 만드는 독일회사 이름임)을
지지하고 나섰다.

“오, 저 애는 지금 멀쩡해. 저 애는 원래 칵테일 다섯 또는 여섯 잔만 마시면 항상 저렇게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해, 내가 저 애에게 늘 상 하는 말이 잔엔 손도 대지 말라거든.”

“잔엔 손도 안 땀어요,”라고 지목을 당한 그 젊은 여성이 빠른 핑계를 갖다 댔다.

“우린 네가 고함치는 것을 다 들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이 ‘시벗’(사향 고양이란 뜻임) 박사께도 그러잖니. ‘박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기 저 아무개란 애가 있다.’고 말아야.”

“재도 많이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난 확신해.” 또 다른 여자 동기도 그게 감사의 말인지 아닌지도 모를 요상한 말을 했다. “하지만 누나가(당신이) 재 머리를 풀(수영장)에 찢러 넣는 바람에 재 드레스가 몽땅 젖은 건 생각 안 해.”

“내가 극도로 싫어하는 게 내 머리를 풀(수영장)에 꽃는 사람이야.”라며 미스 베데커 양이 입 속에서 뭐라고 웅알웅알 거렸다. “그것 때문에 ‘뉴저지 주’(미국 동부. 아래의 네이버지도 참조)에선가는 거의 익사할 뻔 했어.”

▼ 네이버 지도 참조

검색어 ‘뉴저지 주’(=미국 동부=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그러니까 잔(술)에 손을 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라며 의학박사인 ‘시벗’(사향 고양이란 뜻임)이 따끔한 충고를 날렸다.

“그건 당신 생각이죠!”라며 참다못한 미스 베데커 양이 발끈하며 또 소리를 질렀다. “사시나무 떨리듯 떨고 있는 당신 손이나 어떻게 해 봐요. 난 절대 당신에게서 수술 받진 않을 테야 원 별꼴이야!”

대화는 대충 이런 식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거의 마지막은 내가 데이지와 함께 서서 영화감독과 그가 키운 스타(여배우)를 지켜본 것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새하얀 서양자두나무’(사진링크 ▶ <http://me2.do/xHqDIYov> , 검색일자:2015-8-30) 아래에 있었는데, 달이 비추는 약하고 가느린 빛줄기만이 그들 사이를 오가며 접촉하고 있었다.

그때 문득 이날 저녁 내내 그 영화감독이 그 정도의 거리라도 획득하기 위해 아주 천천히 그녀 쪽으로 몸을 숙여 왔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그 사이에도 난 그 가 그 최후의 1도 각도를 더 몸을 숙여 그녀의 뺨에 키스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또 마음이 바꿨네. 저 여배우가 마음에 드는 걸,”라며 데이지가 말했다. “사랑스러운 애일 것 같아.”(데이지에겐, 여배우와 개츠비를 제외하곤 이날의 파티 모두 다가 안 좋았다는 얘기임)

(잠깐 정리데쓰요~ : 아래부터의 내용은, 기존 부자동네에서만 살던 데이지가 신흥 부자 동네에 와서 보기에조차 졸부 같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교양 있는 말을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고 그리고 파티 여기저기에 묻어나는 그런 영화 같은 데서나 볼 법한 교양 있는 부자들을 급히 흉내 낸 듯 한

모습들에 정말 싫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츠비를 만나러 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싫은 남편이 같이 와서 더 싫었겠죠. ^^)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은 데이지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데이지에겐, 여배우와 개츠비를 제외하곤 이날의 파티 모두 다가 안 좋았다는 얘기임) 그리고 그 이유는 논쟁의 여지도 없이 행위(파티의 화려함)가 아닌 감정(불쾌한 감정) 때문이었다.

데이지(기존 부자들의 동네에서 살고 있음)는 웨스트 에그(서쪽 달걀. 개츠비의 저택이 있는 신흥 부자동네) 그 자체에 깜짝 놀랐던 것이다.

브로드웨이(영화거리. 뉴욕 타임 스퀘어 부근의 극장가이름)가 ‘롱 아일랜드’(뉴욕 서쪽. 맨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 한(1) 어촌 마을에 생기게 한 이 전대미문의(엄청난) “장소”에 그만 깜짝 놀랐던 것이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서로 교양인인 척 보이려고 지독히도 옛날식으로 완곡하게 말하는 가운데서도 날 것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어떤 경박함에 그녀는 오싹한 감정까지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웨스트 에그’(신흥 부자들의 동네)의 거주자들을 공허함(교양 있는 기존 부자들처럼 그러니까 영화배우들처럼 보여 지고 싶은 바람)에서 공허함으로 한 가지 지름길(허영심)을 따라 우르르 몰아가고 있는 이 강압적인 운명에 너무도 섬뜩함을 느꼈던 것이다.

데이지가 몰라주는 바로 그 간소함(단순함)에 데이지는 두려운 뭔가를 보았던 것이다.(해석 참-_-;; 세련되지 못하네...소리~ 어쨌든 이것으로 ‘6장 #36’도 콩글리쉬 막 섞어 가면 나름 해석 끝 :) ㅎㅎㅎ)

.....
데이지(23세. 아내)와 톰(30세. 나쁜 남편)이 자신들의 차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들과 함께 정면 입구 계단 위에 앉았다.

여기, 정면 입구 쪽은 어두웠다.

그냥, 빛이 충만한 문 하나만이, 보들보들 때가 묻은 새벽을 향해 1제곱미터(=1미터x1미터의 넓이) 넓이의 빛을 발산하고 있는 곳이었다.

때때로 누군가의 그림자 하나가 보다 위에 있던 분장실(드레싱 룸) 블라인드(햇빛가리개)를 향해 나아가다 또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에 의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울을 통해 입술에 연지(붉은 빛깔)를 바르고 얼굴에 분칠을 하며 줄지어 있던 불명확한 그림자들 하나에 길을 비켜주는 곳이었다.

“개츠비(31세, 데이지의 연인)라는 이 친구 도대체 정체가 뭐야?”라며 톰(30, 데이지의 나쁜 남편)이 갑자기 고압적으로 물었다. “엄청나게 큰 ‘주류(술) 밀수입자’라도 되나?”(『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922년 8월의 여름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금주 법을 시행중이어서 술을 마시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판매는 ‘불법’이었습니다. 금주 법은 엉뚱하게도 범죄단체들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은 거야?”라며 내가 되물었다.

“그걸 뭐 귀로 들어야 알게 되나. 감으로 잡는 거지. 이곳은 신흥 부자들이 많은 곳이야. 그들 대개는 주류 밀수입자들이고, 자네도 알잖나.”

“개츠비는 아냐.”라며 내가 쌀쌀하게 말했다.

툼(30세. 데이지의 나쁜 남편)이 잠시 침묵모드로 들어갔다.

툼은 자신의 발로 도로 위에 있던 조약돌(자갈)들을 우두둑우두둑 부서지게 밟아댔다.

“그나저나 그자(개츠비)는 이 ‘구경용 동물들’(파티 장의 손님들)들을 다 같이 모이게 하느라 용깨나 썼겠는데.”

산들바람(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잿빛(회색) 아지랑이(안개) 같은 데이지의 모피(털) 칼라(옷깃)를 살랑거리고 지나갔다.

“적어도 우리(툼과 데이지)가 아는 사람들보단 백 배 천 배 재밌는 사람들인데 뭘 그래,”라며 데이지가 애쓰며 말했다.

(툼이 아내인 데이지에게 하는 말→) “당신, 오늘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던데.”

(데이지의 답변→) “그거야 뭐 좀.(원문→아니, 재밌었어.)”

툼(30세, 나쁜 남편)이 거보란 듯이 소리 내 웃으며 나를 돌아다보았다.

(툼이 대학동기인 ‘닉 캐러웨이’에게 하는 말→) “찬물로 샤워시켜달라고 저 젊은 여자가 데이지에 말할 때, 데이지의 얼굴표정 봤나?”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부를 일은 전에도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처럼 데이지(23세)는, 들려오는 음악소리에 맞추어 허스키하고도 리드미컬하게(울동적으로) 속삭이는 것처럼 노래하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선율(음의 흐름) 높아질 때면, 데이지의 목소리도 사랑스럽게 끊어졌는데 그럼 이내 ‘콘트라alto 여가수’(콘트라alto=‘여성의 가장 낮은 음역대의 목소리’)가 그러하듯 목소리 톤에 변화를 주어 노래를 다시 이어갔다. 한 번씩 목소리 톤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공기 중으로 그녀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매력이 조금씩 퍼져갔다.

데이지가 갑자기 말했다.

“많은 손님들이 초대 받지 않고 온 손님들이야. 그 여자 애(데이지보고 찬물에 샤워시켜달라고 말한 여성)도 초대받지 않고 온 경우라고.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파티장에 오는 걸 그(개초비)가 너무 무더 터져서(예의발라서)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 자(개츠비)가 뭐하는 사람(정체)이고 어떤 일을 하는 자인지 알고 싶어지는 걸.” 톰(30세. 데이지의 나쁜 남편)이 또 우겼다. “웬지 반드시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내가 당신에게 직접 말해주지.”라며 데이지가 대답했다. “그(개츠비)는 몇몇 약국들을 소유하고 있어 아니 아주 많은 약국들을 소유하고 있어. 모두 그 자신이 일구어낸 약구들이야.”

꾸물거리던 리무진(기다란 대형자동차)이 도로를 타고 미끄러지듯 올라와 그들 앞에 멈췄다.

“닉 오빠, 좋은 밤~ 돼.”라며 데이지가 말했다.(23세 데이지와 30세 ‘닉 캐러웨이’는 6촌 친척 사이임. 6촌=아버지의 사촌형제의 딸)

그녀의 시선은 나를 지나 조명이 켜져 있던 계단 꼭대기 쪽을 향했다. 거기에서 그해(1922년을 말함. 이 소설의 배경은 192‘2’년 8월. 이 소설이 출간된 해는 192‘5’년임. 3년 차이가 있음)에 나온 산 뜻하면서도 약간은 슬픈 ‘왈츠’(춤곡)인 <새벽 3시>(노래제목이 <새벽 3시>임. 유튜브에서 듣기 - 25초 이후부터 들으면 됨 ▶ <https://youtu.be/KSeqQs9Z5lw> , 검색일자:2015-9-1)가 열려 있던 방문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데이지가 사는 기존 부자들의 동네와는 달라도 너무도 다른 신비스러우면서도 로맨틱한 만남의 가능성들이 개츠비가 사는 신흥 부자들의 동네에서는 널려 있었다.

그럼 왈츠(춤곡)에 담긴 무엇이 그녀를 무도장 안으로 다시 안내하려는 듯 부르고 있었던 것일까?

빛이 어둑어둑해 헤아릴 수도 없는 지금 이 시각에 무엇이 일어나려는 것인가?
그래 형편에 따라서는 어떤 거짓말 같이 진귀하고 놀라운 손님이 도착할 수도 있었다.
그래 형편에 따라서는 황홀한 첫 만남의 순간에 개츠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진정 눈부신 어떤 젊은 여인이 도착해 지난 5년간의 헌신적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도 있었다.

나는 그 날 밤늦게 까지 (파티 장에) 머물러있었다. 개츠비가 특별히 자신에게 시간이 좀 생길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정원(파티 장)에서 어정거렸다. 그러니까 그게, 부득이하게 수영을 하고 있던 무리가 한기를 느끼고 멋쩍어져선 검푸른 해변에서 올라오고, 조명들이 하나둘씩 객실들과 2층에서 꺼질 때까지 나는 정원에서 어정거리며 개츠비가 한가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개츠비가 후다닥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왔을 때, 햇볕에 그을린 그의 갈색 살갓은 평소보다 훨씬 더 그의 얼굴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고 (그의) 반짝이던 두 눈은 평소보다 훨씬 더 지쳐보였더라다.

“데이지가 좋아하질 않았습시다.”라며 개츠비가 즉각 말했다.

“아뇨, 그녀는 오늘 파티를 즐거워했어요.”

“그녀는 좋아하질 않았다니까요.” 개츠비가 계속 우겼다. “그녀는 전혀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침묵해버렸다. 난 도대체 무엇이 이 인간을 이토록 의기소침하게 만든 것인지 추측에 들어갔다.

“제가 그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라며 개츠비가 말했다. “그녀에게 이해시키기가 너무도 힘들었거든요. 그게 다입니다.”

“아, 오늘 그녀와 춘 춤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넛? 춤요? 뭘 춤요?” 그제야 내가 뭘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은 그가 자신의 두 손가락으로 “딱!” 하고 소리를 내며 자신이 오늘 춘 모든 춤들을 허공에다 날린 후 말했다. “형씨, 춤 얘기가 아닙니다. 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개츠비(31세, 남자주인공)는 데이지(23세, 여자주인공)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지 그냥 톰(데이지의 나쁜 남편)에게 가서 “난 오빠(톰)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어.”라는 말 딱 한 마디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 말 한 마디로 지난 5년의 안 좋았던 기억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데이지는 개츠비와 함께 좀 더 실행 가능한 다음 단계(결혼)로 진입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 실행 가능하다는 다음 단계들 중에 하나는 이랬다. 즉 그녀가 법적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들이(개츠비와 데이지) 함께 ‘루이빌’(=데이지의 친정집=미국 중동부 켄터키 주의 도시이름임. 아래의 네이버지도참조)로 되돌아가 마치 5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데이지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 네이버 지도 참조

검색어 ‘루이빌’(=데이지의 친정집=미국동부의 도시=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그런데 데이지는 그걸 이해하지를 못해요,”라며 개츠비가 말했다. “예전엔 그렇게도 잘도 이해 하더니만.... 우리 그렇게 몇 시간을 앉아 얘기를 나눠봤지만....”

개츠비가 또 다시 얘기를 멈추더니, 향이 바랜 과일 껍데기들이 너저분하게 버려져 있고 꽃들이 신발에 눌러 뭉개져 있는 쓸쓸한 길을 왔다 갔다 했다.

“저라면 그녀로부터 너무 많은 걸 바라진 않을 건데요.”라며 내가 한 대 맞을 각오를 하고 말했다. “과거(개츠비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 한 후 데이지가 톰과 결혼해버린 것)를 되돌릴 수는 없는 일 이지 않습니까.”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고요?” 그가 쉽사리 그 얘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외쳤다. “물론 ‘천 번! 만 번!’(←제가 집어넣은 문구, 멋져~) 되돌릴 수 있고말고요!”

개츠비가 미친 듯이(사납게)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 행동은 마치 자신의 지난 과거들이 집의 그림자가 깔린 지금 이곳 여기저기에 자신의 손만 뻗으면 달을 바로 그 거리에 숨어있기라도 한 듯 한 반응 이었다.

“전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죄다 원상태로 돌려놓고 말 것입니다.”라며 개츠비가 결단코 그러고 말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이면서 말했다. “데이지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ですよ.”

개츠비는 자신의 지난 과거에 대해 많은 것을 얘기해주었다. 그래서 그가 정녕 회복시켜놓고 싶어 하는 것은, 아마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헤어진 첫사랑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니까 내 말은 한 때 그녀를 열렬히 사랑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헤어진 첫사랑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가 회복시켜놓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인상을 나는 받았다.

왜냐하면 그가 그녀와 그렇게 헤어지고 난 이후 그의 삶은 어리둥절해지고 무질서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 번만 그래 딱 한 번만 더 그 어떤 출발 지점으로 자신이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자신의 지난 삶을 다시 찬찬히 되밟을 수만 있다면, ‘그 생각’(데이지에 대한 자신의 ‘열렬한 사랑’의 본질적 이유)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5년 전 어느 가을의 밤에 있었던 일.(←제가 쓴 게 아니라 원문에 쓰여 있는 문구임)

(아래의 글은 개츠비의 얘기를 닉 캐러웨이가 옮기는 것입니다. 모두 개츠비와 데이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중 개츠비가 느낀 것들과 닉 캐러웨이가 느낀 것들의 혼합임)

그들(26세의 중위인 개츠비와 18세의 데이지. 1917년 가을. 참고로 개츠비가 유럽으로 해외파병을 가는 해는 1918년 겨울임)은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는 거리를 걸어내려 가고 있었다.

그들은 나무 한 점 없고 ‘인도’(도로 옆에 사람이 다니는 길)가 달빛에 젖어 새하얗게 변한 지점에 다다를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갔다.

이곳에 이르자 그들은 서로를 보며 마주섰다.

그 해의 두 번째 변화(여름에서 가을로의 변화)가 느껴지는 공기 중에는 신비스러운 흥분이 깃들어 있어 다소 서늘한 밤이었다.

가정집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불빛들이 거리의 어둠들 속으로 해머(망치) 질을 해대고 있었고, 하늘의 별 나라들에서는 어떤 소동이 벌어졌는지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그림 밤이었다.

(모두 상상임. 문장이 다소 애매모호하더라도 소설 속 인물의 상상이란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세요.)

(개츠비와 데이지가 키스를 나눌 때 개츠비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상상들입니다. 달나라 갔다는 얘기입니다. 동화처럼 읽으시면 됨.)

(그때. 서로 마주 보고 서서 키스할까 말까 할 때) 개츠비는 결눈질로 보았다. 인도(도로 옆 사람이 다니는 길)를 구성하고 있던 ‘보도블록’(돌)들이 “방실”하고 하나의 사다리를 형성하더니 나무들 위쪽에 있는 비밀의 장소로 한 단씩 한 단씩 정말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개츠비는 결눈질로 보았다.

그는 그 사다리를 오를 수 있었으리라, 만약 혼자서 올랐더라면, 그랬다면 일단 그 비밀의 장소에서 그는 생명의 젖꼭지를 빨고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경이로움의 우유를 한 입에 꿀꺽 삼켰을 수도 있었으리라, 만약 그게 혼자서 그 사다리를 오른 경우였더라면.(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즉 1년 후 그러

니가 1918년 겨울에 개츠비가 유럽으로 해외파병을 가게 되면서 개츠비는 줄곧 사랑을 지켰지만 어린 데이지는 사랑을 쌓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찾다 톰이라는 남자와 결혼해버리는 바람에 개츠비와 데이지의 사랑도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개츠비는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데이지의 하얀 얼굴이 다가옴에 따라 개츠비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또 뛰고 있었다.

결국 그가 이 소녀(18세)에게 키스했을 때 그는 알게 되었다.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비전(미래에 대한 상상)들을 그녀의 썩기 쉬운 호흡에다 영구히 동화시켰을 때(갈게 만들었을 때) 자신의 의지가 다시는 신의 생각처럼은 떠들며 뛰어놀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래서 개츠비는 별 하나가 막 만들어낸 ‘소리굽쇠’(=신의 신호라는 의미임. 소리굽쇠는 말발굽 같은 모양의 금속막대)의 떨림에 좀 더 귀를 기울이며 기다렸던 것이다. 신이 다음 신호를 보내지 않는지를.

그런 다음에야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의 입술이 닿는 그 지점(입술)에서, 데이지가 마치 한 송이 꽃과 같이 개츠비를 위해 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육신이 그렇게 완성된 것이다. (성육신 뜻→하느님이 예수님이 되어 지상에 나오신 것.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셨듯이 데이지는 비전(무리한 꿈)을 실현시킬 생각으로 온통 정신이 팔려 있던 개츠비를 인간 세상에 안착시키기 위해 키스(입맞춤)와 함께 한 송이 꽃이 되어 개츠비의 곁으로 오게 되었다는 의미임 :) 느낌 좋네요. 굿~ㅎㅎㅎ)

(개츠비의 얘기는 끝이 나고 이제 다시 화자인 ‘닉 캐러웨이’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심지어 개츠비의 감상적인 생각들이 오싹 소름끼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츠비가 이야기를 하는 내내, 나는 그 어떤 무엇인가를 떠올리고 있었다.

오래 전에 내가 어딘가에서 들어봄직한 정의하기 어려운 리듬이랄까 아님 잊힌 단어들에 대한 하나의 부스러기랄까.

짧은 표현 하나가 내 입 속에서 형태를 갖추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내 두 입술은 말 못하는 이의 입술들처럼 벌어졌다. 내가 놀라 밀어낸 한 움큼의 공기보다 내 두 입술 위에선 더 큰 긴장감이 있었다는 마냥.

하지만 내 두 입술들은 어떠한 소리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나마 생각해낸 것들도 나는 영원토록 개츠비와 공유할 수 없었다.

7 장

VII

제 7 장

(6장과 7장 사이에는 1주일이나 2주일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헛갈리실까봐 미리 내용을 말하면 개츠비의 파티는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데이지가 싫어했거든요~ 웨스트 에그 식의 신혼 부자들의 파티를요~)

개츠비(31세, 남자주인공)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최고치에 달한 건 그러니까 어느 토요일 저녁 인가부터 그의 저택에 있는 조명들에 불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다.

‘트리말키오’(벼락부자가 되어 연회를 자주 연 소설 속 인물. 고대 로마의 1세기 후반경의 풍자 소설인 「사티리콘」에 나오는 등장인물임. [더 읽어보기-위키백과 ▶ http://me2.do/FXhwr1NJ](http://me2.do/FXhwr1NJ) , 검색일자:2015-9-4)가 애매모호하게 자신의 파티를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끝을 맺은 것처럼 개츠비의 파티도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게 시작했다가 또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끝을 맺게 된 것이다.

내가 점점 더 자주 알게 사실이라곤, 성대한 파티가 있으리라 기대하고 온 자동차들이 개츠비 저택의 진입 도로에까지 왔다가 잠시 둘러보곤 이내 부루퉁 골이 나서 “확~”하니 가버린다는 것이다.

‘개츠비가 어디 아픈가?’도 싶어 내막을 알아보려고 그의 저택 쪽으로 건너갔더니 아니 이걸 뭐 누가 봐도 철저한 악당의 얼굴을 한 이전에 내가 전혀 본적이 없는 어떤 낯선 집사 한 사람이 문 앞에서 실눈을 뜨고는 나를 꼬나보는 것이 아닌가.

“개츠비 씨가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뇨(=아니오).” 잠시 말을 멈춘 후 그가 느릿느릿 마지못해 덧붙인다는 표정으로 “선생님”이라며 존칭을 써주었다.

“요 근래 개츠비 씨를 보지 못해서 걱정이 돼서 와 봤습니다. 캐러웨이 씨(이름이 ‘닉’이고 성씨가 ‘캐러웨이’임. 30세)가 왔더라고 말씀 좀 전해주시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고요?” 집사가 무뚝뚝하게 되물었다.

“‘캐러웨이’요.”

“캐러웨이’라. 알겠습니다. 내 그리 이릅죠.” 그러더니 내 대답은 기다리기도 싫다는 마냥 그 집사는 문을 “꽂!”하고 닫고 들어가 버렸다.

이 일이 있고 내 ‘핀란드 출신 가사도우미’가 내게 귀뜸해주었는데, 실은 개츠비가 자신의 집 내부에서 부리던 모든 가사도우미들을 해고해버렸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1주일 전에 말이다.

그런 다음 개츠비는 다른 가사도우미들로 6명을 새로 뽑아 해고된 이들을 대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롭게 고용된 이들은 절대 마을로는 내려가지 않고 또한 방문판매원들에게 뇌물로 매수되는 일도 없이 모든 걸 전화를 통해 딱 먹을 양만치만 주문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하루는 식료품점 심부름꾼 소년이 개츠비 씨의 저택 부엌이 마치 돼지우리 같이 되어 있더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마을에 암암리에 퍼진 소문에 의하면 그 새로운 이들이(개츠비의 가사도우미들) 실은 전혀 고용된 사람들 같지가 않더라는 것이다.

이튿날(다음 날) 개츠비가 전화로 내게 연락을 취해왔다.

“어디 가셨다 온 거예요?”라며 내가 근황을 물었다.

“아뇨, 형씨.”

“당신이, 부리던 아랫사람들을 몽땅 해고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그거요. 좀 수군거리지 않을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소곤거리는 목소리로) 실은 데이지가 자주 들리거든요. 오후에는 늘요....”

그런 연고로 해서 중앙에 큰 안뜰이 있는 숙박소 같았던 그의 집은 마치 종이카드로 이루어진 집 마냥 데이지의 시선에서 불합격 통지서를 받고 무너진 것이었다.

“새로 뽑은 가사도우미들은 ‘울프샤임’(유대인 도박꾼. 키가 자그마하고 납작코를 한 유대인 남성임. 4장 #30에서 처음등장 함)이 따로 그 일에 맞게 보내준 사람들이걸랑요. 울프샤임과 그들은 모두 형제자매 같은 사이들입니다. 울프샤임이 그들만 따로 떼어다가 소규모 호텔을 경영한 적도 있을 정도니까요.”

“아 그렇군요.”

데이지(23세. 여자주인공. 톰의 아내)의 부탁을 받고 개츠비(31세. 남자주인공)는 내게 전화를 건 거라고 그가 말했다.

그가 내게 물었다. 내일 데이지의 집으로 점심 먹으러 같이 가줄 수 있겠느냐고. ‘미스 베이커 양’(21세. 프로여자골퍼선수. 베이커 양은 닉 캐러웨이와 사귀는 관계임)도 거기에 올 것이라고 했다.

개츠비와의 통화를 끊고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엔 데이지 자신이 내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정말로 내(데이지의 6촌 오빠임. 6촌이란 아버지의 사촌형제의 딸을 말함)가 내일 오는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 숨을 쉬었다.

이 두 통의 전화를 통해 나는 그들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음을 눈치 챌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들이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그림(개츠비가 데이지보고 톰에게 가서 “난 단 한 번도 오빠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라고 말을 하고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한 것)을 연출해보이기 위해 이번 방문을 이용하리란 생각은 없었다.

특별히 개츠비가 지난번에 정원(파티 장)에서 대충 얘기했었던 그런 가슴 아픈 장면의 연출일랑은 없으리라 믿었다.

이튿날(다음 날) 날은 찌는 듯이 더웠다. 거의 마지막 더위로 정말이지 올해 들어 가장 무더운 여름 날씨였다.

기차가 터널을 벗어나 햇빛 속으로 들어섰을 때는 ‘내셔널 비스킷 컴퍼니’(미국의 먹는 크래커 제조업체. ‘가게’사진 ▶ <http://me2.do/xTRTslo3> , ‘요즘과자’사진 ▶ <http://me2.do/Fi6ov7ok> , 검색일자:2015-9-4) 공장의 격렬한 경적소리들만이 당장에라도 폭발할 것 같은 이 한낮의 조용함을 깨뜨리고 있었다.

기차 객실 안의 밀집 좌석들이 너무 더워서 자연 발화되기 일보직전이었는데, 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은 잠깐 동안 자신의 하얀 블라우스 안으로 예쁜 척 땀을 흘리더니 곧 자신이 손가락 끝으로 쥐고 있던 신문지에까지 땀으로 축축해지자 절망한 나머지 외마디 비명을 한 번 내지르더니 열에 의한 상기를 띄며 조용해졌다.

순간 그녀의 핸드백이 바닥으로 “툽!” 떨어졌다.

“아이참!” 그녀가 숨이 막히는 듯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나는 더위에 녹초가 된 몸을 숙여 핸드백을 집어 그녀에게 도로 건네주었...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그 핸드백으로 뭘 어찌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이기 위해 핸드백 모서리 중에서 가장 튀어나온 금속 고리를 쥐고서 그녀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그녀에게 핸드백을 쪽 내밀고 서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내 어정쩡한 자세가 그만 내 가까이에 있던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핸드백의 원소유자인 그녀까지 포함해서 모두들 하나 같이 나를 의심하는 듯 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다.

“겁나게 더워버려요!”라며 표를 검사하던 기차 차장이 분위기를 눈치 채고 잘 알고 지내는 단골 손님들에게 말했다. “다들 더우시죠! 아이고 더워라! 더워버려! 아이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날도 이렇게 더운데? 그래요 아하, 덥죠? 원 날씨 하곤 원?”

내 ‘정기 승차권’(‘뉴욕’과 ‘롱아일랜드’를 반복 왕복)이 되돌려 받으면서 보니 차장(열차 차장)의 검정색 손자국이 승차권에 묻어 있었다.

하긴 이 무더운 열기 속에 어떤 승객이, 차장이 자신(승객)의 화끈 달아오른 입술에 닿는 걸 조심할 것이며, 하긴 이 무더운 열기 속에 어떤 승객의 머리가 차장의 잠옷 같은 의복 가슴부분을 축축하게 만드는 것을 누가 상관이나 하겠나만은!

(↓ 시간이 경과되고 개츠비와 닉 캐러웨이는 데이지의 집에 도착합니다. 원문에는 마침표 세 개로 장소 이동이 표시되어 있음.)

... 우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뷰캐넌(데이지 남편의 성씨) 저택의 홀(복도)을 통해 아주 약한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는데 그 바람에 실려 저택 내부에서 울린 전화벨 소리도 개츠비와 나에게까지 전해졌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헛것이 들리는 것을 화자가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부분임→) “주인님(툼 뷰 캐넌)의 시체라고요!” 전화의 송화구(말하는 부분)를 통해 집사가 소리쳤다. “죄송합니다만, 마님, 그걸 저희들보고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이 폭폭 찌는 한 낮에 누가 움직이려 들겠냐고요!”

물론 집사가 실제로 한 말은 “예..., 예...,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마님.”이었다.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더니 땀으로 약간 번들거리는 몸을 이끌고서 우리 쪽으로 건너와 우리의 끈적거리는 밀짚모자를 받아주었다.

“마님(데이지)께서 여러분들을 손님방에서 기다리고 계시겠습니다!”라며 집사가 큰 소리로 외쳤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데도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손을 뻗어 지칭해주었다.

이런 열기 속에서는 추가적인 동작 하나하나가 죄다 삶이라는 ‘복합 점포’(상점)에 대한 모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마련인데 찝찝.

손님방은, 각 창마다 ‘차일’(해를 가려 그림자 생성)들을 잘 대(설치해) 놓아 그림자가 곱게 저 있었다. 다만 그러다 보니 좀 어둡고 서늘한 감도 없지 않았다.

데이지(23세. 여주인공=개츠비의 연인=툼의 아내=닉의 6촌 여동생)와 조단(21세. 프로여자골퍼선수=닉의 애인)은 선풍기들이 불어대고 있는 바람에 맞서 자신들의 새하얀 드레스들이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 드레스를 짓누르고 있는 은색의 우상(숭배물)들처럼 무지막지하게 큰 소파 위에 누워 있었다.

“도저히 못 움직이겠어.”라며 그녀들(데이지와 조단)이 함께 말했다.

햇볕에 탄 피부 위로 새하얗게 분(화장)을 칠한 조단의 손가락들을 나는 잠시나마 손으로 쥐면서, “그래, 체력이 남아도는 우리의 ‘토마스 뷰캐넌’ 씨께서는 어디 간 거지?”라며 물어보았다.

그와 거의 동시에 나는 톰의 우락부락하고 둔탁하며 거친 목소리가 복도 쪽에 놓인 전화기를 통해 들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츠비는 피로 물들인 것 같은 색을 한 카펫(양탄자) 중앙에 서서 이 응접실의 인테리어에 매료된 듯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웠던지 데이지가 소리 내 웃었을 정도였다. 그건 사랑스럽고 몹시 흥취를 자극하는 웃음소리였다. 그 웃음과 함께 그녀의 가슴에 칠해져 있던 분(화장품) 칠이 한 줄기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공기 속으로 피어올랐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이라며 조단(21세 여)이 소곤거리며 말했다. “있잖아 글썄 톰이 어떤 여편네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데.”

우리는 조용히 있어 보았다.

홀(복도)에서 들리던 톰의 목소리에 불쾌감과 곤혹스러움이 잔뜩 묻어나며 계속해서 커져갔기 때문이다.

“잘 알아, 그래, 뭐, 내가 차를 자네한테 팔 것 같아, 전혀.... 그런 말을 내가 언제 했다는 거야.... 자네 자꾸 나를 이 문제로 골치 아프게 하면 그것도 지금 같은 점심식사 시간에..., 도대체 몇 번을 말해! 너 지금 나 성격 테스트 하는 거야 응!”

“수화기의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짜고 치는 걸 거야.”라며 데이지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아냐, 그는 진짜야,”라며 내가 그녀에게 확신을 주며 말했다. “툼의 애긴 진짜야. 언젠가 그가 차를 중고로 내놓을 거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

툼이 문을 냅다 열어 재끼더니 잠깐 동안 근육질의 몸으로 문에서 응접실 안으로 들어오려는 빛을 막고 서 있더니 후다닥 응접실 안으로 튀어 들어왔다.

(개츠비를 보며 하는 인사말→)“개츠비 씨였군요!”라며 톼(30세. 데이지의 근육질 남편)이 실재론 미워죽겠으면서도 자신의 널찍하고 펴퍼짐한 손을 개츠비 앞으로 내밀었다. (대학동기인 닉을 보며 하는 인사말→)“그리고 자네도 ‘왔군(반말), 요(높임말)’가 아니라 ‘닉’(이름).....”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 잔씩 하게 내 오세요.” 데이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톼이 다시 방문을 나가자 데이지가 여봐란듯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개츠비에게로 다가 그의 얼굴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겨서는 그의 입에 키스했다.

“자기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데이지가 속삭였다.

“이런 무엄한, 여기 숙녀(조단 자기 자신)가 한 명 더 있다는 걸 잊은 거야.”라며 조단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데이지가 ‘응 너도 있었어?’ 라는 듯한 표정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그럼 너도 ‘닉’(닉 캐러웨이) 오빠랑 키스하든가.”

“아이참 정말이지 예의의 ‘예’자도 모르는 언니라니깐!”

“난 상관 안 해!”라며 데이지가 소리쳤다. 그러더니 마치 나막신(나무로 만든 높이가 높은 신)을 신고 추는 마냥 벽돌 벽난로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아침 오늘은 덥지’라며 도로 힘이 쭉 빠진 양 소파 위에 주저앉았다.

마침 그때 꼬마 소녀(2살)를 이끌고서 옷을 새로 세탁하고 다리미질해 입은 것 같은 유모가 방안으로 들어왔다.(앞뒤설명: 1919년 6월에 결혼 후, 1920년 4월에 21세의 데이지와 28세의 톰은 딸아이를 한 명 낳았음. 7장의 시간은 1922년 8월의 여름임)

“축복~받은 우리 귀요~미,”라며 데이지가 팔을 활짝 펼쳐 보이며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말했다. “널 사랑하는 엄마에게로 와야지.”

유모가 쥘 손을 놓자 아이(데이지의 딸, 2살)는 쫄로롱 방을 가로질러가 엄마 품속에 수줍게 안기었다.

“우리 귀요~미 오늘 따라 왜 이렇게 수줍어해 응~! 엄마 분가루(화장품)가 네 연약한 노랑 머리 카락에 묻었잖니! 자 이제 일어서서 아저씨들께 ‘안녕하세요~’ 해야지~.”

개츠비와 나는 차례대로 몸을 숙여 우리를 꺼리고 있는 아이의 작은 손을 쥐어 주었다.

그후 개츠비는 적잖이 놀란 눈으로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 생각이 맞는다면, 개츠비는 이전엔 정말 단 한 번도 이 애의 존재를 믿지 않았었던 것만 같았다.

“밥 먹기 전에 옷 갈아 있었어.” 아이(2세 여아. 웬지 나이 계산 잘못된 것 같음. 뭘 2살이 이렇게 말을 잘해-_-;;)는 간절히 엄마를 바라며 몸을 돌리더니 말했다.

“그건 엄마가 널 뽐내고 싶어서야.” 데이지는 아이의 목에 난 작고 새하얀 주름 속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얘야, 넌 내 꿈이야. 내 작고 순수한 꿈 말이야.”

“응,” 아이가 고요히 수긍했다. “조단(이름) 이모도 하얀색 드레스를 입었어.”

“엄마 친구 분들 어때? 맘에 드니?”라며 데이지가 딸아이(2살)를 돌려 세웠는데 딸아이가 개츠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였다. “어때 그들이 예쁘니?”

“아빠는?”(“아빠는 어디에 있는데?”)

“얘는 자기 아빠(툼 뷰캐넌)를 닮지 않았어요,” 데이지가 설명했다. “날 닮았거든. 외모며 약한 머릿결이며 얼굴의 형태라든가 죄다 나를 닮았어.”

데이지가 도로(다시) 소파 위에 편하게 앉았다.

유모가 데이지보다 한 발 앞서 가서 애의 손을 잡아주었다.

(유모의 대사→) “이리 온, 패미(데이지의 딸아이 이름).”(패미=여자이름 ‘파멜라’의 약칭)

(데이지가 딸애에게 하는 대사→) “안녕(굿바이), 얘야!”

가정교육이 잘된 그 딸아이(2살)는 연신 가기 싫은 듯 뒤를 힐끗 돌아보면서도 유모의 손에 이 끌려 문을 나섰다. 그리고 바로 그와 때를 같이 해 톰이 얼음이 가득 들어 딸그락딸그락 부딪치는 소리가 나는 ‘진 리키’(=라임주스+탄산수+진) 4잔을 앞세우며 응접실 안으로 들어왔다.

개츠비가 자기 잔을 받아들였다.

(개츠비의 대사→) “확실히 시원해 보이는군요.” 누가 봐도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개츠비가 한 말이었다.

우리 모두는 음료수를 탐욕스럽게도 쭉 들이켰다.

(개츠비가 지나치게 잘생겨서 톰이 당황한 나머지 황설수설하는 것임→) “그리고 보니 태양이 매년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기사를 어딘가에서 읽은 기억이 있네.”라며 톰(30세. 데이지의 근육질 남편)이 별안간 친절하게 말하더니 곧 황설수설 거렸다. “이렇게 더워서야 원, 그나저나 지구가 머지 않아 태양에 풍덩 빠지면 말이야.... 아니 잠깐만 지금 생각하니 그 반대였던 것 같군.... 태양이 글썽 매년 식어가고 있다는군.”

“밖으로 나가시죠.”라며 톰(30세. 데이지의 남편)이 개츠비(31세. 데이지의 연인)에게 제안했다. “당신한테 집을 둘러보게 하고 싶소.”

나(30세. 데이지의 6촌 오빠)는 그들과 함께 베란다로 나가보았다.

여름의 열기 속에 괴어 있는 푸른 해변 위로 작은 돛단배 한 척이 더 싱그러운 바다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다.

개츠비의 눈이 그 돛단배를 잠깐 동안 따라가더니 이내 자신의 손을 들어 ‘만’(바다) 건너 쪽을 가리켰다.

(개츠비의 대사→) “당신 집 정확히 맞은편에 제 집이 있습니다.”

(톰의 대사→) “그리고 보니 정말이군요.”

우리의 시선은, 장미 화단들(톰의 정원)과 후끈 달아오른 잔디밭(정원과 해변 사이)과 해안가를 따라 한여름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있는 잡초들(해변 가) 위로, 들어 올려졌다.

느리긴 했지만 분명 그 돛단배의 새하얀 날개들이 하늘과 선명한 경계선을 그리고 있는 푸른 바다를 해치며 나아가고 있었다.

돛단배 전방으로는 부채 모양을 한 바다(대서양)와 풍성하게 축복받은 작은 섬들이 있었다.

“판 다 깔아놨군(←내 해석^0^ 원문→당신에게 어울릴 스포츠가 있군).”라며 톰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혼자말로)“그(개츠비)와 함께 딱 한 시간만 저리로 나가 있었으면 좋겠군.”

우리는 열기를 막기 위해 역시 어둡게 해 놓은 식당에서 ‘오찬’(손님을 대접하는 점심)을 가지며 초조한 흥겨움을 차가운 ‘에일’(쓴맛이 나는 맥주. 사진링크▶ <http://me2.do/xPg8hQ0R> , 검색일자:2015-9-6)로 잊었다.

“그럼 우리 이제 오늘 오후에 무얼 할 계획이신가요?”라며 데이지(23세. 개츠비의 연인이자 톰의 아내)가 외쳤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무얼 할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그 다음 30년이 되면?”

“소름끼치는 소리 좀 하지 마,”라며 조단(21세. 닉 캐러웨이의 애인)이 말했다. “가을이 되어서 기분 좋게 ‘바삭바삭하게 익게 되면’(산뜻해지면) 삶은 또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하지만 너무 더운걸,”라며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기색으로 데이지(23세)가 말했다. “머리가 바보가 된 기분이란 말이야. 우리 모두 시내(뉴욕시내)로 나가요 냇!”

데이지의 목소리가 더위를 해집고 나가려고 계속 몸부림쳤지만 이내 더위에 몽둥이찜질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었을 정도니 누군들 이 더위에 인사불성이 되지 않겠는가.

“마구간(말을 기르는 곳)을 차고지로 만든 경우는 들어본 것도 같은데,”라며 톰이 개츠비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차고지를 마구간으로 만든 경우는 아마도 제가 첫 번째일 것입니다.”

“누구 나랑 같이 시내(뉴욕시내)로 갈사람 손들어봐?”라며 데이지는 고집스럽게도 주장을 바꾸지 않았다.

개츠비의 시선이 미끄러지듯 그녀 쪽으로 움직였다.

“아아,” 데이지가 소리쳤다. “정말 멋져!”

개츠비와 데이지의 시선이 서로 마주치자 그들은 마치 이 우주에 자신들만 존재하는 양 서로를 뻘뻘 응시하고 있었다.

데이지가 애써 테이블을 흘긋 내려다보았다.

그런 다음 데이지는 “당신은 언제나 정말 멋져요,”라며 좀 전의 말을 반복했다.

그건 데이지가 개츠비보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었다.

톰 뷰캐넌(30세. 데이지의 근육질 남편)은 그것을 보았다.

톰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톰은 너무 놀라 입이 약간 벌어져서는 개츠비를 한 번 쳐다보고는 다시 시선을 거둬 데이지를 쳐다보았다. 그건 마치 톰은 그제야 데이지가 자신이 오래전에 알던 바로 그 데이지라는 것을 인정한 눈치였다.

“당신은 광고 속 모델을 닮았어,”라며 데이지가 천진난만하게 말을 계속 이어갔다. “알죠, 왜 일전에 광고에 나왔던....”

“좋아,”라며 톰이 재빨리 그들을 대화꺼리를 깨부수며 말했다. “이거야 원 시내(뉴욕시내)로 가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걸. 자 어서들 준비하게... 우린 모두 시내(뉴욕시내)로 가는 거야.”

‘개츠비’(데이지의 연인)와 ‘자신(톰)의 아내(데이지)’ 사이에서 눈에 번갯불을 튀기며 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자 어서들!” 톰이 약간 짜증이 나올려는 듯 말했다. “도대체, 뭘 문제야? 우리가 시내(뉴욕시내)로 간다는데, 자 어서들 일어나게.”

간신히 성질을 죽이고는 있었지만 떨고 있는 손으로, 톨은 자기 잔에 남아 있던 ‘에일’(쓴맛이 나는 맥주. 사진링크▶ <http://me2.do/xPg8hQ0R> , 검색일자:2015-9-6)을 죄다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래도 다들 데이지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자리를 뜨지 않았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몹시 더운 열기로 불타는 듯한 ‘자갈’(돌) 도로 위로 나가야했다.

“바로 갈 거야?”라며 데이지(23세)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식으로? 손님들께 우선 ○○라도 한 대씩 피우게 해드려야 하는 거 아냐?”

(데이지의 남편인 톨의 대사→) “점심 먹는 동안 주구장창 피워 댄 게 ○○데 또 뭘 똥딴지같은 소리야.”

“오, 그냥 웃으라고 한 소리야,”라며 데이지가 톨의 화를 살짝 피해가며 말했다. “다투기엔 날이 너무 덥잖아.”

그러자 톨은 아무 소리 못했다.

“어쨌든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걸로~,”라며 데이지가 말했다. “이리와, 조단(여자이름), 나갈 준비 해야지.”

우리들 남자 셋이서 발을 질질 끌며 뜨거운 자갈들 위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데이지(23세)와 조단(21세)은 외출 준비를 하러 2층으로 올라갔다.

서쪽 하늘에선 은빛 곡선을 한 달이 벌써 하늘에 멈춰 떠 있었다.

개츠비(31세)가 말을 하려다 말고 톰(30세)이 몸을 돌려 들으려는 자세를 취하자 생각이 바뀌었는지 얘기를 그만두었다.

“마구간(말을 기르는 곳)들을 여기(집)에 두신 겁니까?”라며 애써 태연한 척 개츠비가 물었다.

“이 길로 쪽 400미터 정도를 내려가면 있습니다.”

(개츠비가 말문이 막혀 내뱉는 감탄사→) “오오.”

그런 다음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시내(뉴욕시내)에 나가자니,”라며 톰이 사납게 침묵을 깨며 말했다. “도대체 여자들의 머릿속을 알 수가 없다니까....”

“마실 것도 가지고 갈까?”라며 데이지가 2층 창가에서 소리쳤다.

“위스키는 내가 내 올게.”라며 톰이 대답했다.

톰이 집안으로 들어갔다.

굳은 자세로 개츠비가 내게로 몸을 돌리더니 말했다.

“그(툼)의 집 안에서 전 한 마다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씨.”

“데이지가 경솔하게 외출 얘기를 꺼내서 그래요,”라며 나도 한 마디 거들었다. “그 애의 목소리엔 마치....” 내가 말을 하다 말고 주저주저했다.

“그녀의 목소리엔 돈으로 가득 차 있죠.”라며 개츠비가 불쑥 말했다.

바로 그것(=돈=경박함)이었다. 왜 미처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을까. 정말이지 그녀(데이지)의 목소리에는 돈으로 가득했다. 그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며 무진장 노력해도 다 써버릴 수 없는 매력 그 자체였고, 소리 나는 째랑째랑이들 그 자체였으며, 그리고 심벌즈(타악기이름. 사진 ▶ <http://me2.do/xFkL1RZz>, 검색일자:2015-9-7)의 노래 소리 그 자체였다.

(화자인 닉 캐러웨이가 데이지의 목소리에 돈이 들어 있다는 개츠비의 생각이 기발하다며 혼자서 횡설수설하며 생각하는 부분임→) ...누가 알리, 백색의 궁전 저 높은 곳에 산다는 인기 있던 그 막무가내가 실은 왕의 딸이었음을....

툼(30세. 데이지의 남편)이 1리터짜리 술병 하나를 ‘타월’(수건) 하나에 감싸 들고서 집 밖으로 나왔다.

툼을 따라 데이지(23세. 여주인공)와 조단(21세)이 ‘금속광택을 가진 실’(금속사)로 짜 만든, 머리에 꼭 끼는 ‘작은 모자’를 하고서, 그러면서 팔엔 밝은 색의 ‘케이프’(여자 옷. 목에 매는 망토, 사진▶ <http://me2.do/FINZkr1q> , 검색일자:2015-9-7) 하나씩을 걸친 채 나왔다.

“그럼 제 차로 가실까요?” 개츠비(31세)가 제안했다.

개츠비는 자신의 자동차 가죽 시트(자리)가 강렬한 초록색 인 것에 자긍심을 느끼며 한 말이었다.

“시내(뉴욕시내)로 나가실 줄 알았으면 차를 그늘에 세워둘 걸 그랬습니다.”

“‘변속레버’(속도를 변하게 하는 레버)요?”

“예.”

“그럼 잘 됐군, 당신이 내 ‘쿠페형 자동차’(=쿠페=앞에 2인 좌석+뒤에 접었다 펴다 할 수 있는 작은 여유 공간<멍멍이용>)를 모시오, 그럼 내가 당신 차를 몰고 시내까지 가볼 테니까.”

당연히 개츠비가 그 제안을 좋아할 리 없었다.

개츠비가 반대하며 말했다. “차(개츠비 자신의 차)의 가스가 그렇게 여유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걱정 마시오, 충분하니까.”라며 톰이 무척 거칠게 말했다.

혹시나 싶었는지 톰이 게이지(수치)를 살펴본 후 말했다.

“만약 달리는 와중에 가스가 떨어지면 근처 약국에 들르면 되지. 요즘 약국은 별의별 희한한 것들을 다 판다니까.”(←개츠비가 돈을 번 이유를 약국 운영 때문으로 알고 있는 ‘데이지’와 개츠비를 모두 비꼬는 톰의 대사임)

톰의 이 명백히도 적절하지 못한 언급(말) 때문에 잠시 정적(침묵)이 흘렀는데, 톰의 말이 자신이 한 말을 비꼬는 것이었기 때문에 데이지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톰을 보았다. 그리고 개츠비의 얼굴에도, 마치 개츠비의 얼굴표정을 내가 누군가에 의해 말로 설명 듣는 것 마냥 확실히 익숙지 않고 모호하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뭐라 딱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이 지나갔다.

“어서 타, 데이지.”라며 톰이 개츠비의 자동차가 있는 쪽을 손으로 지칭해 그녀를 압박하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이 서커스 곡예단 같은 마차(자동차)에 태우고 가볼 테니까.”(개츠비의 자동차 곁에는 박스와 유리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톰이 자동차 문을 열었다. 하지만 데이지는 톰의 큼직한 원형 팔에서 빠져나오며 말했다.

“자긴 ‘닉’ 오빠(6촌 오빠임. 아버지의 사촌형제의 아들이 6촌 오빠임)랑 조단(21세. 닉의 여친)을 태우고 가. 우린(데이지와 개츠비) 쿠페형 자동차(=쿠페=앞에 2인 좌석+뒤에 접었다 펴다 할 수 있는 작은 여유 공간<멍멍이용>)를 몰고 당신네들을 따라 가볼 테니깐.”

자신의 손을 개츠비(31세. 데이지의 연인)의 양복 상의에 갖다 대고서 데이지(23세. 여자주인공)가 개츠비 가까이로 걸어갔다.

그렇게 해서 조단(21세 여. 데이지와 아주 친한 고향 동생)과 톰(30세. 데이지의 남편) 그리고 나(30세. 데이지의 6촌 오빠이자 톰의 대학동기)는 개츠비가 몰고 왔던 자동차 앞좌석에 타게 되었다.

톰이 생소한 기어를 망설이며 밀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이 막힐 듯한 더위 속으로 급발진하고야 말았는데 그 바람에 개츠비와 데이지가 시야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저거 봤지?”라며 톰이 다그쳤다.

(닉 캐러웨이의 답변→) “뭘 봐?”

톰이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나를 찌려봤다. 표정을 보니 그동안 쪽 조단과 내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간파한 눈치였다.

“자네 지금 누굴 바보로 아는 거야, 응?”라며 톰(30세. 데이지의 남편)이 말했다. “아무리 내가 바보라도 그래, 내게도 이따금씩 투시력 같은 게 있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도는 말해줄 수 있는 투시력 말이야.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과학도 증명한....”

순간 톰이 입을 다물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지금 당장 달친 이 긴급한 사태가 그를 폭풍처럼 덮쳤다가 그를 이론상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막 건져낸 것이다.

“모두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도 나름 그 자식에 대해서 자그마한 조사를 해왔지.”라며 톰이 말을 이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더 깊숙이 파헤쳐봤어야 했는데 제길....”

“무당집에게라도 다녀온 거냐고 묻는 거예요?”라며 조단이 익살맞게(웃기게) 질문을 던졌다.

“뭐?” 그렇지 않아도 자기 생각에 빠져 지금 정신이 없는 톰은 우리가 웃는 것을 잠시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내 말했다. “뭔 무당(무슨 무당을 말하는 거야)?”

“개츠비에 관한 걸 물으러 무당집에 갔었느냐? 고요.”

“뭐 개츠비라고!(←개츠비가 본명이 아님을 톰이 알고 있다는 뜻임) 놀고 자빠져 있네. 내가 이미 말했잖아, 내가 그 자식이 지나온 과거에 대해 자그마한 조사를 해 왔다고 말이야.”

(조단의 대사→) “그럼 그(개츠비)가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이라는 것도 알았겠네요.”라며 조단(21세. 프로여자골퍼선수)이 유익한 논평을 해주었다, 물론 개츠비를 위해서.

“그 자식이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쉽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 톰(30세. 데이지의 남편)이 말했다. “정말 놀고 자빠져 있네! 분홍색 양복이나 입는 그딴 놈이 옥스퍼드 뭐.”(세상엔 몰라도 되는 게 많습니다. 분홍색 양복을 입는 행동은 자신이 남자 동○애자임을 의미합니다. 옷도 함부로 입으면 안 되는 세상임-_-;; 물론 개츠비가 그럴 일은 절대 없겠죠. 데이지를 좋아하는데. 아마도 나중에 생긴 인식인 모양임.)

(닉 캐러웨이의 대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개츠비)가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온 건 틀림이 없잖아.”

“이것들이 정말, 옥스퍼드 좋아하고 있네, 너희들이 나는 그 옥스퍼드가 아니라 뉴멕시코(미국 남서부)에 있는 옥스퍼드를 나왔겠지.”라며 톰이 경멸적으로 콧방귀까지 끼며 말했다. “아님 그 비슷한 데를 나왔던가.”

“들어봐요, 톰(데이지의 남편의 이름임). 오늘 왜 이렇게 시큰둥해있는 거예요, 그(개츠비)를 오늘 점심식사자리에 초대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오빠(톰)였었잖아요?”라며 조단이 뿌루통해져선 물었다.

“데이지가 그(개츠비)를 초대한 거였어. 우리(데이지와 톰) 부부가 결혼하기도 전에 데이지가 그(개츠비)를 알았대잖아. ...그것들이 어디서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셋(닉, 조단, 톰) 다 점심 때 먹은 에일(맥주) 기운이 서서히 풀리고(약해지고) 있던 종이라 흥분하기 쉬운 상태였고 이제 입증되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아무런 말없이 차를 몰았다.

그때 ‘티(T.) 제이(J.) 에클버그’ 의사의 색이 바랜(빠진) 두 눈이 도로 아래쪽에서부터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문득 차에 휘발유가 다 떨어져 간다고 개츠비가 경고했던 게 떠올랐다.

(잠깐 앞뒤 설명 : “티(T.) 제이(J.) 에클버그’ 의사의 색이 바랜(빠진) 두 눈”에 대해서 이전의 글을 읽어두면 소설 이해에 보다 좋습니다. 2장 #2에서 발췌한 내용 ▶ <황폐한(쓸쓸한) 먼지들의 발작적 ‘경련들(먼지구름들)’이 잿빛(회색) 지면위로 끝없이 길게 떠다니고 나면 잠시 후 당신은 ‘티(T.) 제이(J.) 에클버그’ 의사의 두 눈을 보게 된다. 1미터 높이 가량의 홍채(눈)를 지닌 ‘티(T.) 제이(J.) 에클버그’ 의사의 두 눈은 새파랗고 거대하고 또 거대했다. 얼굴 외곽선은 없었다. 대신 채 다 그려지지 못한 코 위엔, 노란 페인트 물감으로 칠한 것 같은 거대한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그는 그 안경 너머로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다.>2장 #2 링크 ▶ <http://me2.do/GiupS3CO> , 검색일자:2015-9-8)

“걱정하지 마. 우릴 시내(뉴욕시내)로 데려다주고도 남아도는 양만큼은 차 있으니까.”

“하지만 자동차 수리소가 바로 저기 있잖아요.”라며 조단(21세. 프로여자골퍼선수)이 이의를 제기했다. “계란도 구워버릴 것 같은 이 무더위에 차로 가다 도중에 기름이 떨어져 우릴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는 하지 말아줬음 좋겠네요.”

툼도 조바심이 났는지 브레이크를 둘 다 밟았다. 그래서 우린 <자동차 수리 전문. ‘조지 비(B.) 월슨’. 자동차 사고 팜.>라고 적힌 간판 아래로 미끄러지듯 이동해 먼지를 일으키며 갑작스레 멈출 수 있었다.

잠시 후 가게주인(=차량 정비소 주인=월슨=‘월슨 부인의 남편’=툼은 월슨 부인과 뉴욕에서 딴 집 살림을 하다 월슨 부인이 데이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싸운 적이 있음=또한 톼은 자신의 집에 있는 중고차를 월슨에게 판다고 말만 해놓고 계속해서 안 팔고 있음. 그 핑계로 가게로 들러 월슨 부인을 만나 뉴욕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정하고 가곤 했음)이 차량 정비소에서 나타나더니 톼이 몰고 온 자동차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쑥 들어간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잠깐 앞뒤 설명 : “월슨의 외모를 묘사한 글”을 이전의 글을 읽어두면 소설 이해가 쉽습니다. 또한 월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후 소설 전개 상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2장 #7에서 발췌한 내용 ▶ <그때 정비소 주인이 못 쓰서 버려야 할 판인 녀마조각(휴지)로 손바닥을 비비며 사무실 문에 나타났다. 그는 살결이 희고 금발을 한 남성이었다. 하지만 빈혈기가 있는 지 기운이 없어 보였다. 어렵풋하지만 잘 생긴 남자였다. 우리를 보았을 때, 그의 연한 청색 눈동자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한 가닥 희망이 샘솟는 듯했다.> 2장 #7 링크 ▶ <http://me2.do/5f9IVfRa> , 검색일자:2015-9-8)

“가스(휘발유) 좀 넣어주게!”라며 톼이 매우 거칠게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뭇 때문에 여길 들렀다고 생각하는 건가... 주변 경치라도 관광하려고?”

“전 몸이 안 좋습니다,”라며 움직이지 않은 채 월슨(차량정비소 주인)이 말했다. “하루 종일 아팠거든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기력(남아 있는 힘)이 다 된 거죠.”

“음, 내가 뭐 도와줄 건 없고?” 톰이 권위조로 물었다. “왜 전화기 상으로는 잘도 말하더니.”

출입구에 기대어 있던 월슨(차량정비소 주인)이 애를 쓰며 응달(그늘)을 나와 숨을 힘들게 쉬면서 연료 용기의 뚜껑을 돌려서 뺐다.

햇빛에 나온 그의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나리의 점심 식사를 방해할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라며 월슨이 말했다. “하지만 급한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게 파시기로 한 그 중고차를 언제쯤 넘겨줄 수 있는지 물으러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이 차(개츠비의 고급 자동차)는 어떤가?”라며 톰이 물었다. “지난주에 구입한 차네.”

“날렵하게 생긴 노란 색 자동차로군요,”라고 연료 용기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당기며 월슨이 말했다.

“그래서 사고 싶은가?”

“절호의 기회죠,”라며 윌슨이 힘없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됐습니다. 딴 차로도 돈은 많이 벌 수 있을 테니까요.”

“갑자기, 급한 돈은 왜 필요한 건가?”

“이곳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아내와 전(저는) 서부(미국서부)로 가려고 생각중입니다.”

“자네 아내가 그러길 동의했나.”라며 톰이 깜작 놀라선 외쳤다.

“집 사람과는 10년 동안 그 얘기만 해오고 있는걸요, 떠나자고.” 윌슨이 잠시 펌프에 기대서선 눈에 그늘을 만들고 쉬었다. “그리고 이젠 집 사람이 원하니 마니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집 사람을 데리고 떠날 생각이니까요.”

그때 개츠비와 데이지가 탄 ‘쿠페형 자동차’(=쿠페=앞에 2인 좌석+뒤에 접었다 펴다 할 수 있는 작은 여유 공간<멍멍이용>)가 먼지를 동반한 돌풍과 함께 손을 흔들며 번개 같이 우리 곁을 지나갔다.

“얼만가(휘발유 가격)?”라며 다급해진 톰이 사납게 물었다.

“바로 이틀 전에 ‘수상쩍은 걸’(아내에게 딴 남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며 월슨(차량 정비소 주인)이 말했다. “그게 내가 여길 뜨려는 이유입니다. 그게 내가 나리한테 전화를 걸어 중고차 얘기로 성가시게 한 이유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얼마냐고(휘발유 가격)?”

“2만 4천원(1달러 20센트)입니다.”

쉴 새 없이 때려대고 있는 열기(무더운 날씨)에 지치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나머지 나는, 월슨이 아직 톰을 의심하고 있지 않음을 깨달기 전까지 거기서 죄책감 비슷한 것을 느끼며 서 있었다.

월슨(차량 정비소 주인)은 머틀(월슨의 아내 이름)이 자기(월슨)와 떨어져 딴 세상(뉴욕)에서 다른 부류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나머지 몸져눕게 된 것이었다.

나는 월슨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톰도 마찬가지로 채 1 시간도 되기 전에 그와 유사한 발견을 했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지능이나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픈 사람(월슨)과 건강한 사람(톰은 근육질의 남성임)의 차이가 다른 어떤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월슨의 몸이 너무도 안 좋았기 때문에 마치 월슨이 아내의 행실에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듯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듯 보였다. 마치 자신(월슨)이 어떤 가난한 가사도무미에게 아기를 배게(가지게) 하기라도 한 것 마냥.

“자네(월슨)에게 그 차(중고차)를 건네라고 하겠네,”라며 톰이 말했다. “내일 오후에 이쪽으로 보내주지.”

그 부근(이름이 ‘젯더미 계곡’임. 즉 ‘쓰레기 하치장’임)은 모호하게지만(약하게지만) 매번 항상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다. 심지어 오후의 햇빛이 환히 주변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러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마치 내가 어떤 것에 뒷통수를 조심하라고 경고라도 받은 마냥 고개를 돌렸다.

젯더미들 너머로 1미터 가량의 새파란 홍채(눈)를 지닌 ‘티(T.) 제이(J.) 에클버그’ 의사의 두 눈이 경비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잠시 뒤 나는 채 6미터(3층)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부터 이상하리만치 아주 열심히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어떤 다른 시선을 감지했다.

차량 정비소 위쪽에 있던 창문들 중 하나에, 커튼들이 살짝 옆으로 밀어제쳐져 있었다. 그리고 ‘머들 윌슨’(=윌슨의 부인=툼의 여자)이, 우리가 타고 온 차량(개츠비의 차량)을 응시하며 내려다보고 있었다.

머들 윌슨이 너무도 열중해 우리 차량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내가 그녀를 관찰하고 있다는 의식 자체가 없었다.

화공 처리를 해 색깔이 드러나고 있는 사진 속 오브제들(사물들) 마냥 지금 머들 윌슨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녀의 그 표정은 이상하게도 내게 낯이 있었다. 그건 내가 여자들의 얼굴에서 자주 보아 오던 표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머들 윌슨의 얼굴 위에 나타난 그 표정은 뭔가 더 목적이 없었고 뭔가가 더 이해 불가능했다.

적어도 내가 그녀의 눈이 극심한 질투심에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깨달을 때까지 말이다.

그녀의 눈을 고정시키고 있었던 대상은 ‘툼’(30세. 데이지의 남편이자 머들 윌슨의 남자)이 아니라 바로 ‘조단 베이커’(21세. 톼이 아니라 ‘닉 캐러웨이’의 애인)였다.

‘머들 윌슨’(윌슨의 아내이자 톼의 여자) 지금 ‘조단 베이커’를 톼의 아내(데이지)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머리가 둔한 사람’(‘툼 뷰캐넌’을 말함)이 당황할 때보다 더 착잡한 심경이 들 때도 없다.

우리(툼, 닉, 조단)가 차를 타고 내달리는 동안에도 톼(30세)은 뜨거운 채찍으로 맞은 듯 공황 상태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미처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전하고 신성해보였던 자신의 아내(데이지 = 예쁜 23세 여성)와 연인(= 머들 윌슨 = 뚱뚱한 중년의 여성)이 자신의 통제에서 느닷없이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툼(30세)은 본능적으로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거기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데이지가 탄 차량을 따라잡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윌슨에게서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서였다.(툼이 내일 자신의 중고차를 윌슨에게 팔 생각이 없다는 의미겠죠^0^)

우리가 ‘아스토리아’(=뉴욕 안에서 동쪽.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바람)를 향해 시속 80킬로미터 (80 km/h)의 속력으로 달려 높이 솟은 거미줄 같은 철제 ‘거더’(철로 된 큰 빔을 거더라고 합니다. 철로 된 다리교량 상상)들 사이에 들어섰을 때야 비로소 유유히 나아가고 있는 푸른 색 쿠페형 자동차(개츠비와 데이지가 탄 차량. 2인승)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아스토리아’(=뉴욕 안에서 동쪽=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큰 지도]

“저기 50번‘가’(도로) 쪽 대형 극장들이 시원해,”라며 조단(21세. 닉 캐러웨이의 애인)이 제안했다. “난 모두가 가버리고 없는 뉴욕의 여름 날 오후를 사랑해. 그곳 주변엔 요염한 구석이 있거든. 마치 모든 종류의 별난 과일들이 내 손에 푹 하고 떨어져줄 것 같이 무르익었다고나 할까.”

“요염하다”라는 단어가 톰(30세. 데이지의 남편. 톰의 연인인 ‘머틀 윌슨’은 뚱뚱한 중년의 여성이지만 매우 육감적인 몸매의 소유자임)을 무척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 건 말할 나위도 없었다.

하지만 톰이 이 상황에 그게 할 소리냐고 한마디 하기도 전에, 앞서 가던 쿠페형 자동차(2인승. 개츠비와 데이지가 탄 자동차. 원래는 톰의 자동차)가 급히 멈추었고, 데이지가 뒤돌아보며 우리보고 다가와서 차를 데라고 손짓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라며 데이지가 소리쳤다.

“영화 어때?”

“이 불법 더위에 무슨,”라며 데이지가 ‘핀잔을 주었다’(꾸짖다). “영화관엘 가려거든 당신네들이 나가. 우린 이 주변을 좀 더 드라이버 할 테니까. 그럼 나중에 만나.”

그런 다음 데이지는 애써 기지를 발휘해보려는 듯 소심하게 이렇게 덧붙였다.

“아무 모퉁이에서나 만나든 차안에서 담○ 두 개비 연기가 피어나거든 그게 우린 줄 알아봐.”

“무슨 똥딴지같은 소릴 하는 거야,”라며 참지 못하고 톰(30세. 데이지의 남편)이 말했다. 마침 우리 뒤편에 있던 트럭 한 대가 갖은 욕설과 함께 “뽕뽕!” 경적을 울려댔다.

톰이 말했다.

“센트럴 파크(뉴욕의 공원) 남쪽 편으로 우릴 따라와. 프라자 호텔(뉴욕의 호텔) 앞쪽으로 갈 거야.”(센트럴 파크는 프라자 호텔 바로 위에 있음.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바람)

▼ 구글 지도 참조 1

검색어 ‘센트럴 파크’(=뉴욕의 공원=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 구글 지도 참조 2

검색어 ‘프라자 호텔’(=뉴욕의 호텔=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톰(30세. 데이지의 남편)은 가는 도중에도 몇 번이고 고개를 돌려 데이지와 개츠비의 차량을 확인했다. 만약 교통체증으로 그들이 탄 차가 제때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면 그들이 시야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차를 천천히 운전했다.

내(30세. 닉 캐러웨이는 톰의 대학동기임) 생각에 톰(30세)은 그들이 따라오다 말고 짠 데로 휩날아가지 않을지 그래서 영원히 자신(톰)의 삶에서 떠나버리거나 않을지 염려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짠 데로 내빼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다섯 사람은 약간 납득할 수 없는 단계를 밟아서 프라자 호텔 안에 있는 ‘스위트룸’(고급 방)의 응접실을 빌렸다.

우리 다섯 명이 그 응접실(호텔 스위트룸의 응접실)로 들어가면서 끝이 난 부단히 소란스럽고 오래 끌었던 우리들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는 지금 잘 떠오르지 않는다.

비록 떠들썩한 가운데 내 속옷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뱀처럼 내 두 다리를 감아 내려가고 있었고 내 등줄기를 따라 간헐적으로 구슬땀들이 시원하게 경주를 하던 신체적인 기억은 지금도 빈틈없이 다 기억하지만 말이다.

데이지의 애초 제안은 이러했다.

“옥실 5개를 빌려 냉수욕을 해요!”

하지만 그녀의 제안은 곧 “민트 줄레п(=박하술=칵테일임=‘버본 위스키’(위스키의 일종)+설탕+민트잎+얼음. 사진링크▶ <http://me2.do/GlcGcQ9q> , 검색일자:2015-9-10)을 한 잔씩 할 수 있는 근사한 장소를 찾아보자.”로 좀 더 현실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 자기 생각들을 한 마디씩 했고 예를 들면 “미쳤어!”라는 등등의 얘기들 말이다.

난처해하고 있는 호텔(프라자 호텔) 직원 한 명에게 우리 다섯 명은 동시에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아주 익살맞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룸(호텔 스위트룸의 응접실)은 너무 컸고 공기는 숨 막힐 것만 같았다.

그리고 심지어 벌써 오후 4시인데도 열린 창가를 통해 ‘센트럴 파크’(뉴욕의 공원. 포스팅 맨 아래의 네이버지도 참조. 사진▶ <http://me2.do/GGJCJLmn> , 거리뷰▶ <http://me2.do/GaOgO8yr> , 검

색일자:2015-9-10)에 있는 ‘관목’(사람 키보다 작고, 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없으며, 가지가 엄청 많은 나무들) 숲으로부터 뜨거운 열 기운만이 세차게 불어오고 있었다.

데이지(23세. 여주인공)는 거울 앞으로 가 우리에게 등을 보이며 서서는 머릿결을 정돈했다.

“아주 근사한 스위트룸(호텔 방)인걸.(반어법. 너무 더워서 기절할 것 같은 방이란 뜻임)”라며 조단(21세. ‘닉 캐러웨이’의 애인)이 황송하다는 듯 속삭이자, 우리 모두는 그 말이 맞대며 소리 내서 웃었다.

“다른 창문들을 열어봐 그럼.”라며 데이지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서 말했다.

(조단의 대사→) “이 방에 더는 창문들이 없어.”

“그럼, 전화로 도끼라도 하나 가져다 달라고 그래....(깨부수게.)”

“우선 이 더위에 대해서 잊어야해,”라며 톰(30세. ‘데이지의 남편’이자 ‘닉 캐러웨이의 대학동기’이자 ‘머들 윌슨’의 연인)이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그 일에 대해 투덜거리면 상황만 10배로 더 악화될 뿐이야.”

툼(30세. '데이지의 남편'이자 '윌슨 부인'의 연인)은 타월(수건)에 싸서 가져온 위스키 술병을 돌돌 풀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데이지)에게 굳이 그런 식으로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형씨?”라며 개츠비(31세. 데이지의 연인)가 한 마디 했다. “시내(뉴욕시내)로 나오자고 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잖습니까.”

일순간 침묵이 흘렀다.

벽에 박힌 못에 걸려 있던 전화번호부 책이 미끄러지더니 바닥에 철썩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 때문에, 조단(21세. 닉 캐러웨이의 애인)이 작은 목소리로 “실례(미안).”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웃지 않았다.

“내가 (바닥에 떨어진 그 전화번호부책을) 주울게.”라며 내가 제안했다.

“벌써 제가 집었습니다.”라며 개츠비가 끊긴 줄(끈)을 살피더니 “음!”이라고 자신의 흥미를 괜히 끌었다는 듯 투덜거리더니 그 전화번호부책을 도로 1인용 의자 위에 아무렇게나 내던졌다.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로 근사한 말투인가보군?”라며 툼이 예리하게 말했다.

“뭐가 말입니까?”

“말끝마다 당신이 붙이고 있는 그 ‘형씨’라는 말투 말이오. 그런 말투를 어디서 배운 거요?”

“여기 좀 봐, 톰.”라며 데이지가 마침내 거울에서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당신이 인신 공격을 할 생각이라면 난 여기서 1분도 머무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 어서 전화나 걸어서 ‘민트 줄랩’(=박하술=칵테일임=‘버본 위스키’(위스키의 일종)+설탕+민트잎+얼음. 사진링크▶ <http://me2.do/GlcGcQ9q>, 검색일자:2015-9-10)에 넣을 얼음이나 좀 더 달라고 그래.”

톰(30세. 데이지의 남편)이 수화기를 집어 들자, 전화기 속에 압축되어 있던 열기가 울림이 되어 터져 나왔다. 그 바람에 우린 아래층 댄스홀(무도장)에서 들려오는 ‘멘델스존’(독일 낭만주의 작곡가)의 <결혼 행진곡>(음악듣기▶ <https://youtu.be/0Oo4z37OUEI>, 검색일자:2015-9-11) 화음을 웅얼 울리는 엄청 불길한 소리로 들어야 했다.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있담!”라며 조단(21세. 프로여자 골퍼선수이자 닉 캐러웨이의 애인)이 자신이 다 기분 나쁘다는 듯 소리쳤다.

“그러지마... 나도 6월 중순께에 결혼식을 올렸는걸.”라며 데이지(23세. 여주인공)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6월의 ‘루이빌’(미국 동부 켄터키주의 도시이름. 루이빌에 데이지의 친정집이 있음.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이라니! 식 도중에 쓰러진 사람도 있었던단다. 톰(데이지의 남편), 그 이가 누구였죠, 왜 실신했었던 이 말이야?”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루이빌’(=미국동부의 도시=데이지의 친정집=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빌록시.”(미국 도시 이름을 사람이름으로 쓴 경우임)라며 톰(30세)이 짧게만 대답했다.

“그래 빌록시라 불리던 사람이었어. ‘블록스’(=블록=덩어리) 빌록시였지, 그는 상자들을 만들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건 정말인데. 그는 정말로 ‘테네시’(미국 남동부)에 있는 ‘빌록시’(도시이름.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바람)에서 온 사람이었어.”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테네시에 있는 빌록시는 어디?’(=미국 남동부 도시=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사람들이 그 이를 ‘내 집’(데이지 집이 아니라 조단의 집) 안으로 옮기던 게 기억나,”라며 조단 (21세. 프로여자골퍼선수)이 덧붙였다. “교회 두(2) 집 옆이 바로 우리 집이었거든. 그는 우리 집에서 장 3주일을 머물렀지. 우리 아빠가 그에게 제발 그만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할 때까지 말이야. 어찌나 골치였던지 그가 나가고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아빤 돌아가셨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이 불손했다고 여겼기 때문인지 조단은 잠시 있다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둘 사이엔 어떤 연관성도 없었어.”

(참고사항 : 아래는 참고사항 :)

소설 속 배경입니다.)

▼ 구글 지도 참조 1

검색어 ‘프라자 호텔’(=뉴욕의 호텔=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 구글 지도 참조 2

검색어 '센트럴 파크'(=뉴욕의 공원=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난 ‘멤피스’(미국 남서부 테네시 주에 있는 도시이름)에서 온 ‘빌 빌록시’라는 사람과 알고 지낸 적이 있어.”라며 나(30세. 이 소설의 화자)도 한 마디 거들었다.

(21세 여자프로골퍼선수인 조단의 대사→) “‘빌 빌록시’가 바로 언니가 말한 ‘블록스(=블록=덩어리) 빌록시’의 사촌이야. ‘블록스 빌록시’가 떠나기 전에 자기 집 전체 가족력을 다 말해줬었거든요. 요즘 내가 사용하는 알루미늄제 ‘퍼터’(골퍼 채의 일종)도 그가 내게 준 거야.”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멤피스'(=미국 남서부 도시이름=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아래층에서는 결혼식이 시작되었는지 음악(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 소리가 차츰 줄어들어 지금은 호텔 창문이 떠나가라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었다. 그것도 아까 전부터 계속. 뒤이어 “키스 해~ 키스 해~ 키스 해~!”(←제가 재밌으라고 해석한 것임. 원문→“그렇고말고-암-암!”)라는 간헐적인 외침들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마침내는 한 바탕 재즈(음악)가 빵하고 터지면서 그들의 춤추기는 시작되었다.

(아래층에서 춤추기가 시작된 것을 듣고 데이지가 하는 대사→) “우린 점점 나이들어 가는데,”라며 데이지(23세. 여주인공)가 말했다. “우리도 젊었다면 일어나 춤을 추었겠지.”

“빌록시(데이지의 결혼식에 왔다가 더워서 실신한 남성이름)나 생각하자고,”라며 조단(21세. 프로 여자 골프 선수)이 데이지에게 말했다. (조단이 톰에게 하는 대사→) “오빠(톰) 빌록시를 어디서 알게 된 거야?”

“빌록시?” 톰이 애써 관심을 기울이는 척 말했다. “난 그런 놈 몰라. 그날도 데이지의 친구라고 하니까 인사나 했을 정도였는 걸.”

“그게 아냐.”라며 데이지가 부정하고 나섰다. “난 빌록시란 이를 전에 단 한 차례도 만난 적도 없었어. 그는 톰의 자가용차로 온 사람이었어.”

(톰의 대사→) “글쎄, 빌록시는 당신(데이지)을 안다고 그러던데. 그는 자신이 루이빌(데이지의 고향)에서 자랐다고 말했어. 우리들이 결혼식장으로 가기 1분 전에 ‘아사 버드’(아사=남자이름. 버드=새)(톰의 대학동기임. 두 번 다시 안 나오는 이름임. 몰라도 되는 이름임)가 빌록시를 데려와 놓고는 문더군, 빌록시가 탈 자리가 있겠느냐고.”

조단(21세. 여자프로골퍼선수)이 생글(방긋) 거렸다.

“빌록시는 아마도 자기 고향(루이빌)으로 가는 자동차를 거저 얻어 타려던 계획이었나 본데요. 그가 예전에 자신이 오빠(닉과 톰)들이 나온 예일 대학교 총학생 회장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잖아.”

톰과 나는 망연해져선 서로를 쳐다보았다.

“빌록시란 사람이 뭐 학생회장이라고?”

“우선은, 예일 대학교에는 학생회장이란 직책 자체가 없어....”

개츠비가 초조한지 자신의 발로 방바닥을 한 번 툅하고 쳤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톰이 불쑥 대화의 주제를 개츠비에게 맞추며 물었다.

“그나저나, 개츠비 씨, 당신께서도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오신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단의 대사→) “오, 맞아요, 저도 당신이 옥스퍼드를 다녔었다고 들었어요.”

“예... 가긴 갔었죠, 거기에 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톰이 의심하는 듯한 목소리로 그리고 무례함이 가득 담긴 어조로 말했다.

“빌록시가 ‘뉴하벤’(영국 뉴하벤. 영국남부 항구도시)에 갔던 대략 그 시기쯤 해서 당신도 거기에 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예전에 개츠비는 자신이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있음)

▼ 네이버 지도 참조

검색어 ‘뉴하벤’(=영국남부 항구도시=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웨이터가 노크를 하더니 으깬(부순) 박하와 얼음을 들고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의 침묵은, 웨이터가 “맛있게 드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문을 아주 부드럽게 닫고 나가고 난 이후에도 깨어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어이없는 과거 이력이 마침내 죄다 까발려지려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제가 거기에(옥스퍼드 대학교) 갔었다고만 말한 걸로 기억합니다만.”라며 개츠비가 말했다.

“물론 나도 그렇게 들었소. 그러니 내 말은 당신이 거길 언제 갔었느냐는 말ियो.”

“1919년 무렵이었습니다. 아니 1919년입니다. 거기서 5개월 동안만 머물렀습니다. 물론 그걸로 내 자신을 옥스퍼드 대학 출신자라고 부를 순 없겠지만요.”

우리가 개츠비의 방금 그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려고 톰(30세. 데이지의 근육질 남편)이 우리를 훑훑 훑어보았다.

하지만 톰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오직 개츠비만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정전(제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11일에 독일의 항복으로 정전이 되었음)이 이루어진 후 일부 참전 장교들(개츠비는 공을 세우고 소령 계급을 달았음)에게는 한 가지씩 기회가 주어졌습니다.”라며 개츠비가 계속 말했다. “우리들은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대학교라면 어떤 대학교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나(30세. 닉 캐러웨이는 이 소설의 화자입니다. 닉은 데이지의 6촌 오빠이지 톰의 대학동기이자 조단의 애인이며 개츠비 저택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입니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개츠비의 등을 토닥여주고 싶었다. 흡족한 답변이었다.

내가 일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었던 그에 대한 완전한 신뢰감이 다시 내 안에서 샘솟은 날 중 하나가 바로 이 날이었다.

데이지는 일어나, 그녀는 살짝 미소 짓고 있었다, 데이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위스키 병이나 따죠, 톰(남편) 오빠.”라며 데이지가 주문했다.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한 ‘민트 줄렘(=박하술=각테일임=‘버본 위스키’(위스키의 일종)+설탕+민트잎+얼음. 사진링크▶ <http://me2.do/GIcGcQ9q> , 검색일자:2015-9-10)을 만들어줄 테니깐. 그럼 당신 자신이 덜 하찮게 보일 거야.... 이 ‘박하 잎’ 좀 봐봐!”

“좀 있어봐,”라며 톰이 투명스럽게 말했다. “개츠비 씨에게 한 가지를 더 물어봐야겠거든.”

“계속하십시오.”라며 개츠비가 정중하게 말했다.

(툼이 개츠비에게 하는 대사→) “도대체 당신은 어떤 종류의 분란을 내 가정에서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오?”

마침내 공공연한 비밀이 들추어지는 순간이었으며 그 내용물은 다름 아닌 개츠비이었다.

“(개츠비는) 어떤 분란을 일으키려는 게 아냐.”라며 데이지가 두 사람(개츠비와 톼)을 절망적으로 번갈아 보며 말했다. (데이지가 남편인 톼에게 하는 대사→) “분란을 야기하고 있는 건 바로 당신(=툼=남편)이라고. 제발 좀 자제심도 발휘야 봐, 응.”

“자제심이라고!”라며 톼(30세. 남편)이 데이지(23세. 아내)마저 의심하는 듯 비웃으며 말했다. “어디서 온지도 모를 망할 놈이 자기 아내랑 놀아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을 미친놈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야 원, 만일 당신 생각이 그렇대도... 난 제외시켜달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요즘 사람들은 가정생활과 가족제도 자체를 비웃으려고만 든다니까. 이제 조그만 더 있어보라지 모두가 그런 경향들에 휩쓸려서는 결국 백인과 흑인들끼리도 결혼을 하려고 들 테니까.”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며 자기 말에 자신이 깊이 감동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톼은 자기 자신을 서구 문명의 마지막 ‘보류’(울타리) 위에 혼자 서 있는 것으로 여기는 듯 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은 모두 백인들이야.”라며 조단(21세)이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거렸다.

“좋아, 좋아 모두 좋다고. 나도 내가 인기 없는 놈인 걸 잘 알고 있어. 누구(개츠비)처럼 성대한 파티를 열 줄도 난 몰라. 하지만 아무 놈들이나 사귀기 위해 자기 집을 돼지우리로 만들진 않는다고. 돼지우리 그게 바로 현 시대의 모습 아니야!”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톰이 입을 놀릴(벌릴) 때마다 난 소리 내 실컷 그를 비웃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정도였다.

톰은 ‘난봉꾼’(바람난 사람. 톰은 윌슨 부인과 뉴욕에서 집을 빌려 딴 살림을 하고 있음)에서 ‘도덕군자인 척하는 사람’으로 완벽히 자기 자신을 탈바꿈시킨 것이다.

“당신께 말할 것이 있습니다, 형씨....”라며 개츠비(31세. 데이지의 연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데이지는 개츠비가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를 알아차리곤 말했다.

“제발 그러지 마!”라며 데이지가 무력하게 말을 가로막았다. “모두들 그만 집에 가자. 응. 우리 그만 집에 가는 게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라며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어서 일어나게, 톰. 오늘 술 마시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 봐.”

“아니 난 개츠비 씨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듣고 싶어졌어.”

“데이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며 개츠비가 말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합니다.”

“당신 미쳤군!”라며 무의식적으로 톰(30세. 데이지의 나쁜 남편)이 외쳤다.

그 소리에 개츠비가 몹시 흥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데이지는 당신을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소, 뭘 말인지 모르겠소?”라며 개츠비가 소리쳤다.

“데이지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한 것일 뿐이오. 당시 데이지는 나를 기다리다 지쳐 있을 때였소. 결혼은 끔찍한 실수였소.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있다면 그건 단지 나 뿐이오!”

이쯤에서 조단(21세 여. 닉 캐러웨이의 애인)과 나(30세 남. 이름이 닉 캐러웨이)는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톰(30세 남)과 개츠비(31세 남)가, 우리가 남아있어야 된다고 경쟁하듯 강력히 주장했다.

마치 일이 이 지경이 된 이상 더 이상 자신들에게는 숨길 것도 없었거니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리에 남아 자신들의 감정을 대리 경험하는 것이 특별한 은혜인양 말이다.

“데이지(23세. 톰의 아내)도 자리에 앉아봐.”라며 톰은 애당초 아빠 같은 말투로 말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더듬대며 말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모든 걸 당신 입으로 듣고 싶어.”

“좋소, 지금까지 뭘 일이 있어왔는지를 내 말해주겠소.”라며 개츠비가 말했다. “(우리의 만남은) 5년간 지속되어 왔소... 그리고 당신만 모를 뿐이요.”

톰(30세. 남편)이 데이지(23세. 아내) 쪽으로 급히 몸을 돌리며 말했다.

“그럼 당신이 이 자식과 지난 5년 동안을 만나 왔다는 애긴 거야?”

“그건 아니요.”라며 개츠비(31세. 데이지의 연인)가 말했다. “그렇지 않소. 우리 서로 만나지 못했었소. 하지만 우리 둘 다 모두 한시도 서로를 잊은 적이 없었소, 형씨. 그걸 당신(톰)만 몰랐던 것이요.

그것 때문에 난 이따금씩 소리 내 웃곤 했지.” 하지만 개츠비의 얼굴 어디에서도 웃음기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이 사실을 당신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웃겨서 말ियो.”

“아니... 그게 다라고?”라며 톰(30세. 데이지의 나쁜 남편)이 의자에 등을 뒤로 폭 기대고서는 자신의 두꺼운 손가락들로 목사님처럼 의자 손잡이 위에 탁탁 박자를 맞추며 말했다.

“당신 미쳤군!”라며 톰(30세. 데이지의 나쁜 남편)이 격분해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분명 태도를 달리하며 말했다. “난 지난 5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없어. 왜냐 하면 내가 그땐 아직 그녀를 모를 때였으니까. 그렇지만 도대체 우리 집 뒷문을 통해 매일 같이 식료품들을 배달해온 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지금 데이지의 1킬로미터 내에 들어오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거야 원 도무지 감도 잡을 수 없군. 하지만 웬걸 당신이 말한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모두 거짓이야. 나와 결혼할 당시 데이지는 나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녀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렇지 않소.”라며 개츠비가 자신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데이지의 나쁜 남편인 톰의 대사→) “그렇더라도 데이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소. 문제는 이따금씩 그녀가 어리석은 사상들에 빠져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지도 모르고서 행동한다는 것뿐이겠지.”

마치 자신이 현명한 남편인 척 ‘툼’(30세)이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말했다.

“게다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남편인 나도 역시 데이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요. 물론 나도 가끔씩은 한 바탕 옆길로 세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곤 했지. 하지만 그럴 때도 매번 그녀에게로 다시 돌아왔소. 내 심장에서, 사랑하는 이가 데이지라는 사실이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요.”

“어휴 역겨워,”라며 데이지가 말했다.

데이지(23세. 여주인공)가 내(30세. 데이지의 6촌 오빠임. 6촌은 아버지의 사촌형제의 아들)게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리고 한(1) 옥타브(음정)가 낮추어진 그녀의 목소리에 경멸적인 비웃음이 가득 고여 방안을 채웠다.

(데이지가 닉 캐러웨이를 바라보며 응접실 방안에 있던 모두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임→) “우리가 왜 갑작스레 시카고(미국)를 떠났는줄 알아? 그 별거 아니었다는 술잔치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해서 오빠(닉 캐러웨이) 귀에까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나는 그게 더 신기할 정도야.”

개츠비(31세 남)가 걸어가더니 데이지 옆에 섰다.

“자기, 이제 모두 바로 잡을 시간이야,”라며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것 외에는 더는 생각하지 마. 단지 그(툼)에게 진실만을 말하면 되. ‘당신이 그를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그럼 이 문제는 영원히 정리되는 거야.”

데이지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듯 개츠비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게?”

“당신(데이지)은 그(톰)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거야.”

데이지가 망설였다.

데이지의 눈이 조단과 나에게로 와 닿았다. 그건 일종의 호소였다. 마치 지금에서야 그녀(데이지)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지에 대한 자각을 이제야 하게 되었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죽(내) 내) 그 이상 어떤 다른 무엇인가를 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마냥 그녀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일은 저질러진 이후였다. 지금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이다.

“난 그(톰)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라며 데이지(23세 여)가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도 마지못해 하는 소리 같았다.

“‘카피올라니 공원’(하와이의 공원이름)에서도?”라며 톰이 불쑥 다그치고 들었다.

“그래(그래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뜨거워진 공기가 굽이쳐 상승하면서 아래층 댄스홀(무도장)에서부터 소리 죽인 ‘코러스’(노래) 소리들이 사람을 질식시킬 것 같이 밀려들고 있었다.

“당신 신발에 물기가 묻지 않게 하려고 내가 당신을 안고 ‘펀치 볼’(산허리의 우묵한 곳)에서부터 내려왔던 날에도?”

그(툼)의 억양 속에 거친 애정이 묻어났다....

(툼이 하는 대사→) “응 데이지?”

“제발 그만,”라고 말하는 데이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심한 증오는 사라진지 오래였다.

데이지가 개츠비를 바라보았다.

“있지, 제이(개츠비의 이름).”(제이=이름. 개츠비=성씨)라며 데이지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그녀는 지금 떨리는 손으로 담○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담○를 던져버리는 바람에 불씨가 남아 있던 성냥이 바닥 카펫 위로 떨어졌다.

“오, 당신(개츠비)은 너무 많은 걸 원해!”라며 데이지가 개츠비에게 우는 소리를 했다.

“난 지금 당신(개츠비)을 사랑해, 그럼 된 거 아냐? 나도 내 지난 과거를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데이지가 무기력해져서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한때지만 난 정말 그(=툼=남편)를 사랑했었던 말이야... 물론 당신(개츠비)도 역시 사랑했었어.”

개츠비의 눈이 크게 떠지더니 감겼다.

“나도 역시 사랑했었다고?”라며 개츠비가 재차(다시 한 번) 말했다.

“심지어 그 말조차 사실이 아니요.”라며 톼(30세. 데이지의 나쁜 남편)이 무자비하게 말했다. “데이지는 당신(개츠비)이 살아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어.(개츠비는 1918년 겨울에 유럽에서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군 중위로 참전하게 되면서 데이지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데이지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버렸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결혼까지 하게 된 톼입니다. 톼과의 결혼식 당일 날 받았던 편지가 개츠비의 편지였습니다. 데이지는 그 편지를 욕조에 담가버립니다.) 게다가... 아내인 데이지(아내)와 남편인 나(남편인 톼) 사이에는 당신(개츠비)이 도무지 알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소. 우리 둘 다(툼과 데이지) 절대 잊지 못할 추억들 말이요.”

추억이라는 단어가 개츠비를 사정없이 물고 늘어지며 육체적 상처를 입힌 듯 보였다.

“데이지와만 단 둘이서만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라며 개츠비가 주장했다. “그녀는 지금 너무 흥분한 상태라 제가....”

“당신과만 있어도 내 말엔 변함이 없어. 차마 내 입으로 톼(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는 말 못해.”라고 말하는 데이지의 목소리에는 가련함이 묻어 있었다. “그건 진실이 아닐 테니까.”

“물론 진실이 아니고 말고. 암.”라며 톰(30세. 데이지의 나쁜 남편)이 동의하며 말했다.

데이지가 자신의 남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마치 당신(톰)에게도 중요하다는 듯이 말을 하네.”라며 데이지가 말했다.

“물론 그 문제는 내게도 중요해. 내가 이제부터 아내인 당신(아내인 데이지)을 잘 돌봐주게 될 테니깐.”

“이해를 못하시는군,”라며 개츠비가 갑자기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들어내며 말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데이지를 염려해주지 않아도 될 처지란 것을 모르나.”

“내가?”라며 톰은 눈을 아주 동그랗게 뜨더니 꺄꺄 소리 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이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게 된 것에 대한 여유가 들어 있었다.

“그렇게 당신이 말하는 이유가 뭐요?”

“데이지가 당신을 떠날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지만, 난 그럴 거야.”라며 데이지가 눈에 뿜 정도로까지 가련한 노력을 기울이며 말했다.

“데이지는 나를 못 떠나!” 톰의 이 말이 개츠비를 위에서부터 덮쳐누른 것 같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손가락에 끼어줄 반지도 없어서 훔쳐야했었던 ‘소문난 사기꾼’(옛날 26세 때의 개츠비. 개츠비 현재 나이는 31세임) 때문에는 분명 아냐.”

“이런 대우를 도저히 못 참겠어!”라며 데이지가 외쳤다. “오, 제발 나 좀 가게 해죠.”

“도대체, 당신(개츠비) 누구야?”라며 톰이 폭탄 발언을 했다. “당신(개츠비) ‘마이어 울프샤임’(마이어=이름. 울프샤임=독일식 성씨)과 주로 어울려 다니는 무리들 중 하나지. 우연이었지만 나도 꽤 알게 되었다고. 게다가 당신이 벌인다는 그 개인적인 사무들에 대해서도 약간 뒷조사를 해왔고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고 보니 내일 좀 더 자세히 알아볼 마음이 샘솟는단 말이지.”

(앞뒤 설명 : 개츠비 자신의 지난 과거, 특히 20대 초반의 과거와 20대 후반 제대하고 나서 지 금처럼 돈을 벌게 된 과거에 대해서는 이 소설 앞 부분에서 개츠비가 말을 하고 또 개츠비에게 들었다며 이 소설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가 한 번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톰이 말하는 지금 이 개츠비의 과거가 제일 정확합니다. 즉 어찌되었건 개츠비는 유대인 출신 사기꾼이자 범죄자인 ‘마이어 울프샤임’과 사업상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 좋을 대로 생각하시오, 형씨. 그건 당신 자유니까.”라며 개츠비(31세. 데이지의 연인)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말했다.

“그 뭐시냐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 약국이라는 사업의 정체에 대해서도 내 좀 알아보았지.”라며 톰이 이번엔 우리들(닉. 조단. 데이지)에게로 몸을 돌리더니 빠르게 말을 이어갔다.

(아래는 톰의 긴 대사입니다. 너무 길어서 읽기 쉽도록 단락을 임의로 나누었습니다.)

(톰의 긴 대사 시작)

(큰 따옴표 열림→) “이 자(개츠비)와 이 ‘울프샤임’(유대인 사기꾼. 군에서 제대한 28세의 개츠비가 데이지를 찾아갔다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빈털터리가 되는데 그때 개츠비를 거두고 사업적으로 키워준 사람이 ‘울프샤임’이란 사기꾼은 여기(뉴욕)서부터 시카고(미국 북서부. 5대호가 있는 곳. 톰과 데이지가 뉴욕 근처<롱 아일랜드>로 이사 오기 전에 살 던 곳)에 이르기까지 뒷골목 약국들을 살 수 있는 건 죄다 사들였더구먼.

그래서 곡식(쌀이나 보리 또는 밀)으로 만든 ‘에틸알코올’(=술의 주성분. 흥분 및 마취 작용 있음.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마시면 취하고 중독도 될 수 있음. 소독약의 원료이기도. 사전▶ <http://me2.do/5QqiAseS> , 검색일자:2015-9-14)을 특별 허가도 없이 팔아왔더군.

(당시 1922년의 미국은 금주법이 시행중임. 금주 법은 술을 마시는 것은 관찮지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임. 이후 범죄조직들이 술을 몰래 판매하면서 급성장해감)

그게 바로 이 자의 별 시답지도 않은 ‘묘기’(=스턴트=곡예)들 중 하나였어. 내 이 자식을 처음 보자마자 ‘저 자는 정녕 주류 밀매업자(술을 사고파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말했지 않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 말이 아주 틀린 소리도 아니었어.” (←큰 따옴표 달힘)

(톰의 긴 대사 끝)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라며 개츠비(31세. 데이지의 연인)가 품위 있게 말했다. “당신 친구인 ‘월터 체이스’(월터=이름. 체이스=성씨. 체이스는 ‘쫓기는 짐승’이란 뜻임)는 그럼 그렇게도 자긍심이 세서 우리에게 가담한 것이오.”

(톰의 대사→) “이거 왜이래 당신네들이 그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둔 걸 내 모를 줄 알아? 게다가 녀석이 뉴저지(미국동부의 주)에 있는 교도소에 한 달 동안 갇히게 당신네들이 수수방관한 거잖아. 말하는 싸가지 하곤! 월터(톰의 친구 이름)가 당신네들에 관해서 뭐라고 했는지를 들려줬어야 하는 건데.”

(개츠비의 대사→) “그(월터)는 파산 후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우리를 찾아왔던 것이오. 그러다 우리 덕에 돈을 좀 쓸어 담게 되자 대단히 만족해했더랬지, 형씨.”

“나를 ‘형씨’라고 부르지 마시오!”라며 톰(30세. 데이지의 나쁜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것에 대해 개츠비(31세 남)는 뭐라 말하지 않았다.

톰이 계속 말했다.

“월터(톰의 친구)는 당신네들 전부를 내기도박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울프샤임’(유대인 사기꾼. 개츠비를 사업적으로 키운 사람)이 ‘월터’(톰의 친구)를 겁주는 바람에 녀석이 입을 닫아 버렸던 거야.”

개츠비의 얼굴에, 생소하지만 그래도 분간은 할 수 있었던 표정이 돌아온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약국 사업’(곡류로 만든 ‘에틸알코올’을 정부 몰래 사람들에게 파는 것)은 잔돈에 불과해.”라며 톰이 천천히 말을 계속 이어갔다. “그 뒤에 분명 뭔가가 있어. 지금 당장은 월터(톰의 친구)가 겁을 먹고 내게 말을 못할 뿐이지.”

나(30세. 이름이 ‘닉 캐러웨이’)는 할롯 데이지(23세. 개츠비의 연인이자 톰의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지금 몹시 겁을 집어 먹고 개츠비(31세. 데이지의 연인)와 자신의 남편(톰)과, 조단(21세. 프로여자골퍼선수이자 닉 캐러웨이의 애인이자 데이지와는 아는 고향 언니동생 사이)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다.

조단(21세)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무척 재미있는 물건 하나를 자신의 턱 끝 위에 올려놓은 마냥 이해득실을 견주어 보고 있었다.

이들 모두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나는 개츠비에게로 다시 고개를 돌리다 그만 그(개츠비)의 표정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의 표정은 마치 그가 막 사람을 죽인 것 같은 표정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걸 그의 정원(파티 장)에서 끊임없이 재잘거려지던 온갖 중상모략들을 모두 무시하고서 하는 말이다.

그 잠시 동안만이라도 개츠비의 얼굴 모습에 드러났던 표정을 이런 유별난 설명으로만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개츠비의 얼굴에서 그 얼굴표정이 사라졌다. 곧이어 개츠비가 톰이 얘기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을 열렬히 데이지에게 해대기 시작했다. 게다가 개츠비는 톰이 말하지도 않았던 여타 다른 죄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방어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츠비가 자신을 옹호하는 말을 한 마디 한 마디 내뱉을 때마다 데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녀 자신 속으로 움츠러들고 있었다.

그래서 개츠비는 변명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날 오후가 서서히 죽어 없어져가는 동안, 무감각해진 꿈(개츠비가, 성공해서 데이지와 결혼하고 싶었던 20대 때의 꿈)만은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것을 손대려하면서 허우적대고 있었고, 도로 주어 담을 수도 없는 방금 그 변명들을 편들며 행복도 아닌 그렇다고 절망도 아닌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데이지(23세. 개츠비의 연인이자 톰의 아내)가 다시 한 번 집으로 가자고 간청했다.

“제발, 톰(30세. 데이지의 나쁜 남편)! 이 이상은 못 견디겠어.”

데이지의 무서워하는 두 눈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가 전에 지니고 있었던 어떤 의지들도 그리고 어떤 용기도 그녀에게서 말끔히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당신 둘(개츠비와 데이지)이서 먼저 집으로 가지, 데이지.”라며 톰이 말했다. “개츠비 씨의 자동차(매우중요 ★ : 개츠비와 데이지가 뉴욕까지 타고 왔던 차가 아님. 누가 누구의 차를 타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차를 헛갈리시면 이후 내용을 이해 못합니다. 수첩에 적으신 후 계속 읽어세요. 개츠비와 데이지는 롱아일랜드에서 뉴욕으로 올 때는 ‘톰의 자동차’를 타고 왔다가 이제 뉴욕에서 롱아일랜드로 돌아갈 때는 ‘개츠비의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즉 차를 바꿔 타고 다시 출발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됨. “★차 바꿔 탐★” 꼭 기억~)로 말이야.”

데이지(23세 아내)가 톰(30세 남편)을 쳐다보았다가 오싹함을 느낀 듯 보였다.

하지만 톰은 마치 자신이 도량(마음)이 아주 넓은 양 계속 돌이켜 먼저 출발하라고 우겼다. 그건 조롱이었다.

“어서들 가봐. 이번엔 그(개츠비)도 당신을 귀찮게 하진 못할 테니까. 자신의 주제넘고 뻔뻔했던 짧은 희롱(연애)이 끝이 났음을 지금 막 그도 깨달았을 것 같거든.”

데이지(23세 여)와 개츠비(31세 남)는, 재빨리, 한 마디 말도 없이, 나가 버렸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우발적이게도 우리의 연민으로부터도 ‘환영’(나쁜 기억) 같이 멀어져갔다.

툼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은 위스키 병을 타월(수건)로 도로 감싸 포장하기 시작했다.

“이 위스키 좀 마셔볼 거야? 조단(21세. 닉의 애인)?... 닉(30세. 톼의 대학동기)?”

난 대답하지 않았다.

(좀 큰 소리로) “닉 (좀 마셔볼 텐가?)?”이라며 톼이 재차 물었다.

(닉의 대사→) “뭘?”

(툼의 대사→) “마셔볼 거냐 말이었어?”

(닉의 대사→) “아니... 이제야 막 기억난 건대, 오늘이 내 생일(30세 생일)이야.”

나는 이제 서른(30세)이었다. 내 전방에는 무섭고 해를 끼칠 것만 같은 또 다른 10년이 활짝 펼쳐져 있었다.

(참고사항 : ‘닉 캐러웨이’의 나이는 30세입니다. 7장에서 이제 막 생일이 지났으니깐요. 그 전까진 편의상 30세라고 한 건대 헛갈리지 마시길~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ㅎㅎㅎ 등장인물의 나이 계산을 잘못된 것을 이런 식으로 치유하는 센스~)

우리(‘닉’과 ‘조단’)가 그(툼)와 함께 쿠페형 자동차(=쿠페=앞에 2인 좌석+뒤에 접었다 폼다 할 수 있는 작은 여유 공간<멍멍이용>)에 몸을 싣고 ‘롱아일랜드’(뉴욕의 동쪽 방향에 있음)로 출발하기 시작한 것이 그러니까 오후 7시 무렵이었다.

가는 내내 툼은 그칠 새 없이 지껄어대고 있었는데 의기양양해보이기도 하고 때론 소리 내 웃기도 했다.

하지만 조단과 나에게, 툼의 목소리가 인도(도로 옆)에 있는 낮선 이가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소리’나 머리 위에 높다랗게 솟은 고가 도로에서 나는 ‘소음’만큼이나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다.

인간이 하루에 느낄 수 있는 공감의 크기에는 일정한 한계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린(‘닉’과 ‘조단’) 그들의 비참한 논쟁이 도시의 불빛들 뒤로 사그라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만족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른(30세)... 또 다른 10년의 외로움에 대한 기대, 알고 지내던 싱글 남녀들의 리스트가 하나둘씩 목록에서 지워지는 것, 열정이라는 이름의 서류가방이 훌쩍해지는 것, 그리고 머리카락들이 하나둘씩 빠지는 것.

하지만 내 곁에는 데이지와는 달라서 ‘완전히 잊힌 꿈들’(안 좋게 헤어진 옛 연인과의 추억)을 ‘대대손손’(개츠비와 데이는 5년 만에 다시 만난 것임) 마음에 담고 있을 수 없을 만큼 영리한(영악한) 조단이 있었다.

우리가 탄 자동차가 어두운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동안, 조단의 창백한(희미한) 얼굴이 내 양복상의 어깨부분에 게으르게 기대왔고 위안을 주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아줌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었던 서른(30세)의 타격(때림)에서 난 서서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냉각하는’(식고 있는) 땅거미를 관통해 ‘죽음’(동쪽 밤하늘)을 향해 차를 몰고 계속 나아갔다.

젊은 그리스(국가이름)인인 ‘마이클리스’(=미카엘)는 ‘젯더미 계곡’(쓰레기 하치장) 옆에서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가 바로 ‘사인’(죽은 원인) 규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격자였다.

마이클리스(=미카엘)는 찜통더위를 피해 오후 5시까지 자빠져 자다가 차량 정비소(커피 점 옆 건물에 있음)로 어슬렁어슬렁 건너가 봤는데 아 글썸 ‘조지 윌슨’(툼이 땀 살림을 차린 ‘윌슨 부인’의 남편 이름)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윌슨은 당시 끙끙 앓다 못해 정말로 병에 걸린 듯 창백해보였는데 윌슨 자신의 얇은 머리카락 색(윌슨은 얇은 금발임)만큼이나 핏색해보였고 또 온 몸을 연신 떨고 있었다.

(2장 #7에서 발췌. 조지 윌슨 인물묘사 ▶ “그때 정비소 주인(조지 윌슨)이 못 쓰서 버려야 할 판인 냥마조각(휴지)로 손바닥을 비비며 사무실 문에 나타났다. 그는 살결이 희고 금발을 한 남성이었다. 하지만 빈혈기가 있는 지 기운이 없어 보였다. 어렵풋하지만 잘 생긴 남자였다. 우리를 보았을 때, 그의

연한 청색 눈동자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한 가닥 희망이 샘솟는 듯했다.” ‘2장 #7’ 링크 ▶

<http://me2.do/x6OxrV0v>)

마이클리스(=미카엘)는 월슨에게 그만 침대에 가 누워 있으라고 조언했지만 월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듣질 않았다.

“그랬다가는 많은 일감을 놓쳐버리게 될 걸세.”

그렇게 월슨의 이웃사람인 마이클리스(=미카엘)이 월슨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동안 위층에서 쿵광 쿵광거리는 큰 소음이 발생했다.

“마누라를 저기에 가둬두었네.”라며 월슨이 태연스레 설명했다.

(월슨의 대사→) “마누라를 저기에 모레(이틀 후. 내일 톰의 자동차를 받아서 팔고 그 다음날 미국 서부로 이사를 가려는 계획임)까지 가두어둘 생각이네, 그런 다음에 우린 이사를 갈 걸세.”

‘마이클리스’(=미카엘. 젊은 그리스인. 커피 점 운영. 사건의 주된 목격자)로서는 기절초풍할 노릇이었다. 왜냐하면 그들(마이클리스와 월슨)이 지난 4년이 넘도록 이웃으로 지내왔었지만 방금 월슨이 내뱉은 말은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월슨은 매 맞는 남편이면 남편이었지 절대 아내를 방에 가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보통의 경우 월슨의 일상이라는 것이 자기 사무실 출입구에 의자를 하나 갖다놓고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도로를 가로 질러 내달리는 자동차들을 물끄러미 바라다보는 일이 다였기 때문이었다.

만약 누군가가 월슨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월슨은 이렇게 말하며 웃는 사람이었고 저렇게 말하라고 하면 저렇게 말하며 웃는 사람이었다. 무척 재미없고 자기 색깔이 없는 남자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런 월슨은 영락없이 아내에게 잡혀 사는 남편이지 아내에게 ‘해코지’(남을 해침)를 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알림 : 원문에 나와 있는 ‘마이클리스’(미카엘을 미국식으로 부른 이름)라는 이름을 이제부터 ‘미카엘’(성경에 나오는 대천사이름)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저자(피츠제럴드)의 의도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입니다. 미카엘은 대천사입니다. 매일 매일 발생하는 죽은 영혼을 신에게 데려가는 역할과 최후의 심판 날 때 인간의 영혼을 저울에 달고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를 낙원에서 지상으로 추방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도 대천사 ‘미카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미카엘에 대해 더 읽어보기<주의바람 : 종교적인 글임. 비종교인의 경우 거부감이 생길 수 있음> ► <http://me2.do/FKF0Cw5P> , 검색일자:2015-9-17)

그래서 ‘미카엘’(최후의 심판 때 인간의 영혼을 저울에 달고 변호해주는 대천사이름과 같음. 젊은 그리스인. 커피 점 운영. 사건의 주된 목격자)은 자연스레 그동안 뭘 일이 발생했었던 건지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웬걸 월슨(차량정비소 주인)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으려 들었다.

이렇게 미카엘이 꼬치꼬치 캐고 드니 월슨도 뭘 뻘 생각이 들었던지,

“자네 언제 어느 시각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는 질문 등등을 눈을 가름하게 뜨며 의심스레 묻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카엘의 맘이 편치 않으려들 때쯤 노동자들 몇 명이 문을 지나 자신의 식당(커피 점) 쪽으로 건너가는 모습이 보여 ‘기회는 이때다!’ 싶었던 미카엘은 “또 오지요~”라며 후다닥 월슨 곁을 떠났던 것이다.

하지만 미카엘은 그럴 수 없었다. 일이 바빠 그 약속을 잊었던 것이다. 그게 다였다.

식당에서 손님들이 나가고 한적해진 미카엘이 다시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가 그러니까 오후 7시를 약간 넘긴 시각이었다. 그때 차량 정비소 1층에서 누군가를 호되게 꾸짖고 있는 월슨 부인의 요란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미카엘은 자신이 월슨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 대화를 기억해냈던 것이다.

“때릴 테면 때려봐!”라고 말하는 ‘월슨 부인’의 목소리를 미카엘(커피 점 겸 식당 운영. 젊은 그리스인)은 들었다. (월슨 부인이 남편인 월슨에게 하는 말→) “어디 날 냅다 들었다가 내던져 보시지 때려 보라니까, 이 더럽게 모자란 겁쟁이 같은 자식아!”

잠시 후 월슨 부인이 두 손을 흔들고 고함을 질러대면서 ‘황혼’(=땅거미) 속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미카엘(커피 점 운영하는 젊은 그리스인)이 미쳐 가게 문에서 한 발짝도 더 내딛기 전에 이미 일(사건)은 끝난 상태였다.

“생명을 앗아간 그 자동차”는, 각종 신문 지상에 나온 대로 소개하자면, 멈추지 않았다.

그 자동차는 땅거미가 깔리고 있던 어둠 속에서 난데없이 솟구쳐 나와 잠시 끔찍한 사고 후 흔들리다 곧 그 다음 커브 길에서 난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미카엘(최후의 심판 때 인간의 영혼을 저울에 달고 변호해주는 대천사이름과 같음. 젊은 그리스인. 커피 점 운영. 사건의 주된 목격자)은 그 차의 색상을 확실히 구분할 수조차 없었다.

미카엘은 어쨌든 경찰관에게는 그 자동차가 밝은 색 계통의 초록색 같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자동차(차량 사고 목격자)도 한 대 등장한다. 그 자동차는 뉴욕으로 가고 있던 자동차였다. 그 차는 사고 지점에서 100미터(정확히는 90미터) 가량을 더 갔다가 이내 멈춰선 후 ‘머틀 월슨’이 도로에 무릎을 꿇고 있던 지점으로 그러니까 그녀의 생명의 불꽃이 난폭하게 제압당해버린 후 그녀의 걸쭉하고 시꺼먼 혈액들이 먼지와 뒤섞여 있던 그 지점으로 황급히 되돌아왔다.

미카엘(최후의 심판 때 인간의 영혼을 저울에 달고 변호해주는 대천사이름과 같음. 젊은 그리스인. 커피 점 운영. 사건의 주된 목격자)과 이(이것저것 할 때의 '이') 남성(뉴욕방향으로 향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차량 사고 목격자)이 '머틀 윌슨'(차량 사고 피해자)에게 제일 처음 당도한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해 아직도 발한(땀) 작용으로 축축한 상태에 놓여있던 블라우스(여자 셔츠)를 찢어 숨을 쉴 수 있게 열어보았지만 단지 봉투의 접어 젖힌 부분마냥 느슨하게 매달려 흔들거리고 있는 그녀의 왼쪽 가슴만이 보였을 뿐이고 왼쪽 가슴 밑에 있는 심장 소리는 들어보다 마나였다(죽었다는 얘기임).

그녀의 입은 두 모서리가 찢겨져 나간 채 널따랗게(넓게) 벌려 있었다. 마치 그녀가 오랫동안 축적해왔었던 그 엄청난 생명의 활력을 포기하는 순간에 그녀가 약간 숨이 막혔던 마냥.

(다시 닉과 톰 그리고 조단이 탄 자동차 안으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우린(닉과 톰 그리고 조단) 3대 내지는 4대 정도의 자동차들이 무리 지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아직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얼마간 거리가 있을 때였다.

“사고 났군!”라며 톰(30세. 데이지의 나쁜 남편)이 말했다. “나름 잘 났군. 그래야 윌슨 그 자식도 좀 먹고 살 게 아닌가. 떠나기 전에 말이야.”

툼이 자동차를 슬슬 몰았다. 물론 그에게 멈출 의도는 전혀 없었다. 우린 그들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입을 다물고서 뭔가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경찰관들)의 얼굴들을 보자마자 툼은 무의식적으로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았다.

“좀 들렸다 가도 늦진 않을 거야.”라며 툼이 아직 내릴지 말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마냥 좀 미답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럼 잠깐 둘러볼까.”

나(30세. 이름이 ‘닉 캐러웨이’)는 그제야 차량 정비소로부터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어떤 공허한 통곡 소리 같은 걸 인지하게 되었다.

그 통곡 소리는 우리가 쿠페형 자동차(2인승)에서 내렸을 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니 우리가 문 쪽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더욱 더 분명한 음성을 띄더니 결국 “오, 하느님!(원문엔 ‘오 마이 갓!’이라고 되어 있음. 심한 욕설임. 이런 말 하면 큰일 남-_-;;)”이 되더니 이내 숨이 가빠지며 끄끙 앓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신음소리 비슷한 뭔가를 내고 있었다.

“여기서 뭔가 꽤 끔찍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라며 툼이 몹시 흥미진진해 했다.

툼(30세. 데이지의 나쁜 남편이자 윌슨 부인의 연인)이 발끝으로 조용히 걸어가더니 차량 정비소 안에 원을 그리며 모여 있던 머리들 너머를 훑쳐봤다.

머리 높이 ‘철사로 만든 바구니’ 하나가 흔들리는 있었는데, 그 ‘철사로 만든 바구니’ 안에 노란 색 전등 하나가 홀로 켜져 그 곳을 밝히고 있었다.

그 순간 톰의 목에서 “헉!”하는 거친 소리가 들리더니, 톰이 자신의 힘센 두 팔로 난폭하게 길을 내며 혼잡한 사람들 속을 헤집고 들어갔다.

“뭐고!”, “뭐고!”라는 훈계의 불평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던 원이 다시 닫혔다.

잠시 나는 전혀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때 새롭게 도착한 구경꾼들이 줄을 교란시키면서 그 덕에 ‘조단’(21세 여. 닉의 애인)과 ‘난’(30세 남. 이름이 ‘닉 캐러웨이’) 돌연 ‘원’(사람들이 모여 있던 원) 안으로 불쑥 밀려들어가고 말았다.

‘머들 윌슨’(머들=이름. 윌슨=남편의 성씨)의 시신은, 담요 하나에 감싸여 있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시신은, 그녀가 이 뜨거운 한여름 밤에 한기(추위)로 고통 받기라도 하는 마냥, 담요 하나를 더 사용해 감싸여진 후 벽 옆에 있던 ‘작업대’(책상) 위에 올려 놓여져 있었다.

톰(30세. 머들 윌슨의 연인)은 우리(‘조단’과 ‘닉’)에게 등을 보이고서 ‘머들 윌슨’의 시신 위로 몸을 숙인 채 아까부터 까딱도 하지 않고 있었다.

톰 바로 옆에는 ‘모터사이클(오토바이) 경관’ 한 명이 조그만 한 자신의 수첩에다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적었다가 수정했다가를 반복하면서 사건 관련 이름(사람이름)들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 가구가 하나도 없는 차량 정비소 전체를 통해 시끄럽게 메아리 치고 있는 높고 끔
끔 앓는 듯한 목소리의 기원(출발)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자기 사무실 ‘높다란 문지방’(입구)에 붙어서는 두 손을 두 문기둥에 붙이고는 앞으로 뒤
로 흔들고 있는 ‘월슨’(‘머들 월슨’의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떤 남성(이름이 ‘미카엘’. 차량정비소 옆 커피 점을 운영하는 젊은 그리스인)이 낮은 목소리로
월슨에게 말을 걸어보고 있었다. 그는 이따금씩 타이르려는 듯 월슨의 어깨에다가 한 쪽 손을 얹어보려
고 시도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월슨은 아무의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았
다.

월슨의 두 눈이 ‘흔들리고 있던 전등불’에서부터 천천히 낮추어지더니 ‘벽 옆 책상 위에 놓인 시
신’과 마주치곤 했는데 그런 다음에는 어김없이 확 다시 전등을 보곤 했다. 그러면 그의 입에선 어김없이
높고 끔찍한 울부짖음이 그칠 새 없이 흘러나왔다.

“오, 하—느님! 오, 하—느님! 아, 하—느님! 아, 하—느님!”

이내 곧 ‘툼’(30세. 죽은 윌슨 부인의 연인)이 “핵!”하고 고개를 들어 얼(정신)이 나간 눈빛으로 차량 정비소를 빙 둘러보더니 전혀 종잡을 수 없는 말을 입속으로 뭐라 중얼거리며 경관에게 이 시신에 대한 자기 소견을 말하고 있었다.

“므아이,”라며 경관이 말하며 받아쓰고 있었다. “오— —”

“아뇨 아뇨, ‘료’라니까요,”라며 그 남성이 수정해주고 있었다. “마브료— —예요.”

“내 말 듣고 있는 거요!”라며 톼이 거칠게 항의했다.

“‘료’라고 그랬지.”라며 경관이 말했다. “료— —”

“고— —”

“고’라고 — —” 그때 참다못한 톼의 거친 손이 세차게 경관 자신의 어깨를 덮치자 그제야 경관이 톼을 물끄러미 올려다보며 말했다. “뭐요, 친구(당신 뭐요)?”

(톰의 대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그게 내가 알고 싶은 바요.”

(경관의 대사→) “차가 사람을 치었소. 그녀는 즉사(바로 죽음)했소.”

“즉사했다고,”라며 톰이 머리털을 곤두세우며 되풀이해 말했다.

(경관의 대사→) “그녀가 도로로 뛰어 들었을 때. 어떤 미친 새끼가 차를 멈추지 않고 지나갔던 거요.”

“자동차는 두 대였습니다.”라며 미카엘(커피 점을 운영하는 그리스 청년)이 말했다. “한 대는 뉴욕으로 가는 자동차였고, 다른 한 대는 뉴욕에서 오는 자동차였습니다. 제가 봤다니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소?”라며 경관이 예리하게 물었다.

“차는 제각기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월슨 부인)가 갑자기....”라며 미카엘(커피 점을 운영하는 그리스 청년)의 손이 담요들로 덮여 있는 그녀의 시체 쪽으로 올라가다 도중에 멈추고는 다시 자신의 옆구리로 와 닿았다. “그녀(월슨 부인)가 갑자기 뉴욕에서 이리로 오고 있던 자동차 한 대로 뛰어 들지 뭐예요, 그러다 차에 정면으로 치인 것입니다. 그 차는 아마 시속 50에서 60 킬로미터 정도를 밟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지명이 어떻게 되오?”라며 그 경관이 물었다.

(미카엘의 대사→) “이름 같은 건 없는 곳인덱쇼.”

그때 이들 가까이에 색깔이 약한 흐린 옷을 아주 깔끔하게 입고 있던 흑인이 한 명 서 있었다.

“노란 색 자동차였습니다.”라며 그 흑인이 말했다. “노란 색으로 도색된 대형 자동차였습니다. 신형이었어요.”

“그럼 사고를 목격했던 말ियो?”라며 경관이 물었다.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있던 흑인의 대사→)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동차가 제 옆을 지나 도로를 내려가는 걸 봤는걸요, 시속 60 킬로미터 보다 더 빨리 내려가더이다. 적어도 시속 80에서 100킬로미터까지는 밟아대는 것 같았습니다.”(최초 목격자는 시속 40~60킬로미터로 달린 것 같다고 말했었음)

(경관의 대사→) “이리 좀 와보시오. 그래 당신 이름이 뭐라고요? 가만 보자 여기에 적으면 되겠군. 자 당신 이름을 천천히 불러주시구려.”

이들이 나눈 대화들 중 몇몇 단어들이 사무실 문기둥을 붙들고서 몸을 흔들고 있던 윌슨(윌슨 부인의 남편)의 귀에까지 닿았음이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숨이 멎을 것 같던 그의 외침들 사이로 새로운 논지(취지)의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뭔 놈의 차(자동차)였는지 내게 말할 필요가 없어! 어떤 종류의 차(자동차)였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툼(30세. 죽은 ‘월슨 부인’의 연인)을 바라보고 있던 나는 그의 등 쪽 근육이 양복상의 밑으로 터질 듯 팽팽해지는 것을 보았다.

툼이 성큼성큼 ‘월슨’(월슨 부인의 남편)이 있는 쪽으로 걸어다더니 월슨 앞에 어깨를 딱 벌어서 서서는 자신의 팔꿈치부터 어깨까지로 월슨을 단단히 거머쥐었다.(상대방의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집어넣어 일으켜세우듯 붙들었다는 얘기임)

“진정 좀 해봐,”라며 부드럽지만 걸걸한(무뚝뚝한) 목소리로 툼이 말했다.

월슨의 두 눈이 툼과 마주쳤다. 월슨이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며 자신의 발끝을 치켜세우는가 싶더니 이내 곧 계속된 긴장상태 때문인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것을 툼이 가까스로 월슨을 붙잡아 바로 세워주었다.

“들어봐,”라며 툼(30세. 죽은 ‘월슨 부인’의 연인)이 월슨(‘월슨 부인’의 남편)을 약간 흔들더니 말했다. “난 방금 막 뉴욕에서 이곳으로 온 거야.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던 바로 그 ‘쿠페형 자동차’(2인승)를 자네에게 건네려고 오던 길이었고. 오늘 오후에 내가 몰고 왔던 그 노란색 자동차는 원래는 내 것이 아냐.... 들고 있는 거야? 난 오후 내내 그 노란색 자동차를 본 적도 없단 말이야.”

툼이 말한 내용을, 그의 가까이에 있던 흑인(옷을 깔끔하게 입고 있던 흑인. 사고 차량목격자 중 한 명)과 나(30세. 이름이 ‘닉 캐러웨이’. 툼의 대학동기) 정도만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툼이 생각 이상으로 열을 냈기 때문인지 툼의 억양 속에서 뭔가를 감지한 경관이 매서운 눈을 하고서 툼을 훑어보았다.

(지도 관련 참고설명 : 아래는 참고사항 :)

소설 속 배경입니다.)

▼ 구글 지도 참조 2 (자동차 사고 지점)

검색어 ‘젯더미 계곡(쓰레기 하치장)’(=퀸스 자치구=지도에 있는 녹색단추)(퀸스 자치구 = 뉴욕 안쪽<동쪽>)

“무슨 일로 이 야단이요?”라며 경관이 다그쳤다.

“난 이 사람의 친구요.”라며 톰(30세. 죽은 ‘월슨 부인’의 연인)이 두 손으로는 여전히 서서로 무너지려 하고 있던 월슨의 몸을 바로 세우면서 고개만 경관 쪽으로 돌리며 말했다. “사고를 낸 그 차량을 이 사람이 안다고 말하고 있던 참이요.... 노란 색 차량이라고 하요.”

다소 어렵풋하게나마 축(경찰의 직감)이 왔던지 그 경찰관이 톰을 대단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경찰관의 대사→) “그래 당신(톰) 차량의 색깔은 무엇이요?”

(톰의 대사→) “푸른색이요, 쿠페형 자동차(2인승)요.”

(닉의 대사→) “우린 뉴욕에서 공장 오고 있던 길입니다.”라며 내(30세. 이름이 ‘닉 캐러웨이’. 톰과 같은 예일 대학교 출신 동기)가 말했다.

우리 약간 뒤에서 차량을 몰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이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이 우리에게 관심을 꺼버렸다.

(경찰관이 흑인에게 하는 대사→) “자, 아까 하던 얘기가 마저 합시다. 당신 이름이 뭐라고요...?”

마치 아기 인형을 드는 것처럼 월슨을 번쩍 들어 올린 톰이 사무실 안으로 그를 옮겨 의자 위에 앉히곤 다시 문가로 나와서 말했다.

“누구 이 친구(월슨) 옆에 붙어 있어줄 사람 없소!”라며 무척 권위적으로 톰이 말했다.

그때 두 남성이 톰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 서로 마주 보고는 전혀 내켜하지 않으며 사무실(월슨이 있는 곳)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톰은 그들 뒤로 문을 닫고서는 한 발짝 물러섰는데 이번엔 작업대 위에 있는 월슨 부인의 시선 쪽으로 눈이 가지 않도록 피했다.

톰이 내 바로 옆을 지나치며 아주 낮게 속삭였다.

“그만 나가세.”

남의 시선을 의식해 두 팔을 위압적으로 놀리며 길을 가르던 톰을 뒤따라 우리(닉과 조단)가 여전히 몰려들고 있는 군중들 속을 막 통과해나갔을 때 품에 가방을 든 의사 한 명이 허겁지겁 우리 곁을 지나쳐갔다. 30분 전에 터무니없는 희망을 바라고서 사람을 보내 부른 의사였다.

저쪽에 있던 커브 길에 다다를 때까지 톰은 천천히 자동차를 몰았다. 그런 다음 그의 발이 액셀러레이터를 급히 밟았고 우리(톰. 닉. 조단)가 탄 쿠페형 자동차(2인승)는 밤을 가로지르며 도로를 따라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얼마 안 가서 나는 톰이 쉰 목소리로 “끄옥끄옥”거리며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얼굴 위로 눈물방울들이 강물이 범람하듯(넘치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빌어먹을 겁쟁이 같은 새끼!”라며 톰이 울먹였다. “자동차를 멈출지조차 않았어.”

비밀스레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던 나뭇잎들 사이로 ‘뷰캐넌’(톰=이름. 뷰캐넌=성씨) 부부의 저택이 불쑥 우리 곁으로 떠올랐다.

톰(30세. 데이지의 남편)은 포치(기둥과 지붕만 있는 개방된 현관) 옆에 자동차를 대고서는 2층을 올라다보았다. 담쟁이덩굴 사이로 ‘2층에 있던 창문 2개’에서 불빛이 환하게 세어 나오고 있었다.

“데이지(23세. 톰의 아내이자 개츠비의 연인)가 집에 들어온 모양이군.”라며 톰이 말했다.

우리(조단과 닉)가 차 밖으로 내려서자 톰이 나를 힐끗 쳐다보며 약간은 찡그린 얼굴로 말했다.

“이런, 자넬 ‘웨스트 에그’(서쪽 달걀. 신흥부자들의 동네. 닉과 개츠비의 집이 있는 지역.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에 내려주고 왔어야 하는 건데, 닉(30세. 닉=이름. 개러웨이=성씨. 톰의 동기. 예일대학교 동기). 오—늘(오늘)밤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웨스트 에그’(=서쪽 달걀=신흥부자들의 동네=닉과 개츠비의 집이 있는 지역=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툼에게서 변화가 느껴졌다. 좀 더 결연하고 엄숙하게 말을 했다.

우리가 달빛이 수놓은 자갈을 가로질러 포치(기둥과 지붕만 있는 개방된 현관)까지 걷는 동안 톼(30세)이 그 문제(밤늦게 집에 가는 문제)를 쌀쌀맞은 몇 마디 말로 해결지어 버렸다.

“자네가 귀가할 수 있게 택시를 한 대 부르겠네, 잠시 조단(21세. 닉의 애인)과 자넨 부엌으로 가 있어, 가벼운 식사라고 내어달라고 하든가.... 좀 출출하면 말이야.”

툼이 문을 열며 말했다.

“들어와.”

(닉의 대사→) “사양하겠네. 하지만 택시를 부르는 건 찬성이야.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네.”

조단이 내 팔 위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대며 말했다.

“닉 오빠, 안 들어갈 거야?”

(닉의 대사→) “사양한다고 말했어.”

난 이 시점에서 약간의 메스꺼움을 느끼고 있었다. 정말이지 혼자서 있고 싶었다.

하지만 조단(21세 여. 닉의 애인)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좀 더 보냈다.

“이제 9시 30분밖에 안 됐어,”라며 그녀가 말했다.

나보고 들어가라고, 내가 빌어먹을 놈이 아닌 이상.

난 정말이지 오늘 이 하루만으로도 정말이지 이들 모두(툼. 데이지. 조단)에게 질릴 대로 질려 있었던 것이다.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조단(21세 여. 닉의 애인)도 역시 그들 중 한 명이였다.

조단은 내 얼굴표정에서 뭔가 낚새를 눈치 챈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돌연 몸을 돌리더니 포치(기둥과 지붕만 있는 개방된 현관) 계단들을 뛰어 올라가 저택 안으로 들어 가버렸기 때문이다.

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몇 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적어도 저택 안쪽에서 집사(집 일을 돌보는 사람)가 수화기를 들고서 택시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난 그러고 있었다.

그런 다음 난 모든 것이 난파당한 심정 마냥 심적으로 진절머리를 치며 도로를 벗어나 그 저택
에게서 멀어졌다. 저택 가까이에서도 기다리기 싫었다. 그냥 정문에서 택시를 기다릴 작정이었다.

내가 채 20미터를 못 내려갔을 때였다. 어디선가 내 이름(‘닉 캐러웨이’)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
는가 싶더니 ‘개초비’(31세. 데이지의 연인. 제이=이름. 개초비=성씨)가 두(2) 관목(사람 키보다 작고,
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없으며, 가지가 엄청 많은 나무들. 관목사진링크 ▶ <http://me2.do/GRbfvuCA> ,
검색일자:2015-8-11)들 사이에서 성큼 걸음을 옮기더니 길로 나왔다.

그 바람에 난 간담이 다 서늘해졌었는데, 다름 아니라 그의 분홍색 정장(양복)이 달빛 아래에서
유달리 밝게 빛나고 있어 그 분홍색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뭐 하고 계신 겁니까?”라며 내(30세 남)가 물었다.

“단지 그냥 좀 서 있었을 뿐입니다요, 형씨.”

아무리 그렇다해도 이렇게 남의 집 정원에 서서 망을 보는 개초비의 행동은 야비한 짓인 것 같
았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을 보고 내가 받은 생각은 온통 이제 곧 개츠비가 뷰캐넌 부부의 저택을 털(도둑질)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의 뒤에 있던 어두운 관목 숲 속에서 울프샤임(유대인 사기꾼이름. 개츠비를 사업적으로 일으켜 세운 사람)의 딸마니들이(무리)들이 사악한 얼굴들을 내밀며 “씨익!”하고 웃어보였더라도 난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도로에 무슨 문제라도 있단 말씀입니까?” 잠시 뜬눈을 들인 후 내가 물었다.

“네?”

개츠비가 주저했다.

“그녀(자동차에 치인 ‘윌슨 부인’)는 죽었습니까?”

“네.”

“저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데이지(23세. 개츠비의 연인)에게도 그런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충격도 한꺼번에 다 거머쥐는 게 좋으니까요. 다행히도 데이지는 그걸 아주 잘 견뎌내더군요.”

개츠비는 마치, 이 세상에서 데이지의 반응 외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 마냥 말을 했다.

“셋길(옆길)로 해서 ‘웨스트 에그’(서쪽 달갈. 신흥부자들이 사는 동네. 개츠비와 닉의 집이 있는 동네)까진 갔습니다.”라며 개츠비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 다음 제(나의) 차고지에 그 차량(윌슨 부인을 친 사고 차량)을 넣어두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확신이야 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웨스트 에그’(=서쪽 달갈=신흥부자들의 동네=닉과 개츠비의 집이 있는 지역=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이때까지 난 그(개츠비)가 정말이지 지독히도 미웠다. 당연히 그가 나쁘니 마니 하는 말을 건넬 필요조차도 못 느끼고 있었다.

“그래 그 여성이 누구라고 하던가요?”라며 개츠비가 물었다.

“그녀의 이름은 ‘윌슨’입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 차량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남성이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래 도대체 어떻게 하다 그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글쎄, 저도 핸들(자동차의 핸들)을 막 꺾으려고 했었는데 그만....”

그러더니 그는 입을 닫아 버렸다. 순간 이 사건의 진실이 무언지하는 강한 의구심이 내게 들었다.

(닉의 대사→) “데이지(닉의 6촌 여동생)가 운전을 했던 말씀이십니까?” (6촌은 아버지의 사촌 형제의 딸)

(아래의 글 모두 개츠비의 긴 대사입니다.)

끝)

“예.”라며 잠시 뒤 개츠비(31세. 데이지의 연인)가 말했다.

(개츠비의 긴 대사 시작→) “하지만 제가 운전했다고 말할 겁니다. 아시죠? 저희(개츠비와 데이지)가 뉴욕(뉴욕 ‘프라자 호텔’)을 출발했을 당시만 해도 데이지의 신경이 엄청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들도 크게 틀지 않고 곧장 달리기만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여성이 저희 쪽을 향해 뛰어들이 뭐니까.

그 순간 반대쪽 차선에서도 다른 자동차 한 대가 우릴 막 통과하고 있었어요.

일이 벌어지기까지는 채 1초도 더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우릴 그녀가 알고 있던 다른 누군가(=톰. '월슨 부인'은 이 차량을 톰의 차량으로 착각했음)로 착각했나봅니다.

글쎄, 데이지도 처음엔 그 여성을 피해 핸들을 반대쪽으로 돌렸는데 때마침 반대쪽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바람에 더 당황한 데이지가 그만 핸들을 다시 그 여성 쪽으로 돌렸고 제(개츠비) 손이 미처 핸들에 가 닿기도 전에 우린 묵직한 충격음을 들은 겁니다. 전(저는) 순간 그 여성이 즉사했으리라 직감했습니다.” (←개츠비의 긴 대사 끝)

(지도 관련 참고사항 : 아래는 참고사항 :)

소설 속 배경입니다.)

▼ 구글 지도 참조 1

검색어 '데이지의 집'(=이스트 에그=동쪽 달걀=상류층 사회 기존 부자들의 동네=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육 안쪽<동쪽>)

“(그녀의 입이) 찢겨져 나간 채 널따랗게(넓게) 벌어져 있었....” (7장 #90에서 발췌. “그녀의 입은 두 모서리가 찢겨져 나간 채 널따랗게(넓게) 벌려 있었다.” 링크▶ <http://me2.do/5Mlvq9BD> , 검색 일자:2016-9-21)

“제게 말 안하셔도 됩니다, 형씨.” 개츠비가 움찔하며 말했다. “여하튼... 데이지(23세 여)는 계속 밟았어요. 전 그녀를 멈추게 하려고 애썼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제가 비상용 급브레이크를 밟고 난 후에야 우린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제 무릎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운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개츠비의 대사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녀는 내일까지 무사할 겁니다,” 이내 곧 개츠비(31세. 데이지의 연인)가 말했다. “제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오늘 오후에 있었던 불화(오해)에 관해서 그(툼)가 그녀(데이지)에게 해코지라도 하려드느지를 감시하기로 했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그(툼)가 야만적인 행위(폭행)라도 할 것 같으면 그녀(데이지)가 2층 자기 방문을 잠그고서 조명을 계속 깜박거리면서 제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툼(30세 남편)은 그녀(23세 아내인 데이지)에게 난폭한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라며 내(30세. 툼의 대학동기이자, 데이지의 6촌 오빠)가 말했다. “그(툼)는 오늘 그녀(데이지)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는 이유 → 툼의 연인인 ‘월슨 부인’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기 때문임)

(31세 개츠비의 대사→) “전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형씨.”

(30세 닉의 대사→) “얼마동안 더 기다리실 참이시죠?”

(31세 개츠비의 대사→) “필요하다면, 밤새도록요. 아니면 적어도 그들(툼과 데이지) 모두가 잠 자리에 들 동안만이 라도요.”

문득 새로운 견해 하나가 내게 떠올랐는데, 다름 아니라 만일 툼(30세 남편)이, 운전한 것이 자신의 아내인 데이지(23세 여)란 것을 알게 된다면?, 이었다.

그럼 이 속에 담긴 연결고리를 그가 볼지도 몰랐다... 정말 그가 어떤 생각을 할는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저택 쪽을 바라다보았다. 1층 창가 두(2)~세(3)군데에 환하게 조명이 켜져 있었다. 2층 데이지의 방에서도 분홍빛깔 조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여기 계셔 보십시오,”라며 내가 말했다. “제가 뭔가 소동의 낚시라도 있는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소설 속 시간적 배경 : 1922년 9월. 책이 출간된 때는 1925년임.)

(‘닉 캐러웨이’가 처음 데이지의 집에 초대되어 함께 식사를 한 것이 1922년 6월의 저녁때임.)

나는 잔디밭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사뿐히 자갈길을 가로지른 후 베란다(발코니) 앞 계단들까지 발끝을 세워가며 걸었다.

응접실 커튼들이 열려있었다. 커튼들 사이로 훑하니 비어있는 안쪽이 보였다.

3개월 전 '6월 저녁 때'(그럼 지금이 9월이군요. ^^)쯤 거기서 저녁 식사를 함께 들었던 '포치'(기둥과 지붕만 있는 튀어나온 현관)를 가로질러 건넌 후 빛을 품고 있는 작은 사각형이 보이는 데까지 나아갔다. 배전실(싱크대와 선반이 있는 공간. 손님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기 위해 사용) 창문이라 생각되는 곳이었다. 블라인드(가림 막)가 쳐져 있었지만 창문턱(창문 밑)에 있던 갈라진 틈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데이지(23세. 아내)와 톰(30세. 남편)은 부엌 식사 테이블에 서로 마주보며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식어버린 후라이드 치킨(튀긴 닭) 한 접시와, '에일'(쓴맛이 나는 맥주. 사진링크▶ <http://me2.do/xPg8hQ0R> , 검색일자:2015-9-6)이 담긴 맥주 병 2개가 놓여 있었다.

톰(30세. 남편)이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그녀에게 뭐라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사뭇 진지한 이야기가 오고가는지 톰이 두툼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품듯 토닥이고 있었다.

가끔씩 데이지는 그런 톰을 쳐다보며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그들(툼과 데이지. 남편과 아내)은 행복해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후라이드 치킨(튀긴 닭)이나 에일(맥주)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불행해보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었다.

그들 부부의 모습 주변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친밀함이 자연스레 묻어나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을 모르는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았다면 그들 부부가 뭔가를 공모하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내가 다시 발끝을 세워가며 ‘포치’(기둥과 지붕만 있는 현관. 저택 앞부분에서 돌출된 입구)에서 멀어져 나왔을 때 집사가 부른 택시가 어두운 도로를 따라 저택 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개츠비는 약속대로 내가 떠나 왔던 도로 가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이상이 없던가요?”라며 개츠비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았다.

“예, 쥐죽은 듯 조용하던데요.”라고 말한 후 난 잠시 주저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도 쉬셔야지요.”

그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전(저는) 데이지(23세 여)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기 남아 지키고 싶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형씨.”

개츠비는 두 손을 자신의 양복 상의 호주머니 속에 넣고는 뷰캐넌 부부의 저택 안전이 최우선인 양 뒤돌아섰다. 내 존재가 마치 신성불가침한 자신의 철야(밤새) 불침번(지킴이)의 이상을 훼손시키기라도 한다는 듯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키면서 달빛 속에 서 있는 그를 뒤로하고서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8 장

VIII

제 8 장

나(30세. 이름이 '닉 캐러웨이'. 개츠비의 옆집에 삶)는 밤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크고 거친 신음소리가 해변 가에서 끊임없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꿈들과 싸움을 벌이며 '이상한 현실'과 '야만' 사이를 넘나들며 반쯤은 아픈 상태에서 몸을 뒤척여야했다.

새벽이 다가올 때쯤 개츠비(31세. 데이지의 연인) 집 앞 도로가로 택시 한 대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그에게 무언가를 말해야 할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건 일종의 경고였다. 아침엔 이미 너무 늦고 말 것이었다.

(8장의 배경 설명 : 아래는 참고사항 :)

소설 속 배경입니다.)

[아래의 지도 두개를 보는 요령 : ‘월슨의 차량정비소’에서부터 ‘개츠비의 집’까지 가는 대략적인 방향]

▼ 구글 지도 참조 1

검색어 ‘개츠비의 집’(=웨스트 에그=서쪽 달걀=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 구글 지도 참조 2

검색어 ‘월슨의 차량정비소 위치’ (=‘젯더미 계곡<=쓰레기 하치장>’=뉴욕의 ‘퀸스 자치구’=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개츠비의 잔디밭을 가로지르면서 보니 저택(개츠비의 저택) 현관문이 아직 열린 채로 있었고 홀(복도)에 있던 테이블에 기댄 채 엄청 낙담했거나 아님 엄청 졸린 상태인 그가 보였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시다,”라며 그가 힘없이 말했다. “전 기다렸죠. 대략 새벽 4시 정도 쯤해서 데이지(23세. 개츠비의 연인이자 톰의 아내)가 창가로 나와 잠깐 거기서 서 있는가 싶더니 웬걸 요 이내 불을 꺼버리더군요.”

우리가 담○(피우는 담○)를 찾아 그 큰 방들을 온통 뒤져댄 그 날 밤만큼 개츠비의 집이 이토록 거대하게 내게 다가왔던 적도 없었다.

큰 천막 같은 실내커튼들을 한쪽으로 제치고 전등불 스위치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수만 미터나 되어 보이는 거무스름한 벽들을 손으로 느껴야했기 때문이다.

한번은 그림자 같은 피아노 건반들 위에 물방울 튕기듯 주저앉기도 했다.

곳곳에 상상할 수도 없는 양 만큼의 먼지들이 잔뜩 끼 있었다. 룸(방)들은 또 어찌나 곰팡내가 나던지 마치 여러 날 동안 전혀 방 환기를 시키지 않은 것만 같았다.

나는 낮이 익지 않은 테이블 위에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고 있던 담○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신선미가 떨어지고 메마른 담○ 두 개비가 있었다.

프랑스풍의(프랑스 양식을 한) 응접실 창문들을 개방하고서 우린 캄캄한 바깥을 향해 담○연기를 내뿜어대며 자리에 앉았다.

“어디, 잠시 떠나 계십시오,”라며 내(30세. 닉 캐러웨이)가 말했다. “경찰들이 당신의 차의 행방을 좇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지 않습니까?”

“어딜 떠나 있으란 말이오, 형씨?”

“대서양(바다) 연안의 도시로 한 1주일 정도치만 가 계십시오, 아님 몬트리올(캐나다 남동부, 퀘벡 주에 있는 도시이름) 쪽도 좋겠네요.”

그건 그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항목들이었다. 그는 지금 데이지만 홀로 남겨두고서 어딜 갈 마음이 전혀 없었다(원문→데이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알기 전까진 그가 데이지 곁을 떠날 리는 만무했다).

그는 지금 마지막 희망의 끈아풀(데이지가 톰과 이혼하고 자신에게 돌아와 그들이 함께 데이지의 고향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린 후, 지난 5년간의 방황들을 모두 청산하고 새롭게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부여잡고서 놓지 않고 있었다.

나는 차마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더 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동요시킬 순 없었다.(아무 말도 안했다는 얘기임)

그러니까 이 날이었다.

개츠비가 내게 자신이 ‘댄 코디’(개츠비가 17세 때 만났던 억만장자. 광산업자)와 얽혔던 젊은 시절(개츠비 나이 17~22세 정도)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 말이다.

물론 그건 낯선 이야기였다.

그리고 내게 그 얘기를 해준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제이 개츠비”(개츠비는 소설 속에서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합니다. “제이 개츠비”는 댄 코디가 자신을 부를 때 떠오른 이름이었으며 그때부터 나중에 26세에 데이지를 만날 때까지 사용한 이름입니다.)란 이름이 톰(30세. 데이지의 나쁜 남편)의 심한 적의(나쁜 마음)에 그만 유리잔처럼 부서지고 말았기 때문이며 그러면서 화려했지만 길고도 비밀스러웠던 쇼(무대의 쇼)가 막을 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거리낌 없이 무엇이든 고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보단 데이지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니 그랬다.

데이지(1917년 당시 18세)는, 개츠비(당시 26세. 직업은 육군 중위. 댄 코디가 죽고 나서 군인이 되었다가 주둔한 부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최고로 퀸카였던 데이지를 알게 된 것임)가 여태껏 안 아가씨들 중에서 첫 번째 “멋쟁이” 아가씨였다.

있는 능력 없는 능력 죄다 발휘해 가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난 적은 그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언제나 그와 그들 사이엔 눈에 띄지 않는 가시철사들이 존재했더랬다.

그(당시 26세의 개츠비)는 그녀가(18세의 데이지) 몹시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의 집에도 찾아갔었다.

첫 번째 방문은 그녀의 집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원문에는 ‘캠프 테일러’라고 나와 있음) 출신 다른 장교들과 함께였다. 그 다음엔 그 혼자서 갔다.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한 건, 그가 전에 단 한 번도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들러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더욱이 그를 숨 막히게 하는 건 데이지(여주인공이름)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야영지(군대 주둔지)의 천막이 그에게 일상이었듯 그녀에겐 그 아름다운 가정집이 일상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집 주변은 신비로움에 함빡 취해있었는데, 뭐랄까, 다른 이들의 침실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클래식할 것만 같은 침실이 그녀의 집 2층엔 있을 것 같다는 암시랄까, 복도들마다 즐겁고 환한 사람들의 움직임들로 가득할 것 같은 암시랄까, 라벤더(꽃)에 넣고 잊어버린 낡은 시대의 연애가 아니라 올해 새로 출시된 번쩍 번쩍이는 자동차처럼 새롭고 소원을 고취시킬 것 같은 향기로운 로맨스에 대한 암시랄까, 아님 한창 때의 청춘남녀들이 그 집에서 흠뻑 춤에 취해 있을 것만 같은 암시 같은 것 말이다.

게다가 이미 수많은 남성들이 데이지를 열렬히 사모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또한 개츠비는 열광케 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그녀의 가치를 키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데이지의 집 주변 모든 곳에서 아직도 생기 넘치는 ‘흥분들’의 ‘그림자와 메아리들로’ 구석구석 그 집 주변에 스며들고 있는 그 남성들의 존재를 개츠비는 느꼈다.

하지만 개츠비(당시 26세의 육군중위)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처음 데이지의 집에 들른 게 어마어마한 우연이었음을.

‘제이 개츠비’(제이=이름. 개츠비=성씨)로서의 그의 미래가 아무리 빛났다할지라도, 당시엔 그냥 아무 경력 없던 무일푼의 젊은이였을 뿐이고 입고 있던 군복도 언제 어디서 그의 어깨 위에서 흘러내릴지 모를 일이었다.(1917년은 유럽에서 제 1차 세계 대전<1914~1918년>이 발생한 지 3년 째였음. 1917년은 또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한 년도이고 개츠비가 데이지를 처음 만난 때임)

그래서 개츠비는 자신의 재능(매력)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을 탐욕스럽고 부도덕하게도 거머쥐었다....

결국 어느 평화로운 10월의 밤에 그는 데이지를 차지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손에 입 맞출 권리도 그에게 일절 없었기 때문이다.

개츠비가 스스로를 경멸했을 수도 있다. 분명 거짓구실로 그녀를 취했기 때문이다.

겉으로 백만장자인 체 데이지를 속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데이지를 더 안심시키고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다.

개츠비(당시 26세의 육군 중위인 개츠비)는 그녀로 하여금 자신(개츠비)이 그녀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믿게 만들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인양 믿게 만들었다.

그에겐 실제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의 뒤를 든든히 받쳐줄 부자 일가친척들도 없던 상태였다.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비정한 정부’(1917년 4월,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을 선언할 미국정부를 말함)의 변덕 덕에(때문에) 세계 어디에서(유럽을 의미함) 자신의 목이 달아날지 모를 판국이 었다. (소식이 없는 개츠비를 버리고 데이지가 톰과 결혼식을 올린 것이 1918년 겨울<1918년 11월에 세계 대전이 끝남>입니다. 결혼식 피로연장에서 데이지는 개츠비의 소식이 든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는 물에 툭툭 불려진 후 버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개츠비(당시 26세의 육군 중위 개츠비)는 스스로를 경멸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도 자신이 상상한 대로 되진 않았다.

지금에서야 그도 자신이 성배(예수님이 사용한 큰 접시*_*. 데이지)를 쫓느라 여념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하지만 어쩔 그때의 그는 그녀를 취하곤 가버리려고 했는지 모른다.

데이지(여자주인공 이름)가 특별하다는 거야 그도 알고 있던 바였다. 하지만 “멋쟁이” 아가씨가 얼마만큼이나 비범할 수 있을지를 그는 깨닫지 못했다.

그 후 그녀(데이지)는 빛깔이 짙은 자신의 집 속으로, 아니 그녀의 풍요롭고 모든 것이 남아도는 일상 속으로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개츠비에겐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은 채.(데이지가 개츠비를 훔 떠나가 버렸다는 얘기임)

그냥 그녀(데이지)와 결혼했던 듯한 느낌, 그게 다였다.

그들(26세의 개츠비와 18세의 데이지)이 다시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건 그 일이 있고 이틀 후였다, 숨을 쉴 수 없었을 정도로 가슴이 조마조마해지고 왠지 모르게 배신을 당한 것 같은 쪽은 그러니까 개츠비 자신이었다.

그녀 집 ‘포치’(기둥과 지붕만 있는 돌출된 현관)는 고급 사치품으로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다.

자신을 향해 몸을 돌린 데이지의 호기심 가득하고 사랑스러운 그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동안 ‘긴 의자’(등받이가 있는 긴 의자)의 ‘고리 버들 세공’(끈을 십자로 겹쳐 놓은 것. 사진 ▶ <http://me2.do/xKeZSKwz>, 검색일자: 2015-10-10)은 멋지게 빼격거렸다.

그 이틀 사이에 데이지는 감기에 걸려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목소리를 전보다 더 허스키하고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개츠비는 부(재산)에 감금돼 보호되고 있는 ‘젊음과 신비함’(데이지)을, 그녀의 옷들에서 묻어나는 생기발랄함을, 그리고 은그릇처럼 반짝거리며,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채 아무 걱정 없이 거만히 살아가되 되는 데이지를 뼈저리게 자각하게 되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정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해석 이상하죠. 쓰오리~ ^0^)

(아래의 글 모두 개츠비의 긴 대사입니다. 읽기 쉽도록 단락을 임의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31세의 개츠비로 돌아와서, 개츠비가 이 소설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대사임→) “전(저는) 그때 제가 그녀(데이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얼마나 놀랐던지 모릅니다, 형씨. 잠시나마 그녀(데이지)가 나를 차버리기를 바랬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더군요. 그건 그녀도 역시 나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읽기 쉽게 단락을 임의로 나눔)

그녀는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왜냐하면 전 정말이지 그녀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도 알고 있었으.... 그래서 전 제 자신의 포부(미국에서 성공)들을 내려놓은 채 점점 더 깊숙이 그리고 매순간 그녀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아무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읽기 쉽게 단락을 임의로 나눔)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나갈지를 그녀에게 말해줄 수 있는데 도대체 그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어디서 찾는단 말입니까?”

개츠비(=1917년 당시 26세의 육군중위)가 해외(제1차 세계 대전 중인 서유럽)로 파병을 가지 바로 전날 오후에, 그는 데이지를 품에 안고서 아무런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날은 다소 쌀쌀한 가을의 어느 날이었는데, 방 안의 난방 덕분인지 그녀의 두 뺨이 홍조(붉은 기운)를 띄고 있었다.

간혹 그녀(데이지)가 움직였고 그럼 개츠비는 그녀를 품고 있던 두 팔의 위치는 약간씩 바꾸어 보았다. 그렇게 한번은 그녀의 질게 반짝거리는 머릿결에 키스를 하기도 했다.

그날 오후 그들(26세의 개츠비와 18세의 데이지)은 잠시나마 마음이 평온했는데, 아마도 그 다음날로 예정된 긴 헤어짐을 대비해 서로에게 깊은 추억을 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들이 결코 이토록 가깝게 사랑한 적은 없었다. 그녀의 두 입술이 아무 말 없이 개츠비의 외투 어깨부분을 스쳐지나갈 때조차도 그리고 그녀가 마치 잠이 들기라고 한 것 마냥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 끝자락에 가 닿았을 때조차도 그들이 이토록 서로와 밀접히 소통한 적은 없었다.

전쟁(제1차 세계 대전) 동안(1917년 가을부터 1918년 초까지) 개츠비는 뛰어나게 임무를 완수해냈다.

전선(최'전선' 전쟁터)으로 가기 전에 이미 그는 대위였고 특히나 '아르곤 전투'(아르곤 숲=프랑스 동북부. 2차례의 세계 대전 모두에서 격전지였음. 소설 속에서는 개츠비가 이끄는 130명이 독일군 3만 명을 이긴 걸로 나옴. 빵이 심함^^;;). 자세한 내용은 '4장 #18'을 참조바람. '4장 #18'로 링크 ▶<http://me2.do/5ctVixRO> , 검색일자: 2015-10-11)를 겪은 직후엔 어느새 소령의 지위를 얻어 사단(=부대) 기관총들을 도맡고 있었었다.

휴전 뒤(1918년 11월 11일 독일 항복.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 속에서는 모두, 정전이라고 하지 않고 휴전이라고 하고 있음. 당시 시대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미친 듯이 노력했지만 웬걸 예상외의 곤란한 사정과 행정적 착오로 인해 그는 미국이 아닌 영국 옥스퍼드(영국 런던 동북쪽에 있는 도시이름. 옥스퍼드 대학교 있는 곳)로 보내지고 말았다.

이제 그(27세)는 걱정스러워졌는데..., 왜냐하면 데이지(1918년 19세)가 보낸 편지들엔 신경과민인 듯한 절망감들로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오빠 왜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녀로서는 전쟁이 끝난 마당에 그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또한 바깥세상들(부모님과 가족 및 친구들)로부터도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한 시라도 빨리 그(개츠비)를 만나고 싶었고 자신의 곁에 서 있는 그를 느끼고 싶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그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받고 싶어 했던 것이다.

.....

왜냐하면, 데이지(1918년 당시 19세)는 아직 어렸고 그리고 그녀가 만든 가공의 세계는 난초
들(남자들)의 향과 즐겁고 쾌활한 ‘속물근성’(쾌락)이 가득했으며 ‘삶의 비애와 함축’을 압축해 새로운 곡
조로 보이며 그 해의 리듬(신조)을 새롭게 정돈해나가는 관현악단원들을 생각나게 했다.(개츠비가 보기
에도 데이지가 딴 남자를 만날 것 같았다는 얘기임)

밤새도록 색소폰(대형 목관 악기)들이 <빌 스트리트 블루스>(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hD4quj1zu4I> , 검색일자: 2015-10-11)(1917년에 나온 곡. 『위대한 개츠비』에는 ‘블루’<우울하다는 뜻임. 또는 청색>라는 말이 유달리 많이 나옵니다.)의 절망적인 세평(=말=소문)을 소리 내어
울부짖어댔고 그러는 사이에도 백(100) 켈레의 금빛은빛 실내화들은 번쩍이는 먼지들을 내며 발을 질질
끌면서 춤을 춰내고 있었다.

.....

(개츠비가 영국 옥스퍼드라는 도시에서) 우울히 ‘차’(마시는 차)를 마실 시간에도, (데이지가 있
는 미국에서는) 룸(방)들엔 항상 이렇게 낮고 맛있는 흥분이 지칠 줄 모르게 약동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
이에도 룸(=데이지가 있는 미국) 이곳저곳엔, 마치 슬픈 ‘호른’(트럼펫. 사진링크▶ <http://me2.do/x8MjKuzh> , 검색일자:2015-10-11, 개츠비의 심정을 암시) 소리(바람피우지 마)에 맞춰 바닥 사방에
뿌려지고 있는 ‘장미의 꽃잎들’마냥 새로운 얼굴들(미국 남자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었다.(군대
에 있던 개츠비를 데이지가 기다리지 않고 다른 남자들을 만날 거란 얘기임)

계절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1919년의 봄.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1년 경과)에는 데이지도 이 비밀스런 세계(남성간의 연애)를 헤치며 활동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레 그녀는 또다시, 하루에도 6명의 남성들과 6번의 데이트를 하는가하면, ‘이브닝 드레스’(옷)에 달린 구슬들과 ‘시폰’(레이스)들이 자신의 침대 옆 바닥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난초들 사이로 형클어진 채 내버려두고서 희미하게 동이 터 올 무렵까지 꾸벅꾸벅 즐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줄곧 그녀 안에 있는 무언가가 “결정을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어π0π!”라며 울부짖고 있었더라.

그녀(19세의 데이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구체화(결혼)시키길 원했다. 즉시 말이다.

그리고 그 결심은 어떤 힘... 그러니까 사랑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님 확실히 실현 가능한지 여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했다. 즉 가까이에 있는 남자여야 했던 것이다.(군대에 있는 개츠비가 아니라 미국에서 자신과 결혼을 할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는 얘기임)

‘툼 뷰캐넌’(1919년 당시 27세의 남자. 툼은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남자임. 말이 험함. 예일 대학교 출신. 개츠비에 못지않은 엄청난 부자임)이 당도(도착)한 그 해 봄 중반 즈음 했을 때는 이미 그녀의 결심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쯤이었다.

툼 뷰캐넌은 전반적으로 인물로 보나 지위로 보나 ‘뽀대’(큰 그림)가 나왔다. 그래서 데이지가 우쭐해졌는지 모른다.

의심할 바 없이 데이지 안에서도 어떤 버둥질(개츠비를 버리지 말자는 심적 버둥질)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다소간의 안도감 같은 것도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개츠비가 옥스퍼드 시(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시를 말함. 런던 동북쪽에 있음. 옥스퍼드 대학교 있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 그런 내용의 편지가 개츠비에게 도착했었던 것이다.

(이제 다시 소설 속 시간은 현재<1922년 여름>로 돌아왔습니다. 배경은 개츠비의 집 안. 등장 인물은 개츠비와 ‘닉 캐러웨이’)

이제(1922년의 여름) ‘롱 아일랜드 섬’(아래 구글 지도 참조)에 날이 새고 있었다(새벽이란 말임).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롱 아일랜드 섬’(=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우린(31세의 ‘개츠비’와. 30세의 ‘닉 캐러웨이’) 1층에 있던 나머지 창문들을 계속 열어젖히면서 집(개츠비의 저택)을 납빛(회색)과 금빛으로 물들여나갔다.

한 그루의 나무 그림자에서 갑자기 이슬이 뽀짝하고 맺히는 것 같더니 이내 어디서 나타났는지 새들이 ‘푸른’(←맞쵸. 블루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죠? ^^ 블루=‘우울하다’는 뜻. 위대한 개츠비란 소설 속에는 블루라는 단어가 유독 많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왠지 많이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한 10번은 있었던 것 같음) 나뭇잎들 사이로 지저귀기 시작했다.

거의 바람 한 점 느껴지지 않는 공기 중에는 약간 느리면서도 즐거운 움직임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이 날 하루가 서늘하고 사랑스러울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었다.

“어쨌든 그녀(데이지)가 그 자(톰 뷰캐넌)를 사랑했을 리 만무합니다, 한 때라도 요.” 한 칸짜리 창문에서 몸을 돌리고서 나를 도발적으로 쳐다보면서 개츠비(31세 남)가 한 말이었다.

“당신도 보셨지 않습니까, 형씨, 그녀는 그 날 오후(자동차 사고 당일) 심적으로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 자(30세의 톰 뷰캐넌. 데이지의 남편)가, 그녀가 겁을 먹게 그러한 얘기들을 꺼냈잖습니까... 내가 마치, 무슨 비열한 사기꾼인 마냥 말입니다. 그 결과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지도 그녀는 모르게 된 것이죠.”

그래도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는지 개츠비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개츠비가 화자(이야기꾼)인 닉 캐러웨이에게 하는 대사임→) “물론 그녀(데이지)도 잠깐 동안은 그(툼 뷰캐넌)를 사랑하긴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결혼했을 당시엔 말입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그녀(데이지)가 진정 사랑한 것은 저입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불쑥 그가 호기심이 가는 얘기를 꺼냈다.

“그렇다고 해도 그건,”라며 개츠비가 말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우인 거죠.”

비교할 수도 없는 ‘것’(연애)을 너무 격하게 의심해보려다 보니, 그런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말을 한 것이 아닐까 한다?

최종적으로 그(27세의 개츠비)가 (1919년 가을에)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귀국했을 당시, 톼(당시 27세의 남편)과 데이지(당시 20세의 아내)는 여전히 신혼여행 중이었다(툼과 데이지는 1919년 6월에 데이지의 친정집에서 결혼식을 올렸었음).

그리고 군대 월급에서 마지막 남은 거로 ‘루이빌’(데이지의 친정집. 아래의 구글 지도 2개 참조)까지 가련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여정을 떠났던 것이다.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루이빌'(=미국동부의 도시=데이지의 친정집이 있는 도시=개츠비와 데이지가 처음 만나 사랑을 나누었던 장소=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큰 지도]

[작은 지도]

개츠비는 1주일을 꼬박 그곳(=루이빌=데이지의 친정집이자, 개츠비와 데이지가 처음 만나 사랑을 나누던 곳)에서 머물렀다. 그는 11월의 밤하늘을 보며 밤새도록 함께 서로의 발걸음을 맞추었던 그 거리들을 걸었으며, 데이지의 흰색 자동차를 타고서 함께 들렀었던 데이터 하기 좋았던 구석진 장소들을 다시 방문했다.

(데이지가 결혼 전 타고 다녔던 자동차는 '로드스터'입니다. 로드스터는 지붕이 없고 좌석이 2개인 자동차입니다. 로드스터 사진 ►<http://me2.do/5xoKKRFu> , 검색일자:2015-8-3)

개츠비에겐 항상 데이지의 저택이 다른 집들보다 더 신비롭고 명량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떠나 버리고 없는 이 도시(루이빌) 자체에 대한 그의 생각도 역시 구슬픈 아름다움으로 가득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찾아나섰더라면 그녀(20세의 결혼한 데이지)를 발견했을지도 몰라.’라고 느끼면서 그리고 왠지 모르게도 자신이 그녀를 영원히 떠나는 듯한 감정을 느끼면서 그 그 도시(루이빌. 미국 동부의 도시이름)를 떠났다.(1919년 가을 당시 개츠비는 28세의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소설 앞부분에 나왔던 울프샤임 씨(유대인 사기꾼. 개츠비를 사업적으로 키운 사람)를 만난 건 루이빌의 떠난 직후 개츠비가 거의 알거지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울프샤임 씨의 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됩니다.)

개츠비는 이제 무일푼(빈털터리)이었다.

그리고 객차(기차) 안은 후덥지근했다. 개츠비(28세)는 지붕이 없는 ‘연결 통로’(기차의 객차와 객차 사이의 연결 통로. 덜커덩 거리는 곳)로 나가서 접이식 의자를 펼치고 앉았다.

기차는 슬며시 역을 벗어나고 있었고 낮익지 않은 건물들의 뒷모습들이 옆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 다음 기차는 땀 뚫린 들판으로 들어섰다. 봄기운이 만연한 들판에서,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진 ‘전차’(한 칸짜리 전차) 한 대가 사람들을 가득 태우고서 1분 동안 경주를 벌였다. 그들은(전차의 손님들)은, 평소 한번이라도, 거리를 따라 걷다가 데이지의 가냘프고 매력적인 얼굴을 보았을 사람들일지도 몰랐다, 한번이라도.

(지도 관련 참고사항 : 아래는 참고사항 :)

소설 속 배경입니다.)

[아래의 지도 두개를 보는 요령 : ‘윌슨의 차량정비소’에서부터 ‘개츠비의 집’까지 가는 대략적인 방향]

▼ 구글 지도 참조 1

검색어 '개츠비의 집'(=웨스트 에그=서쪽 달걀=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 구글 지도 참조 2

검색어 '월슨의 차량정비소 위치' (= '젯더미 계곡<=쓰레기 하치장>'=뉴욕의 '퀸스 자치구'=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선로(기차길)가 끊어지면서 기차는 이제 태양에게서도 벗어나려 하고 있었고, 점점 가라앉는 태양은 그녀(20세의 데이지)가 살아 숨 쉬었던 그 도시(루이빌. 미국 동부의 도시이름. 데이지의 친정집.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가 사라지는 위로 감사의 기도라도 하려는 듯 수천 개의 팔을 펼치고 있는 듯 했다.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루이빌'(=미국동부의 도시=데이지의 친정집이 있는 도시=개츠비와 데이지가 처음 만나 사랑을 나누었던 장소=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작은 지도)

개츠비가 절망적으로 팔을 뻗은 게 바로 이때였다. 마치 '한 줌의'(한 줌의 머리카락 할 때의 '한 줌') 바람만이라도 붙잡아 보려는 듯, 아님 그녀와의 추억이 서려 있는 장소의 부스러기라도 그 놈의 태양에게서 건져보려는 듯 개츠비는 절망적으로 팔을 뻗어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흐린 두 눈이 보기에 도도(루이빌. 미국 동부의 도시이름. 데이지의 친정집) 전체가 너무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던 것이다. 그 도시에서 가장 신선하고 가장 선택된 부분(데이지와 추억)이,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개츠비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끝이 나고 이야기는 다시 현재(1922년 여름)로 돌아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시간적 배경은 1922년 여름의 미국입니다. 소설이 출간된 해는 3년 뒤인, 1925년입니다.)

우리(31세의 개츠비와 30세의 닉 캐러웨이)가 아침식사를 다 마치고 다시 ‘포치’(사방이 뽕 뚫려 있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현관. 이 포치 양 옆으로 대리석 계단이 동화처럼 바닥까지 내려감)로 나왔을 때가 그러니까 아침 9시 무렵쯤이었다.

지난밤은 날씨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심어놓았는데, 이젠 대기 중에서도 가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앞뒤 설명 : 데이지가 오후에 개츠비의 집을 자주 찾아가는 것에 대해 소문이 나는 걸 막기 위해 개츠비는 울프샤임 씨가 소개해주는 사람들로 가사도우미들을 모두 바꾸었습니다.)

예전 가사도우미들 중에서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정원사’(데이지가 닉 캐러웨이의 집에 온 날 비를 맞으면서도 닉 캐러웨이의 정원을 다듬어준 사람)가 대리석 계단 맨 아랫부분까지 다가오더니 멈췄다.

(정원사가 개츠비에게 하는 말→) “개츠비 씨, 오늘은 수영장의 물을 빨까하는데요. 곧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놈은 ‘배수관’(물을 뽑아내는 관)들이니까요.”

“오늘은 하지 마슈.”라며 개츠비(31세)가 말했다.

개츠비가 변명을 하려는 듯 내게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형씨도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 동안 이 수영장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었거든요.”(개츠비는 닉 캐러웨이에게 자신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었음)

난 내 시계를 내려다본 다음 일어섰다.

(닉 캐러웨이의 대사→) “(뉴욕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를 놓치지 않으려면 20분밖에 안 남아서
요.”

나는 시내(개츠비의 저택 서쪽으로 쪽 기차를 타고 가면 나오는 ‘뉴욕’)로 가고 싶지 않았다.
이 판국(자동차 사고)에 내가 점잔이나 빼며 책상(직장)에 앉아 있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거니
와, 실은 그것보다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건, 내가 개츠비 곁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결국 난 그 기차 시간을 넘기고 그 다음 기차 편 시간이 다다랐음에야 가까스로 그의 곁을 떠날
채비를 할 수 있었다.

(닉 캐러웨이의 대사→) “전화 드리겠습니다.”라며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개츠비의 대사→) “그래 주십시오, 형씨.”

(닉 캐러웨이의 대사→) “낮 열두 시쯤에는 전화를 걸 수 있을 겁니다.”

우린(31세의 개츠비와 30세의 닉 캐러웨이) 계단(영화 보면 꼭 나오는 대리석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씩 밟고 내려갔다.

“제 생각에 데이지(23세. 개츠비의 연인이자 톰의 아내)에게서도 전화가 올 것 같습니다.” 개츠비(31세)가 그 말을 하면서 걱정스레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내(30세. 이름이 ‘닉 캐러웨이’) 입으로 그 것을 확증해 달라는 듯이 말이다.

(닉 캐러웨이의 대사→)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개츠비의 대사→)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가 악수를 나눈 다음 나는 자리를 떴다.

내가 막 ‘울타리’(닉의 집은 개츠비의 저택 바로 옆집임. 이 둘의 집은 정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정원엔 울타리가 있어서 서로 정원의 잔디밭을 지나 울타리를 건너 오고가곤 함)에 다다랐을 때 “퍼뜩!”하고 뭔가가 떠올랐고 그래서 뒤로 되돌아보았다.

“그들은(데이지. 톰 뷰캐넌. 조단 베이커) 썩어빠진 사람들이에요.”라며 나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개츠비)이 그 빌어먹을 모두를 모아 놓은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말을 하길 지금까지도 잘한 것 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의 행동(데이지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내가 그에게 일찍이 던진 유일한 칭찬이었다.

처음엔 그도 어안이 빙빙한지 정중히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다. 곧 내 말길을 알아들었는지 그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뭘 말인지 이해했다는 미소를 머금었다. 마치 우리가 줄곧 그 진실에 관해서만 큼은 환상의 짝패(공모자)였다는 듯이 말이다.

흰색 계단들(원형으로 된 계단)을 배경으로 그의 간지 나는 분홍색 정장이 화사하게 부각되고 있었다.

그러자 문득 내가 그의 고풍스러운 저택으로 처음 가게 된 날 그 날 밤의 일이 생각났다. 그게 3달 전 일이었다.

개츠비의 위법행위(파티장의 소문들)를 짐작한 무수한 얼굴들(파티장의 남녀손님들)이 이 잔디밭(파티장)과 집 앞 도로(개츠비의 저택 정문으로 도로가 있음)로 몰려들었고, 그때도 그는 이렇게 저 계단들 위에 서 있었었다.... 그들 모두에게 잘 가라는 손 인사를 흔들어 보이면서, 부패하지 않는, 자신의 '꿈'(데이지를 다시 만나 지난날의 자신을 재확인하고 싶다는 열정)을 숨긴 채 말이다.

그(개츠비)의 호의에 대해 나는 지금도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매번 그 문제(개츠비의 호의)에 관해 그에게 고마워하고 있었다.... 거기엔 나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며 내가 소리 질렀다. “아침 정말 잘 먹었어요, 개츠비.”라며.

시내(=뉴욕시내)로 나온 나는 잠시 동안 지루하게 긴 ‘주식 거래 물량 표’를 보고서 주가를 표로 만들어보려다 그만 내 회전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고 말았다.

낮 12시가 가까워졌을 때쯤 전화기가 울리는 바람에 난 깨고 말았는데, 어찌나 놀랐는지 내 이마에 땀이 송송 맺혀있었다.

‘조단 베이커’(21세. 닉의 여친임. 프로 여자골퍼선수임)였다. 그녀는 이 시간에 종종 내게 전화를 걸곤 했는데, 호텔들과 클럽들과 개인의 집들 사이에서의 그녀의 이동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달리 내게 연락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서였다.

해변에 있는 골프 코스에서 타구봉 헤드에 맞아 뜯긴 ‘잔뿔 조각’ 하나가 날려 사무실 창문에 와 닿는 것처럼 평소 그녀(=조단 베이커=프로 여자골퍼선수)의 목소리는 기운차고 시원시원하게 전화기 선을 통해 전해져왔는데, 하지만 이 날 아침 그녀의 목소리는 내 귀에 거슬리고 무미건조하게 들려왔다.

“데이지(23세 여) 네 집에서 나왔어,”라며 그녀(=조단 베이커=21세=닉의 여친)가 말했다. “지금은 햄프스테드(뉴욕 주에 있는 롱 아일랜드 ‘서’쪽 마을.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에 있고, 오늘 오후쯤 해서 ‘사우스햄튼’(뉴욕 주에 있는 롱 아일랜드 ‘동’쪽 마을.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로 내려가려고.”(롱 아일랜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겠다는 뜻임)

▼ 구글 지도 참조 1

검색어 ‘햄프스테드’(=뉴욕 주에 있는 롱 아일랜드 ‘서’쪽 마을=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 구글 지도 참조 2

검색어 ‘사우스햄튼’(=뉴욕 주에 있는 롱 아일랜드 ‘동’쪽 마을=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 앞뒤 설명 : 조단 베이커는 대단히 약삭빠른 여인으로 소설 속에 등장합니다. 남이 약삭빠른 행동을 하는 것을 절대 못 넘어가는 여성이죠.)

아마 그녀가 데이지 네 집에서 나온 건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는 왠지 그녀의 그런 약삭빠른 행동이 나를 몹시 짜증나게 했다. 게다가 그녀의 다음 언급(말)은 나를 정말이지 돌게 만들었다.

(조단 베이커의 대사→) “어젯밤 그 행동(조단 베이커가 닉 캐러웨이 보고 같이 데이지 네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닉 캐러웨이가 눈을 뚱그랗게 뜨면서 짜증을 내며 거절했음)의 의미는 뭐야, 내게 그래도 돼.”

(닉 캐러웨이의 대사→) “그럼 그때 나보고 어찌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런 다음,

(조단 베이커의 대사→) “하지만... 오빠를 만나고 싶어.”

(닉 캐러웨이의 대사→) “나도 널 만나고 싶어.”

(조단 베이커의 대사→) “그럼 내가 ‘사우스햄튼’(뉴욕 주에 있는 롱 아일랜드 ‘동’쪽 마을.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으로 가는 걸 취소하면, 날 만나러 ‘읍’(=‘읍’내=햄프스테드. 햄프세테드는 뉴욕 주에 있는 롱 아일랜드 ‘서’쪽 마을임.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으로 와 줄 수 있어?”

(닉 캐러웨이의 대사→) “아니... 오늘 오후엔 좀 그런데.”

(조단 베이커의 대사→) “알았어.”

(닉 캐러웨이의 대사→) “오늘 오후엔 힘들 것 같아. 여러 가지로...”

▼ 구글 지도 참조 1

검색어 '사우스햄튼'(=뉴욕 주에 있는 롱 아일랜드 '동'쪽 마을=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 구글 지도 참조 2

검색어 '헴프스테드'(=뉴욕 주에 있는 롱 아일랜드 '서'쪽 마을=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우린(연인 사이인 30세의 '닉 캐러웨이'와 21세의 '조단 베이커'. 1920년대 당시엔 나이차이가 많이 났군요. 신기방기*0*) 잠시 더 그런 식의 대화(멀어졌는데 멀어진 걸 인정하지 않는 연인 사이의 전 화대화)를 나눈 것 같다.

그런 다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불쑥 아무런 말도 더 하지 않았다.

나는 모른다. 우리 둘 중 누가 먼저 날카로운 "딸까닥!" 소리를 내며 수화기를 끊었는지, 하지만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승(현실세계)에서 그녀와 다시 얘기하는 일이 절대 없어진다 하더라도 오늘 이 날만(자동차 사고의 불똥이 엉뚱하게 개츠비를 위협에 처하게 하는 것 같은 날. 뭘 소리여-_-;;)은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차(마시는 차) 탁자를 너머로 그녀와 마주 앉아 얘기를 주고받을 순 없는 일이었다.

몇 분 후 나는 개츠비(31세 남)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봤다. 하지만 통화중이었다.

나는 그렇게 몇 번을 더 통화를 시도했고, 급기야 나 때문에 몹시 화가 난 전화 교환국 여직원이 “아니 똑같은 전화를 몇 번이나 거시는 거예요. 이 전화기는 지금 디트로이트(미국 북동부 미시건 주에 있는 도시이름.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에서 걸려온 장거리 전화를 받고 있는 중이랑 말예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디트로이트’(=개츠비에게 주로 전화가 걸려오는 지역=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큰 지도]

[작은 지도]

수첩에서 기차 시간표를 꺼낸 나는 오후 3시 50분 기차 편에 작게 원을 표시했다.

그런 다음 내 의자(회전의자임)에 등을 푸욱 기대고서는 생각을 좀 해보았다.

그러니까 그게 막 낮 12시를 지났을 무렵이었다.

(소설 속 시간이 다시 며칠 후로 이동했다가 다시 사건 전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헛갈리시면 시간 개념을 상관 하지 마시고 쪽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0^ 아마도 피츠제럴드(『위대한 개츠비』의 저자)가 이야기 전개에 약간의 신비감을 주려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날 아침’(사건 발생 며칠 후를 말함)에 기차를 타고 ‘젯더미 계곡’(쓰레기 하치장)을 지나갈 때 난 여러 번 생각한 끝에 반대쪽 편에 앉았었다.

그쯤 생각하기로 아직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관계로 호기심어린 사람들 무리가 기차간에 타고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암흑인 가운데서도 옥에 티를 찾아내려는 꼬마들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남의 애길 하길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은 수군덕거리며 그동안 뭘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하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에게 점점 덜 현실적이 되어 더는 더 할 건더기가 없어질 때까지 말이다. 그럼 ‘머들 윌슨’(차량 정비소 주인. ‘톰의 연인’의 남편)이 저지른 비극적인 결말도 잊히고 말리라.

그럼 잠시 시간을 되돌려서, 전날 밤에 우리(개츠비. 데이지. 톰 뷰캐넌. 닉 캐러웨이)가 차량 정비소를 떠났던 직후 차량 정비소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다.

경찰은 피해자의 여동생인, 캐서린(‘윌슨 부인’의 여동생. 2장 #24 ▶ <http://me2.do/5bPgnTLE> .

본문 <‘캐서린’은 훌쩍하고 약은(=세속적인) 여자였다. 대략 30 중반이었다. 붉은 색 단발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머리카락들의 색이 유달리 짙고 머리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새하얀 화장을 얼굴에 온통 하고서 나타났다.>)을 찾는 데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캐서린이 평소와 같이 그날 밤 술이 떡이 되도록 퍼마신 결과였다.

그녀가 어찌나 취해 있었는지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조차도 알코올 냄새가 주위를 진동하고 있었고 언니의 시신을 태운 구급차가 벌써 ‘플러싱’(미국 ‘뉴욕 주’의 도시이름. 플러싱이란 “물로 씻는다”는 뜻임)으로 출발했다는 얘기도 이해하지 못했더랬다.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플러싱’(=뉴욕 동쪽=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작은 지도]

[큰 지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녀에게 그것(구급차)을 납득시켜주었을 때 그녀는 마치 그것(구급차)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인 마냥 즉시 기절하고 말았다.

어떤 사람이, 친절함에서든 또는 호기심에서든, 캐서린(‘월슨 부인’의 여동생. 30대 중반)을 자기 차에 태우고서 캐서린 언니의 시신을 태우고 떠난 구급차를 뒤쫓아 갔다.

밤 12시가 한 참 지날 때까지 차량 정비소 앞(자동차 사고 난 곳)에는 군중(사람)들이 모습을 바꿔가며 여기저기서 모여들었고, 반면 ‘조지 월슨’(죽은 ‘머들 월슨’의 남편)은 안에 있던 소파 위에 앉아서 자신의 몸이 돌인 양 앞뒤로 던져대고 있었다.

차량정비소의 사무실 문이 잠깐 동안 열렸고 그래서 드나들던 모든 이들이 모두 그 광경(조지 월슨이 몸을 전후로 흔드는 것)을 훑훑 보고 말았다.

결국 누군가가 “상처(불행) 입은 사람을 그렇게 구경하는 행위는 부끄러워해야 할 짓”이라며 말했다고 그 사무실 문을 닫아 남들이 조지 월슨의 행동을 엿볼 수 없게 해주었다.

미카엘(원문 ‘마이클리스.’ 젊은 그리스인. 커피 점 운영. 사건 목격자. ‘미카엘’은 최후의 심판 때 인간의 영혼을 저울에 달고 변호해주는 대천사의 이름과 같음. 미카엘 인물묘사 “7장 #85”링크 ▶ <http://me2.do/5rHGXXHU> , 검색일자: 2015-10-14)과 몇몇 다른 남성들이 ‘조지 월슨’(죽은 ‘머들 월슨’의 남편)과 함께 있어주었는데, 처음에는, 4명 내지는 5명 정도의 남성들이 있어주다가, 나중에는 2명 내지는 3명의 남자들이 있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미카엘은 자신과 함께 남아 있던 낯선 이방인에게 “내(=미카엘=커피 점 주인)가 내 커피 점으로 가서 커피를 한 주전자 끓여서 올 동안 조지 월슨 곁에 15분만 더 머물러 있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다음 미카엘은 커피를 한 주전자 끓여왔고 낯선 이방인은 돌아갔고 그래서 새벽까지는 미카엘 혼자만이 월슨(조지 월슨)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대략 새벽 3시쯤이 되자, 일관성 없이 횡설수설 거리던 월슨(차량 정비소 주인인 ‘조지 월슨’)의 중얼거림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월슨은 점점 더 과묵해지더니 이내 그 ‘노란색 자동차’(월슨 부인을 친 사고 차량. 데이지가 운전했던 ‘개츠비의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예고했다.

“그 노란색 자동차의 원 소유자가 누군지 내 다 아는 방도가 있지. 암.”

그런 다음 불쑥 이런 얘기도 했다.

“2달 전엔가 내 사무라가 시내(=뉴욕시내)에서 얼굴에 멍이 들고 코가 부어오른 상태로 돌아온 적이 있었지.”

하지만 윌슨(차량 정비소 주인이자 죽은 여인의 남편) 그 자신도 자신이 방금 한 말에 움찔 놀라 더니 이내 기빠서 낮게 탄성을 지르며 “오, 하느님!(원문엔 ‘오 마이 갓!’이라고 적혀 있음. 아주 심한 욕설임)”라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미카엘(그리스인 청년. 커피 점 주인)이 서투르게나마 그런 윌슨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시도했다.

“조지(조지=이름. 윌슨=성씨),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로 와서 자 1분만 앉아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래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던 거예요?”

“12년이지.”

“아이는 없었던가요? 어서요, 조지(조지=이름. 윌슨=성씨), 그러지 말고 자 편하게 앉으세요.... 자 질문 하나 여쭙어볼게요. 그래 슬하에 아이는 없었던가요?”

등이 딱딱한 다갈색(갈색)의 딱정벌레들이 계속해서 흐릿한 전등불에 “탁! 탁!” 부딪치고 있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도로를 따라 자동차가 한 대씩 쭉쭉 지나갈 때면 몇 시간 전 멈추지 않고서 내달려버렸던 그 자동차(사고를 낸 차량. 데이지가 운전한 ‘개츠비의 노란색 자동차’)가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미카엘(그리스인 청년. 커피 점 주인)에게는 들었다.

시체가 누워 있었던 ‘작업실의 벤치’가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미카엘은 차량 정비소 안으로는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편하긴 했어도 사무실 안에서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바람에 동이 터기 전엔 사무실 안에 있는 모든 물체들에 대해 도가 터이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가끔 ‘월슨’(월슨=이름. 조지=성씨. 차량 정비소 주인이자 자동차에 치여 죽은 여인의 남편)의 옆에 앉아 월슨이 좀 더 차분히 있을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애를 쓰고 있었다.

(그리스 청년인 미카엘의 대사→) “그래 가끔씩이라도 나가보는 교회가 있나요, 조지(조지=성씨. 월슨=이름. 공손하게 부른 것임)? 오랫동안 교회엘 안 갔다고 해도 왜 가끔씩은 나가는 곳이 있을 거 아녀요?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제가 대신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이라도 좀 와 달라고 연락을 드려볼게요. 그럼 뭔가 도움이 되실 말씀을 해주실 것 아녀요, 넷?”

(조지 월슨의 대사→) “나가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네.”

(그리스 청년인 미카엘의 대사→) “왜요, 교회는 나가셔야지요, 조지(월슨의 성씨),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젊었을 때는 한번이라도 교회엘 다녀보셨을 것 아녀요. 그래 결혼식은 교회에서 올렸을 거 아녀요? 듣고 계세요, 조지(월슨의 성씨), 제 말 듣고 계신 거죠. 그래 결혼식은 교회에서 올리셨을 거 아녀요?”

(조지 월슨의 대사→) “오래전 일이야.”

.....

대답을 하려고 애써다보니 월슨(조지=이름. 월슨=성씨)이 몸을 앞뒤로 흔들던 리듬이 깨져버렸다. 잠시 동안 월슨(성씨)이 조용히 있었다.

그런 다음 동일하게 반(절반)은 알고 반(절반)은 뭔가에 취한 듯한 표정이 그의 창백할 대로 창백해져버린 두 눈가에 되살아났다.

(조지 월슨의 대사→) “저(저기) 서랍장 안을 들여다보게,”라며 월슨이 책상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스 청년인 미카엘의 대사→) “어느 서랍장이요?”

(조지 월슨의 대사→) “거기 있는 서랍장 말이네... 그래 그거.”

.....

미카엘(조지 월슨의 죄를 독자에게 저울질해 보여주고 월슨을 대변한다는 의미가 이름에 포함되어 있음. 미카엘은 커피 점을 운영하는 그리스인 청년임)이 자신의 가까이에 있던 그 서랍장을 열어보았을 때 거기엔 그냥 조그맣고 값비싸 보이는 강아지 목걸(‘툼 뷰캐년’이 ‘머들 월슨’에게 강아지를 사준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산 끈임. ‘머들 월슨’이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것임)이 하나만 달랑 놓여있었을 뿐이었다.

그 끈(강아지 목걸이)은 가족으로 된 것으로 은빛이 나는 실로 꼬아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새것 같았다.

“이거요?”라며 그 강아지 목걸이를 들어 올리면서 미카엘이 말했다.

월슨(차량 정비소 주인. 자동차 사고로 죽은 여인의 남편)이 짜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놈을 ‘어제 오후’(=자동차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시각 조금 전)에 찾아냈지. 마누라가 그것(개 목걸이)에 대해 주구장창 설명하려 들더군. 하지만 꽤 재미난 걸 내가 발견했지.”

“아내 분께서 이 끈을 사셨다는 말을 하려고요?”

“그게 아냐. 마누라가 그걸(개 목걸이) 옷장(=거울이 달린 옷장) 위에 있던 ‘박엽지’(=포장지= 노트)에 싸서 보관해두었지 뭐야.”

하지만 미카엘(그리스인 청년. 커피 점 주인)은 그 강아지 목걸이에서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카엘은 월슨의 아내가 그 강아지 목걸이를 거리에서 살 수 있었을 12가지의 이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월슨이 곧 “오, 하느님!(심한 욕설이라 굳이 정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음)”이라며 낮은 목소리로 또다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독자들도 상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월슨은 머들(월슨 부인의 이름)에게서도 그와 같은 동일한 설명들 중 일부를 들은 모양이었다.

결국 월슨을 안정시키려던 미카엘의 노력도 허사가 되고 말았다.

(무척 놀란 듯한 말투로→) “그래 그 놈이 그녀를 죽인 거야,”라며 월슨(차량 정비소 주인)이 말했다.

자신도 놀란 듯 느닷없이 월슨이 입을 활짝 벌렸다.

“누가 말입니까?”

“내 다 아는 수가 있지.”

“몸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세요, 조지(조지=이름. 월슨=성씨. 편하게 부른 것임),”라며 미카엘(그리스인 청년. 커피 점 주인)이 말했다. “너무 이 문제로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아저씨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지도 모르는 것 같거든요. 아저씨, 잠시 동이 털 때까지 여기 앉아 계시면서 숨을 좀 고르시는 게 좋겠어요.”

“그 놈이 내 마누라를 죽인 거야.”

“그건 우연한 사고였어요, 조지(=이름. 월슨=성씨).”

월슨(차량 정비소 주인)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의 두 눈이 게슴츠레 떠졌다. 그리고 그의 입이 가볍게 벌어지며 “음!”이라며 거의 다 알아맞혔다는 듯이 미소를 머금었다. 마치 유령이 그의 앞을 막 지나간 것 같았다.

“이제야 알겠어.”라며 월슨이 확실하다는 듯 말했다. “이봐 난 의심을 할 줄 모르는 남자라고. 그리고 누구 해칠 생각도 품지 못하는 놈이야. 하지만 내가 어떤 걸 점점 알아가게 된다면 그걸 정말로 알게 되는 거야. 그 차에 타고 있던 바로 그 놈이었어. 그 자에게 말을 걸려고 그녀(월슨의 죽은 아내)가 뛰어든 거였는데 그 자가 멈추지 않았던 게지.”

미카엘(그리스인 청년. 커피 점 주인)도 역시 그 자동차 사고를 목격 했었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는 생각 들지 않았다.

해당 자동차가 멈추지 않으려 했다기보다는, 미카엘이 보기엔, ‘월슨 부인’(자동차 사고로 죽은 여성이름)이 자신의 남편(조지 월슨)에게서 벗어나려다 그리된 것이었다.

(그리스인 청년인 미카엘의 대사→) “부인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영큼한 년이었으니까,”라며 월슨(차량 정비소 주인)이 말했다. 월슨은 마치 영큼한 년이라는 말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도 되는 마냥 “(비명소리→) 아-아-아....”라며 신음소리를 내었다.

월슨이 또다시 몸을 앞뒤로 흔들며 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카엘(그리스인 청년. 커피 점 주인)도 강아지 목걸이(가죽 끈)를 자신의 손에 감은 채 서 있었다.

“조지(=이름), 제가 전화를 걸어줄 만한 당신 친구 분들은 안 계세요?”

하지만 헛된 희망이었다(월슨에게 연락을 주고 받는 친인척이 전혀 없었다는 뜻임).

이쯤 되니 미카엘(그리스인 청년. 커피 점 주인)도 거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월슨에게 그 어떤 친구도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에겐 자신의 아내도 버거웠던 것이다.

얼마 안 있어, 창가에 파란 기운이 되살아나면서 사무실 안에 약간의 변화가 일자 새벽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깨달게 된 미카엘은 기뻐했다.

그렇게 아침 5시 무렵이 되자 이젠 전등 스위치를 “탁!”하고 소리 나게 눌러도 될 만큼 푸른 기운이 바깥쪽에서부터 환하게 밝아왔다.

월슨(차량 정비소 주인)의 흐리멍덩한 두 눈이 ‘젯더미 계곡’(뉴욕의 쓰레기 하치장)에 가 꽂혀 있는 것이 점점 더 드러난 것도 이때였다.

젯더미 계곡에서는 회색 빛깔의 작은 구름 조각들이 환상적인 모습들을 하며 희미한 새벽 기운이 몰려오는 가운데 하늘 여기저기에서 종종 걸음을 치며 지나가고 있었다.

“내가 마누라에게 말했지,” 긴 침묵을 깨고 월슨(차량 정비소 주인. 자동차 사고로 죽은 여인의 남편)이 중얼 중얼거렸다. “넌 날 속일 순 있을지 몰라도 신은 속일 수 없을 거라고. 그리고 그녀를 데려다가 이 창가에 세웠네.”

...(←원문엔 ‘—’임) 월슨이 애를 쓰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사무실 뒤쪽 창문으로 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며 기대어 섰다...(←원문엔 ‘—’임).

“내(월슨)가 말했지. ‘하느님은 네 년이 한 짓(‘툼 뷰캐넌’과의 연애)을 알고 있어. 네 년이 한 짓을 죄다 알고 계시다고. 넌 날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을 속일 순 없는 거야!’라고”(←약간 부담되는 내용이죠. 원래 『위대한 개츠비』의 내용이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남들이 모두 고전이라고 소개하는 소설이니 소설 내용이 부담되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월슨(차량 정비소 주인. 자동차 사고로 죽은 여인의 남편)의 뒤편에 서 있던 ‘미카엘’(그리스인 청년. ‘차량 정비소’와 ‘한 건물’에 ‘붙어 있는’ ‘커피 점 주인’)은 월슨이 높이가 1미터 가량이나 되는 ‘티(T.) 제이(J.) 에클버그’ 의사(폐업한 의사의 옛 광고판)의 눈(두 눈)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심히 충격을 받고 말았다.

점점 걷히고 있던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그 광고판은 창백하고 무서울 정도로 거대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죄다 꿰뚫어보시고 계시지.”라며 윌슨이 되풀이해 말하고 있었다.

“저건 그냥 광고판이에요,”라며 미카엘(그리스인 청년. 커피 점 주인)이 윌슨을 납득시키려 했다.

그것이 꺼림칙해보였기 때문에 미카엘은 그 창문에서 눈을 떼어 사무실 안으로 다시 눈을 돌렸다.

하지만 윌슨(차량 정비소 주인. 자동차 사고로 죽은 여인의 남편)은 거기 창가에 오랫동안 서서 창문 창유리에다가 얼굴을 가까이 갖다 붙이고는 해가 누엣누엣해 여전히 어두운 그 광고판을 향해 고개를 끄덕거리며 서 있었다.

그런 식으로 아침 6시쯤이 되자 이젠 뭐 미카엘(그리스인 청년. 커피 점 주인)도 완전히 지치고 말았는데, 그래서 바깥에서 자동차 한 대가 “끼익!”하고 멈추는 소리가 들리자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그 소리는 어젯밤 늦게까지 있다가 돌아가며 아침에 오겠다고 한 간호인들 중 한 명이었다. 그래서 ‘미카엘과 윌슨 그리고 이 간호인’까지 셋을 위한 아침 식사를 미카엘이 요리 했고 그걸 미카엘과 그 간호인이 함께 맛있게 먹었다.

윌슨은 이제 새벽보다 더 말 수가 줄어들어 있었다. 그래서 안심해도 되겠지 싶어 미카엘은 가게로 돌아가 잠시 눈을 붙였다.

4시간 후(=오전 10시) 미카엘이 깨어났고 혹시나 싶어 허겁지겁 차량 정비소로 달려와 본 결과, 세상에 월슨은 온데간데없었다.

월슨(차량 정비소 주인. 자동차 사고로 죽은 여인의 남편)의 동선들은 — 동선이라 말한 이유는 월슨이 줄곧 걸어서 이동했기 때문이다 — 후에 추적이 되는데 일단 월슨이 ‘루즈벨트 무역항’(←이 소설의 저자인 피츠제럴드가 지어낸 이름임. “4장 #24”에서 발췌→〈항만엔 붉은 색 벨트(끈)로 묶인 원양(바다) 항해용 선박들이 언뜻 보였다.〉“4장 #24” 링크 ▶ <http://me2.do/5Xlo1pgm> , 검색일자 : 2015-10-15)까지 간 것이 추적이 되었고 거기에서 이내 곧 ‘갯’(←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름임)의 구렁지’(←‘갯의 구렁지’는 피츠제럴드가 지어낸 이름임)까지 나아갔더랬다.

월슨은 ‘갯(성경 속 인물이름)의 구렁지’에서 샌드위치 하나를 구입했는데 먹진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커피도 한 컵 구입했는데 이걸 마셨다고 한다.

월슨이 이 두 곳을 아주 천천히 걸어서 이동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지쳤음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월슨은 ‘갯(성경 속 인물이름)의 구렁지’에 낮 12시를 넘기고서야 나타났었기 때문이다. 차량 정비소에서 ‘갯의 구렁지’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린 것이다.

그런 까닭에 월슨이 보낸 시간을 설명하긴 아주 쉬웠다. 게다가 “아무리 봐도 미친 사람 같은 행색(모습)을 한” 남자 한 명을 보았다는 아이들도 여럿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도로 옆에 서서 이상한 눈초리를 하고서 자신들을 찌려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노 라는 말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월슨의 그 후 세(3) 시간 동안(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행적은 묘연한 상태였다.

“다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라고 ‘월슨’(차량 정비소 주인)이 말했다고 한 ‘미카 엘’(그리스인 청년. 커피 점 주인)의 말에 중점을 둔 경찰은 이 세 시간 동안(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월슨이 그 부근에 있던 이 차량 정비소에서 저 차량 정비소로 돌아다녔을 거라고 보고 있다. 왜긴, 사고 차량인 노란색 자동차를 탐문하며 말이다.

하지만 실은 그와는 전혀 반대였다. 어떤 차량 정비소 직원도 “월슨 비슷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걸로 봐선 아마도 월슨이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았던 것이 분명했다. 자신이 알아내고 싶었던 바를 알려줄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쉬운 길 말이다.

어쨌든 오후 2시 30분이 지났을 쯤에는 월슨이 ‘웨스트 에그’(서쪽 달걀. 아래의 네이버 지도 참조. 대략적인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야 함)에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누군가에게 “개츠비의 집이 어디냐?”고 물었으며, 적어도 그쯤에는 확실한 것이 적어도 월슨도 개츠비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시간은 다시 오후 3시에서 오후 2시로 이동합니다. 장소도 다시 개츠비의 저택으로 이동합니다. 즐독하세요~)

오후 2시쯤 되자 개츠비(31세. 데이지의 연인)는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위에도 입고 아래에도 입은 거)을 입고서, 정원사에겐 “풀장(수영장)에 가 있을 테니 나를 찾는 전화(데이지의 전화)가 걸려오면 그리로 돌리게.”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뒀다.

개츠비는 여름 내내 파티 손님들이 즐겁게 가지고 놀았던 ‘공기 매트릭스’(물 위에 띄우고 위에 누워 쉬는 수영 침대)를 하나 꺼내러 자동차 차고지(주차하는 곳)에 들렀다.

그의 운전사가 공기 매트릭스(침대)에 공기를 주입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런 다음 개츠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픈카(지붕 없는 차. 어제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낸 노란색 자량)는 밖에 꺼내놓지 말게!”라며 운전사에게 특별히 지침을 내렸다.

개츠비의 지시는 운전사를 좀 의아하게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오픈카의 오른쪽 앞쪽 바퀴 덮개가 아무리 봐도 수리가 필요해보였기 때문이었다.

개츠비(31세. 데이지의 연인)는 그 ‘공기 매트릭스’(수영용 침대)를 어깨에 짊어지고는 풀장(저택 내 개인수영장)으로 향했다.

개츠비가 가다 말고 멈춰서는 어깨 위에 있던 매트릭스의 위치를 좀 옮겨보는 것을 본 그 운전사는 “도움이 필요하신지?”라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개츠비는 고개를 흔들며 보이더니 채 1분도 안 돼서 노랑(노란색) 물이 든 나뭇잎들 사이로 사라지고 말았다.

어떤 전화 연락도 없었지만 집사(가사도우미)는 졸지 않고서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전화 연락이 왔어도 아무도(개츠비) 받을 수 없게 된 오랜 뒤에까지 집사는 기다렸다.

‘정말 (데이지에게서) 전화 연락이 올 거라고 개츠비 그 자신도 믿었을까?’, 싶다. 아니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것(신경 쓰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단 하나의 꿈’(옛 연인인 데이지를 다시 만나 열정적이었던 예전의 자신을 재확인하는 싶은 욕망)을 너무 오래 품어온 것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지른 결과 예전의 그 ‘따뜻한 세계’(20대의 순정. 개츠비는 26세 때 데이지를 처음 만나 사랑을 나누었음)를 잃고 말았다고 그가 분명 느꼈을 것임이 틀림없었다.

(아래 내용은, 개츠비의 생각 속을 이 소설의 저자인 피츠제럴드가 상상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읽으시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냥 멈추지 말고 쪽 읽어 나가면 됨~)

풀장의 물뿌리개용 살수구(물 뿌리는 기구. 원문엔 ‘장미(꽃)’라고 되어 있음)가 얼마나 괴상한 지 그리고 무성한 잔디 위에서 햇빛이 얼마나 날 것 그대로일 수 있는지를 새삼 느끼며 개츠비(31세. 데이지의 연인)는 무성한 나뭇잎들 사이로 유달리 낮선 하늘을 올려다보며 몸서리를 쳤을 것이 틀림없다.

신천지(새로운 인식),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물체, 불행한 환상(기억)들이 공기처럼 꿈들로 숨을 쉬고 있는 곳 그리고 예기치 않게 떠돌고 있는 그것은..., ..., ...,

회색빛의 ‘몽환적인’(환상적인) 형상(=구름. 이 날의 구름들은 평상시와 달리 대단히 환상적인 모양의 구름이 많았다고 소설 속에 기술되었었음)이 확실한 형태가 없는 나무들 사이를 헤집고 개츠비를 향해 미끄러지듯 꿈틀꿈틀 기어오르고 있었다.(←다른 책에서도 자주 소개되는 대목입니다. 이 마지막 문단은, 풀장 한 가운데에 공기 매트릭스를 띄우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나가는 각양각색의 구름 모양들을 보고 있는 개츠비에게 총을 든 ‘조지 윌슨’이 접근하는 것을 이 날의 날씨와 구름이 너무 환상적이라 개츠비가 채 제때 인식하지 못하면서 나오게 된 묘사입니다. ‘회색빛의 몽환적인 형상’은 개츠비가 인식을 하였듯 구름이 아니라 ‘총을 든 조지 윌슨’이었던 것입니다. π0π 슬프네요~)

개츠비(31세 남)의 운전기사는 울프샤임(유대인 사기꾼. 개츠비를 사업적으로 키운 사람임)의 부하들 중 한 사람이었는데, 이 운전기사가 “탕!”하는 총소리를 들은 것은 그러니까, 후에 그 운전기사는 그것(총소리)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다고만 말했다.

나는 기차역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개츠비의 저택으로 향했는데 현관 계단을 허겁지겁 밟고 올라가는 내 발자국 소리가 위험을 경고하는 첫 번째 시작이었다.

하지만 확신하건대, 그들도 그땐 이미 눈치 챘다.

자시고 마시고 할 것도 없이, 우리 네(4) 사람은, 그러니까 개츠비의 운전기사과 집사와 정원사 그리고 나는, 급히 풀장(수영장)으로 내려가 보았다.

한쪽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온 새로운 물의 흐름이 워낙에 희미한 잔물결을 일으키며 다른 쪽 배수구 구멍에 물이 빠지도록 재촉하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간신히 인지할 수 있는 실낱같은 물의 움직임 하나만이 겨우 수면 위에 보일 뿐이었다. 물결의 흔적이랄 것도 없는 극소수의 잔물결들뿐이었다.

반면 주인을 실은 매트리스(=공기 매트리스=수영용 침대)는 풀장 아래쪽으로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수면 위에 간신히 주름(물결)을 생기게 할 정도로 약간 세찬 바람 하나에도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당사자를 싣고 가고 있는 ‘정처 없는’(우연한) 진로를 방해하기에 충분했다.

한 무리의 낙엽들이 가서 닿자 당사자를 실은 매트리스는 천천히 회전을 시작했고 그 회전을 쫓아 낙엽들이 다시 이동했다. 마치 제도용 ‘컴퍼스’(산수 도구. 사진링크 ▶ <http://me2.do/FgeRPuRD> , 검색일자:2015-10-16)의 다리 같이, 수면에 피로 물든 얇은 원주(원의 둘레)를 그리고 있었다.

우리가 개츠비(이미 죽었음)와 함께 집으로 출발하고 난 후, 정원사(개츠비의 정원사. 이 사람만은 유대인 사기꾼인 울프샤임의 부하가 이념)가 잔디밭에서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윌슨’(윌

슨=성씨. 조지=이름. 차량 정비소 주인. 어제 오후에 자동차와 부딪혀 죽은 여자의 남편)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렇게 홀로코스트(대참사)는 끝이 났다.

(여기까지가 『 위대한 개츠비 』라는 소설의 8장 끝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9장에서 계속됩니다. 참고로 9장이 『 위대한 개츠비 』의 마지막 장입니다.)

9 장

IX

제 9 장s

2년이 지나고(1924년), 그날(1922년 10월)의 나머지 시간과 그날 밤과 그 다음날을 떠올려 보건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기억이라곤, 오로지 경찰들과 사진기자들 그리고 신문사 기자들이 개츠비 집의 '정문 현관 입구'를 끝도 없이 들락거렸다는 사실뿐이다.

정문엔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 하나가 걸쳐져 있었고 그 옆에 경찰관 한 명이 구경꾼들을 지키고 서 있었지만, 웬걸 꼬마 소년들이 곧 내 집 안뜰을 통해 개츠비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래서 개츠비 집의 풀장 주변에는 놀라 입을 딱 벌리고는 모여 있는 몇몇 아이들이 매번 있었다.

아마도 형사였을 것이다. 적극적인 수사방식을 지향하는 어떤 누군가(형사)가 그날 오후 ‘월슨’(차량 정비소 주인. 자신의 아내가 개츠비와 사귀어 결국 차각해 개츠비를 총으로 쏘아 죽인 남자)의 시신 위로 몸을 숙이면서 “광인(미친 사람)이군.”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의 중후한 목소리와 그 단어가 어우러져 굴복할 수밖에 없는 권위를 갖춘 결과, 그 다음날 아침 신문보도들에서 그 단어는 사건 해독을 위한 열쇠로 작용했다.

(참고 : 아래는 참고사항 :)

소설 속 배경입니다.)

[아래의 지도 두개를 보는 요령 : ‘월슨의 차량정비소’에서부터 ‘개츠비의 집’까지 가는 대략적인 방향]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개츠비의 집’(=웨스트 에그=서쪽 달걀=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그러한 보도들(형사의 말만 믿고 월슨을 미친 사람 취급 한 신문 기사들) 대부분이 하나의 악몽이었다. 어리석고, 아니면 말고 식의, 비사실적인 추측성 기사들 그 자체였던 것이다.

게다가 월슨의 시체를 검시(조사)하는 과정에 참석한 미카엘(그리스인 청년. 커피 점 주인)의 증언이 밝혀지면서 월슨이 자신의 아내를 의심했었음이 드러났을 땐, 이야기 전체가 곧 외설적인 빈정거림들로 가득 채워지겠구나, 라고 나는 생각했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한 마디 정도는 할 수 있었을 캐서린(몸매가 훌쩍하고 세속적인 여자임. 캐서린은 '월슨의 아내'의 여동생임)만은 입도 뻥긋하지 않았는데,

여타 다른 이들(툼과 데이지)처럼 캐서린도 또한 이 사안(불○설)에 대해 놀라 자빠질만한 캐릭터 연기를 보였는데, 똑바로 바로 잡은 눈썹(화장) 아래로, 결연한 눈망울을 하고서 '검시관'(사실을 조사하는 공무원)을 쳐다보며,

“맹세코 저희 언니는 개츠비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여태껏 자신의 남편(월슨)과도 완벽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영위해 왔는걸요. 언닌, 문제 될 소지의 행동을 단 한 차례라도 한 적이 정 말 없어요.”

라고 말을 했던 것이다.

또한 캐서린은 “그것을 하느님께도 맹세할 수 있음을 자신한다!”며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들더니 펄펄 울어댔던 것이다. 마치 그런 추측(추측성 기사)조차도 그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하여 윌슨(캐서린의 형부)은 졸지에 “깊은 슬픔에 빠져 정신에 탈이 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사안도 아주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기사가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 문제(바람피운 것)도 거기서 그냥 묻히고 말았다.

하지만 캐서린이나 윌슨의 아내에 대한 의심 이 부분은 살인 사건과 동떨어진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이었다.

홀로, 개츠비의 편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것도 이때쯤이었을 것이다.

그 참사에 대한 소식을 내가 전화로 ‘웨스트 에그 마을’(개츠비의 집 인근 동네)에 전한 순간부터, 개츠비에 관한 모든 ‘억측’과 모든 실제적인 ‘질문’이 나에게로 떠넘겨졌다.

처음엔 나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 그렇지만, 이미 잠들어 있는 개츠비가 일어나 움직일 수도 그렇다고 숨을 쉬거나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할 수도 없을 노릇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일을 내가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나 말고는 신경 쓰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한 의미는 끝에 가서는 누구나 약간 모호하게나마 우선권을 가지는 그 강렬한 개인적 관심을 말한 것이다.

우리가 개츠비의 시신을 발견하고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난 데이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본능적으로 건 전화였으며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

하지만 데이지(23세. 톰의 아내이자 죽은 개츠비의 연인)와 톰(30세. 데이지의 남편이자 죽은 월슨 부인의 연인)은 사람들에게 짐만 잔뜩 떠넘긴 채 그날 오후 내내 온데 간데 사라지고 없었다.

(소설 속 ‘말하는 사람’인 ‘닉 캐러웨이’가 데이지 네 가사도우미에게 말하는 전화 목소리→) “어디 간다고 주소라도 남긴 거 없었나요?”

“전혀요.”

“언제 돌아온다는 말도 없었지요?”

“네.”

“그들(데이지와 톰)이 갈 만한 장소라도 집히는 곳이 없나요? 긴히 연락을 취해야 할 일이 생겨서요. 어떻게 제가 좀 연락을 할 수 있음 안 되나요?”

“모른다니까 그러시네. 알아도 말씀드릴수가 없어요.”

나는 개츠비를 위해 누군가라도 데려오고 싶었다.

나는 개츠비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누군가라도 데려올게, 개츠비. 걱정 마. 나만 믿어. 당신을 위해서라도 꼭 누군가를 데리고 오겠어....”

‘마이어 울프샤임’(마이어=이름. 울프샤임=독일식 성씨. 유대인 사기꾼이자 개츠비를 사업적으로 키운 사람임)의 이름은 전화번호부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개츠비의 집사가 내게 브로드웨이(뉴욕의 극장가)에 있는 울프샤임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래서 접수처(울프샤임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내가 사무실 전화번호를 얻은 시간이 오후 5시를 훨씬 넘긴 시각이라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닉 캐러웨이→) “다시 전화를 걸 수 있을까요?”

(교환원→) “벌써 세 번 째세요.”

“아주 중요한 전화라서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 죄송하지만 아무도 수화기를 받지 않는군요.”

나는 응접실(개츠비 저택의 응접실)로 되돌아왔다.

일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

‘응접실을 불시에 가득 메운 이러한 모든 공적인 사람들은 단지 우연히 여길 들르게 된 방문객 들일 뿐이잖아.’

하지만 그들이 시트(침대커버)를 젖히고 동공이 움직이지 않는 개츠비를 내려다볼 동안에도, 개츠비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항의하고 있었다.

“이봐요, 형씨(닉 캐러웨이), 날 위해 누구라도 데려와야 할 거 아니오. 열심히 돌아다녀 보시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구려.”

어떤 사람들이 내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 그들을 떨쳐버리고 2층으로 올라가 허겁지겁 개츠비의 책상에서 잠겨있던 부분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개츠비는 내게 분명히 말한 적이 결코 없었다.

하지만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방에는 단지, 뭘 착각하고 그래 라는 식으로 벽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댄 코디’(개츠비가 17세 때 만났던 억만장자. 광산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 20대 초까지 개츠비의 보스였었음. 댄=이름. 코디=성씨. 댄 코디가 배 위에서 비명횡사한 후 개츠비는 대학을 다녔고 나중에 군인이 되었다가 주둔지 인근에서 퀸카였던 18세 데이지를 만나게 됨. 당시 개츠비 나이가 26세)의 사진뿐이었다.

다음날 나는 집사(개츠비의 집사)를 뉴욕(웨스트 에그 서쪽에 있음.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으로 보내 편지 한 통을 울프샤임(1919년 데이지가 부자인 톰 뷰캐넌과 결혼해 버린 후, 군대도 전역하고 거의 빈털터리가 된 28세의 개츠비를 거둬 사업적으로 키운 ‘사람=유대인 사기꾼’)에게 전달하게 했다.

편지의 내용은, <자료 요청(개츠비 가족에 관한 자료 요청)과 다음 열차편으로 이곳을 방문해달라는 재촉>이었다.

편지를 쓰면서도 쓸데없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싶었는데,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개츠비의 집’(=웨스트 에그=서쪽 달걀=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그 날 아침신문들을 보고서 난 그가 이곳으로 바로 출발한 줄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난 적어도 오늘 낮 12 전까지는 데이저로부터도 전화 연락 한 통 정도는 받을 줄로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화기도 울리지 않았고 그리고 울프샤임 씨(유대인 사기꾼)도 도착하질 않았다.

단지 사건 당일이었던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경찰관들과 사진기자들 그리고 신문사 기자들이 이 집에 도착했을 뿐이었다. 그들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누구도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다.

집사가 울프샤임의 대답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들 모두에 맞서, 개츠비와 나 사이에 냉소적인 단결 비슷한 것을 느끼면서 난 발끈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래는 ‘울프샤임’이 ‘닉 캐러웨이’에게 보낸 편지내용입니다. “못 간다”는 내용입니다.)

(편지 시작)

〈친애하는 ‘캐러웨이’(닉=이름. 캐러웨이=성씨) 씨에게.

이번 소식은 제 일생에서 가장 끔찍한 충격들 중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그 일이 믿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가 한 그런 미친 행동을 분명 우리 모두는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려갈(방문할) 수 없습니다.(소설 속에서. “서쪽에 있는 뉴욕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서쪽에 있는 뉴욕에서 동쪽에 있는 웨스트 에그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라는 말을 사용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뉴욕의 땅 높이가 바다에서 더 높은 모양입니다. 아닌가??)

지금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에 얽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문제(개츠비의 죽음)에 얽혀두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만약 후에라도 도와드릴 것이 있으시다면 ‘에드거’(개츠비의 집사이름)를 통해 편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하고서 억장(슬픔)이 무너지는 가운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도 전 지금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모를 지경입니다.

당신의 친애하는 친구인 ‘마이어 울프샤임’(마이어=이름. 울프샤임=독일식 성씨. 유대인 사기꾼)으로부터>

(이 문장은 닉 캐러웨이가 쓴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울프샤임)는 편지 아래에 다음과 같이 황급히 덧붙였다 :

(이 문장은 울프샤임의 편지지 맨 아래에 있던 문장임→) <장례(=개츠비의 장례식)와 관련된 진행 사항들에 대해 제게 알려주십시오. 전(=울프샤임) 그(=개츠비)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편지 끝)

그날(사건 다음날) 오후 수화기가 울리고 장거리 전화교환국 직원이 내게 “지금 시카고(미국 북서부. 5대호가 있는 곳. 톰과 데이지가 뉴욕 근처<롱 아일랜드>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에서 장거리 전화가 걸려왔어요.”라고 말했을 때까지만 해도 난 마지막까지 그 전화가 데이지(23세. 개츠비의 연인)로부터 걸려온 전화일수도 있을 거라고 철썩 같이 믿었다.

하지만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선 어떤 남성의 목소리였다. 음성이 아주 힘이 없고 멀찍이서 들려왔다.

(개츠비의 사업 파트너인 스래글의 대사→) “저(저는) 스래글(남자이름. 이후 다시 안 나오는 이름)입니다....”

(닉 캐러웨이의 대사→) “넛?” 전혀 낯선 이름이었다.

(스래글의 대사→) “지랄 맞은 메모 받으셨겠지요? 제가 전보로 보낸 거 말입니까?”

(닉 캐러웨이의 대사→) “도착한 전보가 아무 것도 없었는데요.”

“신출내기(초보자) 파크(아이이름)가 곤경에 처해 있다지 뭐요.”라며 스래글(개츠비의 사업파트너)이 빠르게 말을 했다. “카운터(판매대)에 채권 증서들을 넘겨주다가 놈(경찰)들에게 걸렸다지 뭐니까. 정확히 그 5분 전에, 뉴욕에서 놈(경찰)들에게 채권들의 일련번호들이 담긴 전단지 하나를 건넸기 때문이죠. 그래(원문엔 ‘이봐!’라고 되어있음), 이 사안에 대해 더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 촌스러운 읍(시카고)에선 당최 알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여보세요!” 난 숨까지 헐떡이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보세요... 전(저는) 개츠비 씨가 아닙니다. 개츠비 씨는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수화기 끝(전화 통화하는 상대방)에서 외마디 탄식이 들려오더니 이후 긴 침묵이 있었다....

그런 다음 그가 재빨리 뭐라 “깍!”하고 불평을 하는가 싶더니 이내 “뚝!”하고 연결이 끊겨버렸다.

(▲위 문장과 ▼아래 문장 사이에 낱자 하루가 흘렀습니다.)

‘헨리 시(C.) 개츠’(개츠비의 친아버지. 개츠비의 진짜 성씨가 ‘개츠’임)라고 싸인(서명)이 된 전보 한 통이 ‘미네소타 주’(미국 북부. 아래 지도 참조)에 있는 어떤 읍에서 개츠비의 집으로 도착한 것은 사건 발생 후 3일째 되는 날로 기억한다.

(아래의 지도를 보는 법 : 개츠비의 고향은 ‘노스다코타 주’입니다. 미네소타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주입니다. 여기서 개츠비는 댄 코디를 만나게 됩니다.)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미네소타 주’(=미국 북부=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전보내용은 <전보를 보낸 사람이 곧 당도할 테니 그때까진 장례식을 연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개츠비(개츠비의 본명은 17세 때까지 '제임스 개츠'였음. 17세 때 댄 코디를 만나고 이름을 '제이 개츠비'라는 멋진 스스로 바꾸었음)의 친아버지였다.

근엄(엄숙)해 보이는 노인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해하셨고 낙담해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더운 9월 날씨에도 길이가 긴 싸구려 '얼스터'(허리띠가 있는 긴 외투. 사진링크

▶ <http://me2.do/Gb0SAEay> , 검색일자:2015-10-19)를 꺼입고 계셨다.

격양된 감정이 그의 두 눈을 통해 끈임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의 두 손에서 가방과 우산을 내가 빼앗아 들었을 때, 그가 보기에다 술이 적은 자신의 회색 턱수염을 실 새 없이 쓸어 당기는 통에 내가 그의 외투(얼스터 외투)를 벗기는데 어찌나 애를 먹었는지 모른다.

그(개츠비의 친아버지)는 멘붕 직전이었다.

그래서 난 그를 데리고 음악실(“5장 #53”에서 발췌 ▶ <‘마리 앙투아네트’(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왕비) 왕비가 살던 당시 풍으로 복원된 ‘음악실’에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피아노 옆에 램프가 홀로 서 있었다.> “5장 #53” 링크 ▶ <http://me2.do/xSEY11CS> , 검색일자:2015-10-19)로 가 자리에 앉히곤 그 사이에 드실 수 있는 걸 준비하도록 시켰다.

하지만 그는 한 입도 대시지 않았다. 어찌나 손을 떠서든지 우유 잔을 쏟고 말았다.

“시카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라며 그(개츠비의 친아버지)가 말했다.

“시카고 신문에 ‘온통 도배가 되어’(가득 채워져) 있더군요. 보자마자 곧장 이리로 달려왔습니다.”

(소설 속 말하는 사람인 닉 캐러웨이의 대사→) “연락드릴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그의 두 눈이 쉴 새 없이 방(음악실)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미친 자(개츠비를 총으로 쏜 조지 윌슨)입니다.”라며 그가 말을 했다. “미친 자가 틀림없어요.”

“커피 좀 더 드릴까요?”라며 내가 좀 더 드실 것을 재촉했다.

“아닙니다. 종체 입에 대고 싶질 않군요. 전 지금 괜찮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래 성함이....”

“아, 전(저는) ‘캐러웨이’입니다.”(닉=이름. 캐러웨이=성씨)

“글쎄, 전 지금 멀쩡합니다. 그래 그들이 ‘지미’(‘제임스’를 귀엽게 부른 것임. 17살 때까지 개츠비의 본명이 ‘제임스 개츠’였음)를 어디다 놔혀 놓았나요?”

난 그를 데리고 그의 친아들이 누워 있는 응접실로 가 그가 거기에 홀로 머물 수 있게 자리를 피해주었다.

몇몇 악동(어린이)들이 계단들을 밟고 서선 홀(복도)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아이들에게 누가 와 계신지를 말해주니 아이들도 ‘엉거주춤 거리며’(마지못해하며) 모두 물러갔다.

조금 있으려니 ‘개츠’ 씨(개츠비의 친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입술은 조금 열려 있었으며 얼굴도 약간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고독감이 새어나오는 그의 두 눈에선 불규칙한 간격으로(띄엄띄엄) 눈물방울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개츠비의 친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주는 그런 연령 대는 지났던 것이다.

처음에는 고개를 돌려 자신을 돌아보다가 홀(복도)의 높이와 호화로움 그리고 더 큰 다른 방들로 연이어 연결되어 있는 응접실의 웅장한 모습을 보자, 그의 슬픔이 경이로운 자부심과 혼합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부축해가며 2층 침실로 안내했다. 거기서 그가 자신의 외투(얼스터 외투 사진링크 ▶ <http://me2.do/Gb0SAEay> , 검색일자:2015-10-19)와 조끼(윗옷)를 벗는 동안 내가 그에게 “아버님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절차(개츠비의 장례절차)들을 연기해놓았습니다.”라며 말해주었다.

(닉 캐러웨이의 대사→) “(아들의 장례식을) 어떻게 진행하기를 바라실지를 몰라서요, 개츠비 씨....”

“개츠가 제 이름(성씨)입니다.”

“...개츠 씨. 관(시신)을 서부(미국서부. 개츠비의 고향이 미국서부임)로 옮기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가 고개를 흔들었다.

“지미(제임스를 귀엽게 부른 이름임. 개츠비의 본명은 ‘제임스 개츠’임)는 항상 동부(미국동부)를 더 좋아했지. 입지를 다진 것도 동부(미국동부)에서였고. 그래 당신은 내 아들 놈의 친구였소, 미스터...?”

(닉 캐러웨이의 대사→)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럼 알겠어요, 녀석은 앞날이 짱짱한 놈이었지. 아직 어리긴 했지만,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키며) 여기 이 두뇌(지력)만은 대단한 놈이었지.”

인상적인 몸짓으로 그가 자신의 머리를 만졌다. 물론 나도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시했다.

(개츠비 아버지의 대사→) “만일 녀석이 더 살았더라면 틀림없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거요. 왜 있잖소, 제임스 제롬 힐(미국 북서부에 철도를 놓은 사람. 사진링크▶<http://me2.do/5uXTZ0nf> . 더 읽을 자료 - 위키 백과 ▶<http://me2.do/Fi6SkBAR> , 검색일자:2015-10-20) 같은 인물 말이요. 아마 지미도 그들 못지않게 나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사람이 됐을 것이오.”

“맞습니다, 어르신.”라며 난 다소 편치 않은 마음으로 대답했다. (개츠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술을 판매하여 돈을 벌었음)

‘수가 놓인’(표면에 무늬가 새겨진) 덮개(침대덮개)를 손으로 더듬으며 침대에서 벗겨내려 다가 그는 그만 뻗뻗한 자세로 눕더니 ‘이내 훑아떨어지고 말았다’(금방 잠들고 말았다).

그날 밤(개츠비가 죽고 3일째 되는 날) 깜짝 놀랄만한 인물에게서 전화연락이 왔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부터 물어왔다.

그래서 난 “전화 받는 사람은 캐러웨이(닉=이름. 캐러웨이=성씨) 씨입니다.”라고 대답해주었다.

“아하!”라며 그(개츠비 저택의 하숙생)가 안심했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저(저는) ‘클립스프링어’(바위타기영양이란 뜻임. 사진링크 ▶ <http://me2.do/FD4QZBig> , 검색일자 : 2015-7-25, ”4장 #6“ 본문 발췌 ▶ “그는 개츠비의 저택에 종종 그러니까 너무 자주 들렀었는데 한 번 왔다하면 죽치고 눌러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개츠비 저택의 하숙생으로 받아들여지곤 했다. 솔직히 ‘클립스프링어’에게 다른 집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지만.”)입니다.”

그 말에 나도 역시 안도했다. 왜냐하면 개츠비의 장례식에 참석할 또 한 명의 친구를 발견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난 개츠비의 장례를 신문지상으로 알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중이떠중이로 몰려들 구경꾼들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할, 물론 나도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연락을 취해오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장례식은 내일입니다.”라며 내(30세)가 말했다. “오후 3시에, 여기 이 저택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석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누가됐던 그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오, 그러지요,”라며 그(=클립스프링어=개츠비의 하숙생)가 불쑥 말했다. 그의 말엔 어찌 경솔함이 묻어 있었다. “물론 조만간 만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만나면 전하겠습니다.”

난 이 부분에서 그(=클립스프링어=개츠비의 하숙생)의 진정성이 심히 의심되기 시작했다.

(소설 속에서 말하는 사람인 닉 캐러웨이의 대사→) “뭘 소리시죠, 참석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음 그게 말이죠, 네 참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린 목적은...”

“잠시 만요,” 내가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오실지 안 오실지를 확실히 말해주세요.”

“글쎄 그게 그러니까, 실은(사실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그리니치’(뉴욕 북동쪽에 있는 인근 주거지역. 개츠비의 집이 있는 웨스트 에그에서 롱 아일랜드 해협을 건너 맞은편에 있음.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에 몇몇 지인 분들과 함께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글쎄 그들이 저도 그들과 함께 자리해주었으면 하고 바라지 뭡니까. 사실, 내일 피크닉(소풍) 비스 무리한(비슷한) 것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물론 최선을 다해 빠질까는 생각중이지만....”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그리니치’(=뉴욕 북동쪽 인근 주거지역=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별안간 내 입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흥!”하는 소리가 내뿜어졌다.

물론 난 그(개츠비의 하숙생)도 이것을 들었으리라 확신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그가 다소 신경질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개츠비의 하숙생인 클립스프링어(바위타기영양이란 뜻임)의 대사→)(다소 신경질적으로 하는 대사→) “제가 거기(개츠비의 저택) 두고 온 신발 한 켤레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던 겁니다. 크게 번거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집사(개츠비의 집사)를 시켜 제 신발을 보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신도 보셨을 겁니다, 테니스 신발 한 켤레입니다. 그 신발을 신지 않으면 도통 힘이 안 나세요. 보내실 주소는 제 절친(친한 친구)인...”

난 도저히 그 나머지 이름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분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수화기를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나니 난 특히 더 개츠비에게 부끄러워졌다.

더욱이 내가 전화한 한(1) 신사는 “그(개츠비)가 그렇게 된 건 자업자득이요.”라는 식의 암시까지 내게 했더랬다.

하지만, 그 신사에게 전화를 건건 명백히 내 실수였다. 왜냐하면 개츠비가 주최한 파티장의 술 기운을 빌려 개츠비에 대해 가장 신랄하게 비꼬던 자들 중에 한 명이 그였기 때문이다. 그에게 전화할 정도로 내가 어리석지 않았어야 했다.

t

장례식(개츠비의 장례식)날 아침에 난(30세) ‘마이어 올프샤임’(마이어=이름. 올프샤임=독일식 성씨. 유대인 사기꾼이자 무일푼의 개츠비를 사업적으로 키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직접 뉴욕으로 올라갔다. 굳이 찾아가기까지 한 이유는 이 방법 외에는 도무지 그와 연락이 닿질 않았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소년’(심부름꾼 아이)의 충고대로 “스와스티카 지주회사(=홀딩컴퍼니)”(스와스티카=권 ←독일에서 사용한 그 무시무시한 문양 아시죠. 그게 이름이 ‘스와스티카’입니다. 이 소설이 출간된 해는 1925년이라 ‘스와스티카’라는 단어를 소설에서 사용하는 데 부담감이 덜했나 봅니다. 스와스티카는 고대인도어로 “행운”이란 뜻이기도 합니다.)라고 회사마크가 새겨진 문을 미니 열렸다.

우선은 안에 아무도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내가 “누구 안계세요.”라고 몇 번을 헛되이 부르자, 말다툼 비슷한 게 사무실 칸막이 뒤에서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곧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는 유대인 아가씨 한 명이 안쪽 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짙은 검정색 눈망울에 잔뜩 적의(나쁜 뜻)를 담아서 나를 면밀히 훑어보고 있었다.

“아무도 안 계세요,”라며 그 유대인 아가씨가 말했다. “울프샤임 씨는 시카고(미국 북서부 도시, 5대호가 있는 곳임)에 가고 안 계세요.”

이 말의 첫 번째 부분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막 사무실 안쪽에서 <로자리오>(참고바람 : 유튜브에서 음악듣기<음질이 아주 안 좋음ㅏ0ㅏ>▶<https://youtu.be/zv6nPqfVx24> , 검색일자:2015-10-21. 링크는 로버트쇼합창단이 19세기 말 노래를 19'54'년에 다시 부른 노래임. 이 소설이 출간된 해는 19'25'년임)를 휘파람으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소설 속에서 말하는 사람인 닉 캐러웨이의 대사→) “캐러웨이 씨가 그(울프샤임)를 만나 보러 왔다고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예쁜 유대인 아가씨의 대사→) “(발끈해하며) 제가 그 분을 시카고에서 지금 당장 데리고 올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어요, 넷?”

바로 이 순간에, “스텔라(여직원 이름. 이후 다시 안 나오는 이름임!)”라며 틀림없는 울프샤임(유대인 사기꾼. 무일푼의 개츠비를 사업적으로 부자로 키운 장본인)의 목소리가 반대편 문에서 들려왔다.

“방명록에 성함을 적어두고 가세요,”라며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그럼 그(울프샤임)가 돌아오는 대로 전달해드릴 테니까요.”

“하지만 그(울프샤임)가 여기 있다는 걸 제가 다 아는걸요.”

그녀(여직원)는 내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서더니 매우 화가 나서는 자신의 두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아래위로 쓸면서 만지기 시작했다.

“당신네들 젊은 남자들일랑은 본래부터 타고나길 언제든 밀고 들어오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라며 그녀(=여직원=유대인 아가씨)가 잔소리를 해댔다. “저희도 이젠 지긋지긋하다고요. 제가 분명 그 분(울프샤임)이 시카고(미국 북서부 도시. 5대호가 있는 곳임)에 가 계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그럼 그 분은 시카고에 계신 거란 말예요.”

난 개츠비(죽었음)를 언급했다.

“오... 어머니!”라며 그녀가 나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았다. “좀 전에... 성함이 무엇이라고 그러셨죠?”

그녀가 사라졌다. 곧 바로 마이어 울프샤임(마이어=이름. 울프샤임=독일식 성씨. 유대인 사기꾼이자 무일푼의 개츠비를 사업적으로 부자로 만든 사람)이 장엄하게도 문 앞에 서서는 나를 향해 자신의 두 손을 내밀고 있었다.

울프샤임이 나를 이끌고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서며 경건한 목소리로 논평하기를,

(울프샤임의 대사→) “지금은 우리(=개츠비의 지인들) 모두에게 슬픈 시간이며, (대화의 주제를 바꾸며) 어째 시○(피우는 답○) 한 대 피우지 않겠냐?”고 권해왔다.

(아래는 모두 울프샤임의 긴 대사입니다. 개츠비를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는 부분임)

(울프샤임의 긴 대사 시작)

“내가 개츠비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군,”라며 울프샤임(유대인 사기꾼)이 말했다. “군대에서 막 제대한 젊은 소령(군대 계급) 하나가 전쟁(제1차 세계 대전) 때 받은 메달(훈장)들을 가슴에 주렁주렁 매달고선 나타났지. 돈에 극도로 쪼들려 있어서인지 양복 한 벌 사 입을 여유가 없어 제대 후 날 만날 때까지 제복(군인제복) 하나로만 지내왔다더군.

(읽기 쉽도록 단락을 한 번 나눔)

43번가(뉴욕거리)에 있던 와인브레너(가게이름) 내기 당구장 안으로 들어와 자신이 일할 만한 일자리가 있는지를 물어보더군, 그러니까 그때가 내가 그를 처음 본 순간이었네.

(읽기 쉽도록 단락을 한 번 나눔)

며칠 동안 아무 것도 먹질 못했다고 해서 내가 데려다가 나와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지.

(읽기 쉽도록 단락을 한 번 나눔)

내 맹세건대 그때 개츠비는 단 30분 만에 8만원(당시 돈 4달러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7만 원 정도라 쉽게 읽히게 만원을 더 더해서 8만원으로 해석함. ^0^ 전혀 근거 없는 계산인거 아시죠??) 치 이 상의 요리를 해치웠네.”

(울프샤임의 긴 대사 끝)

(닉 캐러웨이의 대사→) “그럼 그때부터 그와 사업(불법적으로 술을 팜. 당시 미국은 금주법 시대. 술을 마시는 건 자유지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었음)을 시작하신 건가요?”라며 내가 물었다.

(유대인 사기꾼인 울프샤임의 대사→) “사업을 시작했냐고! 그를 만든 게 바로 나일세.”

(닉 캐러웨이의 대사→) “아.”

“밑바닥 삶에서 무일푼으로 살고 있던 그를 사업적으로 일으켜 세운 게 바로 나였네. 첫 만남에서 놈이 그림이 된다는 걸 내가 알아봤던 거지, 더구나 예의까지 바른 신사적인 젊은 놈이었으니 말 다한 거지.

(울프샤임의 대사가 넘 길어서 읽기 쉽도록 단락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0^;;)

자기 자신을 옥그스퍼드(‘옥스퍼드 대학교’를 울프샤임이 잘못 발음한 것임) 출신이라도 말했을 때 난 놈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더랬지.

그래서 그(개츠비)를 새로 결성되던 ‘미국 재향군인회’(군대 제대하면 가는 곳.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4개월 후(1919년 3월)에 결성됨)에 가입시켜주었네.

거기서 녀석은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곤 했다네.

그리고 그 즉시(미국 재향군인회에서 높은 직책을 맡은 직후) 뉴욕 주(≠뉴욕‘시’가 아님. 미국 동부에 뉴욕 ‘주’라고 따로 있음) 올버니(뉴욕 주의 주도)에서 내 고객들 중 한 명을 위해 몇몇 일들을 맡기 시작했지.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올버니’(=미국 동부 뉴욕 주의 주도=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작은 지도]

이처럼 우리 모든 사업 분야에서 환상의 짝패(파트너)였다네.”

...울프샤임이 보기 싫게 둥글납작한 자신의 손가락 두(2) 개를 내게 들이밀었다.

“이 두 손가락들처럼 언제나 함께였지.”

나는 궁금해졌다. 1919년에 있었던 월드 시리즈(미국야구경기) 승부조작 사건에도 그들의 파
트너십(울프샤임과 개츠비의 협력)이 작용했는지 말이다.

(▼앞뒤 설명 시작)

(앞뒤 설명 : “4장 #44(<http://me2.do/GIPi8M7P>)”에서 발췌 → <순간 개츠비가 말하기를 주
저하더니 처분하게 덧붙였다. “1919년에 월드 시리즈(미국야구경기)에서 있었던 승부조작 사건을 막후
에서 조종한 사람이 바로 그(울프샤임)입니다.”> 1919년에 미국에서 ‘블랙삭스 스캔들’이 있었음. 즉 당
연히 이기리라고 생각되던 선수들이 돈을 받고 상대방에게 졌다는 내용임. 해당 스캔들을 잘 정리한 우
리나라 사이트링크 ▶ <http://me2.do/F2GFqiHR> , 위키백과(사진) ▶ <http://me2.do/5wKhDrGO> ,
검색일자:2015-8-2. 참고로 ‘블랙삭스 스캔들’에 대해 알아두면 나름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의 시대
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링크 건 주소를 클릭해서 읽어보시길~ 위키백과 링크주소
를 클릭하면 사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앞뒤 설명 끝)

“지금은 죽은 사람입니다,”라며 잠시 땀을 들인 후 내(30세)가 말했다. “당신(울프샤임)은 개츠
비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개츠비의 장례식에 오실 건지 알고 싶어 여기까지 온 겁니
다.”

“가곤(가고는) 싶네.”

“잘 됐네요, 그럼 오세요.”

울프샤임(유대인 사기꾼이자 군을 제대하고 무일푼이었던 개츠비를 사업적으로 키운 사람)의 두 콧구멍에 있던 털들이 가볍게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그가 고개를 흔들었는데 그 바람에 그의 두 눈에 가득 고인 눈물들을 난 볼 수 있었다.

(유대인 사기꾼인 울프샤임의 대사→) “갈 순 없네... 그 일(개츠비가 죽은 살인사건)에 얽히고 싶지 않다네.”라며 울프샤임이 말했다.

(닉 캐러웨이의 대사→) “얽히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이젠 다 끝난 일인걸요.”

(울프샤임의 대사→) “사람이 죽은 일에는 여하튼 끼지 않는 게 내 철칙이었네. 난 여기서 자리를 지키며 자네들을 바라보고만 있겠네. 물론 나도 젊었을 땐 많이 달랐네... 친한 친구가 죽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동무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었지. 자네가 그걸 감상적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하지만 난 진심에서 한 말인걸... 끝장을 볼 때까지 함께 머물러 주었었지, 젊었을 땐 말이야.”

어떤 개인적 경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그가 확고히 결심한 것을 본 이상, 난 자리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자네 대학교는 나왔나?”라며 울프샤임(유대인 사기꾼)이 불쑥 물어왔다.

잠시 난 생각했다. 그가 예전에 말한 적이 있는 “사업 연줄(사업 제안)” 얘기를 또 꺼낼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나와 악수만 나누었을 뿐이었다.

“친구가 살아 있을 적(동안)에는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우정을 보여주는 법을 배우세, 하지만 그가 죽은 뒤라면,”라며 그가 제안했다. “만약 그 친구가 죽은 뒤라면 그냥 모든 걸 좀 가만 내버려두자라는 게 내 인생 철칙(노하우)이라네.”

울프샤임(유대인 사기꾼이자 군대를 제대하고 무일푼이었던 개츠비를 사업적으로 키운 사람)의 사무실(뉴욕시내)을 떠날 때 보니,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더랬다.

나는 가랑비(가늘게 내리는 비. 가랑비>이슬비)를 맞으며 웨스트 에그(닉의 집과 개츠비의 집이 있는 곳. 맨 아래쪽에 있는 구글 지도 참조)에 도착했다.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개츠비의 집’(=웨스트 에그=서쪽 달걀=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내 옷을 갈아입고 난 후, 이웃집(=개츠비의 저택임. 닉 캐러웨이의 잔디밭 바로 옆이 개츠비의 잔디밭임. 서로 이웃집임)으로 가니, 개츠 씨(개츠비의 친아버지. 개츠비의 본명이 ‘제임스 개츠’임)가 무척 당당한 태도로 저쪽 복도에서부터 상기된 얼굴로 이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다.

자기 아들(죽은 개츠비)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 아들이 소유했었던 것(재산)들에 대한 자긍심으로 그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는데 급기야 내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

“지미(‘제이 개츠비’의 진짜 이름인 ‘제임스 개츠’에서 ‘제임스’를 귀엽게 부른 이름)가 언젠가 내게 이 사진을 부쳐주었다오.”라며 그(개츠비의 아버지)가 자신의 지갑에서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손가락들을 이용해 뭔가를 꺼내보였다. “보시구려.”

그건 개츠비의 저택을 찍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의 모퉁이들은 갈라져 있었고 수많은 손(양손 할 때의 ‘손’)들이 이 사진을 거쳐 간 듯 사진이 더럽혀져 있었다.

그(개츠비의 아버지)가 지금 열을 올리며 사진 속 하나 하나를 콧속 집어가며,

“여길 좀 보시구려! 여기도 좀 보시구요!”라며 말하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말한 다음이면 어김없이 내 두 눈동자를 살피며 칭찬의 말을 갈구했다(찾았다).

그(개츠비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자기 아들 집 사진을 남들에게 지나치게 자주 보여주면 살아왔기 때문인지 지금 이 저택에 있으면서도 저택 자체보다는 자기 지갑 속에 있는 그 사진이 더 현실감이 있다고 여기는 듯 보였다.

“지미(제임스를 귀엽게 부른 이름)가 이 사진(개츠비의 저택을 찍은 사진)을 내게 보내주었다 오. 지금 봐도 참말로 끝내주게 예쁜 사진이올시다. 정말 잘 나온 사진이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러네요. 그래 최근에 아드님(개츠비)을 뵈는 적이 있었나요?”

(개츠비의 친아버지의 대사→) “2년 전 썸엔가 녀석(개츠비)이 날 찾아와 집을 한 채 사주고 간 적이 있었네. 지금 사는 집이지. 당연히(=14년 전=개츠비가 17세 때) 녀석이 집을 뛰쳐나갈 당시만 해도 우린 거의 부자의 연을 끊다시피 한 상태였지 그래도 지금 와 생각해보니 그럴 만 했구먼. 자기 앞에 엄청난 미래가 펼쳐져 있는 걸 녀석은 알아챘던 게지. 그래도 크게 성공한 이후부터 아버지인 내게도 잘 대 해주더구먼.”

사진(개츠비의 저택을 찍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기가 무척이나 망설여지시는 듯 그(개츠비의 아버지)는 그렇게 몇 분을 더 손에 쥘 채 내 눈 앞에 갖다 대다시피 했다.

사진을 지갑에 넣은 다음, 그는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서 누더기(헌 것)가 다 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들었다.

책에 『호팔롱 캐시디』(19'04'년에 만들어진 미국서부극을 다룬 소설 속 카우보이 영웅이름. 위대한 개츠비는 19'25'년에 출간되었음. 19'3'5'년에 만들어진 영화 속 한 장면 속 카우보이 '호팔롱 캐시디' 사진 링크 ▶ <http://me2.do/58geuxwr> , 검색일자:2015-10-23)라고 적혀 있었다.

“이걸 보시게나, 이 책(카우보이 소설)은 지미가 애(소년)일 때 품고 다니던 책일세. 이걸 보면 자네도 내 말 뜻을 알게 될 걸세.”

그(개츠비의 친아버지)가 책 뒤표지를 열어 그 속을 내가 볼 수 있게 앞뒤를 뒤집어보였다.(뭔 소리-_-;; 내가 해석해 놓고도 뭔 소린지...음-_- 책을 펼쳤다는 소리겠조^^)

‘책 뒤표지’의 ‘바로 안쪽에 있는 종이’엔 <시간표 – 1906년 9월 12일>(앞뒤 설명 : 1906년은 개츠비가 15세 때임)라는 글씨가 쿡쿡 눌린 상태로 적혀 있었다.

침대에서 기상.....아침 6시까지

아령(=팔운동 기구) 체조 및 가파른 담(벽) 오르기.....아침 6시 15분 ~ 6시 30분까지

전기학(=과목이름) 공부, 기타 등등.....아침 7시 15분 ~ 8시 15분까지

일(=농사일. 농부인 아버지를 도우는 것을 말함).....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30분까지

야구 시합 및 스포츠.....오후 4시 30분 ~ 오후 5시까지

웅변술(=말하기) 및, 자세 및, 어떻게 웅변술을 잘 익힐지를 연습....오후 5시 ~ 오후 6시까

지

그때그때 필요한 창의력 공부.....저녁 7시 ~ 밤 9시까지

<굳게 다짐한 것들>(설명 : 원문에 나오는 아래의 글에는 숫자와 마침표가 없음. 읽기 쉽도록 숫자와 마침표 그리고 문장을 한 줄로 나눔)

1. 아버지가 수레에 매어놓은 짐말을 가지고 쓸 때 없는 장난치며 절대로 놀지 않기

2. (제가 쓴 게 아니라 원문에 있는 것임. 닉 캐러웨이가 말하는 것임→) 그 아래에 뭐라고 하나 더 적혀 있었는데 판독이 불가능했다.

3. 담○와 씹는 담○를 절대로 하지 않기(이건 내 생각→소설이 아니더라도 몸에 안 좋은 담○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0^).

4. 이틀에 한번 꼴로 꼭 목욕하기

5. 도덕적인 책이나 유익한 잡지를 한 권씩은 꼭 읽기.

6. (글자 위 아래로 가운데에 옆으로 길게 이 문장 전체에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은 원문 그대로임. 구글 문서에선 표시가 안 됨→) 1주일에 꼭 10만원 씩 저축하기.(내 설명→1주일에 꼭 10만원씩 저축하기. 원문에 덧붙여져 있는 것→) 1주일에 6만원만이라도 꼭 저축하기.

7. 부모님들보단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설명 : 개츠비의 부모님은 가난한 농사꾼들이었음. 그래서 견디다 못하고 개츠비가 17세 때 호수가로 가출한 것임. 거기서 댄 코디를 만나 '개츠비'로 개명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함)

(앞뒤 설명 : 이상 개츠비의 <시간표 – 1906년 9월 12일>끝입니다.)

(개츠비 아버지의 대사→) “나도 우연히 발견한 책이올시다.”라며 노인장이 말씀하셨다. “한번 보시구려, 이젠 내 말 뜻(개츠비가 비범한 아이였다)을 알 것 같지 않소?”

“네. 그러네요.”

“지미(개츠비의 이름인 '제임스'를 귀엽게 부른 이름이 '지미'임)는 남들보다 앞서 갈 수밖에 없었던 놈이요. 이런 유의 자기 다짐이나 결심들을 항상 적어두고 다녔을 정도니. 그 녀석이 자기 마음을 북돋으려고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눈치 채셨소? 그것과 관련해선 정말이지 대단한 놈이었지. 한번은 나(아버지)보고 돼지처럼 밥을 먹는다고 말하기까지 했었지, 물론 그 바람에 나한테서 죽도록 두들겨 맞기도 했었지만 말이오.”

그(개츠비의 아버지)는 그 책을 덮기가 굉장히 망설여지는지 목록들을 하나씩 읽어나간 다음 간절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아마도 내가 내 수첩을 꺼내 그 목록 표를 받아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내 것으로 활용해보길 바란 것 같았다.

오후 3시가 약간 못 돼서 루터 교회의 목사님이 ‘플러싱’(미국 ‘뉴욕 주’의 도시이름. 플러싱이란 “물로 씻는다”는 뜻임. 자동차에 치어 숨을 거둔 윌슨 부인을 태우고 구급차가 달려 간 곳도 ‘플러싱’임)에서 도착하셨다. (참고1 : 개츠비는 ‘세인트 올라프 대학’(미국사립대학)이라는 루터 교회의 작은 대학을 2주일가량 다니다 그만 둔 적이 있었음) (참고2 : 루터는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사람. 1517년 독일인)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플러싱’(=뉴욕 동쪽=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차량은 더 도착하지 않는지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는데, 장례식 손님들이 왔으면 하는 바람은 개츠비의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하셨다(원문→개츠비의 아버님도 창밖을 보셨다).

시간이 지나 가사도우미들도 집안으로 들어오고 복도에 줄지어 서서 기다리고 있자, 개츠비의 아버님은 걱정스레 눈을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걱정돼 불안하다는 말투로 아버님께서 비에 대해 말씀하셨다.

“항상 비가 말썽이지.”

우리가 마냥 기다리고만 있자, 목사님께서 몇 차례 자신의 시계를 들여다보며 눈치를 주셨다.

그래서 내(30세)가 목사님 곁으로 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으니 30분만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이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후 5시쯤에, 우리가 나눠 탄 3대의 차량 행렬은 공동묘지에 도착해 두꺼운 가랑비를 맞으며 공동묘지 정문 옆에 멈추었다.

맨 앞의 자동차가 영구차(개츠비의 시신)였는데 끔찍이도 검정색인 게 비에 젖기까지 했다.

중간에 있던 리무진(고급차)엔 개츠 씨(개츠비의 아버지. 개츠비의 본명은 ‘제임스 개츠’임)와, 목사님과, 그리고 내(30세)가 타고 있었다.

그리고 약간 뒤엔 4명 내지는 5명 정도의 가사도우미들과 ‘웨스트 에그 출신 우편물 집배원’이 개츠비 소유의 ‘스테이션 왜건’(=자동차 겸 화물차. 사진 링크 ▶ <http://me2.do/5YuPw8dW> , 검색일자 : 2015-7-10. 파티가 열릴 때면 역에서 개츠비의 집까지 손님들을 나르던 자동차들 중 하나)에 탔다. 그들 모두(가사도우미들과 집배원)는 비에 흠뻑 젖었다.(←아마도 이 ‘스테이션 왜건’이라는 자동차엔 지붕이 없었나 보네요.)

~

그때 느닷없이 자동차 한 대가 “끼익!”하고 멈춰서더니 누군가가 물에 잠긴 땅바닥 위로 “침범 침범”소리를 내며 급하게 우리 뒤로 따라 붙는 소리를 듣고, 우린 공동묘지 정문을 통과할 때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나(30세)는 뒤돌아보았다.

그는 올빼미 안경을 쓰고 있었던 중년 남성이었다.(3장 #23을 참조바람. <http://me2.do/F1JTJUk5> , 검색일자:2015-10-24) 언젠가 파티장에서 개츠비의 서고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보고서 경이로운 눈빛을 보내던 그였다. 그게 3개월 전 어느 밤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그 후(3개월 전 개츠비의 파티 장) 그(올빼미 안경을 쓴 중년의 뚱뚱한 남성, 3장 #23을 참조바람. <http://me2.do/F1JTJUk5> , 검색일자:2015-10-24)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번 장례식 일정에 대해서도 그가 어떻게 알고 찾아오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심지어 나는 그의 이름조차도 모른다.

비가 억수같이(세차게) 그의 두꺼운 안녕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안경을 벗더니 입고 있던 옷으로 물기를 닦아낸 다음, 개츠비의 무덤을 보호하고 있던 천을 걷어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 난 잠시 개츠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그는 이미 너무 멀리 있었다.

내가 매우 '분해'(분개)하지 않고서 기억할 수 있는 나머지만, 그냥 데이지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화 연락이나 화환을 보내오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다.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 “비 내리는 가운데 죽은 자여 복이 있도다.”라고 속삭였다. 그와 동시에 올빼미 안경을 낀 중년의 뚱뚱한 남성이 용감한 목소리로 “아멘(=그것에 동감이오),”이라고 화답했다(동조했다).

우린 빗줄기 사이로 뿔뿔이 흩어져 자동차들이 있는 데까지 내려갔다.

공동묘지 정문 옆에서 올빼미 안경을 쓴 그 뚱뚱한 중년의 남성이 내(30세)게 말했다.

“집(개츠비의 집)엔 들르지도 못했구먼.”라며 그가 언급했다.

“딴 사람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는걸요.”

“설마!”라며 그가 깜짝 놀라했다. “이런, 꽤심한! 그가 개최한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만 해도 수백 명은 족히 넘길 텐데.”

그(올빼미 안경을 쓴 뚱뚱한 중년의 남성)가 자신의 안경을 벗더니 입고 있던 옷으로 다시 안경 바깥쪽과 안쪽의 물기를 닦았다.

“불쌍한 새끼(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은 개츠비를 말함),”라며 그가 말했다.

내 가장 생생한 기억들 중 하나는, 크리스마스에 사립 고등학교와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교에서 미국서부(고향)로 돌아오던 날들에 대한 기억이다.

시카고(미국 북서부 도시. 5대호가 있는 곳임. 아래 구글 지도 참조)보다 훨씬 멀찍이 가야하는 녀석들은 12월의 어느 저녁 6시에 오래되어 어두운 ‘유니언 승객 터미널’(=합동역=‘버스역+철도역’. 원문→유니언 스테이션)에 몇몇 시카고 친구 녀석들과 함께 모이곤 했더랬다.

그들은 벌써부터 방학의 흥겨움에 흠뻑 취해 성마른(=때 이른) “굿바이(잘 가~)” 인사말을 나누고 있었더랬다.

▼ 구글 지도 참조

검색어 ‘시카고’(=일리노이 주=지도에 있는 녹색단추)

지금도 기억하는 것들이 있다.

이곳저곳 여학교에서 귀가하고 있던 여학생들의 모피코트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오랜 지인이 눈에 띄면 다가가 추워서 뽀뽀 얼 것 같은 숨길을 뿜어대며 나누던 재잘거림들, 그리고 서로 머리 위로 두 손 가득 흔들어보이던 일,

그리고 서로 자기가 받은 초대장들을 자랑하던 일,

“너 ‘오드웨이’(미국 마을 이름을 사람이름으로 차용한 경우) 네 집에 갈 거야?”

“그럼 넌 ‘허시’(사람이름) 네 집에 갈 거니?”

“술츠(사람이름) 네 집엔 뭘 일이 있더라도 가야지 않겠어?”

그리고 장갑 낀 우리들의 두 손에 꼬옥 쥐어져 있던 기다란 초록색 기차표들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구 옆 선로(기차길)들 위에 마치 자기(열차) 자신들이 크리스마스인양 한껏 기분이 우쭐해져 있던 시카고(미국 북부. 일리노이 주) 철도회사, 밀워키(미국 북부. 위스콘신 주) 철도회사 그리고 세인트폴(미국 북부. 미네소타 주) 철도회사 소속의 ‘뭔가 뒤가 구린 듯한’(어두운) 노란색 열차차량들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기차가 출발해 겨울밤으로 들어서면 우리의 눈(보는 눈)같이 생긴 진짜 눈(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우리 창가 양옆으로 짙 펼쳐져 드러눕기 시작한다.

위스콘신(미국북부.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의 작은 역들엔 조명이 어둑어둑했고 우리 그 역들을 옆으로 지나쳐간다. 그럼 갑자기 대기 중엔 살을 찌르는 매서운 쓰라림들이 가득 찬다.

저녁식사 후, 차가운 통로(기차 통로)를 지나 자리로 돌아오는 도중 공기 중에 깃든 매서운 쓰라림을 우린 배에 힘까지 주어가며 깊게 들이마신다.

우리가 소리 소문도 없이 다시 그 속(낮선 이국의 정취가 느껴지는 위스콘신의 공기)에 녹아 없어지기 전(잠들기 전)의 낮선 1시간 동안 우린 이 낮선 고장과 하나과 되었음을 철저히 깨닫는다.

그것이 바로 내 고향인 (미국)중서부 지방이었다.

‘밀밭이나 대초원 또는 이젠 사라져버린 스웨덴 사람들의 마을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가슴 떨리게 하는 내 청춘 시절에 대한 귀환(=돌아가는) 열차요, 서리(=잔 얼음) 내린 어둠 속
에 홀로 서 있는 거리의 등불들이 있고 썰매의 방울들이 있는 곳,

호랑가시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 장식용 화환(둥근 장식들)들이 불 켜진 창문을 통해 거리의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위로 자신의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내 고향인 (미국)중서부 지방이었다.

나는 그 삶의 일부였다. 그런 긴 겨울에 감정을 담아 약간은 숙언 해지기도 하고, 수십 년이 지
났음에도 여전히 가문의 이름(=성씨)이 주소지로 통하는 도시 속에서 ‘캐러웨이(성씨) 가(=집)’로 자라온
것에 대해 은근 만족감이 드는 곳, 나는 바로 그 삶의 일부였다.

나는 이제 알았다. 이것이(개츠비의 이야기) 서부(미국서부)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결국 톰(30세 남. 바람을 피운 남편. 데이지의 남편)과 개츠비(31세 남. 남주인공), 그리고 데이지(23세 여. 톰의 아내이자 개츠비의 연인)와 조단(21세 여. 프로여자골퍼선수. 닉 캐러웨이의 여친) 그리고 나(30세 남. 이름이 ‘닉 캐러웨이’), 이 모두가 (미국)서부지방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마도 (미국)동부의 삶에 미묘하게 적응할 수 없었다는 공통적인 약간의 결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심지어 (미국)동부가 나를 가장 흥분되게 했을 때에 조차도, 심지어 오하이오 강(미국 중동부의 강. 미시시피 강과 만남.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을 넘어서 따분하고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며 확장되어 온 도회지(도시)들보다 (미국)동부의 도회지(도시)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내가 뼈저리게 깨닫게 된 때에 조차도, (원문에 있음→)— 이는 (미국)서부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뺀 타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짜증날 정도의 질문공세가 끝없이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 설령 그렇더라도(아무리 동부가 더 좋아 보이더라도) 내게 있어 (미국)동부는 매번 뒤틀린 성질을 가진 듯이 보였다.

특히, 웨스트 에그(개츠비의 집이자 닉 캐러웨이의 집이 있는 부자 동네)는 내 심히 이상야릇한 꿈들 속에서도 여태껏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난(나는) '엘 그레코'(꿈 속 같이 이상야릇한 그림'도' 많이 그린 16세기 스페인 화가. 1541-1614년)가 그린 야경(밤의 경치. 이런 느낌의 그림 ▶ <http://me2.do/5oA16Xuf> , 검색일자:2015-10-26)을 바라보듯 웨스트 에그(개츠비의 집)를 바라보곤 한다.

(아래의 글은, '엘 그레코'의 그림 설명이자 '닉 캐러웨이' 자신의 꿈속 풍경 묘사임)

전통적이고 동시에 기괴한(이상한) 모양을 한 100채의 집들이, 흐릿하게 솟아 있는 '하늘'과 특별함을 부여하는 빛을 내뿜고 있지 않은 '달' 아래 웅크리고 있는 그림.

앞쪽에는, 야회복(밤 모임에 입는 옷. 이브닝드레스 같은 거)을 입은 4명의 근엄한 남자들이, 흰색 이브닝드레스를 입은 채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여성을 들것 하나에 실고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그림.

한쪽 옆으로 빠져나와 달랑거리고 있는 그 여인의 손에, 갖은 보석들이 사늘히 광채를 뽐고 있는 그림.

(이건 닉 캐러웨이의 꿈 속 묘사→) 근엄한 자세로 그 남자들이 들것을 들고 어느 집에 들어서지만..., 그건 잘못 짚은 집이다.

하지만 아무도 들것에 탄 그 여인의 이름을 모른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표하지 않는다.

개츠비의 죽음 이후, (미국)동부는 이와 같이 내 판단력이 바로 잡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일그러진 채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나뭇잎들이 얽은 청색을 대기 중에 내뿜고, 그리고 빨랫줄에 걸려 있는 축축한 세탁물들이 바람에 날리는 때(가을)가 왔을 때, 난 고향(미국서부)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떠나기 전에 일단 내가 결말짓고 가야할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마도 더 좋을지도 모를 골치 아프고 불유쾌한 문제였다.

하지만 정리해놓고 떠나고 싶었다.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다. 친절하지만 냉담한 저 바다가 내 찌꺼기를 완전히 없애버려 주리라 믿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나는 조단 베이커(21세 여. 닉 캐러웨이의 전 여친. 프로 여자골퍼 선수)를 만났다. 우리 모두에게 벌어졌었던 일들(자동차 사고)에 대해 그리고 그 후 내게 벌어졌었던 일들(개츠비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루지 않고 주변적인 것들만 대화에 올렸다.

그녀(21세 여. 이름이 '조단 베이커')는 쥐 죽은 듯 조용히 큰 의자에 앉은 채 내 말을 듣고 있었다.

She was dressed to play golf, and I remember thinking she looked like a good illustration, her chin raised a little jauntily, her hair the color of an autumn leaf, her face the same brown tint as the fingerless glove on her knee. When I had finished she told me without comment that she was engaged to another man. I doubted that, though there were several she could have married at a nod of her head, but I pretended to be surprised. For just a minute I wondered if I wasn't making a mistake, then I thought it all over again quickly and got up to say good-bye.

그녀(21세. 조단 베이커. 프로 여자골퍼선수)는 골퍼(운동) 칠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녀가 마치 멋진 삽화(그림)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명랑하게 보이려는 듯 약간 치켜 올린 그녀의 턱과, 가을 낙엽 같은 그녀의 머릿결 색상과, 그녀의 무릎 위에 있던 '손가락이 없는 장갑'만큼이나 얇은 갈색 칠을 한 것 같은 그녀의 그을린 얼굴 이 모두가 나로 하여금 그녀가 멋진 삽화(그림)처럼 보인다고 생각 들게 했던 기억이 있다.

내 말이 끝났을 때 그녀가 다짜고짜(바로) 이렇게 말했다.

“나 딴 남자랑 약혼했어.”

나는 그 말이 의심스러웠다. 물론 그녀의 고개 끄떡임(승낙) 한 번에 결혼하겠다는 남자들이 수두룩했겠지만..., 어쨌든 난 그 말에 놀란 척 연기했다.

그 잠깐 동안 나는,

‘내가 지금 실수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를 재빨리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봤다.
그런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며,
“굿바이(잘 있어).”라고 말해주었다.

(시간적 배경 : 19‘22’년 어느 가을의 뉴욕 시내. 이 소설이 출간된 해는 19‘25’년임)

“Nevertheless you did throw me over,” said Jordan suddenly. “You threw me over on the telephone. I don’t give a damn about you now, but it was a new experience for me, and I felt a little dizzy for a while.”

“어쨌든 니가 날 찬 거야.”라며 조단(조단 베이커. 21세 여. 프로 여자골퍼선수)이 불쑥 말했다.
“지난번에 전화로 얘기 나누다 니가 날 찬 거라고. 이제 당신에 대해선 털끝만한 관심도 없어, 새로운 경험(연애경험)이었어, 잠시나마 머리에 약간의 현기증을 느낄 정도였으니까.”

We shook hands.

“Oh, and do you remember.” — she added — —” a conversation we had once about driving a car?”

“Why — not exactly.”

우린 서로 악수를 나누었다.

(조단 베이커의 질문→) “뭐가 이래, 그래 기억나.(←마침표로 끝나는 의문문임)”

...그녀(조단 베이커)가 덧붙였다....

(조단 베이커의 대사→)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에 관해 우리가 예전에(데이트 도중에) 나누었던 대화 말이야.”

(닉 캐러웨이의 대사→) “물론... 확실히는 아니지만.”

(21세 여. 조단 베이크의 막말 대사→) “서투른 운전자(조단 베이커)는 또 다른 서투른 운전사를 만날 때까지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니가 그랬지? 그래, 난 그 또 다른 서툰 운전자를 만났던 거야, 그렇지 않아(맞지?)? 그런 만큼 사람을 잘못 본 내 탓도 커. (←앞의 문장)이건 진심이야. 난, 니가 그래도 일마의 정직함은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솔직한 사람인 줄 알았지. 그게 니 은밀한 자존심일거라 생각했으니까.”

(닉 캐러웨이의 대사→) “난 서른이야.”라며 내(30세)가 말했다. “스스로에게 거짓을 말하고 그 걸(거짓)을 명예라 부를 나이에서 다섯 살은 더 먹었다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주 화가 나 있었다.

분노, 그래 분노다. 그건 반쯤은 그녀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 분노였다. 그리고 엄청나게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왔다.

(아래부터가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읽고 나면 나중에 많이 기억이 나는 장면입니다. 그럼 즐독하세요~)

‘늦은 10월(1922년 10월)’의 ‘어느 날’ 오후에 난 ‘툼 뷰캐넌’(30세 남. 데이지의 근육질 남편이자 바람을 피운 남편임)을 만났다.

그는 뉴욕 5번가(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를 따라 내 앞쪽에서 민첩하고도 호전적인(공격적인) 자세로 걸어가고 있었다.

몸에서 약간 밖으로 내밀어진 그의 두 손은 마치 어떤 간섭이든 싸워 물리칠 태세였으며, 날쌔게 이리 저리 움직이고 있는 그의 고개는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그의 두 눈에 완벽히 적응하고 있었다.

그를 앞지르다 마주치지 않으려고 내 발걸음을 천천히 하려는 순간, 그가 멈춰서더니 어느 보석 가게 쇼윈도를 찌푸린 눈살(눈썹 사이의 주름)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불쑥 그가 나를 보더니 내 쪽으로 걸어와 자신의 손을 내뻗었다(내밀었다).

(아래에서 대화를 나누는 ‘닉 캐러웨이’와 ‘툼 뷰캐넌’은 예일 대학교 시절부터 친구입니다. 그런데 성격은 정반대임. 톰 뷰캐넌은 입이 아주 거친 사람입니다.)

(툼 뷰캐년의 대사→) “뭐야, 닉(=이름. 닉 캐러웨이)? 이젠 나랑 악수도 하기 싫다 이건가?”

“그래. 내가 자넬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는가.”

“자네 미쳤군, 닉.”라며 그가 빠르게 말을 했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자네한테 뭘 문제가 있는지는 몰랐는걸.”

“툼(=이름),”라며 내가 물었다. “그날 오후(월슨이 총으로 개츠비를 쏜 날)에 월슨(개츠비를 총으로 쏜 차량 정비소 주인이자. 월슨 부인의 남편. 월슨 부인은 톼과 바람을 피웠는데 이것을 월슨이 오해해 개츠비가 월슨 부인과 바람을 피우다 사이가 틀어져 차량으로 치어죽인 거로 오해해서 벌어진 일이었음)에게 뭐라 말한 건가?”

그는 내 말에 깜짝 놀라 짝소리도 못했다.

그 모습을 보자 그 실종된 시간(경찰 조사 결과 2시간 30분 동안 월슨의 행적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느닷없이 거리로 다시 나타나 “개츠비의 저택이 어디요?”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한 시간)에 대한 내 짐작이 맞았음을 눈치 챘다.

그를 외면하고 지나쳐버리려는데 그가 내 뒤로 한 발짝 다가오더니 내 팔을 꼭 움켜잡았다.

“난 그에게 사실을 말한 것뿐이네,”라며 그(30세 남. 톰 뷰캐넌)가 말했다.

(톰의 대사 시작→) “우리(30세의 톰과 23세의 데이지. 부부임)가 막 떠나려던 찰나에 그(개츠비에게 총을 쏜 월슨)가 현관에 나타났단 말이야. 난 가사도우미를 보내 우리가 없다는 말을 전했는데 그가 막무가내로 2층까지 밀고 올라왔네.

(읽기 쉽게 단락을 한 번 나눔)

그자는 완전히 미친 상태였어. 만약 내가 그 차량(월슨의 부인을 치고도 멈추지 않고 도망가 버린 자동차. 데이지가 운전했음)의 원소유자(자동차 주인은 개츠비였지만 그날만은 운전을 데이지가 했음)를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죽였을 지도 몰라.

(읽기 쉽게 단락을 한 번 나눔)

집 안에 있는 내내 그(월슨)는 손을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있던 ‘회전식 연발 권총’ 위에 얹고 있었네....” (←톰의 대사 끝)

그가 반항적으로 얘기를 멈추었다(월슨이 총을 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개츠비의 집을 알려준 것이 마음에 걸려서 말하는 태도를 바꾼 것임).

(다시 톰의 대사 시작→) “내가 그(총을 든 월슨)에게 말을 해주었다고 한들 무슨 상관인가? 지갈 길 지(개츠비)가 간 거라고. 그(개츠비)가 데이지의 눈에 콩깍지를 씌웠듯이 자네 눈에도 콩깍지를 씌웠던 거네. 하지만 지독한 놈이었지. 마치 개를 치듯 머들(=‘월슨 부인’의 이름이 머들임)을 치고서도 자동차를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을 정도니.” (←톰의 대사 끝)(데이지는 자신이 운전하다 머들을 친 거라고 톰에게 말하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을 제외하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 것도 없었다.(아무 말도 안 했다는 소리임)

“그래 난(툼 뷰캐넌) 뭐 괴로움을 안 느꼈을 것 같아? 여길(자기 자신) 보라고, 내가 그 아파트(툼 이 월슨 부인과 한집 살림을 하던 아파트. 2장 #20 발췌 <아파트는 맨 꼭대기 층에 있었다. 비좁은 거실이 하나 있었고, 조그마한 식당 방 하나와, 작은 침실 하나, 그리고 욕실 하나가 딸린 아파트였다.>2장 #20 링크 ▶ <http://me2.do/5KTkzg9z> , 검색일자:2015-10-28)를 정리하러(팔아치우러) 갔을 때, 식기대(=찬장=원문은 ‘사이드보드’) 위에 상자 한 가득 놓여 있는 그 빌어먹을 ‘강아지 비스킷’(사료)들을 보고는, 주저앉아 내가 얼마나 애 새끼처럼 울었는지 알아. 하느님께 맹세코! 너무도 끔찍했어...”

나(30세)는 그(30세. 톼 뷰캐넌)를 용서할 수도 그렇다고 좋아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전적으로 타당하게 보이는 모양이었다.

모두 다 아주 경솔하고 하나 같이 혼란스러웠다.

툼(30세 남편)과 데이지(23세 아내), 그들은 정말 부주의한 사람들이었다.

그들(툼과 데이지)은 사물이든 사람이든 있는 대로 다 때려 부수고는 자신들의 재산 뒤로 아님 자신들의 대단한 부주의함 뒤로 아님 자신들을 이어주는(결속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뒤로 숨어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질러놓은 쓰레기 더미들을 청소하도록 시켰던 것이다....

나(30세 남)는 그(30세. 톰 뷰캐넌)와 악수를 나눴다. 내가 악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어리석게 여겨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건 뭐 철없는 어린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한 기분이 갑자기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그(톰 뷰캐넌)는 진주 목걸이 하나를 구입하러... 아니면 ‘커프스’(=소맷부리=긴 장갑의 손목 윗부분) 단추 한 쌍만 구입하러... 그 보석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영원토록 내 편협한 결벽증으로부터 벗어났다.

내가 떠나올 때 개츠비(31세에 죽음)의 집은 여전히 비워있었다.

그의 잔디밭에 있던 잔디들은 이제 내 집 정원에 있는 (정돈 안 된) 잔디만큼이나 자라 있었다.

마을 택시 운전자들 중에서, 개츠비의 저택 입구 옆을 지날 때면 반드시 1분 동안이라도 차를 한 번 세웠다가 저택 안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다음에서야 택시 요금을 받는 택시 운전사가 한 명 있었다.

아마도 그 택시 운전사는 ‘사고 당일 밤’(개츠비의 자동차를 데이지가 운전하다 월슨 부인을 친 사고당일)에 데이지(23세 여)와 개츠비(31세 남)를 태우고서 ‘이스트 에그’(동쪽 달걀. 데이지의 집이 있는 동네. 기존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까지 갔었던 택시 운전사일수도 있었다.

그리고 스토리도 이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몽땅 바꾸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 애길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기차역에서 하차할 땐 그를 피해 다녔다.

개츠비(31세에 죽음)가 주최한 눈부시도록 휘황찬란했었던(번쩍이는) 파티들이 내겐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정원(파티장)에서는 어렴풋하게나마 그칠 새 없이 음악과 웃음소리들 그리고 그의 집 앞 도로를 오고 내려가는 자동차 소리들이 생생하게 들려왔기 때문에, 난(미국 중서부가 고향임) 내 토요일 밤들을 뉴욕(미국동부)에 가서 보냈다.

어느 날 밤 난 거기서(개츠비의 저택)나는 실제 자동차 소리를 들었다.

그 자동차가 '정면 입구 계단'(반원형 계단이 양쪽에 붙은 모양 상상바람)에 헤드라이트(자동차 앞 조명)를 비추고 멈춰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누구인지 더 살펴보진 않았다.

아마도 그동안 지구 반대쪽 편으로 떠나 있었다가 이 파티가 영원히 끝을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채 인지하지 못한 마지막 파티손님일 것이다.

(닉 캐러웨이의 집은 개츠비 집 옆인 '웨스트 에그'입니다. 개츠비가 죽은 후엔 토요일이면 뉴욕 시내로 나가 있었는데, 고향인 미국중서부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밤에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짐을 마지막으로 챙기고 바로 옆집인 개츠비의 저택을 둘러보는 것임)

뉴욕에서의 마지막 밤에, 여행 가방을 모두 싸고 그동안 타고 다녔던 자동차를 식료품 상인에게 팔아치운 후, 나는 개츠비의 저택으로 건너가(닉 캐러웨이 집의 작은 잔디밭의 울타리만 살짝 넘어가면 바로 개츠비의 저택임) 한(1) 저택의 비논리적인 쇠락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았다.

하얀 계단들 위엔 추잡한 욕설 하나가 달빛에 유난히 두드러져 보이고 있었는데, 어떤 소년이 벽돌 조각으로 휘갈겨 쓴 낙서였다. 신고 있던 구두를 굽는 소리가 나게 질질 끌어가며 계단에 있던 그 욕설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나서 해변 아래로 내려가 이리저리 천천히 거닐다 모래사장 위에 손발을 짚 뺨고 드러누웠다.

해변의 큰 별장들은 이제 대부분 폐장된(문이 닫힌) 상태였고, 롱 아일랜드 해협 맞은편에서 아련히 이동하고 있는 ‘페리보트’(나룻배. 페리보트 사진링크 ▶ <http://me2.do/5Qqob87Y> , 검색일자:2015-10-29)의 어렴풋한 백열등을 제외하곤 근처에서 어떤 불빛도 찾아볼 순 없었다.

그리고 달이 좀 더 높이 떠올라 그 외의 별 시답지 않은 가옥들이 차츰 녹아내리기 시작하자 난 이곳(=‘웨스트 에그’=‘서쪽 달걀’=‘개츠비의 저택 앞 해변 가’)이 한때는 네덜란드(유럽 국가) 선원들의 두 눈에 꽃으로 뒤덮인 고대의 섬으로 보였다는 것을 점차 알아차리게 되었다. 공기 맑은 신세계(아메리카 대륙)의 싱싱하고 푸른 가슴 말이다.

이 섬의 사라진 나무들, 개츠비의 저택에 자리를 내어준 그 나무들은 원래 인류의 모든 꿈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최후의 꿈들을 낳은 목소리로 자극해주던 나무들이었다.

그 덧없고 매혹적인 한 순간 동안 인간(네덜란드 선원들)은 이 대륙(롱 아일랜드 섬, 아래의 구글 지도 참조)의 자태에 숨을 죽였을 것임이 틀림없다.

이해되지도 그렇다고 바라지도 않았던 미적 '관조'(=고요한 마음으로 봄) 상태에 넋 놓고 빠져들게 된 그들(네덜란드 선원들)은, 역사상 마지막으로 무엇인가에 경탄할 수 있었던 자신들의 능력에 상응하는(비례하는) 무언가와 서로 얼굴을 맞대게 되었을 것임이 틀림없다.(←내가 해석했지만 정말 넘 엉터리 해석.-_-;; 영어 공부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또 깨닫는 중임. 어이구.-_-;; 내 탓도 있지만 '미적 관조'라는 이상한 단어를 사용한 피츠제럴드에게도 문제가 있음.)

(지도 참조 : 아래는 소설 속 배경입니다.)

나(30세. 이름이 '닉 캐러웨이')는 구시대의 잊힌 세계(네덜란드 선원들이 발견했던 롱 아일랜드 섬과 개츠비의 저택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롱 아일랜드 섬의 나무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거기 (개츠비 저택 앞의 해변)에 앉아, 개츠비(31세)가 (해협 맞은 편) 부두(해안에 배 대는 곳) 끝에서 데이지 (23세 여) 네(=집) 초록색 조명을 처음으로 알아보곤 얼마나 경이로워(놀라워)했을까를 떠올려보았다.

개츠비는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이 푸른 잔디밭(=바다=롱 아일랜드 해협의 '맨하셋 만'. 맨하셋 만 지도는 아래 구글 지도 참조바람)에 다다랐던 것이며, 이제 그 꿈(해외파병과 가난 때문에 헤어져야만 했던 첫사랑 데이지를 다시 만나 젊은 날의 자신의 열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너무도 그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았을 것이며 그래서 손만 내뻗으면 절대 실패할 일은 없을 것만 같았으리라.

하지만 그는 눈치 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 대상(데이지)이 벌써 자기 뒤쪽에 가 있었음을. 어두운 밤하늘 아래(1918년을 말함), 공화국(제1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다시 평화를 되찾아 군인이 예전처럼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게 된 미국)의 시커먼 들판들(제1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수많은 '전투'들을 말함)이 도도히 밀려오고 있는 도시(뉴욕) 너머, 저 더 넓고 어두컴컴한 어딘가 뒤에 그 대상이 가 있음을 그는 눈치 채지 못했던 것이다.(데이지가 돈 많은 톰과 결혼해버리고 어쨌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는 얘
기죠)

(읽으실 때 ‘ (←괄호→) ’ 안의 글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츠비(31세에 총에 맞아 죽음)는 그 ‘초록색 조명’(부연설명 : 31세의 개츠비 자신이 그런 것처럼, 23세의 데이지에게도 18세 때의 순수하고 아련한 데이지가 존재해 줄 것이라 믿었는데 그게 다 허상이었다는 얘기임. 이 소설의 결론임. 개츠비가 본 초록색 조명은 허상이었음. 즉 데이지는 개츠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임)이 존재함을 믿었던 것이다.

(다시 본문 해석 계속)

해(1년 2년 할 때의 ‘해’)가 갈수록 우리(소설 속 모든 등장인물들) 앞에서 물러나고(후퇴하고) 있는 오르가슴의(황홀한) 미래(첫사랑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를 개츠비는 믿었던 것이다.

(실제) 그것(=황홀한 미래=첫사랑의 착각)이 우리(개츠비와 닉 캐러웨이 그리고 조단 베이커와 톰과 데이지 등 소설 속 모든 주인공들)를 교묘히 피해갔지만, 문제 될 것 없었다 — 내일 우린 더 빨리 달릴 것이며, 더욱 더 멀리 우리의 두 팔을 내 뻗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느 날엔가는 화창하고 맑은 아침이 오리라...

그런 식으로 우린 흐름(강의 물살)을 거슬러 나아가는 보트(작은 배)들 마냥, 쉴 새 없이 먼 과거로 물러나면서도(후퇴하면서도) 오늘을 두드리는 것이다. (←해석 나쁘진 않죠? 여기까지가 제 영어 실력의 한계임. 넘 나쁘게만 생각지 말아주세요~ ^0^ 이상,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인 19'2'5년에 나온 미국소설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의 해석 모두 끝이었습니다.)

끝